

통권 제32호 | 2017

횡성문화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재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9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황성문화원장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른두 번째 향토지인 ‘황성문화’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찬 향토지가 발간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장에도 아득한 옛날부터 온갖 선대들이 치열하게 이 땅을 지키고 가꾸며 살다간 삶의 흔적들이 오랜 세월만큼 수없이 겹쳐져 곳곳에 묻혀있습니다. 관심밖에 밀려나 없어져버릴 향토사와 삶의 이야기들이 재조명되어 ‘황성문화’에 소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문화원에서는 이러한 가치 있는 향토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원이 지향하여야 할 역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올해 문화학교운영(12개 분야), 관·내외 문화유적답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장의 유적 탐방, 향토문화 보존 전승 및 향토사 연구, 전통문화 체험학습, 어르신 노래자랑, 국악대공연 등 바쁜 한 해를 보냈으며 특히 공모사업에 의한 ‘조선시대 명재상 황성인 고형산’, 황성군 지원 사업에 의한 ‘황성의 의병’, ‘황성3·1운동’ 등 3권의 향토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큰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27년간의 정들었던 낡은 문화원을 떠나 신축된 새롭고 현대화 된 문화원으로 이전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지어진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함은 시대적 사명이라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병근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으며 올 한해도 성원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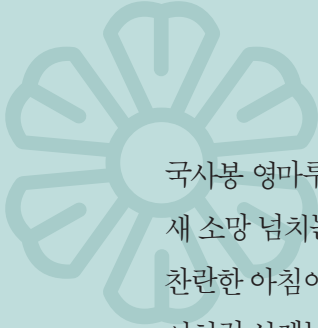
황성문화원장 박 순 업



미래를 꽃피울 횡성 문화, 그 아름다운 도약(跳躍)을 위하여

- 횡성문화원 새 청사 건립 축시

김 성 수 시인 (문화원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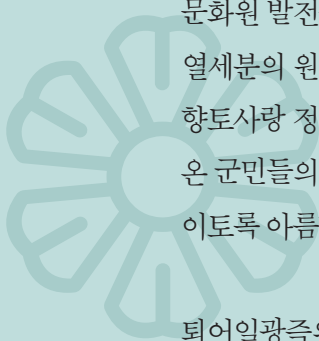


국사봉 영마루에 해가 솟으면
새 소망 넘치는 횡성 들녘에는
찬란한 아침이 밝아온다
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리 횡성문화원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아름답게 도약하기 위하여
오랜 숙원이던 새로운 청사를
문화예술촌 단지에 건립하였다

일천여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칠백평의 이층 건물과
영화관 두 곳과 소 공연장
다섯 개의 문화교실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을 최첨단으로 완비한 꿈의 공간
문화의 새 터전을 마련한 것이니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원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열세분의 원장님들과 회원님들
향토사랑 정신으로 함께 노력한
온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리라

퇴어일광즉위역사(褪於日光卽爲歷史)요
염어월색즉위신화(染於月色卽爲神話)라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참다운 문화 정신이란
역사와 신화를 함께 숙성시켜
올곧은 겨레의 얼로 재창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횡성문화원은 지금껏 그렇게 일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이어가리라 굳게 믿는다

애국 애향의 고장 우리 횡성은
산천마다 골골마다
값지고 아름다운 문화가 숨쉬고 있다
문화는 우리 모두의 호흡이며 이상이리니
정겹고 따뜻한 인정의 토양 위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활짝 피워야 하리라
 앞내와 뒷내가 합수되는
 섬강 두물머리에
 천년의 길조(吉鳥) 백로가 날아오르듯
 이제 우리들도 마음을 모아
 새로운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함께 꿈꾸는 행복의 땅, 영원한 유토피아를 향해

더욱 더 힘차게 날아올라야 하리라
 미래를 꽃피울 횡성 문화
 그 아름다운 도약을 위하여

※ 退於日光即爲歷史... 작가 이병주 선생의 글 속에서 인용



金性洙 詩人

◎ 등단(登壇)

-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신춘평화문학상
- 월간문학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오름

◎ 문학상 수상

- 창주문학상, 치악예술상, 평화문학상, 원주향토문화상
- 이육사문학상, 강원문학상, 강원예술상, 강원도문화상
- 시조사랑문학상,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 저서

- 시가 흐르는 섬강 외 시집 15권
-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시작품 수록됨

◎ 강원문인협회 자문위원, 원주문인협회 고문

◎ 횡성문화원 회원

Contents

문화 비전 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축 시 | 미래를 꽃피울 횡성 문화, 그 아름다운 도약(跳躍)을 위하여
- 횡성문화원 새 청사 건립 축시 | 김 성 수

횡성문화원 건립현황

I. 향토문화의 연구 ▶ 013

- * 地理志 史料를 통한 橫城의 人文地理 | 진연호 ▶014
- * 봉복사, 강성순, 한상열 | 김동정 ▶062

II. 향토문화숨결 ▶ 081

- * 동양고전 심경 | 김인규 ▶082
- * 유교와 횡성향교 | 이병곤 ▶103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117

- * 횡성댁의 어제와 오늘 | 정재영 ▶118
- * 한얼문예박물관 | 박현숙 ▶144
- * 횡성의 벌레들 | 한상균 ▶150
- * 가천리노인회 짚풀공예 이야기 | 이영식 ▶215
- * 고향과 문학 | 김양수 ▶230
- * 재난구조를 위해 횡성에 등지를 틀다 | 조인식 ▶232

IV. 학습문화의 고찰 ▶ 237

- * 친구사이 애(愛) | 현원명 ▶238
- * 다도의 실제 | 최명규 ▶257

V. 문화유산을 찾아서 ▶ 265

- * 관내 문화유적지순례 답사기행문 | 민사고 3편, 횡성고 3편 ▶266
- * 선비의 고장 영주시 역사문화 탐방기 | 김준구 ▶279
- *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다녀오다 | 원재성 ▶292
- * 안동댐문화권 견학기행문 | 한아름 ▶298
- * 강화문화권 향토문화답사 기행문 | 원종춘 ▶311

VI. 문예마당 ▶ 317

- * [詩] 상수리의 사랑, 도토리의 헌신 | 진광수 ▶318
- * 나는 횡성군의 홍보대사입니다 | 김미애 ▶320
- * [동시] 어머니 | 송지연 ▶324
- * [산문] 사랑하는 어머니 | 나은지 ▶325
- * 시월 哀, 마당에서 | 김명숙 ▶326
- * [詩] 잠시 멈춤, 상념 | 김성숙 ▶330

VII. 문화원 소식 ▶ 333

- * 2017년 문화원 사업실적 ▶334

횡성문화원 건립



1. 건립배경 : 기존 문화원 청사가 노후하여 새 문화원을 신축 이전하게 됨
2. 기 공 식 : 2016년 7월 18일 (발주 : 횡성군)
3. 위 치 :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 3로 6
4. 규 모 : - 대지면적 3,477㎡ (1,050평), 연면적 2,253㎡ (681평),
- 건축면적 1,080㎡ (329평), 지 상 2층 · 지 하 1층
5. 사 업 비 : 8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5억원, 도비1.5억원, 군비 58.5억원)
6. 주요시설 : 지하 (도서열람실), 1층 : 발표회장 172석,
2층 : 사무국, 원장실, 회의실, 문화교실, 문화사랑방)
7. 이전연월일 : 2018년 1월 2일
8. 준 공 식 : 2018년 3월 중







I. 향토문화의 연구

- * 地理志 史料를 통한 橫城의 人文地理 | 진연호
- * 봉복사, 강성순, 한상열 | 김동정

地理志 史料를 통한 橫城의 人文地理



진연호 (陳演鎬)

I. 서론

한반도 중부 내륙에 위치한 횡성은 역사적으로 각 왕조의 각축장도 아니었던 곳으로 큰 변고와 변란이 없는 비교적 평온한 역사를 거쳐 왔다.

각 왕조의 교체시에든 빠르게 새로운 판도에 속했고 변방지역이 아니었으므로 호란과 왜란 등 국난(國亂)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희생이 없었다.

이러한 속에서 횡성은 내륙교통의 중심지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의 산업기반 속에서도 상업이 일찍이 발달하였고 주변의 동서와 남북의 문화를 빨리 접하고 받아들여 진취적이고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역적 기상은 일제 침략에 도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세게 항거하였다.

비교적 평온하고 큰 역사적 사건이 없었던 횡성의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의 귀중한 역사에 대해 그동안 많은 향토사학자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속속 발굴되고 정리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시일이 좀 더 지나면 자칫 영원히 묻히고 잊혀질 수 있었던 귀중한 지역의 역사들을 어렵게 찾아내어 장구한 횡성 역사의 공백을 하나하나 끼워가는 노력은 단순한 옛날이야기 거리가 아니라 현재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평가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다.

향토사는 지역의 눈으로 살펴 평가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중요하지도 않고 주목받지 못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지역에서 연연이 이어온 우리의 소중한 자취이고 흔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횡성에 대한 각 지리지에 나타난 기록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주목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들여 밝힐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려한다.

또한 미흡하고 미친한 식견이지만, 각 사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용 및 소개와 더불어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려 하며,

각 사료의 원문은 최대한 원본에 충실하게 옮겨 적으려 하였고,

국역은 필자의 견해보다 원문을 살리려 노력하였으며,

해설과 의견에서는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의견이 더하여 졌음을 밝히며,

아울러 국역과 해제의 미흡한 부분은 원문을 참조하기를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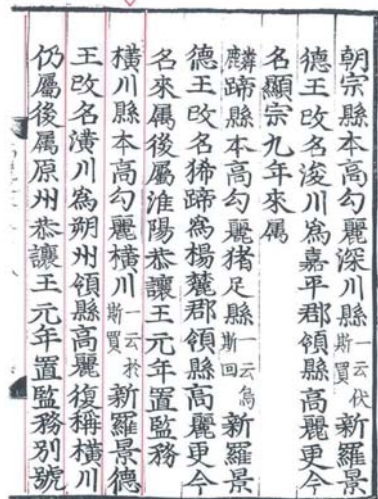
글을 시작하며, 역사라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부의 내용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필자의 일개 견해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란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향토사학자들의 꾸준한 연구 속에서 보완되고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출발하려 한다.

II. 본 론

1. 「高麗史」志 卷第十二

〈原文〉

橫川縣本高句麗橫川【一云於斯買】，新羅景德王，改名潢川，爲朔州領縣。高麗，復稱橫川，仍屬，後屬原州。恭讓王元年，置監務。別號花田。



〈國譯〉

횡천현(橫川縣)은 본래 고구려의 횡천(橫川)【어사매(於斯買)라고도 한다.】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 이름을 황천(潢川)으로 고쳐 삭주(朔州)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때에 다시 횡천(橫川)이라 불렀고, 그대로 소속시켰다가 뒤에 원주(原州)에 속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별호(別號)는 화전(花田)이다.

〈解說과 意見〉

① 횡성은 고구려시대에 횡천(橫川)이었으며, 또는 어사매(於斯買)라 불렸다. 먼저 ‘於斯買’는 삼국시대에 우리말을 한자의 음을 빌어 표기하던 방법인 이두(吏讀, 吏頭)식 표기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고어(古語)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한 지명 유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매(買)’, ‘미(米)’, ‘미(未)’ 등은 내(川)를 뜻함으로 ‘於斯買’의 ‘買’ 역시 내(川)을 뜻한다고 분수 있으며, ‘於斯’에서 ‘斯’는 당시 거의 묵음(默音)으로 후대 한글의 ‘반치음(△)’의 음가(音價)였다고 보면, ‘於斯’는 ‘엇’이 되며, 이는 ‘어긋나다’, ‘비끼다’의 뜻이 될 것이다. 이로서 ‘於斯買’는 ‘엇매’로 이는 ‘비껴 흐르는 내(川)’가 되어, 결론적으로 ‘於斯買’와 ‘橫川’은 같은 지명이 된다고 보겠다.

② 신라시대 九州五小京의 지방행정체제에서 경덕왕때 ‘황천(潢川)’으로 고쳐 삭주(朔州)¹⁾에 영현으로 삼았는데, 이 시기는 州·郡·縣의 명칭과 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시기임으로 이 시기에 ‘橫川’을 ‘潢川’으로 이름을 고쳤다는 것을 보아 ‘橫’의 오기(誤記)는 아닐 것이며, ‘潢’이 ‘웅덩이’, ‘물이 깊은 곳’을 뜻한다고 볼 때, 두 강이 합쳐지는 지형의 특성에 따른 지명으로 판단된다.

1)朔州는 지금의 춘천으로, 신라 경덕왕때朔州라 하였다가 후에光海州로 고치고, 고려 태조 23년에春州라 개칭함.

③고려때 다시 ‘橫川’으로 고치고 ‘그대로 소속 시켰다(仍屬)’의 기록에 대하여는, 고려시대에 五道兩界의 지방행정체계에서 횡성은 교주도(交州道)에 속하였으며, 교주도는 5개 屬郡과 20개 縣이 있었는데, 交州²⁾가 장양군(長楊郡), 금성군(金城郡)³⁾, 남곡현(嵐谷縣)⁴⁾, 통구현(通溝縣)⁵⁾, 기성현(岐城縣)⁶⁾, 화천현(和川縣)⁷⁾ 등 6개 군현을, 春州가 가평군(嘉平郡), 낭천군(狼川郡)⁸⁾, 기린현(基麟縣)⁹⁾, 조종현(朝宗縣)¹⁰⁾, 인제현(麟蹄縣), 횡천현(橫川縣), 홍천현(洪川縣), 문등현(文登縣)¹¹⁾, 방산현(方山縣), 서화현(瑞禾縣)¹²⁾, 양구현(楊溝縣) 등 11개 군현을, 東州¹³⁾가 금화군(金化郡), 삭녕현(朔寧縣)¹⁴⁾, 평강현(平康縣), 장주현(獐州縣)¹⁵⁾, 승령현(僧嶺縣)¹⁶⁾, 이천현(伊川縣), 안협현(安峽縣)¹⁷⁾, 동음현(洞陰縣)¹⁸⁾ 등 8개 군현을 관령(管領)하였으므로, 이를 볼 때 횡성은 교주도(交州道)의 춘주(春州)에 속하였으므로, 기록의 ‘朔州’는 ‘春州’로 보아야 옳은 것이며, 고려 전기에는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못하였으며, 횡성은 공양왕때에 이르러 비로서 감무(監務)를 두었으나, 감무는 지방행정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는 현령(縣令)과는 다른 제한적 감독권한만을 가진 지방관이다.

2) 交州는 강원도 회양 지역의 옛 지명

3) 金城은 강원도 김화군 금성면

4) 嵐谷은 강원도 회양군 남곡면

5) 通溝는 강원도 김화지역

6) 岐城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옛 지명

7) 和川은 강원도 회양군의 지역

8) 狼川은 강원도 화천

9) 基麟은 인제군 기린면 지역

10) 朝宗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11) 文登은 강원도 회양의 지역

12) 瑞禾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13) 東州는 강원도 철원

14) 朔寧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지역

15) 獐州는 경기도 연천 지역

16) 僧嶺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지역

17) 安峽은 경기도 이천군 안협면

18) 洞陰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이동면 지역

④별호 ‘화전(花田)’에 대하여,

고려 성종 10년(991)에 중국의 예를 따라 전국 州·郡·縣에 別號를 정하였는데, 이때 중국 송나라 태종의 연호(年號)인 순화(淳化)를 따라 이때 붙인 지역의 별호를 순화별호(淳化別號)라고 한다. 이때 새로이 별호를 정한 것에 대하여는 「高麗史」에서는 ‘成廟所定’라고 기록되었으며, 「朝鮮王朝實錄」에서는 ‘淳化所定’이라고 기록하였는데, 橫川의 별호 ‘花田’에 대하여는 이러한 표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순화별호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고려 성종대 이전부터 불리던 별호라고 판단된다.

별호는 지역의 문화와 지리적 특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의 별칭이라는 기능 뿐만 아니라 왕자나 공신에게 군호(君號, 封號라고도 함)를 내릴 때, 그 연고나 출신 지역, 식읍지(食邑地) 등의 별호또는 별칭(別稱)을 붙여 내렸다.

횡성 지역의 군호(君號)를 받은 예를 살펴 보면, 제주 高氏 화전군과의 派祖인 고려말 병부시랑(兵部侍郎)과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을 지낸 花田君 高仁庇가 갑천면 화전리 일대에 식읍지를 받아 세거하였으며, 고려 광종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던 조익(趙翌)은 橫川君의 군호를 받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강원도 지역 군호의 예는, 조선 제6대왕 단종이 폐위대어 군호를 魯山君이라 하였는데, ‘魯山’은 평창의 별호이며, 조선 제15대왕 光海君의 군호 ‘光海’는 춘천의 별칭이었다.

2. 「世宗實錄」地理志

〈原文〉

橫城：縣監一人。本高句麗橫川，【一云於斯買。】新羅改潢川，爲朔州領縣。高麗復稱橫川，仍爲春州任內，後屬原州。恭讓王元年己巳，始置監務，本朝因之。太宗十三年癸巳，例改爲縣監，十四年甲午，以橫川、洪川同韻，故稱橫城。別號花田。四境，東距江陵五十里，西南距原州西二十三里，南九里，北距洪川二十九里。戶三百十三，口五百九十五。軍丁，侍衛軍七十七，紅軍二十。土姓五，秋、高、趙、尹、黃；續姓二，金、【原州來。】朴。【密陽來，皆鄉吏。】人物，門下侍郎平章事文正公 趙冲，高麗高宗時人。厥土瘠，風氣寒，墾田二千七百三十七結。【水田十分之一少。】土宜 五穀，桑、麻、梨、栗、楮、漆。土貢，蜂蜜、黃蠟、松子、五倍子、朱土、眞茸、石茸、芝草、紫檀香、白檀香、狐皮、狸皮、兔、正鐵。藥材，五味子、人蔘、茯苓、秦艽、當歸、前胡、蓮子、白膠香、白芨、獺膽。德高山石城，在縣東北四十九里五十步。【周回五百六十八步五尺，有一溪長流不竭，又有軍倉五間、官廳二間。】驛四，烏原、安興。【古名安昌。】葛豐、蒼峯。

丁侍衛軍七十七，紅軍二十。土姓五，秋、高、趙、尹、黃；續姓二，金、【原州來。】朴。【密陽來，皆鄉吏。】人物，門下侍郎平章事文正公 趙冲，高麗高宗時人。厥土瘠，風氣寒，墾田二千七百三十七結。【水田十分之一少。】土宜 五穀，桑、麻、梨、栗、楮、漆。土貢，蜂蜜、黃蠟、松子、五倍子、朱土、眞茸、石茸、芝草、紫檀香、白檀香、狐皮、狸皮、兔、正鐵。藥材，五味子、人蔘、茯苓、秦艽、當歸、前胡、蓮子、白膠香、白芨、獺膽。德高山石城，在縣東北四十九里五十步。【周回五百六十八步五尺，有一溪長流不竭，又有軍倉五間、官廳二間。】驛四，烏原、安興。【古名安昌。】葛豐、蒼峯。

別號花田。四境，東距江陵五十里，西南距原州西二十三里，南九里，北距洪川二十九里。戶三百十三，口五百九十五。軍丁，侍衛軍七十七，紅軍二十。土姓五，秋、高、趙、尹、黃；續姓二，金、【原州來。】朴。【密陽來，皆鄉吏。】人物，門下侍郎平章事文正公 趙冲，高麗高宗時人。厥土瘠，風氣寒，墾田二千七百三十七結。【水田十分之一少。】土宜 五穀，桑、麻、梨、栗、楮、漆。土貢，蜂蜜、黃蠟、松子、五倍子、朱土、眞茸、石茸、芝草、紫檀香、白檀香、狐皮、狸皮、兔、正鐵。藥材，五味子、人蔘、茯苓、秦艽、當歸、前胡、蓮子、白膠香、白芨、獺膽。德高山石城，在縣東北四十九里五十步。【周回五百六十八步五尺，有一溪長流不竭，又有軍倉五間、官廳二間。】驛四，烏原、安興。【古名安昌。】葛豐、蒼峯。

〈國譯〉

횡성현(橫城縣). 감(監) 1인. 본래 고구려의 횡천(橫川)인데, 【어사매(於斯買)라고도 한다.】신라에서 황천(潢川)으로 고쳐서 삭주(朔州)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 다시 횡천이라 하여 그대로 춘주(春州) 임내로 하였다가, 뒤에 원주(原州)에 붙였고, 공양왕 원년 기사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 13년 계사(癸巳)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치고, 14년 갑오(甲午)에 횡천과 홍천(洪川)의 음이 비슷하므로 횡성으로 일컬었다. 별호는 화전(花田)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강릉(江陵)에 이르기 50리, 서남쪽은 원주(原州)에 이르는데, 서쪽에 23리, 남쪽이 9리이며, 북쪽으로 홍천(洪川)에 이르기 29리이다.

호수가 3백 13호요, 인구가 5백 95명이다. 군정¹⁹⁾은 시위군²⁰⁾이 77명이요, 장군²⁰⁾이 20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추(秋)·고(高)·조(趙)·윤(尹)·황(黃)이요, 속성(續姓)이 2이니, 김(金)【원주에서 왔다.】·박(朴)이다. 【밀양(密陽)에서 왔는데, 모두 향리(鄕吏)이다.】 인물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문정공(文正公) 조충(趙沖)이니, 고려 고종(高宗) 때 사람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찰다. 간전(墾田)이 2천 7백 37결(結)²²⁾이요, 【논이 10분의 1에 약하다.】 토의(土宜)²³⁾는 오곡과 뽕나무·삼·배·닥나무·찰이다.

토공²⁴⁾은 꿀·밀(蠶蠟)·잣·오미자·주토(朱土)·느타리·석이·지초·자단향·백단향·여우가죽·삼괭이가죽·토끼·시우쇠요, 약재는 오미자·인삼·복령·쥐꼬리망초뿌리(秦)·승검초뿌리·마디나물뿌리(前胡)·연밤·백교향(白膠香)·대왕풀(白芨)·담비쓸개이다.

덕고산 석성(德高山石城)이 현의 동북쪽 49리 50보(步)에 있다. 【둘레가 5백 68보 5척이며, 한 내가 있는데, 장류(長流)하여 마르지 아니한다. 또 군창(軍倉) 5칸과 관청(官廳) 2칸이 있다.】 역(驛)이 4이니, 오원(烏原)·안흥(安興)【옛 이름은 안창(安昌)이다.】·갈풍(葛亦)·창봉(蒼峯)이다.

19) 필자주) 軍丁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丁男) 중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에 종사하여야 하는 군적(軍籍)이 있는 지방의 장정

20) 侍衛軍은 중앙에 번(番)을 돌려 올라가야 하는 지방의 장정

21) 倉軍은 내륙에서는 포(浦)에 배치되던 군인으로 부차적으로는 조운(漕運)에 동원되고 물자를 채취해 상납하며, 둔전 경작 등에 동원되는 역(役)을 함.

22) 結은 조선시대 곡식 수확량과 전지 면적 및 조세 수취를 연결하여 파악하는 結算法의 단위로 화곡(禾穀) 1약(握)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結)이라 하고 1결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전지의 단위 면적 및 그러한 단위 면적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한 우리나라 특유의 법제 '고정된 지적의 단위가 아니라 수확의 표준과 수세의 표준을 나타내다 보니 지역과 토질에 따라 일정치가 않은 등 모순과 폐단을 가지고도 조선말까지 유지됨.

23) 土宜는 땅에서 나는 산물.

24) 土貢은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것

〈解説과 意見〉

①감(監) 1인에 대하여, 조선시대는 거의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縣)에는 규모를 고려하여 종5품 현령(縣令)과 종6품 현감(縣監)이 외관직으로 파견되었는데, 횡성의 수령은 현감이었다.

조선시대 강원도는 대도호부(大都護府)가 1, 목(牧)이 1, 도호부(都護府)가 4, 군(郡)이 7, 현(縣)이 11이었으며, 외관직 파견 내용을 보면, 강릉대도호부에는 정3품 大都護府使가, 원주목에는 정3품 牧使가 파견되었고, 회양, 삼척, 춘천, 양양의 도호부에는 종3품 都護府使가, 정선, 평창, 영월, 평해, 간성, 고성, 통천의 7개 郡에는 종4품 知郡事(郡守라고도 함)를, 울진현에는 4품이상의 知縣事를, 금성과 흡곡의 두 縣에는 종5품 縣令을, 그리고 횡성, 홍천, 김화, 평강, 이천, 낭천, 양구, 인제의 縣에는 종6품 縣監을 파견하였다.

②태종 14년(1414)에 ‘以橫川’ 洪川同韻, 故稱橫城’ 관련,

「世宗實錄」地理志에는 태종 14년(1414)에 “횡천과 홍천이 음이 비슷하여 ‘橫川’을 ‘橫城’으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太宗實錄」32권, 태종 16년(1416) 8월 10일 기록에는 “이조(吏曹)에서 소리가 서로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칭하여 군현(郡縣)의 칭호를 고치었다”고 하고, 이에 “청주(靑州)를 북청(北靑)이라 하고, 양주(襄州)를 양양(襄陽)이라 하고, 영산(寧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천안(天安)이라 하고, 보성(甫城)은 예전 이름 그대로 진보(眞寶)라 하고, 보천(甫川)은 예전 이름 그대로 예천(醴泉)이라 하고, 횡천(橫川)은 횡성(橫城)이라 하고, 보령(報令)은 보은(報恩)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⁵⁾

이에 대해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각각 앞의 고을들의 칭호 개칭 시기를 「태종실록」의 기록과 같이 태종 16년(1416)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유독 횡성의 개칭에 관하여 태종 14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25) 「太宗實錄」32卷, 太宗16年 8月10日 “改郡縣之號” 吏曹請改音韻相近各官之號, 乃以靑州爲北靑, 襄州爲襄陽, 寧山仍古號爲天安, 甫城仍古號爲眞寶, 甫川仍古號爲醴泉, 橫川爲橫城, 報令爲報恩

실제 태종 14년부터 태종 16년까지 「실록」에 ‘橫川’ 과 더불어 ‘橫城’ 이라는 지명이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태종 16년이후 세종 31년까지 30여년 동안에도 두 지명이 계속하여 혼용되어 사용된²⁶⁾ 것을 보면, 이전부터 계속되던 ‘橫川’ 과 인근 ‘洪川’ 의 혼란에 대하여, 최초 태종 14년(1414)에 지명을 개칭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橫城’ 이라는 지명이 태종 14년부터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으며, 그 이후 계속적인 혼란이 있어 태종 16년(1416)에 다시 다른 지역과 아울러 지명을 개칭하는 조치를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橫城’ 의 지명과 관련하여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지명에 ‘城’ 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城’ 字가 사용되는 지명은 대부분 城郭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것인데, 횡성에는 읍성(邑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소와 가까운 횡성읍 갈풍리에 작은 규모의 성(城)터와 비교적 치소와 먼 거리에 있는 德高山²⁷⁾ 石城과 운문산의 산성(山城) 등으로 橫城의 지명이 결정 되었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며, 흥천과의 음이 비슷하여 개칭하였다는 기록이외에 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③사방 경계에 대하여는 치소와 치소와의 거리가 아닌 횡성현의 치소로부터 그 지역의 경계까지의 거리이며, 조선시대 일반적인 도리식수(道里息數)²⁸⁾ 에 의해 그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④호수와 인구는 313호에 59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초기 인구는 16세 이상 60세이하의 남정(男丁)을 통계한 것이며, 또한 노비는 통계되지 않고 무적자(無籍者)와 유랑자도 많았다고 보여져 실제 거주 인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나, 기록상 313호에 대하여 1戶당 평균 6~7명의 가구원으로 추정하면

26) 필자주)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태종14년부터 태종16년까지는 橫川과 橫城이 같이 기록되었으며, 태종17년부터 태종18년까지는 橫城으로 기록되고, 세종 즉위년에는 다시 橫川으로 기록되었고, 세종1년 부터는 주로 橫城으로 기록하였으나, 세종6년과 세종18년에 기록에는 橫川으로, 세종 31년에는 橫川과 橫城이 같이 기록되고 있음.

27) 「세종실록」지리지에 德高山은 지금의 泰岐山

28) 필자주) 조선시대 거리측정법인 도리식수(道里息數)에 의하면, 1息은 30리, 1리는 사람의 두발이 모두 진행하였을 때 거리인 360步, 1步는 6尺(약1.5m)임으로 조선시대의 10리는 약5.4km, 1息은 약16.2km임.

인구는 2,000명 내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⑤병역의 의무가 있는 군정(軍丁)의 수는 총 97명으로 중앙군에 번(番)을 해야 하는 정군(正軍)이 77명, 나루 등 포(浦)에서 역(役)을 해야 하는 강군(缸軍)이 20명이었다.

⑥「세종실록」지리지에는 모든 성을 수록한 것이 아니고 사족(士族), 향리(鄉吏) 등 지역의 유력한 성씨를 토성(土姓)·내성(來姓)·망성(亡姓)·속성(續姓)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이는 토착세력과 군련 상태를 파악하여 지방통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횡성에 계속하여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추(秋)·고(高)·조(趙)·윤(尹)·황(黃)의 5개의 토성과 종전의 기록에는 없었으나 추가하여 김(金)·박(朴)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물로는 조충(趙冲)을 기록하고 있다.

⑦토질과 기후에 관하여는 ‘厥土瘠, 風氣寒’ 라 하여 ‘그 토지는 메마르고 기후는 차다’ 고 하고 있으며,

⑧ ‘墾田二千七百三十七結【水田十分之一少°】’ 개간한 땅이 2,737결(結)로 그 중 논은 10분의 1로 적다고 하고 있다.

조선시대 수확량에 따라 산정하는 결부법(結負法)에 따른 ‘1결(結)’은 성인 남성이 등짐으로 질수 있는 양을 1부(負)로 하여 100부(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자들의 많은 연구에도 1결의 면적에 대하여는 학설이 분분하지만 대략 1등전이 약 3,000평(坪), 2등전이 약 3,500평, 3등전이 4,200평, 4등전이 5,400평, 5등전이 약 7,500평, 6등전이 약 12,000평으로 보고 있다.

⑨지역에서 나는 산물과 공물로 바치던 특산물인 토의(土宜)와 토공(土貢)은 주로 임산물과 약재, 산짐승 등에 대해 주로 기록되어 있다.

⑩덕고산 석성(德高山石城)에 대한 기록을 보면, ‘현(縣)’의 동북쪽 49里50步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리는 사람의 두발이 모두 진행하였을 때 거리인 360步, 1步는 6尺(약1.5m), 그러므로 10리는 약5.4km에 해당하는 도리식수(道里息數)에 따라 보면, 현에서 약 26.5km 거리에 있으며, 둘레 568步5尺은 약 853.5m²⁹⁾가 된다. 태기산이 조선 후기까지는 덕고산으로 표기된 것과 위치에 대한 비정을 하면, 지금의 태기산성이 확실할 것이다.

다만, ‘내(溪)가 있는데 마르기 않고, 군창(軍倉) 5칸과 관청(官廳) 2칸이 있다’ 기록으로 보아 일정 수의 군사가 주둔하여 생활할 여건은 되었다고는 생각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을 것임으로 영동쪽에서 내륙쪽으로 넘어오는 분수령을 방비하기 위한 요새적 성격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⑪조선 초기 강원도에는 3개의 역로가 있었는데, 보안도(保安道)는 춘천-홍천-횡성-원주-강릉 방면과 원주-평창-정선-강릉 방면, 평창-영월-정선-강릉으로 연결되는 역로로 20개 역이 있었으며, 대창도(大昌道)는 강릉-평창-정선을 거치는 역로로 28개 역이 있었고, 평릉도(平陵道)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되는 역로로 9개 역이 있었다.

횡성의 오원(烏原)·안흥(安興)·갈풍(葛亦)·창봉(蒼峯)의 4개 역은 보안도에 속하였으며, 횡성의 역들은 특히 영동과 영서, 영서지역의 남북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보안도의 각 방면 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29) 필자주) 문화재 조사 실측결과 둘레는 약 1.8km라는 기록이 있음.

3. 「新增東國輿地勝覽」四十六卷

〈原文〉³⁰⁾

橫城縣. 東至江陵府界 六十八里 南至原州 十三里 西至同州界 四十二里 北至 洪川界 四十二里 距京都 二百五十里.

〔建置沿革〕 本高句麗橫川縣(一云於斯買) 新羅改橫川爲朔州領縣 高麗復稱橫川仍屬 後屬原州 恭讓元

山川馬山在縣北二里鎮山南山在縣南六里
 禿峴在縣東六十八里江陵府界檜垣在縣東三十六里德高山在縣東八十二里江陵府界鼎金山在縣東二十八里西川在縣西四里
 土產鐵出東西金採伊漆 紫檀香 安息香 五味子 紫草 人參 茯苓 石葦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城郭德高山城石築周三千六百五十三尺內有一井有軍倉今半頽落

橫城縣東至江陵府界六十八里南至原州十三里西至同州界四十二里北至洪川界四十二里距京都二百五十里
 建置沿革本高句麗橫川縣(一云於斯買)新羅改橫川爲朔州領縣高麗復稱橫川仍屬 後屬原州恭讓元年置監務本朝 太宗十三年例改爲縣監十四年以橫川洪川聲相近改今名官貢縣監 訓導各一人 郡名橫川 於斯買 潢川 花田 姓氏本縣秋高趙尹黃金京州朴密陽

年置監務 本朝太祖十三年例改爲縣監 十四年以橫川洪川聲相近 改令名

【官員】 縣監 訓導(各一人)

【郡名】 橫川 於斯買 潢川 花田

【姓氏】 本縣 秋高趙尹黃 金(原州) 朴(密陽)

【山川】 馬山(在縣北二里 鎮山) 南山(在縣南六里) 禿峴(在縣東六十八里 江陵府界) 檜垣(在縣東三十六里) 德高山(在縣東八十二里 江陵府界) 鼎金山(在縣東二十八里) 西川(在縣西四里)

【土產】 鐵(出縣西金掘伊) 漆 紫檀香 安息香 五味子 紫草 人參 茯苓 石葦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城郭】 德高山城(石築周三千六百五十三尺 內有一井 有軍倉 今半頽落)

【(新增)宮室】 東軒(洪貴達時 原濕行春馬首東 催呼田峻勸田功 今年南畝知多稼 昨夜禱禱雨我公)

【學校】 鄉校(在縣北三里)

【驛院】 烏原驛(在縣東三十五里) 安興驛(在縣東六十七里) 葛豐驛(在縣西六里) 蒼峯驛(在縣北四十里) 大悲院(在縣東三十里) 實美院(在縣東五十里) 弘安驛(在縣北二十里)

【佛宇】 法興寺 石泉寺(俱在南山) 開元寺(在鼎金山) 奉福寺(在德高山) 懷眞寺(在昭將山)

【祠廟】 社稷壇(在縣四) 文廟(在鄉校) 城隍祠³¹⁾ 厲壇(俱 在縣北)

【古跡】 豬村所(在縣東二十里) 楊等村處(在縣東南二十里) 脇村處(在縣東二十里)

【人物】 高麗 趙永仁(-省略-) 趙沖(-省略-) 趙季均(-省略-) 趙抃(-省略-)

本朝 趙晤(-省略-) 新增 高荊山(-省略-)

30) 필자주) 국립중앙도서관 원본 복사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31) 城隍祠는 지역의 수호신인 서낭신을 모신 사당

〈國譯〉

황성현. 동쪽 강릉부의 경계까지 68리, 남쪽 원주경계까지 13리, 서쪽 원주 경계까지 42리, 북쪽 홍천 경계까지 42리이며, 서울까지의 거리는 250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횡천현으로 일명 어사매이다. 신라때에는 황천으로 고쳐 삭주의 영현으로 삼았으며, 고려때에는 다시 횡천으로 고쳐 계속 속하게 하였다가 후에 원주에 속하였다. 공양왕 원년에 감무를 두었고, 본조 태종 13년에 현감으로 하였다. 태종 14년에 횡천과 홍천이 음이 비슷하여 이름을 (황성으로) 바꾸었다.

[관원]현감과 훈도³²⁾가 각 1명이다.

[군명] 횡천, 어사매, 황천, 화전

[성씨] 본래 현의 성씨는 추씨, 고씨, 조씨, 윤씨, 황씨이며, 원주에서 온 김씨와 밀양에서 온 박씨가 있다.

[산천]마산은 현의 북쪽 2리에 있으며 진산이다. 남산은 현의 남쪽 6리에 있다. 독현³³⁾은 현의 동쪽 68리에 있다. 회현³⁴⁾은 현의 동쪽 36리에 있다. 덕고산³⁵⁾은 현의 동쪽 82리에 있으며 강릉부와 경계이다. 정금산은 현의 동쪽 28리에 있다. 서천³⁶⁾은 현의 4리에 있다.

[토산]철(현의 서쪽 금굴이에서 난다), 옷, 자단향, 안식향, 오미자, 자초, 인삼, 복령, 석이, 벌꿀, 영양, 백화사, 눌어(누치), 여항어(열목어)이다.

[성곽] 덕고산성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653척이고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고, 군창이 있으나 지금은 반쯤 퇴락하였다.

[(신증)궁실] 동헌에 대하여는 홍귀달³⁷⁾의 시가 있다. ‘비 내려 축축한 들판에

32) 訓導: 조선시대 서울의 四學과 지방의 行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9품관 교관 벼슬.

33) 필자주) 海東地志, 廣輿圖, 1872년 橫城縣地圖등을 보아 지금의 안흥과 평창 방림의 경계인 문재로 비정

34) 필자주) 고지도 등을 보아 지금의 우천면과 안흥면의 경계인 전재로 비정

35) 필자주) 현재의 태기산

36) 필자주) 현재 蟾江

37) 洪貴達: 조선 세종대~연산군 시대 문신으로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에도 능했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벼슬을 지냈으나, 성격이 강직해 부정에 굴하지 않아 무오사화에 좌천되었다가 2년후 복직되어 續國朝寶鑑, 歷代名鑑 등을 편찬하고, 경기도관찰사가 4년후 다시 왕명의 거역으로 杖刑을 받고 경원으로 유배 중 교살되었다. 강원감사도 역임하여 임기 중 도내를 순행하며 강원도와 관련한 시문을 많이 남김.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려, 전농을 불러 들과 산을 살피고 농사의 힘쓸 것을 권장했네. 올해 남쪽 들 밭에 작물이 많은 것을 알만하니, 어제 밤 공전에 많은 비가 온 때문이다' 라고 읊었다.

[학교]향교가 현 북쪽 3리에 있다.

[역원] 오원역은 현 동쪽 35리에 있고, 안흥역은 현 동쪽 67리에 있으며, 갈풍역은 현 서쪽 6리에 있고, 창봉역은 현 북쪽 40리에 있다. 대비원은 현 동쪽 30리에 있고, 실미원은 현 동쪽 50리에 있으며, 홍안역³⁸⁾은 현 북쪽 20리에 있다.

[불위법홍사³⁹⁾와 석천사⁴⁰⁾는 모두 남산에 있으며, 개원사⁴¹⁾는 정금산에 있고, 봉복사는 덕고산에, 회진사⁴²⁾는 소장산⁴³⁾에 있다.

[사묘사직단⁴⁴⁾이 현으로부터 4리에 있고, 문묘는 향교에 있으며, 성황사와 여단⁴⁵⁾은 함께 현 북쪽에 있다.

[고적]저촌소가 현 동쪽 20리에 있었으며, 양등촌처가 현 동남쪽 20리에 있었고, 협촌처가 현 동쪽 20리에 있었다.

[인물]고려때에는 조영인, 조충, 조계순, 조변이 있고, 본조에는 조오와 고흥산이 있다.

〈解説과 意見〉

①현으로부터 사방 경계까지의 거리에 대하여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앞의 기록들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동쪽으로 강릉부 경계까지 거리를 68리라고 한 것은, 평창이 강릉부 소속이었음으로 그 경계인 독현(秃峴)까지의 거리로 한 것이다.

38) 필자주) 弘安驛은 弘安院의 오기로 보여진다

39) 法興寺는 남산리 지금의 송호대학 자리에 있던 사찰로 추정

40) 石泉寺는 남산리 지금의 보광사 인근에 있던 사찰로 추정

41) 開元寺는 우천면 정금리 석깍에 있던 절로 추정

42) 懷眞寺는 공근면 덕촌리 호진 마을에 있던 절터로 추정

43) 필자주) 정확한 위치는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아 알수 없으나, 후에 기록되는 七峯山으로 추정

44) 社稷壇은 토지신인 國社神과 곡물신인 國稷神에게 제사하는 단

45) 鳳壇은 돌림병 등 역질을 예방하기 위해 疫神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

②산천에 대한 기록 중, 마산(馬山)이 현의 진산(鎭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마산을 진산이라 한 것은 여러 고지도를 통하여 살펴보면, 지금은 태우아파트와 택지 등으로 끊어졌지만 3.1공원에서부터 천주교회와 감리교회, 황성읍사무소로 이어지는 산맥을 마산이라 한 것을 알수 있다.

독현(秃峴)과 회현(檜峴)은 뒤에 살펴 볼 古地圖 자료에도 주로 나타나는 지명으로 독현은 지금의 문재, 회현은 지금의 전재로 비정된다. 큰 산이 많음에도 정금산이 기록된 것이 이례적이며, 지금의 일명 북천(北川)으로 불리는 섬강(蟾江)은 서천(西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덕고산성에 대한 기록을 앞의 「세종실록」지리지와 비교하여 살펴 보면, 그 둘레에 대하여 「세종실록」에는 568步5尺(약 850m)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3,653尺(약 1,100m)로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옛 거리 측정에있어서는 비교적 근접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세종실록」의 군창(軍倉)에 대한 기록이 76년후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반쯤 퇴락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적어도 이미 16세기에 들어서에는 덕고산성이 군사적 시설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짐작된다.

④역원(驛院)에 대하여는 「세종실록」이 역의 이름만을 기록하였던 데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역의 방향과 거리를 기록하였고, 원(院)에 대하여도 기록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대비원(大悲院)은 뒤에 대미원(大美院)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고, 그 위치에 대하여는 지금의 우천면 하대리 지역으로 보

여진다. 그 이유는 오원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지역 ‘대미원’의 명칭이 바뀐 ‘대면’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우원리에서 시작하여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대미원천’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실미원(實美院)은 지금 안흥면 소재지에서 맞은편 안흥4리 지역으로 안흥역과 인접한 곳으로 지금도 ‘실미’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홍안역(弘安驛)은 홍안원(弘安院)의 착오로 보여지며, 지금의 공근면 초원리로 추정되고, 후대에 제작된 지도에는 초원(草院)으로 표기되어 있다.

⑤사찰에 대한 기록에는 법흥사(法興寺)와 석천사(石泉寺)가 모두 남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699년 이후 제작된 「東興備攷 江原道東西州郡總圖」에 남산에 2 사찰이 모두 그려져 표기되어 있고, 1750년대 제작된 「海東地圖」에는 남산에 남산사(南山寺)만 기록되며,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廣輿圖」에도 남산사 만이, 1872년 제작된 「橫城縣地圖」에는 다시 법흥사(法興寺)만 기록되어 있다.

개원사(開元寺)는 우천면 정금리 쇠깎 마을에, 회진사(懷眞寺)는 공근면 덕촌리 지금의 회진(또는 호진) 마을에 있었던 사찰로 보여지며, 회진이라는 지명도 회진사에서 유래된 듯 하다. 봉복사(奉福寺)는 지금 사찰 이름인 봉복사(奉復寺)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⑥사직단(社稷壇)과 성황사(城隍祠)·여단(厲壇)은, 1872년 제작된 「황성현지도」에 자세히 위치가 기록되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사직단은 지금 황성초등학교 부근에 있었으며, 성황사와 여단은 지금의 북천1리 지역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⑦고적(古跡)은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특이한데, 저촌소(猪村所)는 현 동쪽 20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소(所)’는 鄉·部曲과 함께 신라때부터 조선 전기까지 존속한 특수한 지방하급 행정구역의 하나로 일반적인 양민(良民)이 아닌 노비(奴婢)와 천민(賤民)과 유사(類似)한 신분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다.

향과 부곡은 대체로 농업생산에 치중하였는데 비해, 소는 중앙과 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기구의 성격으로 주로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고, 그 생산하는 물자에 따라 자기소(磁器所), 철소(鐵所), 은소(銀所), 금소(金所), 동소(銅所), 지소(紙所), 탄소(炭所), 염소(鹽所), 묵소(墨所) 등 다양하게 있었다. 저촌소(猪村所)는 다른 고을의 기록에도 종종 등장하며, 돼지 뿐만 아니라 가죽을 생산·공급하던 집단 생산지역이 아닐까 추정한다.

양등촌처(楊等村處)와 협촌처(脇村處)와 관련하여,

‘처(處)’는 고려시대에 있던 일종의 장원(莊園)으로 ‘장(莊)’과 함께 주로 왕실에 소속되어 재정적 기초가 되었으며, 신라말과 고려 초에 지방 호족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일부 촌락을 장과 처라는 이름으로 왕실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처에는 처리(處吏)라는 별도의 이속층(吏屬層)이 있어 처에 부과된 조세를 수취하여 왕실(王室)과 궁원(宮院), 사원(寺院)에 납부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360여개의 장과 처가 있었다고 한다.

⑧인물에 대하여는 고려때 조영인, 조충, 조계순, 조변과, 조선의 조오를 기록하였고, 그에 추가하여 고흥산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4. 「輿地圖書」原州鎮管屬 橫城縣

〈原文〉46)

原州鎮管屬橫城縣

東至江陵府界八十里 西至原州界三十里 北至洪川縣界四十里 自東江陵府三百里爲四日程 自西距京二百四十里爲三日程 自南監營四十里 自北洪川縣七十里

[坊里] 縣內面. 奈之里(自官門東距二十里 編戶二十五 男四十五口 女三十口) 玉洞里(自官門北距十五里 編戶十九 男二十口 女二十三口) 永永浦里(自官門東距二十里 編戶二十一 男二十三口 女二十五口) 介田里(自官門東距十里 編戶四十五 男五十口 女四十七口) 馬山里(自官門東距五里 編戶三十七 男三十九口 女三十八口) 橋項里(自官門東距五里 編戶二十九 男三十一口 女三十口) 邑內(編戶一百六十八 男一百八十九口 女一百七十口)

南青龍面. 楸洞里(自官門南距十五里 編戶二十四 男三十口 女二十八口) 沙吞里(自官門南距十里 編戶六十二 男七十口 女六十四口) 長安里(自官門南距五里 編戶五十一 男六十九口 女五十七口) 青龍里(自官門南距十里 編戶五十四 男六十口 女五十六口) 茅坪里(自官門西距十五里 編戶四十二 男四十九口 女五十口) 葛豐里(自官門西距十里 編戶三十七 男三十八口 女四十一口)

西公根面. 鶴谷里(自官門西距十里 編戶五十七 男六十口 女六十一口) 草院里(自官門西距二十里 編戶五十二 男五十五口 女五十七口) 蒼峯里(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四十一 男四十四口 女四十五口) 白鴉谷里(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四十五 男六十口 女六十一口) 內公根里(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七十一 男八十口 女七十八口) 上洞里(自官門北距四十里 編戶三十六 男四十口 女四十一口) 水白里(自官門北距十里 編戶六十八 男七十口 女六十八口) 葛麻谷里(自官門北距十五里 編戶四十二 男四十七口 女四十八口)

北晴日面. 栗同里(自官門北距四十里 編戶二十 男二十二口 女二十一口) 柳洞里(自官門



46) 필자주) 국사편찬위원회 수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산화 작업한 것을 차용했으며, 원본을 전산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을 수 있음.

北距五十里 編戶五十四 男五十七口 女五十六口) 春堂里(自官門北距六十里 編戶二十五 男三十口 女三十一口) 栗實里(自官門北距七十里 編戶三十 男三十一口 女三十二口) 兵之坊里(自官門北距五十里 編戶二十一 男二十三 口女二十一) 外晴日里(自官門北距一十五里 編戶六十二 男六十五口 女六十一口)

甲川面. 中金里(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一百十二 男一百二十口 女一百十五口) 浦洞里(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四十八 男五十口 女五十一口) 馬日里(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四十八 男四十三口 女四十五口) 檢垩里(自官門東距六十里 編戶三十四 男三十六口 女三十五口) 甲川里(自官門東距六十里 編戶一百四 男一百六口 女一百十二口)

井谷面. 山田里(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七十二 男七十六口 女七十八口) 鼎金里(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六十九 男七十口 女七十一口) 弓宗里(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五十三 男五十七口 女五十九口) 所沙非里(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四十五 男五十口 女五十口) 池丘里(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四十七 男五十口 女五十一口) 安興里(自官門東距六十里 編戶六十四 男六十七口 女六十八口) 大美院里(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五十四 男六十口 女五十九口) 加佐谷里(自官門東距二十五里 編戶三十八 男四十四 女四十口)

屯內面. 禾洞里(自官門東距七十里 編戶五十一 男五十八口 女五十九口) 馬余味里(自官門東距五十五里 編戶三十三 男四十口 女三十七口) 石門里(自官門東距六十里 編戶三十一 男四十口 女三十五口) 自浦谷里(自官門東距五十五里 編戶三十八 男四十三口 女四十口) 軍伊谷里(自官門東距六十里 編戶四十 男四十五口 女四十口) 右用里(自官門東距五十五里 編戶六十三 男七十口 女七十二口) 鳥項里(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二十二 男三十口 女二十九口) 永浪里(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一百一 男一百十口 女一百二十口) 都廳里(自官門東距五十里 編戶九十 男一百口 女九十五口) 玄川里(自官門東距五十五里 編戶一百二 男一百十口 女一百十二口)

隅川面. 正菴里(自官門東距十五里 編戶三十三 男四十口 女三十七口) 法周里(自官門南距三十里 編戶三十一 男三十九口 女四十口) 鳥原里(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三十四 男四十口 女四十一口) 水南里(自官門東距二十里 編戶二十九 男三十口 女三十口) 杜谷里(自官門東距二十里 編戶五十四 男六十一口 女六十一口) 巳卯帳藉淮

[道路] 自官門東距鳥原驛三十里 自鳥原南距原州界二十里 治嶮東距安興驛二十里 自安興距江陵界禿峴二十里 東距江陵九道味峴五十里 南距原州界加伊川二十里 自官門原州界曲橋十五里 自官門西南間距原州界高山十五里 自官門西距草院站二十里 自草院西距原州界栗洞十里 自官門北距蒼峯驛三十里 自蒼峯北距洪川界三馬峙楡峴谷十里 自官門東北間距北倉三十里 自北倉北距洪川界旂等乃峴四十里 東距奉福四十里 自奉福東距江陵界九道味峴三十里

[建置沿革] 本高句麗 橫川縣一云於斯買 新羅改潢川爲朔州領縣 高麗復橫川仍革 後屬原州 恭讓王 元年置 本朝 太宗十三年例改爲縣監 十四年以橫川洪川聲相近改今名 官員縣監訓導各一人 訓導革

[郡名] 橫川 於斯買 潢川 花田

[城池] 自官門東距七十里德高山古城 石築圍三千六百五十三尺 內有一井 今廢

[官職] 縣監 武三品今上庚辰兼營將討捕使屬邑原州寧越平昌旌善洪川麟蹄等七邑 座首一人 別監二人 軍官大人 衙前二十四人 知印十四人 軍牢三十名 使令二十三名 官奴二十一名 奴婢五名 官婢十二名

[山川] 德高山在縣北七十里 自江陵五臺山西來一百二十餘里 北接洪川界封黃場山 有奉福寺 鼎金山在縣北三十里 自德高山西來四十里 有單房寺 古菴菴前有石佛像文長有時放光稱有異 馬山在縣二里 自鼎金山西南來三十里爲邑主山 南山在縣南六里 自原州雉岳山北來五十里爲邑基案山 有法興寺 五音山在縣北五十里北接洪川界 七峯在縣北十三里自五音山南來七峯立立秀鹿 東倉下大川在縣東五十里源出 德高山東南流入原州酒泉縣倉下達清風江 後川源出德高山流至五音山下溪間合流入 官門北是爲後川 前川源出原州雉岳山九龍潭與烏原溪澗合流入 于官門南是爲前川與後川合稔於社稷壇後達于原州蟾江

[姓氏] 秋高趙尹黃以本縣爲姓貫 金(原州)朴(密陽)卞(草溪)陳(驪陽)鄭(草溪)

[風俗] 樹風敬長力農無訟

[壇廟] 社稷壇在縣西三里許 文廟在縣東三里許 城隍壇在縣北二里許 厲祭壇在縣北三里許

[公廨] 客舍十間 衙舍二十三間 鄉廳六間 武學堂十二間 訓鍊廳五間 作廳七間 軍器七間

[倉庫] 司倉三十間 賑倉十六間 官廳十四間 大同廳九間 東倉十四間自縣東距五十里井谷面池丘里 北倉二十一間在縣北距三十里 甲川面浦洞

[物產] 人蔘 五味子 紫草 茯苓 羚羊 蜂蜜 白花蛇 餘頂魚

[橋樑] 前川橋在縣南距五里 後川橋在縣北距五里

[驛院] 葛豐驛大馬一匹卜馬一匹奴四十一名婢十名在縣西距十里 蒼峯驛卜馬三匹奴三十二名婢十名在縣北三十里 烏原驛卜馬三匹奴二十一名婢十一名在縣東三十里 安興驛騎馬一匹卜馬一匹奴三十名婢十名在縣東五十里

[牧場] 分養馬一匹八月受來翌年五月上納

[關陌] 禿峙在縣東七十五里江陵界 檜峙在縣東四十里 九道味峙在縣東八十里 拏等乃峙在縣北九十里洪川縣界 小三馬峙在縣北五十里洪川界

[寺刹] 奉福寺在縣北七十里五房 開院寺在縣北三十里單房 南山寺在縣南六里三房 舞仙菴在縣東五十里單房

[古跡] 有狗出窟在縣北二十里晴日面下有小潭 俗傳有拘入江陵大和窟出於此故因爲地名後人嫌其俚改以晴日今爲面號 龍巖在縣北五里後川形似盤龍長沈水中半陟半掘名狀奇怪或歲早則縣監處誠祈禱兩立至 三陟巖蔚珍巖在縣東五十里井谷面安興里兩巖創立隔水相對巖帶青雲生殺角水傳滄浪有千枝昔三蔚兩邑之倅同行留此巖取勝競坐後有三陟府使李峻訪此遊賞云 碧玉亭在縣北二十里公根面八川君鄭基廣所建蒼巖糾斷清川灣抱往宋使星輒登詠李相公端夏詩云路出蒼峯驛行過碧玉亭排網尋舊跡形勝恢前聆掩自松成蓋臨淵后作屏溪山應不改賢主永流馨今則數枝長松特立今廢

[人物] 孝子權和以陽村之孫寓居屯內面事親至孝家忽失火老母未及脫出和遂赴火負母而死妻鄭氏同赴而死有十四歲男十一歲女兒其父母死曰何忍生存俱自赴投烟焰而死縣監任翊元根巡營云子死於母妻死於夫孩提兩兒亦死於父母萬古綱常草於一巡使啓聞旌閭和之一子適從師出學其子孫不絕人稱其幸

高麗趙永仁少而不群有宰相器度宗時登第明宗時累遷爲水宜多所注枚物論歸重位至守太尉上柱國神宗卽位有定策功加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郎平章事以眼昏乞退三年卒享年七十諡文景配享神宗廟庭

趙冲字湛若永仁之子明宗時登第傳聞強詆諳練典故一時典舟多出其手高宗朝以才兼文武特授翰林學士承旨上將軍時金兵闖北鄙冲爲副元帥敗績免冠作詩云萬里霜號容一蹶悲鴻不覺換時節儁教造父更加鞭昔躡沙場摧古月後大破女眞黃旗子軍於鴨江復職爲西北面元帥號令嚴明秋毫不犯諸將莫敢以書生易之卒贈門下侍中諡文正爲人風姿魁偉外莊寬凡遇士愉愉然不施戟級出將入相朝野倚重嘗開獨樂園于東阜每公餘賢士大夫每以琴酒自娛爲後配享高宗廟庭

趙季珣冲之子官至門下侍郎平章事諡光定

趙抃李珣之子從金方慶征日本有功容儀魁偉頗道典故性寬厚人無怨者

本朝 趙晤擢第以紫潔稱官至修文典提學

高荊山登第官至贊成性樸直勤檢久典軍兵錢穀之任綜理甚密事多辦

[旱田] 四百三十六結六十九負二束 己卯摠

[水田] 三百三十八結六十四負 己卯摠

[進貢] 白清 餘頂魚 松茸 生雉 乾雉 生獐 生兔 人蔘 何首烏 木桶 白芍藥 羌活 獨活 當歸 五味子 白茯苓 柴胡 川芎 山藥 紫草茸 牡丹皮 兔絲子 連翹 山查 苳蓼仁 茅香 葛花 蟬退 黃栢皮 茵陳 金銀花 白芨 罌粟殼 石清 熊脂 苦蕒 赤茯苓 茯神

[糶糶] 元會穀四千五百三石 賑廳穀一萬二千一百五十一石 營穀九百三十五石 別會穀六百九十一石 十月開倉十二月封倉

[田稅] 大米六十八石 田米十九石 黃太二十九石 常太十九石 自十二月至翌年三月畢捧 同年四月馱出原州興原江仍爲漆載 自水路四日流下達于京江龍山浦 五月入倉上納 于戶曹大同均稅同

[大同] 白米三十六石 田米二十九石儲峙 大米五十一石 田米九十一石若均稅結錢三百六十五兩 送武番錢一百二十兩

[俸廩] 衙祿公頂位白米一百五十九石田米三百三十二石錢四百四十二兩 紫五千束炭質用鶴民戶收捧

[軍兵] 騎兵二百八十二名 步兵十五名 御營軍保一百九十一名 東伍軍四百十七名 砲保九十八名 軍餉保十八名 禁衛軍保二百八十一名 守禦屯牙兵一百二十六名 守禦別破陣一百九十一名 禁軍保八名 樂生保二名 軍器寺匠人保三十八名 司僕諸員二十七名 醫女保六名 管牙兵一百二名 別隊四名 武學四十一名 營武學一百十八名 樂工保六名

〈國譯〉

원주진관속 횡성현. 동쪽으로 강릉부 경계까지는 80리, 서쪽으로 원주 경계까지는 30리, 북으로 홍천현의 경계까지는 40리이며, 동쪽의 강릉부로부터는 300리로 4일의 거리이며, 서쪽으로 서울과의 거리는 240리로 3일의 거리이다. 남쪽 강원감영(원주)까지는 40리, 북의 홍천현부터는 70리이다.

[방리현내면. 내지리(관아로부터 동으로 20리, 25호, 남45명, 여30명), 옥동리(북25리, 19호, 남20, 여23), 영영포리(동20리, 21호, 남23, 여25), 개전리(동10리, 45호, 남50, 여47), 마산리(동5리, 37호, 남39, 여38), 교항리(동5리, 29호, 남31, 여30), 읍내(168호, 남189, 여170),

남청룡면. 추동리(남15리, 24호, 남30, 여28), 사탄리(남10리, 62호, 남70, 여64), 장안리(남5리, 51호, 남69, 여57), 청룡리(남10리, 54호, 남60, 여56), 모평리(남15리, 42호, 남49, 여50), 갈풍리(서10리, 37호, 남38, 여41)

내공근면. 학곡리(서10리, 57호, 남60, 여61), 초원리(서20리, 52호, 남52, 여55), 창봉리(북30리, 41호, 남44, 여45), 백아곡리(북30리, 45호, 남60, 여61), 내공근리(북30리, 71호, 남80, 여78), 상동리(북40리, 36호, 남40, 여41), 수백리(북10리, 68호, 남70, 여68), 갈마곡리(북15리, 42호, 남47, 여48)

북청일면. 울동리(북40리, 20호, 남22, 여21), 유동리(북50리, 54호, 남57, 여56), 춘당리(북60리, 25호, 남30, 여31), 속실리(북70리, 30호, 남31, 여32), 병지방리(북50리, 21호, 남23, 여21), 외청일리(북15리, 62호, 남65, 여61)

갑천면. 중금리(북30리, 112호, 남120, 여150), 포동리(동40리, 48호, 남50, 여51), 마일리(동40리, 48호, 남43, 여45), 검대리(동60리, 34호, 남36, 여35), 갑천리(동60리, 104호, 남106, 여120)

정곡면. 산전리(동30리, 72호, 남66, 여78), 정금리(동40리, 69호, 남70, 여71), 궁중리(동40리, 53호, 남57, 여59), 소사비리(동50리, 45호, 남50, 여50), 지구리(동50리, 47호, 남50, 여51), 안흥리(동60리, 64호, 남67, 여68), 대미원리(동30리, 54호, 남60, 여59), 가좌곡리(동25리, 38호, 남44, 여40)

둔내면. 화동리(동70리, 51호, 남58, 여59), 마여미리(동55리, 33호, 남40, 여37), 석문리(동60리, 31호, 남40, 여35), 자포곡리(동55리, 38호, 남43, 여40), 군이곡리(동60리, 40호, 남45, 여40), 우용리(동55리, 63호, 남70, 여72), 조항리(동50리, 22호, 남30, 여29), 영랑리(동50리, 101호, 남110, 여120), 도청리(동50리, 90호, 남100, 여95), 현천리(동55리, 102호, 남110, 여112)

우천면. 정암리(동15리, 33호, 남40, 여37), 법주리(남30리, 31호, 남39, 여40), 오원리(동30리, 34호, 남40, 여41), 수남리(동20리, 29호, 남30, 여30), 두곡리(동20리, 54호, 남61, 여61). 이것은 기묘(己卯, 1759年) 장적(帳籍).

[도로] 관아에서 오원역까지는 30리이고, 오원역에서 남쪽 원주 경계까지 거리는 20리, 치현고개 동쪽 안흥역은 20리이며, 안흥역에서 강릉 경계인 독현까지

는 20리이다. 동으로 강릉 구도미고개는 50리, 남으로 원주 경계 가리천이 20리이다. 관아로부터 원주 경계 굽은다리(曲橋)는 15리, 서남쪽 경계인 원주 경계 고산이 15리이다. 서쪽 초원참까지가 20리이며, 초원에서 서쪽 원주경계 울동까지가 10리이다. 관아에서 북으로 창봉역은 30리이며, 창봉역에서 북쪽 흥천 경계인 삼마치고개가 10리이다. 관아에서 동북쪽으로 북창이 30리, 북창에서 흥천경계인 며등내고개(먼드래재)는 40리이다. 동쪽으로 봉복사는 10리이고, 봉복사로부터 강릉 경계 구도미고개는 30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 횡천현으로 일명 어사매라 한다. 신라때 황천이라 고쳐 삭주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때 횡천으로 고쳐 계속 속하게 하였다가, 후에 원주의 속현이되었다. 공양왕 원년에 감무를 두었고, 본조 태종13년에 현감으로 고쳤다. 태종14년에 횡천과 흥천의 소리가 비슷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관원은 현감과 훈도가 각 1명이다.

[군명] 횡천, 어사매, 황천, 화전

[성지] 관아로부터 동쪽 70리에 덕고산 고성(臺)이 있는데, 돌로 쌓은 둘레가 3,653척이고 안에 우물이 하나 있고 지금은 황폐되었다.

[관직] 현감과 경진년(1700년)부터 원주, 영월, 평창, 정선, 흥천, 인제 등과 같이 7읍을 관할하는 3품관 토포사가 영장을 겸하였다. 좌수⁴⁷⁾1인, 별감⁴⁸⁾2인, 군관대인은 아전⁴⁹⁾24인, 지인⁵⁰⁾14인이고, 군뢰⁵¹⁾30명, 사령⁵²⁾23명, 관노21명, 기비5명, 관비12명이다.

[산천] 덕고산이 현 북쪽 70리에 있으며, 강릉 오대산 서쪽으로부터 120여리이고, 북으로는 흥천 경계인 황장산에 접하였으며, 봉복사가 있다. 정금산은 현

47) 座首 : 조선시대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鄉所의 벼슬로 鄉土중 가장 나이가 많은 덕망있는 사람을 향사들이 선거하여 수령이 임명. 吏房과 兵房을 맡아 관리.

48) 別監 : 조선시대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鄉所의 벼슬로 2인이 있었으며, 좌별감은 戶房과 禮房을, 우별감은 刑房과 工房을 맡아 관리

49) 衙前 : 조선시대 지방 각 관청의 하급관리

50) 知印 : 각 지방의 土官들 밑에서 지방 행정과 군사에 관련된 일을 맡아 하던 관리

51) 軍牢 : 관아에서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軍卒

52) 使令 : 관아에서 심부름 등을 맡고, 군관의 명을 받아 하던 下卒

북쪽 3리에 있으며, 덕고산으로부터 남쪽으로 4리이고, 단방사가 있다. 예부터 절이 많이 있어던 곳으로 풀이 우거진 터에 석불상 등이 많이 있으나 서로 다름이 있다. 마산은 현 2리에 있으며 정금산 서남쪽으로 3리이며 읍의 주산이다. 남산은 현 남쪽으로 6리에 있으며, 원주 치악산 북쪽으로부터 5리에 위치하고 읍의 안산으로 범홍사가 있다. 오음산은 현 북쪽 50리에 있으며, 북으로 흥천경계이다. 칠봉은 현에서 북으로 30리고 오음산 남쪽에서 이어져 입곱개의 봉우리가 수려하게 서 있다. 동창 아래 큰 강은 덕고산에서 동남에서 발원하여 흘러 원주 주천현 창(倉)아래 청풍강에 다다른다. 후천은 덕고산에서 발원한 물과 오음산에서 발원한 물을 합하여 흘러 관아 북쪽을 흐름으로 후천이라 한다. 전천은 원주 치악산 구룡담에서 발원한 물과 오원 계곡물이 합하여 흘러서 역시 관아 남쪽을 흐르므로 전천이라 한다. 전천과 후천은 사직단 뒤에서 합하여 원주 섬강에 다다른다.

[성씨] 추,고,조,윤,황은 본현의 성씨로 본관을 삼았고, 김(원주), 박(밀양), 변(초계), 진(여양), 정(초계)가 있다.

[풍속] 풍습을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며, 농사에 힘쓰고, 송사가 없다.

[단묘] 사직단은 현 서쪽 3리에, 문묘는 현 동쪽 3리에, 성황단은 현 북쪽 2리에, 여제단은 현북쪽 3리에 있다.

[공해⁵³] 객사⁵⁴ 10간, 아사⁵⁵ 23간, 향청⁵⁶ 6간, 무학당⁵⁷ 12간, 훈련청 5간, 작청⁵⁸ 7간, 군기⁵⁹ 7간이다.

[창고] 사창⁶⁰ 30간, 진창⁶¹ 16간, 관청 14간, 대동창⁶² 9간, 동창은 14간인데 현 동

53) 公廩: 관가 소유의 건물

54) 客舍: 각 고을에 설치한 館舍

55) 衙舍: 지방 관서에서 政務를 보던 중심 건물. 東軒이라고도 한다.

56) 鄉廳: 수령을 보좌하는 鄉所의 건물

57) 武學堂: 武藝를 연마하기 위한 건물

58) 作廳: 衙前에 실무 사무를 처리하는 건물

59) 軍器: 軍器庫. 병장기를 보관하는 창고

60) 司倉: 租稅, 實物을 보관 운반하는 관청, 창고

61) 賑倉: 賑恤米를 보관하는 관청 창고

62) 大同廳: 租稅인 大同米를 보관하는 관서

쪽 50리 정곡면 지구리에 있고, 북창은 21간으로 현북쪽 30리 갑천면 포동에 있다.

[물산 인삼, 오미자, 자초, 복령, 영양, 봉밀, 백화사, 여향어(열목어)]

[교량] 전천교는 현 남쪽 5리에 있고, 후천교는 현 북쪽 5리에 있다.

[역원] 갈풍역은 대마1필, 복마(卜馬)⁶³1필, 노(奴:남자노비)41명, 비(婢:여자노비)10명이며 현 서쪽 10리에 있다. 창봉역은 복마3필, 노32명, 비10명이며, 현 북쪽 30리에 있다. 오원역은 복마3필, 노21명, 비11명으로, 현 동쪽 30리에 있다. 안흥역은 기마(驕馬)1필, 복마1필, 노30명, 비10명이며, 현 동쪽 50리에 있다.

[목장] 분양마(分養馬)⁶⁴ 1필을 8월에 받아 길러 익년 5월에 상납한다.

[관에⁶⁵] 독현은 동으로 75리에 있으며 강릉과 경계이다. 회치는 동으로 40리에 있다. 구도미치는 현 동쪽 80리에 있다. 머등내재는 현 북쪽 90리에 있으며 흥천현과 경계이다. 소삼마치는 현 북쪽 50리에 있으며 흥천과 경계이다.

[사찰] 봉복사는 현 북쪽 70리에 있으며, 건물이 5동이다. 개원사는 현 북쪽 30리에 있으며 단동이다. 남산사는 현 남쪽 6리에 있으며 3동이다. 무선암은 현 동쪽 10리에 있으며 단동이다.

[고적] 개나리굴(狗出掘)이 현 북쪽 20리 있으며, 청일면 아래 작은 소가 있다. 전하는 말에 강릉 대화의 굴에서 나타난 개가 이곳에도 나타남으로 개가 나오는 굴이라고 한 연유에서 지명이 되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지명이 속되어 개나리를 ‘개인(晴) 날(日)’ 인 청일(晴日)로 고치고 지금의 면(面)이름이 되었다.

용암은 현 북쪽 5리 후천에 있는데, 형상이 용이 서려 있는 듯 절반은 물에 잠겨 있고 절반은 솟아오르려 바닥을 박차는 모습으로 형상이 기괴하다. 이름이 난 곳으로 일찍이 년초에 현감이 정성을 다해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

삼척암 울진암은 현 동쪽 50리 정곡면 안흥리에 있는데, 두 바위가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깎아지른 듯 서 있다. 바위에 푸른 구름이 걸려 있고 거친 물결은

63) 卜馬: 짐 실는 말

64) 조선시대 司僕寺에서 각 읍에 나누어 기르게 하는 말.

65) 關阨: 요로로 통하는 주요 길목

천겁에 이른다. “옛 삼척과 울진 두 고을의 수령이 같이 이 바위에 머물며 자리를 놓고 경쟁하였다” 고 삼척부사 이준⁶⁶⁾이 이 곳을 방문해 감상하여 말한바 있다.

벽옥정은 현 북쪽 20리 공근면에 있고, 팔천군 정기광⁶⁷⁾이 푸른 물이 감아도는 깎아지른 듯한 창암에 세웠다. 송사성이 이곳에 올라 이상공 이단하⁶⁸⁾의 시를 읊어 말하기를 “창봉역에서 길을 나서 벽옥정을 지난다. 배회하며 옛 자취를 찾으니 아름다운 모습이 듣던 것보다 훌륭하다. 해 가리는 소나무가 지붕 같고 못가의 바위는 병풍같이 둘러섰다. 내와 산은 분명 옛 모습을 바꾸지 않으리니, 어진 주인 영원히 향기로이 흐르리” 라고 하였다. 지금은 큰 소나무 몇 구루만 도드라지게 특별히 서있고 폐허가 되었다.

[인물] 효자 권화(-생략-), 고려 조영인(-생략-), 조충(-생략-), 조계순(-생략-), 조변(-생략-), 본조 조오(-생략-), 고흥산(-생략-)

[한전⁶⁹⁾] 436결69부2속. 기묘(己卯,1759년)의 통계.

[수전] 3385결64부. 기묘의 통계.

[진공⁷⁰⁾] 백청(白淸⁷¹⁾), 여향어(열목어), 송이, 생평고기(生雉), 말린 꿩고기(乾雉), 노루고기(生獐), 토끼(生稿), 인삼, 하수오, 목통(木桶), 백작약, 강활(羌活), 독활, 당귀, 오미자, 백복령, 자호(柴胡), 천궁, 산약, 자초용(紫草茸), 목단피, 토사자, 연교(連翹), 산사, 고루인(菝葜仁) 모향(茅香), 칩꽃(葛花), 매미껍질(蟬退), 황백피, 인진, 겨우살이꽃(金銀花), 대왕풀(白槿), 양귀비(罌粟殼), 석청, 곰기름(熊脂), 고경(苦蕒), 적복령, 복신(茯神)

[조적⁷²⁾] 원회곡(元會穀)⁷³⁾ 4,503석, 진청곡(賑廳穀)⁷⁴⁾ 12,151석, 영곡(營穀)⁷⁵⁾ 935석, 별회곡(別會穀) 691석, 10월에 창고를 열어 받기 시작하여 12월에 창고를 닫는다.

66) 李峻 : 조선 인조때 삼척부사

67) 鄭基廣 : 조선 선조때 문신.

68) 李端夏 : 조선 중기(인조~숙종)때 문신.

69) 旱田 : 밭

70) 進貢 : 貢物을 바침

71) 白淸 : 희고 품질이 좋은 꿀

72) 術戍 : 곡식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는 還穀을 내어주거나 받는 일.

73) 元會穀 : 환곡 1석에 대하여 耗穀 1斗5升을 받고 그 10분의1에 해당하는 1승5홀을 호조에 바치는 곡물

74) 賑廳穀 : 飢民구제를 위한 賑恤廳의 곡물

75) 營穀 : 간청 운영을 위한 곡물

[전세] 대미⁷⁶⁾68석, 전미⁷⁷⁾19석, 황태29석, 상태19석을 12월부터 익년3월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마친다. 같은 해 4월 실어 날라 원주 흥원강에서 배에 실어 4일간 수로를 따라 내려가 경강 용산포에 다다르며, 5월에 창고에 들여 상납한다. 또한 호조 대동미와 균제도 이와 같다.

[대동⁷⁸⁾]백미36석, 전미29석을 모아 저장하고, 대미51석, 전미91석, 균세결전은 365냥, 번을 보낼 때는 120냥.

[봉능⁷⁹⁾] 아전의 녹(祿)은 지위에 따라 백미159석, 전미332석, 돈(錢)으로 442냥, 땀감나무(柴) 5,000속을 숲과 바꾸어 쓸 수 있게 하여 민호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군병] 기병282명, 보병50명, 어영군보⁸⁰⁾191명, 속오군⁸¹⁾457명, 포보918명, 군향보⁸²⁾18명, 금위군보⁸³⁾281명, 수어둔아병⁸⁴⁾126명, 금군보8명, 악생보2명, 군기시⁸⁵⁾장인보38명, 사복제원27명, 의녀보6명, 관아병102명, 별대4명, 무학41명, 영무학118명, 악공보6명.

〈解說과 意見〉

①방리(坊里)에 대한 기록이 주목이 되는데, 8개면은 현내면(縣內面), 남청룡면(南靑龍面), 서공근면(西公根面), 북청일면(北淸日面), 갑천면(甲川面), 정곡면(井谷面), 둔내면(屯內面), 우천면(隅川面)이다.

총 리수는 55개리이며, 총 호수는 2,778호, 인구는 6,104명으로 남자가 3,078명, 여자가 3,026명이다.⁸⁶⁾ (※「輿地圖書」에서 사람의 수를 나타낼 때, 비교적 신분있는

76) 大米 : 쌀

77) 田米 : 좁쌀

78) 大同 : 大同法에 따라 貢物을 쌀로 바치는 것

79) 價 : 관리에게 주는 俸給

80) 御營軍 : 중양의 五軍營 중 왕을 호위하는 군병

81) 束伍軍 :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 소집되는 병농일체제의 동원군. 양민, 천민 혼성으로 편성됨

82) 軍餉保 : 군역에 복무하지 않고 군량을 부담하는 군정

83) 禁衛軍 : 왕의 親衛軍營인 禁衛營의 군사

84) 守禦屯牙兵 : 守禦廳 등 감영에 속한 군사

85) 軍器寺 : 兵器의 제조 등을 관할하는 관청

86) 필자주) 연구결과에 따라 戶數와 총인구(여자인구)의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것은 집계상 오류로 보여짐

사람은 ‘貢’, 또는 ‘人’으로, 집단 또는 단체 등에 속하는 수를 나타낼 때는 ‘畝’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수는 ‘口’로 기록하였는데,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그러하였다)

輿地圖書에 기록된 橫城縣의 面·里·戶數 및 人口

면	리	호수	인구 총			비고
			인구 총	남	여	
8面	55里	2,778호	6,104명	3,078명	3,026명	
縣內面 (7개리) 760戶 760名 男397名 女363名	奈之里	25	75	45	30	
	玉洞里	19	43	20	23	
	永永浦里	21	48	23	25	
	介田里	45	97	50	47	
	馬山里	37	77	39	38	
	橋項里	29	61	31	30	
	邑內	168	359	189	170	
南青龍面 (6개리) 270戶 612名 男316名 女296名	楸洞里	24	58	30	28	
	沙吞里	62	134	70	64	현재 생운리
	長安里	51	126	69	57	현재 입석리 지역
	青龍里	54	116	60	56	
	矛坪里	42	99	49	50	
	葛豊里	37	79	38	41	
西公根面 (8개리) 412戶 911名 男456名 女459名	鶴谷里	57	121	60	61	
	草院里	52	112	55	57	
	蒼峯里	41	85	44	45	
	白鴉谷里	45	121	60	61	현재 가곡리 지역
	內公根里	71	158	80	78	현재 공근리, 행정리
	上洞里	36	81	40	41	
	水白里	68	138	70	68	
	葛麻谷里	42	95	47	48	현재 매곡리
北晴日面 (6개리) 212戶 450名 男228名 女222名	栗洞里	20	43	22	21	
	柳洞里	54	113	57	56	
	春堂里	25	61	30	31	
	栗實里	30	63	31	32	
	兵之坊里	21	44	23	21	
	外晴日里	62	126	65	61	현재 외감천 지역
甲川面 (5개리) 346戶 713名 男355名 女358名	中金里	112	235	120	115	
	浦洞里	48	101	50	51	
	馬日里	48	88	43	45	현재 매일리
	檢岱里	34	71	36	35	현재 상대리, 하대리
	甲川里	104	218	106	112	

井谷面 (8개면) 442戶 950名 男474名 女476名	山田里	72	154	76	78	
	鼎金里	69	141	70	71	
	弓宗里	53	116	57	59	
	所沙非里	45	100	50	50	현재 소사리
	池丘里	47	101	50	51	
	安興里	64	135	67	68	
	大美院里	54	119	60	59	현재 상대리, 하대리
	加佐谷里	38	84	44	40	현재 상하기리
屯內面 (10개리) 571戶 1,267名 男646名 女621名	禾洞里	51	117	58	59	
	馬余味里	33	77	40	37	현재 마암리 지역
	石門里	31	75	40	35	
	自浦谷里	38	83	43	40	
	軍伊谷里	40	85	45	40	현재 두원리 지역
	右用里	63	142	70	72	
	鳥項里	22	59	30	29	
	永浪里	101	212	110	120	
都廳里	90	195	100	95	?	
隅川面 (5개리) 181戶 419名 男210名 女209名	正菴里	33	77	40	37	
	法周里	31	79	39	40	
	烏院里	34	81	40	41	
	水南里	29	60	30	30	
	杜谷里	54	122	61	61	

②도로에서는 각 관방의 경계와 역으로 부터의 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구도미고개, 먼드래재 등 지명은 당시에 도 지금의 발음과 거의 비슷하게 한자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건치연혁과, 군명, 덕고산 고성에 대한 기록은 타 기록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④관직에 대하여, 현감 뿐만 아니라 횡성을 비롯한 인근 7개 고을을 관할하는 토포사가 영장을 겸하고 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좌수 별감 등 향리와 기생과 관노 등에 이르기 까지 그 수를 기록하고 있다.

⑤산천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여 덕고산, 정금산, 마산, 남산, 동창하천, 후천과 전천 등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리와 물의 발원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지금보아도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기 기록이 상세하다.

다만, 주목할 것은 마산(馬山)을 현의 주산(主山, 鎭山)으로 하고 있고, 남산(南山)을 현의 안산(案山)으로 기록하고 있고, 여러 古地圖에도 나타나는 黃腸山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황성에도 황장목을 보호하던 봉산(封山)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기록은 뒤에 살펴 볼 「大東地志」에 황장산 봉산이 1곳 있다는 기록으로 확실하다. 더욱이 청일면 속실리 지역에 ‘황장곡’의 지명이 아직 남아 전하고 있다.

⑥황성의 풍속에 대하여는 ‘풍습을 지키며, 어른을 공경하고 농사에 힘쓰고, 송사(訟事)가 없다’고 기록하였다.

⑦사직단, 문묘, 상황단, 여단 등과 각 공공건물과 창고, 등에 대한 기록한 사항은 어떠한 기능의 건물과 그 규모가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 古地圖에 개략 표기된 동창과 북창에 대하여 그 위치와 지역도 기록됨으로 향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⑧역원에 대하여, 각 역의 위치 뿐만 아니라 역에서 관리하는 말(馬)과 노비의 수 까지도 기록되어 있으며, 오원역은 짐을 지는 북마가 많이 관리되고, 안흥역은 기마(騎馬)가 관리 되는 것이 특이하며,

사복시(司僕寺)에서 8월에 말을 분양 받아 익년5월까지 8개월을 길러 상납한 목장이 있었던 것도 흥미로운 기록이다.

⑨각 방면의 끝인 관애(關陜)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독현(秃峴)은 지금의 문재이며, 구도미치(九道味峙)는 지금의 양두구미재 인데, 각각

강릉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며등내치(拏等乃峙)는 지금의 먼드래재로 홍천과 경계를 이루며, 소삼마치 또한 북으로 홍천과 경계를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개 지명의 표기가 지금의 발음과도 대동소이하다.

⑩봉복사, 개원사, 남산사, 무선암 등 사찰에 대한 기록은 건물의 수를 기록하여 사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⑪옛 고적에 대하여는, 지금도 구전되어 오는 개나리굴(狗出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것으로 청일면 명칭의 유래를 알 수 있으며, 용암이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삼척울산바위에 대해 임지로 가고 오던 삼척과 울진의 수령이 행로에 이곳에서 쉬며 다툼을 했다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으며, 벽옥정의 건축 내력과 빼어난 풍광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추후 좀 더 자료를 정리하여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 있겠으나, 아마도 여러 기록으로 보아 공근면 학담리에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뿐이다.

관동안렴사(關東按廉使)를 지낸 김홍욱(金弘郁)⁸⁷⁾의 벽옥정에 관한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鄭家亭子澗之濱	계곡 물가에 정가(鄭家)의 정자가 있으니,
九曲灘聲繞四隣	구비마다 여울 소리가 사방을 둘러싼다
滿碧松陰秋薄薄	둘러싼 소나무 그늘은 가을이 한창인데
隔窓潭影晚燐燐	창 너머 연못 그림자 저물녘에 반짝인다
溪山自是留行客	시냇물과 산이 나그네를 붙잡으니
風月何曾有主人	풍월에 주인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堪笑老公成底事	가소로운 늙은이 무엇을 이루었나
十年渾汗走紅塵	십년을 땀 흘리며 티끌 세상 달렸을 뿐

87) 金弘郁 : 조선 인조때 문신.

⑫논과 밭의 토지 규모와 진상품, 환곡과 진휼곡, 영곡, 별회곡의 규모에 대하여 기록한 것에 대하여는 내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수조(收租)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세, 대동세의 규모와 방법 등도 기록되어 있어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⑬관리의 녹봉에 대한 기록에서 흥미로운 것은, 쌀과 좁쌀과 돈으로 지급했는데, 쌀값 나무도 지급된 것이 이채롭다.

⑭비교적 많은 2,675명이라는 군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중 속오군은 지방군으로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 소집되는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의 동원군으로 양민과 천민이 같이 편성되었고, 기타의 군병의 수는 대부분은 중앙군으로 편재되는 군정의 수이며, 이중 특히 어영군군보, 포보, 군향보, 금위군보, 금군보, 악생보, 의녀보, 악공보 등 보군(保軍)은 정군(正軍)에 편입되지 않고 보포(保布)를 바치는 장정의 수이다.

5. 『大東地志』 橫城

〈原文88〉

橫城.[沿革] 本 高句麗於斯賈縣 新羅慶德王十六年改潢川爲 朔州都督府 領縣 高麗太祖二十三年改橫

川 顯宗九年仍屬春州 後屬原州 恭讓王元年 置監務 本朝 太宗十三年 改縣監 十四年 改橫城(以洪川橫川聲相近故也)

【邑號】 花田 【官員】 縣監一員 【山川】 馬山(北二里) 南山(男六里) 五音山(北五十里洪川界) 德高山(一云泰岐山 北七十里江陵界) 鼎金山

宗九
水刺
新羅
慶德
王十
六年
改潢
川爲
朔州
都督
府領
縣
高麗
太祖
二十
三年
改橫
川
顯宗
九年
仍屬
春州
後屬
原州
恭讓
王元
年
置監
務本
朝太
宗十
三年
改縣
監十
四年
改橫
城
(以洪
川橫
川聲
相近
故也)
【邑
號】
花田
【官
員】
縣監
一員
【山
川】
馬山
(北二
里)
南山
(男六
里)
五音
山(北
五十
里洪
川界)
德高
山(一
云泰
岐山
北七
十里
江陵
界)
鼎金
山

88) 필자주) 국립중앙도서관 원본 복사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北三十里) 鴻頭山(東北三十里) 七峯山(北四十里) 【嶺路】 禿峴 仇道味峙(俱東七十里江陵界) 檜峴(東五十里) 於路峴(西四十里) 彌等乃峙(北四十里洪川界) 三馬峙(上同) 加五峙(西二十里) 階岩峙(男五里) 渡父峴(東南三十里原州界) 南川(南五里源出原州雉岳山陰北流往 檜峴至井谷北過甲川西流) 浦通川(源出渡父峴西流) 清玉淵(西北二十里 源出洪川劍倚山之東流以上三川俱入西川) 西川(源出洪川孔雀山南西四里爲原州蟾江上流) 甲川(東西十里源出德高山流入南川) 東倉川(東五十里源出德高山東南流爲原州加田川) 【坊里】 縣內面(終七里) 青龍(西初五終十) 隅川(東初十終二十) 井谷(東初十五終二十五) 屯內(東初二十五終四十) 甲川(東初二十終五十) 松陰(北終五十) 晴日(北初二十終四十五) 水南(東二十五) 公根(初五終十五) 栢等村處(東南二十) 脇村處(東二十) 猪村所(東二十) 【城池】 德高山古城(周二千六百五十三尺井一) 【倉庫】 東倉(東六十里楡谷) 北倉(東北三十里) 【驛站】 葛豐驛(西六里) 蒼峯驛(北四十里) 烏原驛(東五十里) 安興驛(東六十里右四驛屬保安道) 【革廢】 橫川驛 含春驛 【津渡】 北川津(北二里冬橋夏舡) 【土產】 鐵 漆 紫檀 五味子 安息香 紫草 人蔘 茯苓 松茸 石茸 蜂蜜 羚羊 白花蛇 訥魚 餘項魚 黃腸封山(一處)

【典故】 高麗禩九年倭寇橫川 本朝 太宗朝幸橫城講武 仁祖午年縣人李仁居 自稱倡義聚徒數百突入本縣縛縣監李擢男悉 發軍器屯縣後高阜爲犯 京之計京城戒嚴發近地兵守要害命三南兵使領兵境上待變原州牧使洪寶發兵捕之

〈國譯〉

횡성. [연혁] 본래 신라 어사매현. 신라경덕왕 16년에 황천으로 고쳐 삭주도독부 영현으로 삼고, 고려 태조 23년 횡천현으로 고치고, 현종 9년 이내 춘주에 속하였다가 후에 원주에 속하였다. 공양왕 원년 감무를 두고 본조 태종 13년에 현감으로 고쳤으며, 14년에 홍천과 횡성이 소리가 비슷하여 횡천으로 고쳤다. [읍회] 는 화전. [관원] 현감 1명, [산천] 마산은 북쪽으로 2리에 있고, 남산은 남쪽 6리에, 오음산은 북쪽으로 50리 홍천경계에, 덕고산은 일명 태기산이라 하는데 북쪽으로 70리 강릉 경계에, 정금산은 북쪽 30리에, 홍두산은 동북 30리에, 칠봉산은 북서쪽 40리에 있다. [령로] 복현과 구도미치는 함께 동쪽 70리에 있으며, 강릉 경계이고, 회현은 동으로 50리, 어로현은 서쪽 40리, 미등내치는 북서쪽

십리에 있으며 흥천과 경계이고, 삼마치도 같다. 가오치는 서쪽 20리에 있고 계암치는 남 5리에, 도부현⁸⁹⁾은 동남 30리에 있으며 원주와 경계이다. 남천은 남5리에 있으며 원주 치악산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흘러와 회현에 다달고 정곡 북쪽을 흐르는 갑천천과 서쪽으로 흐른다. 포동천⁹⁰⁾은 도부현 서쪽에서 시작한다. 청옥연은 서북쪽 20리이 있고 흥천 인의산 동쪽을 흐르는 세 하천과 함께 서천으로 흐른다. 서천은 원래 흥천 공작산 남쪽에 흘러와 읍 서쪽을 흘러 원주 섬강 상류가 된다. 갑천은 동으로 40리에 있으며 덕고산 서쪽에서 시작하여 남천으로 흘러든다. 동창천은 동50리에 있으며 덕고산 동남쪽에서 시작하여 원주 가전천으로 흐른다.

[방리] 현내면(끝은 7리), 청룡(서쪽 처음은 5리 끝은 10리), 우천(동, 처음10리 끝은20리), 정곡(동, 처음15리 끝은 25리), 둔내(동, 처음20리 끝은 40리), 갑천(동, 처음 20리 끝은 50리), 송음(북, 끝은15리)⁹¹⁾, 청일(북, 처음20리 끝은 45리), 수남(동, 25리)⁹²⁾, 공근(처음 5리 끝은35리), 백등촌처⁹³⁾(동남20리), 협촌처(동20리), 저촌소(동20리) [성지덕고산 고성이 둘레는 2,653척이고 우물이 하나 있다. [창고 동창(동쪽 30리 유곡에 있다), 북창(동북 30리에 있다) [역참갈풍역(서6리), 창봉역(북40리), 오원역(동50리), 안흥역(동60리이 있다) 이들 4개 역은 보안도에 속한다. [혁폐]횡천역과 함춘역은 폐지되었다⁹⁴⁾ [진도북천진(북2리에 있고, 겨울에는 다리로 여름에는 나룻배로 건넌다) [토산철, 옷, 자단, 오미자, 안식향, 자초, 인삼, 복령, 송이, 석이, 꿀, 영양, 백화사, 누치, 열목어. 황정목(黃腸木)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베는 것을 금하는 황장산이 한 곳 있다.

[전고] 고려 우왕 9년 왜구가 횡천에 들어왔다. 본조 태종때 횡성으로 강무를 다녔다. 인조5년 현의 사람 이인거가 자칭 창의라고 칭하고 무리 수백을 모아

89) 渡父峴 : 현 동남쪽 30리에 있고 원주와 경계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지는 못함.
 90) 浦通川 : 渡父峴 서쪽에서 시작한다고 하나 도부현과 함께 위치를 비정하지 못함
 91) 필자주) 松陰面은 지금의 내지, 옥동, 마옥 지역으로 추정. 松原面 또는 松源面으로 기록되기도 함.
 92) 필자주) 水南面은 지금의 두곡, 문암, 양적, 우항 등 지역으로 추정
 93) 栢等村處는 「輿地圖書」에는 楊等村處로 되어 있다
 94) 橫川驛과 舍春驛은 고려시대 춘천 保安驛을 중심으로 한 春州道 역로의 역.

본현을 쳐들어와 현감 이탁남을 묶고 군기를 탕취한 후 경성을 범할 계획을 세웠는데, 경성은 계엄을 내리고 인근 병사로 하여금 중요 길목을 지키게 하였으며, 삼남의 병사에게 군병을 모아 올라오게 하여 변고에 대비하였다. 원주목사 홍보가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였다.

〈解説과 意見〉

①연혁에 대하여는 타 사료와 대동소이하나, 「대동지지」에서 주목할 것은, 신라때부터 어사매현(於斯買縣)으로 불리던 횡성이 횡천현(橫川縣)으로 개칭된 것이 고려 태조23년(940)년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 춘주(春州)에 속한 시기가 고려 현종 9년(1018)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②산천에 대한 기록 중에는, 홍두산(鴻頭山)과 칠봉산(七峯山)에 대한 기록이 보이며, 영로(嶺路)에서 새로이 어로현(於路峴)과 미등내치(彌等乃峙), 가오치(加五峙), 계암치(階岩峙), 도부현(渡父峴)에 대한 기록과 고지도에도 많이 등장하는 청옥연(淸玉淵)에 대한 기록과 그밖에도 포통천(浦通川)과 동창천(東倉川)이 기록된 것이 새롭다.

③방리에 대하여는 「여지도서」보다 100여년 뒤에 기록된 「대동지지」에서는 종전 8면이 송음면(松陰面)과 수남면(水南面) 2개 면이 늘어 10개 면이 되었으며, 종전 남청룡면은 청룡면으로, 북청일면은 청일면으로, 서공근면은 공근면으로 각각 바뀌었다.

④역참의 기록에서는 종전의 4개 역(驛)이외에 횡천역(橫川驛)과 함춘역(含春驛)이 혁폐(革廢)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역은 추정하건데 고려시대 춘州道驛路의 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은 횡천역이 ‘橫川’이라고 기록

된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고려시대 횡성에는 橫川驛, 含春驛, 蒼峯驛이 기록되어 있다.⁹⁵⁾

⑤토산에 대한 기록중, 주목할만한 것은, 황장봉산(黃腸封山)이 있었던 기록인데, 지금의 청일면 신대리 봉복산과 운무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⑥고려 우왕9년(1383)년 왜구(倭寇)가 내륙의 횡성까지 노략질을 했는데, 「고려사⁹⁶⁾」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태종이 횡성으로 강무를 행한 기록과 함께 조선 인조5년(1627)에 이인거의 난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횡성은 태종과 세종때에 활발하게 강무(講武)가 행해지던 곳으로 그와 관련하여는 「朝鮮王朝實錄」에 많은 기록이 있으며, 이인거의 난과 관련하여는 이로 인해 횡성이 10년 동안 현(縣)이 철폐되어 원주의 속현으로 있었다.

95) 「高麗史」卷八十二 志卷第三十 兵六二. 站驛 “春州道掌二十四. 保安·員壤·富昌·仁嵐【春州】，甘井【嘉平】，川原·芳春·山梁·原貞【旋川】，遂仁【楊口】，連同【朝宗】，甘泉·連峯【橫川】，橫川驛·瑤瑠【麟蹄】，嵐橋【瑞禾】，桑樹【亦壤】，雙谷·安遂【抱州】，南京驛·仇谷【南京】，臨川【沙川】，蒼峯·含春【橫川】.”

96) 「高麗史」卷135, 列傳卷第48. “倭寇丹陽·堤州·酒泉·平昌·橫川·榮州·順興等處”

6. 주요 古地圖의 橫城

① 東輿備攷 江原道東西州郡總圖

東輿備攷 江原道東西州郡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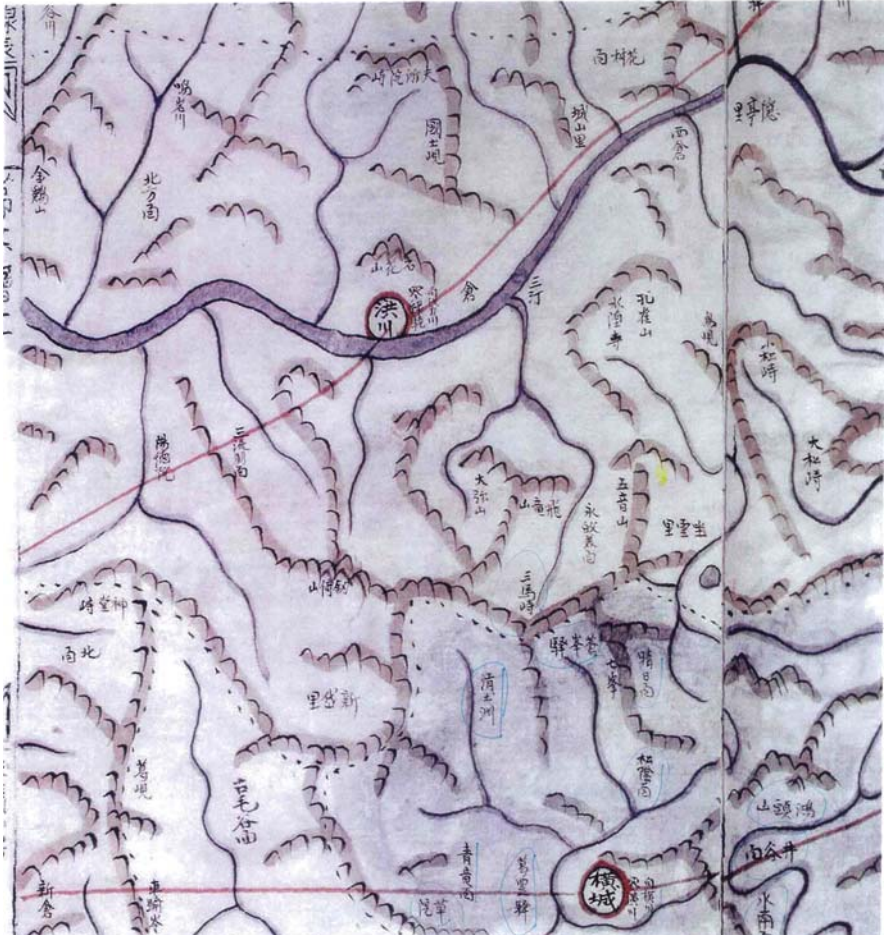


〈解説과 意見〉

1699년 이후 제작, 각 방면으로의 거리 표기, 각 역(驛)과 산과 고개가 표기, 남산에 석천사와 범흥사, 정금산에 개원사가 표기됨. 장지고개를 將之峴으로 표기하고 있다.

②青丘圖

青丘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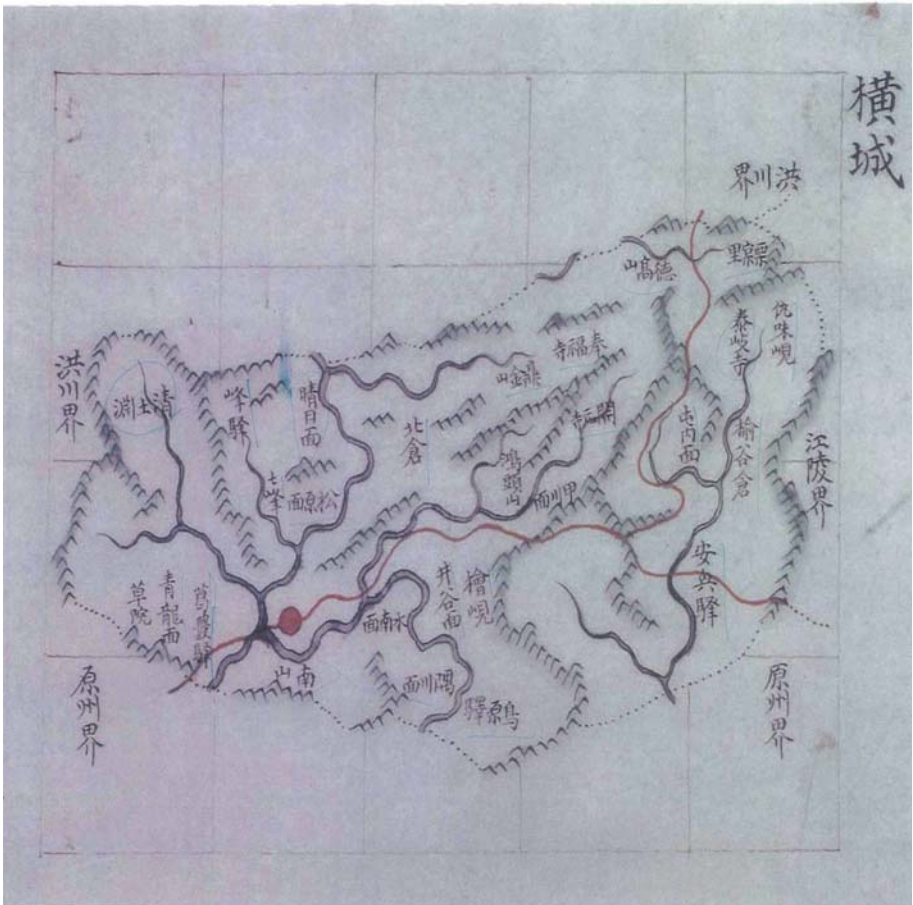


〈解說과 意見〉

18세기 초반 제작. 주요 하천에 청옥연(淸玉淵)이 표기됨. 송음면(松陰面)과 수남면(水南面)이 보인다.

④朝鮮地圖

朝鮮地圖



〈解說과 意見〉

18세기 중반 제작. ‘청옥연(淸玉淵)’이 있고, ‘송음면(松陰面)’이 ‘송원면(松原面)’으로 되어 있다. 안흥에 동창이 ‘유곡창(楡谷倉)’으로 표기되어 있다.

⑤廣輿圖



〈解說과 意見〉

19세기 전반 제작. 前川과 北川이 표기되고, 장기고개는 壯地峙로 표기. 지평과의 경계에 五加치가 있다. 북쪽에 黃腸山이 있다. 어담산은 어담산(御榻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靑丘要覽



〈解説과 意見〉

19세기 초반 제작. 초원(草院)이 나타나고, 七峯과 청옥연이 '청토연(清土淵)' 으료 표기하고 있다.

⑦東輿圖

東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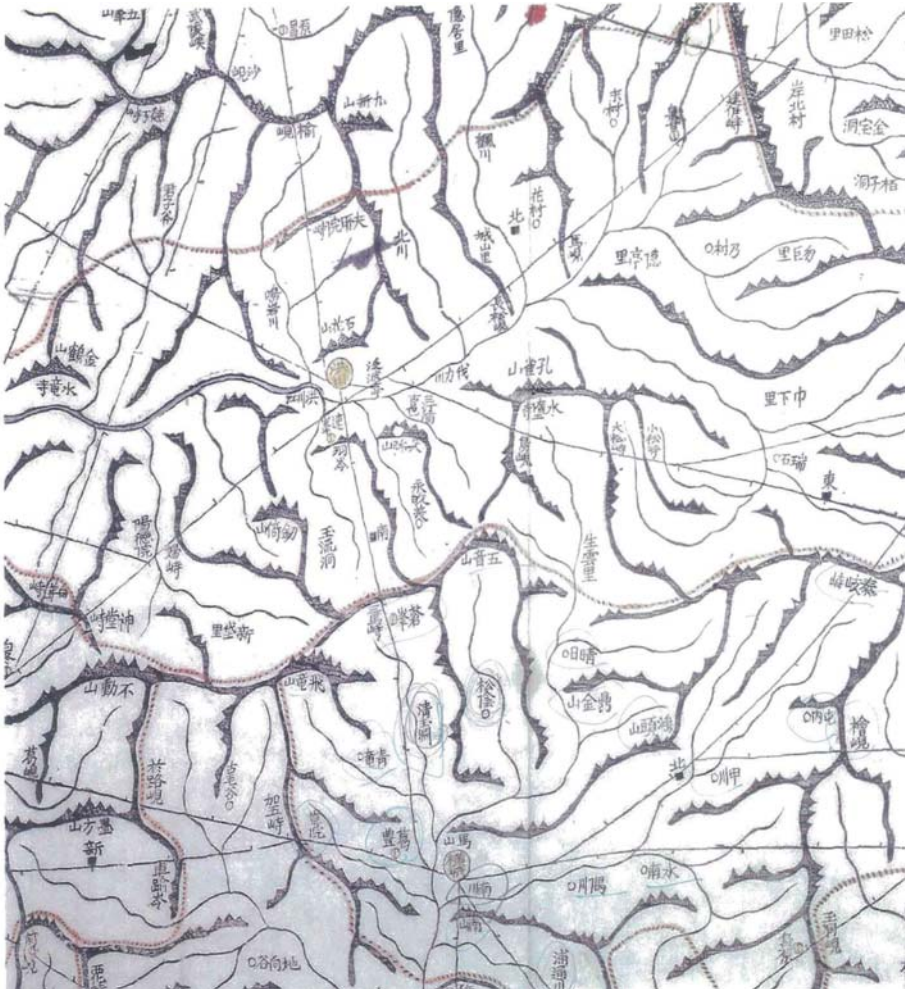
I 향토문화의 연구

〈解説과 意見〉

19세기 중반 제작. 포통천(浦通川)이 남쪽 하단에 있고, 동남쪽 하단에 가전천(加田川)이 있음. 초원과 청옥연도 계속 보인다.

⑧大東輿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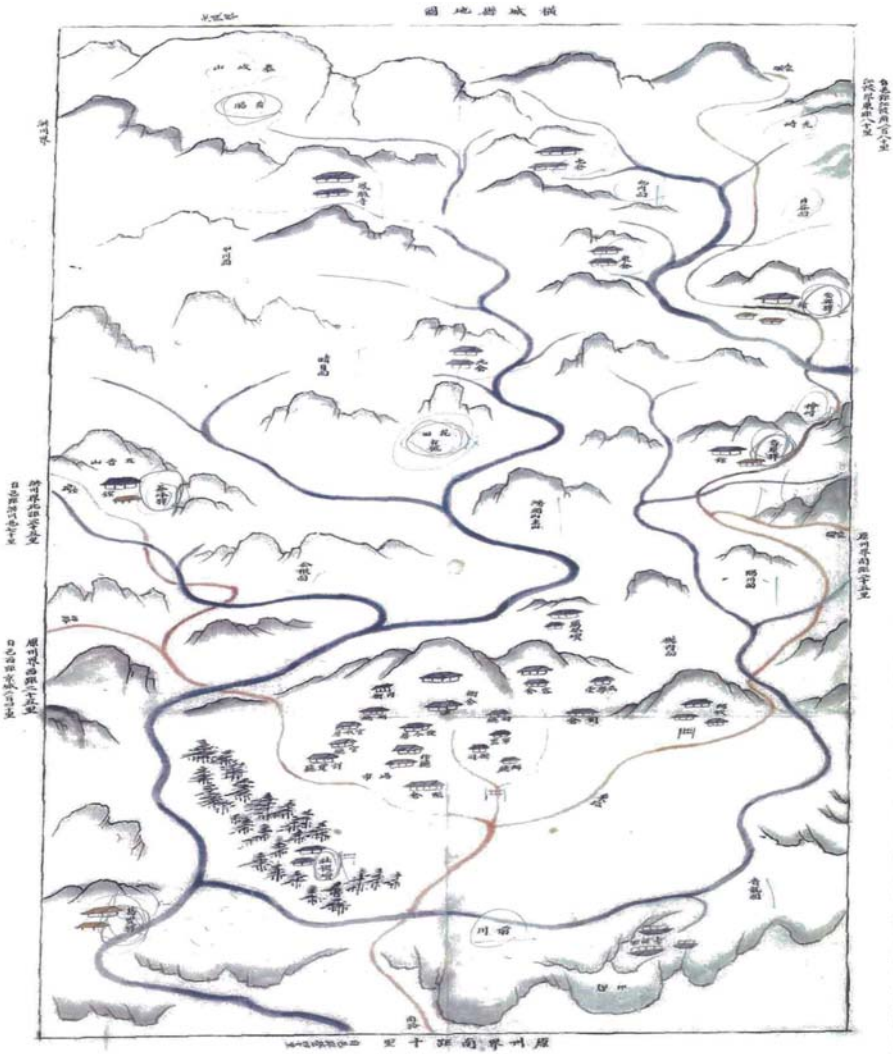
大東輿地圖



〈解説과 意見〉

19세기 중반 제작. 전천을 南川으로 표기. 加田川과 浦通川이 계속 나타나며, 초원과 청옥연은 계속 주요 지명으로 표기되었다.

⑨ 橫城縣地圖



〈解說과 意見〉

1872년 제작. 각 관청 건물의 위치와 향교 사직단, 성황단 등 표기.

갑천 지역에 화전고적(花田古跡)이 표기됨. 태기산 부근에 黃陽山 표기. 중앙에 鴻頭山을 主山으로 표기. 屯倉과 東倉, 北倉의 위치가 표기되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우리 횡성에 대해 기록된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志」의 原文을 적고, 그에 대한 國譯과 더불어 간단한 解説과 意見을 통하여 橫성의 人文地理를 살펴보았다.

각 地理志의 기록 중, 그 해석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각주(脚注)를 통하여 적었으며,

여러 연구결과와 기록상 그 사실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를 기록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어렵게 생각되던 史料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이해가 빠르도록 하려 하였다.

橫성의 租稅와 貢物 등에 대한 受取는 어떠하였는지, 그 移送는 어떻게 했는지, 행정 건물 및 창고 등은 무엇이 있었고 그 규모는 어떠하였는지, 官吏와 官屬, 軍兵의 수는 어떠하였는지, 인구의 규모와 面과 里는 어떠하였는지, 그 밖에 지역에 전하는 전설과 고적에 대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읽듯 쉽게 이해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비록 얇은 식견으로 橫성의 지명과 관련하여, ‘어사매(於斯買)’와 ‘횡천(橫川)’이 다름이 아님을 조심스럽게 정리하였고, 별호인 ‘화전(花田)’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으나, 아직 橫城의 지명에 ‘城’字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황장목(黃腸木) 封山에 대한 기록과 용암(龍巖), 삼척울진바위(三陟蔚珍巖), 벽옥정(璧玉亭)에 대한 것은 더욱 발굴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자원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을 마치며, 시작할 때 큰 의욕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 듯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많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연구 기회를 약속한다.

參 考 資 料

- 「高麗史」志 卷第十二
- 「世宗實錄」地理志
- 「新增東國輿地勝覽」四十六卷
- 「輿地圖書」原州鎮管屬 橫城縣
- 「大東地志」
- 「東輿備攷 江原道東西郡總圖」
- 「靑丘圖」
- 「海東地圖」
- 「朝鮮地圖」
- 「廣輿圖」
- 「靑丘要覽」
- 「東輿圖」
- 「大東輿地圖」
- 「橫城縣地圖」

2017 횡성 관내 향토사발굴 자료조사

횡성의 의병 및 애국지사 강성순의 발자취를 찾아서



김 동 정
(가톨릭관동대 교수)

2017년 4월 10일, 봄이 기지개를 피자 삼라만상이 온통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달래가 전령사인냥 곳곳에서 방긋 미소 지으며 손짓을 한다. 따스한 햇살 또한 겨우내 혹한을 이겨낸 우리들과 자연에게 눈부신 아름다움을 준다.



향토사료발굴 조사에 관한 안내와 설명하는 박순업 횡성문화원 원장

오전 10시 횡성문화원에 제2차 이사(임원)회의와 향토사료 발굴 조사를 위해 문화원 사랑방에 이사들이 모였다. 1시간 남짓 회의를 하고 이어 박순업 문화원장의 향토사료발굴 조사에 관한 안내와 설명이 있었다. PPT에 담겨져 있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며 당신이 만난 그 인물들과 유적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애국의 고장 횡성’의 의미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문화원장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윤태환 애국지사 초상화였다. 그는 1919년 3·27만세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였다. 1919년 3월 27일 횡성시장에서 300여 명이 만



윤태환 초상화

세운동을 벌였다. 그는 큰 태극기를 들고 군중들 앞에 섰다가 독립선언서를 읽으려하던 신재근과 함께 제일 먼저 체포됐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 만세시위를 벌이려고 했던 군중들은 일본헌병들의 신속한 지도자 검거와 군중해산으로 제대로 만세 한 번 불러보지도 못한 채 지도자들만 체포되었다. 그날 신재근(당시 64세)·장도훈(당시 49세)·안경춘(당시 20세)·강만형(당시 28세)·윤태환(당시 22세)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성지방법원의 판사는 신재근과 장도훈에게 각각 징역 2년, 최양옥의 처남이었던 안경춘에게 징역 10개월을, 강만형에게 징역 8개월을, 윤태환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태환은 황성청년회 회원으로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황성감리교회에서 야학을 하였다. 당시 감리교회 성도는 몇 십 명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4·1만세운동 때에는 황성감리교회 성도였던 정해경, 탁영재 등도 참여하게 되는데, 정해경은 목사 대행으로 교회를 이끌었고 탁영재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하여 훗날 철원 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철원애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강원도단(江原道團)의 속칭으로, 대한독립애국단의 활동이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했고 또한 철원은 강원도단의 중심지였으므로 흔히 '철원애국단'이라 불렀다. 철원애국단은 1920년 초에 발각됨으로써 조직이 파괴당하였는데, 탁영재는 이 일로 일정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윤태환 애국지사의 딸 윤신자 모습(1984)

다음 사진은 윤태환 애국지사 딸 윤신자이다. 박 원장이 직접 1984년에 만났다. 부산에 시는데 오빠의 아들인 조카를 통하여 황성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시위대에 나누어 주려고 장작을 췌고 만세운동을 할 때는 학도가를 부르며 큰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어요. 아버지는 맨발인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는 용수가 썩워진 채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라고 하며 어릴 때의 쓰라린 기억을 말했다고 하였다.



1972년 8월 15일 3·1운동기념비 제막식 광경과 현대의 3·1운동기념비 모습

이 사진은 3·1운동기념비이다. 황성의 3·1운동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로 1972년 8월 15일에 제막하였다. 동아일보사가 창간 60주년 기념으로 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세웠으며,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邑下里) 3·1공원 내에 있다.

이후 3·1운동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가 주도하여 1984년 3·1운동기념비 옆에 황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황성에서의 만세운동이 도내에서 가장 치열했고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아 황성군수가 주관이 되어 건립한 즉 정부가 공인하는 3·1운동유적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분은 박순기 어르신이고 반곡리 사람이다. 당시 4·1만세운동 당시 유일한 목격자로, 당시 황성면사무소 서기였다. 1982년 당시 독립운동가 최양옥과 동



황성4·1만세운동 목격자 박순기 (1982년 당시 89세)

갑내기로 89세였다. 당시 “군수가 총소리나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며 중요문서는 다 반출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또 “당시 면사무소 앞에 시체가 널부러져 있었는데 찾아간 시신도 있었고 찾아가지 않은 시신도 있었다. 방치된 시신은 자신이 주동이 되어 시장에 가서 광목을 끊어 시신을 처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상입은 시체 자리에는 한 삽날 깊이까지 피가 스며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인물이 독립운동가 최양옥이다. 1982년 당시 만났을 때 부인이 제재를 했다고 한다. 기침이 심해서 힘들어 했기 때문이다. 허리도 심하게 꼬부라져 있었다. 나에게 “선생님(당시 황성초교 교사)이니까 일본 놈이 앞으로 다시 만 짓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해요. 그것이 교육자 책무예요”라고 하였다. 그가 1982년 당시 황성에 와서 지역유지들을 만나 4·1독립만세운동을 설명하였으나 모두들 거짓말로



황성4·1만세운동 참여한 최양옥
(1982년 당시 89세)

여기며 사기로 치부하였다. 그는 “나는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했겠나? 오직 독립을 위해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한다. 그는 4·1만세운동 하던 그날 저녁 한참 만세를 부르다가 상안흥리 처가로 도피했다가 일경들에게 잡혀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서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쇠고랑을 찬 채로 도망하여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그는 오직 독립운동의 길만 생각하고 그 길을 걷다가 90세(1983년)에 세상을 떠났다. 자세한 것은 작년에 우리 문화원에서 발간한 『황성인 최양옥 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참고하길 바란다.



애국열사 강성순 묘

이 사진은 애국열사 강성순의 묘와 묘비이다. 강성순은 농사꾼 외아들이다. 4·1만세운동 당시 저녁 무렵 “여기서 만세 부르면 총에 맞는다”며 등을 떠밀던 친구에 의하여 향교말까지 집을 향해 가다가 “총이 겁



유영근(좌)과 최인순 손자 최봉수(우)

나 만세를 못 부르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냐”며 울부짖으며 되돌아가 앞장섰다. 총에 맞았다. 그의 나이 27세였고 노부모, 처, 7살 아들 인구를 남겨둔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아들 인구는 장성하여 2남 2녀를 두었고 32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아내는 막내 병춘을 데리고 재가하였고 만이 병철이 머슴살이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탓에 훗날 공적조사를 할 때 할아버지 이름을 ‘강승문’이라 하여 모든 자료와 안내문에 ‘강성순’ 대신 ‘강승문’으로 기록되었으나 2017년 문화원장의 공증자료 제시로 정정되었다.

이 사람은 유영근이란 사람이다. 1984년 만난 당시에 89세였다. 그는 강성순과 친구였고 최인순과 이웃이었으며, 한상열은 처 삼촌이었으므로 세 분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증언을 해주셨다.

우측 사진은 최인순 의병장 손자 최봉수이다. 최봉수는 “늘 감시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한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 더욱이 할아버지 최인순의 시신이 없어가묘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강릉 배다리전투에서 순직했을 때,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경포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할아버지 시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봉수는 팔자수염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최인순 의병장의 수염이 팔자수염이었기에 나도 한평생 그렇게 했다”고 하였다.

11시 40분에 박순업 원장의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 안내 및 설명이 끝났다. 아주 상세하게 35년 전후의 관련자들과의 만남들을 상기하면서 설명하였다. 설명이 끝난 후 곧장 황성보양식전문점으로 향했다.

중식은 11:50~12:40까지 황성보양식에서 하였다. 메뉴는 오리한방능이백숙을 먹었다. 문화원장을 비롯하여 황성군청의 한성현 담당 계장 등 21명이 참석하여 맛있게 먹었다. 모두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이 맛있는 보양식을 먹으면서 푸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

는듯했다. 오후 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음주는 하지 않았고 오순도순 앉아서 막 피어오르는 봄의 향연을 이야기했다.

식사를 한 우리 일행은 12시 50분에 의병들의 거점이었던 봉복사를 향해 출발을 하였다. 가는 곳곳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있고 도로 주변이나 가정집의 담벼락 등등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으며, 가로수인 벚나무에도 벚꽃이 피어 있어 완연한 봄 정취를 맞볼 수 있었다. 약 30분 남짓 천천히 달리자 연등이 달려 있는 도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가니 『덕고산봉복사(德高山鳳腹寺)』라 쓰여진 표지석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약 200m 남짓 가니 봉복사가 있었다. 지금은 차를 타고 쉽게 들어왔지만 1907~8년 당시에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도로에서 사찰로 들어오기 전에 왼쪽 언덕을 보면 삼층석탑이 우뚝 서 있다. 저 언덕 위 삼층석탑 자리가 사찰의 원래 터라고 한다. 1907년 말 일경이 의병의 주거지를 없애기 위해 사찰을 불태웠던 것이다. 그 후 더 깊숙이 들어와서 지은 것이 지금의 봉복사이다.

봉복사에 도착하여 사찰 입구에서 자신이 봉복사 안내문 앞에 서서 봉복사에 대한 연혁을 간략히 이사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특히 “사찰 이름이 봉복사(鳳

腹寺) 즉 봉황의 배에 해당되는 데, 봉황의 머리를 의미하는 설악산 봉정사에서 시작해 이곳 황성봉복사로, 그리고 봉황의 꼬리에 해당하는 여주 봉미산 신륵사로 이어진다"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봉복사

를 말하였다. 그리고 "이곳 봉복사 및 주변에서 민공호, 이강년 등 당시 가장 많은 활약을 펼친 의병장들이 거점으로 삼고 활약하였다. 1907년 9월 23일 민공호 의병장이 35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한 관계로 사찰이 전소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봉복사를 배경으로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봉복사(鳳福寺)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138번지에 있는 봉복사(전통사찰 제14호)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로서, 덕고산(현재 태기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횡성군에 있는 현존사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가 깊은 사찰이다.

647년(신라 선덕여왕 16)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덕고산 신대리에 창건하고 삼상(三像)을 조성하여 봉안한

봉복사(鳳腹寺)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138번지에 있는 봉복사(전통사찰 제14호)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로서, 덕고산(현재 태기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횡성군에 있는 현존 사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가 깊은 사찰이다.

647년(신라 선덕여왕 16년)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덕고산 신대리에 창건하고 삼상(三像)을 조성하여 봉안한 뒤에 오층석탑을 조성하고 봉복사(鳳腹寺)라 하였다. 652년(진덕여왕 6년)에 낙수대(洛水臺), 천진암(天眞岩) 등의 암자를 지었고, 669년(문무왕 9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671년(문무왕 11년)에 원효조사(元曉祖師)가 중건(重建)하고, 이때 사찰의 이름은 봉복사(鳳福寺)였다. 1034년(고려덕종 3년)에는 도솔암(兜率臺), 낙수암(洛水臺)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1747년(조선영조 23년)에 서곡선사(瑞谷禪師)가 중건하였다. 산내에 말사면 9개가 있었고 한때는 승려가 100명이 넘었으며 구한말에는 의병장이 머물면서 일본군과 싸우던 곳이기도 하다. 1901년 화재로 다시금 소실된 것을 1907년 최훈(崔薰)이 중건하여 봉복사(鳳腹寺)로 바꾸었고 1950년 6.25전쟁때 다시 불에 탄 것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봉복사 사찰명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처음에는 봉복사(鳳福寺)로 불려다가 봉복사(鳳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다. 현전불로는 민법당과 삼성각, 국사당, 요사채 등이 있고, 유물로는 자장이 세운 삼층석탑이 있으며, 이 탑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 사찰 입구의 부도군에는 7기의 부도와 비석 1기가 남아 있는데, 모두 조선 초기의 부도이다.

봉복사 안내문

뒤에 오층석탑을 조성하고 봉복사(鳳腹寺)라 하였다. 652년(진덕여왕 6)에 낙수대(落水臺), 천진암(天真庵) 등의 암자를 지었고 669년(문무왕 9)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671년(문무왕 11)에 원효조사(元曉祖師)가 중건(重建)하고 이때 사찰의 이름은 봉복사(奉福寺)였다. 1034년(고려 덕종 3)에는 도솔암(兜率庵), 낙수암(洛水庵)이 소실되었으나 이후 1747년(조선 영조 23)에 서곡선사(瑞谷禪師)가 중건하였다.

산내에 암자만 9개가 있었고 한 때는 승려가 100명이 넘었으며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머물면서 일본군과 싸우던 곳이기도 하다. 1901년 다시금 손실된 것을 1907년 취운(翠雲)이 중건하여 봉복사(鳳腹寺)로 바뀌었고 1950년 6·25전쟁 때 다시 불에 탄 것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봉복사 사찰명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처음에는 봉복사(奉福寺)로 불려지다가 봉복사(鳳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건물로는 인법당과 삼성각, 국사당, 요사채 등이 있고 유물로는 자장이 세운 삼층석탑이 있으며, 이 탑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사찰입구의 부도군에는 7기의 부도와 비석 1기가 놓여있는데 모두 조선 후기의 부도이다.

위의 안내문에서는 “1901년 다시금 손실된 것을 1907년 취운(翠雲)이 중건하여 봉복사(鳳腹寺)로 바뀌었고”로 되어있는데, 원래 봉복사는 지금의 사찰에서 약 700m 떨어진 삼층석탑이 소재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봉복사(鳳腹寺)의 사찰명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범우고(梵宇攷)』에는 ‘奉福寺在德高山’으로, 『횡성읍지(橫城邑誌)』와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奉福寺在縣北七十里五房’으로, 『관동지(關東誌)』와 『관동읍지(關東邑誌)』에서는 ‘鳳腹寺在縣北七十里五房今爲單房’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봉복사(奉福寺)로 불려지다가 ‘봉복사(鳳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찰 주변에는 맷돌 등 석조물과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다. 외편은 수지문(樹枝文)과 기하학적 문양의 평와편(平瓦片)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찰 입구의 부도군(浮屠群)에는 부도 7기와 비석 1기가 있는데, 모두 조선후기의 부도이다

우리 일행은 사찰 경내를 돌아보았다. 새로 지어진 사찰 자체의 의미보다 700m앞 쪽의 원래 사찰터와 이곳 사찰터에서 의병들의 은거지, 훈련장소, 격전지 등을 생각해 보았다. 원래 사찰터 보다는 이곳 현존하고 있는 이 사찰터가 의병들이 주둔하여 훈련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되었다. 수백 명씩 또는 수십 명씩 이곳저곳 등지에서 훈련을 하고 전투하던 모습도 생각해 보았다.



삼층석탑이 있는 원래 사찰터와 700m 깊숙이 자리잡은 지금의 사찰 모습

지금의 사찰 주변을 둘러보며 의병들의 활동했던 모습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후 일행은 최인순 의병장 집터를 향해 출발했다. 봉복사에서 2시 5분에 출발하여 천천히 봄내음을 맡으며 달렸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있고 도로변에도 가로수에 노란 꽃들이 피어있었다. 우천면을 향해 5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우회전하여 우천초등학교를 지나 하수교를 건너 범주로를 따라(국도에서 이곳까지 2.5km) 35분 만에 도착한 곳이 최인순 의병장의 집터이다. 도로에서 160m 떨어진 곳에는 황성야생화 분재원(황성군 우천면 범주로 129번지)도 있다. 당시 최인순 의병장의 처는 일본 관헌들이 거꾸로 나무에 매다는 등 박해가 심해 숨어 다니느라고 이곳의 집에는 거의 살지 못했다고 하였다.

박 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최인순은 1894년 갑오경장부터 청일전쟁에 참여하

였으며, 원주진위대에서 이참령(李斬嶺) 대대의 소모대장(召募隊長)으로 활약하였다. 1907년 일본군이 원주를 침입하려고 하자 이참령이 8백여 명의 군대를 해산하고 도피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해산 직전의 군사를 정비하고



우천면 법주리 최인순 의병장 집터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내 무장시키는 한편, 의병을 모집하여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적군과 교전하였다. 같은 해 7월 이후 횡성·강림·평창·대화 등지에서 교전하였고, 진부에서 교전 후 강릉 배다리에서 전사하였다. 시신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경포바다에 넣었기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강성순 묘소를 찾았다. 학곡저수지(구룡늪시터)에서 우회전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나온다. 저 멀리 언덕위에 아담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먼저 묘비를 살펴보았다.

강성순 묘비는 1989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이수(碑座螭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수에는 앞뒤로 구렁이두 마리가 하나의 여의주를 놓고 다투고 있는 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며, 2단으로 이뤄진 대석에는 무궁화가 새겨져있다.



애국지사 강성순 묘소 앞에서 문화원 이사들과 손자 며느리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비의 마멸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자경은 앞면 10cm, 뒷면 2cm다. 부인청주한씨(淸州韓氏)를 합장하였으며, 봉분은 사각돌레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석과 향로석, 혼유석이 있고, 묘소 좌측으로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에 망주석이 1기씩 놓여 있다.

순국열사(殉國烈士) 진주강공성순지묘(晉州姜公聲順之墓)



애국지사 강성순 묘비 전후의 모습

공의 휘(諱)는 성순(聲順)이요 자(字)는 사윤(士允)이시니 본관은 진주요 성은 강씨이다. 시조는 고구려 명장이신 원수공(元帥公) 휘 이식(以式)이시며 원세손(遠世孫) 박사공(博士公) 휘 계옹(啓庸)의 7세손 통정공(通政公) 휘 회백(淮伯)으로 1자가 장령공(掌令公) 휘 종덕(宗德)이라 이분의 1자이신 군수공(郡守公) 휘 자신(子愼)의 12세손 휘 유(瑜) 호(號) 상곡(商谷)은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내셨으니 공은 13세손으로 갑오년에 부친 휘 호원(浩遠)과 모친 해주오씨(海州吳氏) 사이에서 독자로 출생 인생의 삶을 다하지 못한 채 젊은 나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열사(殉國烈士)이다. 공의 조고(祖考) 휘는 대완(大完) 신해년 7월 13일 졸하시고 조비(祖?) 영월신씨(寧月辛氏)는 정해 7월 2일 졸하시

니 묘는 정암지통곡(正菴紙筒谷)에 계시다. 고(考) 휘는 호원(浩遠)이시니 무진생 계유 3월 10일에 졸하시고 비(妣)해주오씨는 계미 12월 24일에 졸하셨으니 묘는 범주리 유좌(酉坐)에 안장하셨다. 배(配)는 청주한씨(靑州韓氏)로 1950년 6월 16일에 졸하셨다.

공은 시대적(時代的)으로 좁고 배고픈 그리고 자유(自由)마저 빼앗긴 일제통치하(日帝統治下)의 억압된 세파(世波)속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금할 길 없는 세상을 살으셨다. 각지에서 독립을 위한 독립선언서가 배부되고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을 때 공이 살고 계신 황성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차로 기미년(己未年) 3월 27일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2차로 4월 1일 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이 있기까지 공은 동분서주(東奔西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굶주린 배를 움켜 잡으며 사랑하는 조국(祖國)의 자유독립(自由獨立)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른이시다. 더구나 황성의 3.1운동은 천도교회(天道教會)에 의해 추진(推進)되었던 바 공도 천도교인이셨던 것이다. 공은 최종하 윤태환 탁영재 전성수 최동수 등 십수명과 함께 추진 그 활약이 다대한 것으로 황성과 3.1운동이란 책에 수록돼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이 서거(逝去)하신 4월 1일 만세운동은 1,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의기(義氣)는 대단하였을 것이리라. 나라 잃은 백성들은 일본군의 군화발과 말굽에 밟힌 지 수십 년 동안 고생과 역경을 이겨내며 참아왔던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운동(運動)이 야말로 조국 없는 백성은 없고 백성없는 나라는 없다는 말과 같이 징용에 끌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함이요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한맺힌 투쟁이었다.

대한독립(大韓獨立)만세! 조선독립(朝鮮獨立)만세! 공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비명에 가셨지만 후손(後孫)들의 평온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던 것이다. 이렇게 서광(瑞光)하지 않은가? 길이 후손에 물려줄 기상(氣像)이요 영원(永遠)한 빛이요 만만대(萬萬代)에 별이 되시리라! 고이 평안하옵소서.

공의 묘(墓)는 백자동(栢子洞)에서 서기 1989년 11월 1일 바리골로 이장(移葬) 건좌(乾坐)

서기 1989년 11월 1일 세움豎

사자(嗣子) 인구(仁求)

장손(長孫) 병철(秉哲) 병춘(秉春)

증손(曾孫) 영묵(榮默) 도엽(到堧)

현손(玄孫) 교식(教植)

이 때 한 할머니가 구부러진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애국지사 강성순의 손자 며느리였다. 우리 일행을 위해 박카스 두 박스를 사 왔다. 그리고 그동안 집안의 내력과 얼마나 고된 삶을 영위했는지도 일행 앞에서 털어 놓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애국지사 강성순 손자 며느리

시할아버지(강성순)가 27세 총탄에 맞고 돌아가셨을 때 노부모, 처, 7살 아들 인구만 남았었다.

그 후 처는 아들을 남겨두고 원주의 순흥안씨에게로 재가를 하였다. 아들 인구는 어렵게 살면서 성장하여 2남 2녀를 두었지만 32살에 처와 아이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시아버지(강인구)는 어렵게 살면서 성장하여 2남 2녀를 두었지만 32살에 처와 아이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에 처는 막내 병춘을 데리고 우천면 권씨에게 재가하였고 딸 병례와 병연은 서울 남의 집으로 보내졌으며, 8살 병철은 학교도 못가고 남의 집을 전전하다가 11살부터 머슴살이를 하였다. 늘 성실했던 그는 17살에 청송심씨 옥지와 결혼하여 6녀 1남을 낳아서 남들처럼 공부는 제대로 못 시켰지만 모두 잘 키워 출가시켰다. 훗날 강병철은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 옆에 묘를 썼다고 한다.

이곳에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 3.5km를 달려 문암리 버스 승강장에 도착, 뒷길로 30m 정도 들어가자 추모비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상열 의사 추모비 안내문



한상열 의사 추모비 안내문

1876년 4월 2일에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에서 부친 한동수 공과 모친 연일정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청소년 시절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의한 국권상실과 1895년의 을미의병을 보고 애국사상과 항일의식을 품게 되었다.

1907년(광무 11년) 일제가 고종황제를 폐출하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군대를 해산시키자, 원주진위대 군사가 특무정교 민공호를 중심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왜병과 전투를 벌인 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선생은 32세의 청년으로 의병 200여 명을 모아 지평, 흥천, 원주, 평창, 영월 등 지역에서 다수의 왜병을 죽이고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는 등 수백

I 향토문화의 연구

회에 걸쳐 큰 전과를 올렸다. 특히 1908년 2월에는 홍천에서 왜군 부대와 크게 접전을 벌여 이를 격퇴시키니, 이에 분노한 일제는 4월 2일에 황성의 일본수비대를 파견하여 홍천군 월운리 서북후동(西北後洞)에 은거하던 선생의 가족을 납치하여 놓고 선생에게 귀순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다하였으나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달 20일에 부하를 거느리고 그들의 황성 본거지를 습격하여 왜적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일제의 계획적인 대진압작전으로 의병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미의병은 점차로 해산하게 되었다.

경술국치 후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투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3·1운동 다음해인 1920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힘을 합하고 대한의용부 참모로 활약하였으며 병인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단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중 그해 9월 19일 좌익단체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니 향년 51세였다.

선생의 시신은 동지들이 만주 길림성 혼춘현 산채구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지만 아직도 독립된 고국에 돌아와 묻히지 못함을 절통히 여겨 그 추모의 정을 만분의 일이나마 위로하고자 선생의 고향마을에 이 비를 세웠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애국정신과 항일투쟁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1962년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하였다.

안내문을 읽어본 다음 「한상열의사추모비 옆」으로 다가가서 추모비를 보고 있을 때 박순업 원장의 설명이 잠깐 있었다. “한상열 의병장은 선비였지만 대담했다고 한다. 홍천에 처자식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가족을 납치하여 놓고 항복할 것을 회유하기도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황성 본거지를 습격하였고 무기의 열세로 참패를 당하였다.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참모장으로 활약하다가 총에 맞아 순직하였다. 생가터는 안쪽에 있다”고 말하였다. 「한상열의사추모비 옆」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상열의사추모비

선생의 성은 한씨(韓氏)요 이름은 상열(相烈) 혹은 상열(相說)이요 자는 문극(文極)이니 본관이 청주로서 시조 태위(太尉) 위양공(威襄公) 휘(諱) 난(蘭)의 32세손이요 절도사(節度使) 공휘 만손(萬孫)의 18대 종손이다. 고종 13년 병자(丙子) 1876년 4월 2일에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문암리에서 부친 한동수(韓東洙) 공과 모친 연일정씨(延日鄭氏)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청소년 시절에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의한 국권상실과 고종 32년 1895년의 을미의병을 보고 애국사상과 항일의식을 품게 되었다.



한상열의사추모비

광무 9년 1905년에 일제의 한국병탄(併呑)야욕이 노골화되고 을사5조약을 늑결(勒結)하자 이에 분개하여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등 자결하는 인사들이 속출하더니 다음해에는 제2차 의병인 병오의병(丙午義兵)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때의 의병은 충청도의 민종식(閔宗植) 선생과 전라도의 최익현(崔益鉉) 선생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광무11년 1907년에 해아밀사사건(海牙密事事件)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황제를 폐출하고 순종을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자 마침내 전국적인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제3차의병 또는 정미의병(丁未義兵)이라 부른다.

이전의 을미의병이나 병자의병이 대체로 노장층(老壯層)의 유림지도자(儒林指導者)가 중심이 되었던데 비하여 정미의병은 해산된 구한국 군대가 중심이 된 것으로서 군사에 밝은 청년들이 앞장을 서는 의병이었기 때문에 왜병의 피해도 전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그런데 정미의병은 원주진위대 군사가 특무정교(特務正校) 민공호를 중심으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왜병과 전투를 벌인 후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때에 선생은 32세의 청년으로 이웃고을에서 일어남을 보고 자신도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몰아내기로 결심하고 의병 200여 명을 모아 지평, 흥천, 원주, 평창, 영월 등지에서 적을 공격하여 다수의 왜병을 죽이고 무기와 탄약 등을 노획하였는데 왜적과의 교전이 수백 회이며 군사가 많을 때에는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무신(戊申) 1908년 2월에는 흥천에서 왜군 대부대와 크게 접전을 벌여 이를 격퇴시키니 이에 분노한 일제는 4월 2일에 황성의 일본 수비대를 파견하여 흥천군 월운리 서북후동(西北後洞)에 은거하던 선생의 가족을 납치하여 놓고 선생에게 귀순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다하였으나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달 20일에 부하를 거느리고 그들의 황성 본거지를 습격하여 왜적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로 일제의 계획적인 대진압작전(大鎮壓作戰)으로 의병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미의병은 점차로 해산하게 되었다.

경술국치 후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투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3·1운동 다음 해인 경신(庚申) 1920년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힘을 합하고 대한의용부(大韓義勇府) 참모로 활약하였으며 병인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중 그해 9월 19일에 민족진영의 분열과 그들의 주도권 장악을 노린 좌익단체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니 향년 51세였다. 선생의 시신은 동지들이 만주(滿洲) 길림성(吉林省) 훈춘현(琿春縣) 산채구(山菜溝)에 권조(權厝)하고 아직도 독립된 고국에 반장(返葬)하지 못하여

그 혼백이 만리타국에 머물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 하겠다.

선생의 배(配)는 밀양박씨이며 계손(系孫) 정희(正熙)와 일녀를 두었고 정희는 재진(載珍)·재화(載華)·재욱(載旭) 삼남과 삼녀를 두었으며 재진은 영호(英鎬)·장호(章鎬)·경호(敬鎬) 삼남과 일녀를 두고 재화는 사녀를 두고 재욱은 아들 창호(昌鎬)와 일녀를 두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애국정신과 항일투쟁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계묘(癸卯)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 단장(建國功勞勳章單章)을 추서 하였다.

이제 선생의 장손 재진씨가 선생의 묘소를 고국으로 반장치 못함을 절통(切痛)히 여겨 그 추모의 정을 만분의 일이나마 위로하고자 선생의 고향마을에 이 비를 세우니 선생의 혼백은 이 돌에 의지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빈다.

단기 4325년(1992) 10월 10일

강원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박한설(朴漢尙) 근찬(謹撰)

대한민국 광복회 강원도 지부 후원

강원도 횡성군수 유재규(劉在珪) 후원

청주한씨 절도공파 종친회 근립(謹立)

의사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종희(韓宗熙)

1993년 6월 26일 근립(謹立)

일행은 박 원장의 설명도 듣고 추모비도 읽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후 한상열 의병장의 생가터를 향했다. 추모비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100여 m 가서 산 밑을 보면 2층 양옥집이 있는데 그곳이 생가터이다. 산을 등지고 남향을 향하고 있는 아담한 터였다. 필자는 박순업 원장과 마을 뒷산까지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 보고 돌아왔다.



한상열 의사 고향 문암리 마을 전경과 생가터(산 밑 2층가옥)

이렇게 봄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황성문화원 이사들과의 향토유적을 답사하였다. 의병들의 근거지 봉복사, 최인순 의병장 집터, 애국지사 강성순 묘소 탐방 및 손자 며느리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애국의 고장 황성’을 다시 실감하였다.

지난 겨울에도 혹한이 있었는데도 삼라만상의 갖가지 나무와 풀과 꽃들은 새움을 띄우고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의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하였다. 마치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지금의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같이!



大成殿

II . 향토문화숨결

* 동양고전 심경 | 김인규
* 유교와 황성향교 | 이병근

동양고전의 심경 『心經』

(마음을 다스리는 글)



김인규

성균관 전의, 횡성문화원 이사
횡성향교, 횡성문화원 강사

동양 고전은 사서(대학·논어·맹자·중용)와 육경(시경·서경·주역·춘추·예기·악경) 외에도 심경과 근사록이라는 성리학이 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제 강점기 이전 까지는 위와 같은 동양고전을 통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평생 동안 심신을 수양하고 참다운 인성교양을 함양하면서 살아왔다.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생활 속에는 4유(예·의·염·치)와 4행(효·제·충·신)이라고 하는 정신문화가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 중에 선조들이 평생학습 과정으로 닦아 오셨던 심오한 심경(마음 다스리는 글)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옮겨 소개하려고 한다. 경전 내용이라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완독한다면 분명코 한 가지라도 깨닫는 점이 있을 것이다.

심경 『心經』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학자인 신덕수(1178~1235)가 사서 육경과 송대 도학자들이 저술한 책에서 마음 수양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으로 총 37장이다. 우리나라 고려 말 공민왕 때에는 불교가 쇠퇴한 시기로서 새로 건국한 조선(1392)은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삼아 사회개혁을 착수해 나갔으며 이때에 삼봉 정도전의 정치이론과 활약상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심경과 근사록이 많은 학자들의 탐구 서적이었으며 특히 퇴계 이황(1501~1570)은 정계 은퇴 후에도 말년까지 심경을 애독하며 가르쳤고 조선조 역대왕(효종·숙종·영조·정조)들도 경연(經筵, 왕의 학문기구)을 통해서 대신들과 강론 하면서 정성을 다한 것으로 보아 심경과 근사록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심경은 유가(儒家) 수양론에 구체적인 방법과 궁극적인 경지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의사회와 도덕사회 구현을 실현하여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지금의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물질만능시대인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첨단 과학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유한 사람의 인성(人性)인 것이다. 그 인성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한다면,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첨단과학인 원자력이나 화학물질 등도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재앙(전쟁, 테러 등)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성(人性)을 수양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심 경 ◆

◎ 제 1장 인심 도심장 (人心 道心)

순 임금이 말씀 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위태롭기만 하고 도의의 마음이란 미묘하기만 하니 오직 정밀하게 탐구하고 한결같이 실천하여야 진정한 중용의 알맞은 도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주자해설 : 마음의 신령스러운 지각은 한 가지일 뿐이지만 인심과 도심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인심은 형체의 사욕에서 생기고 도심은 타고난 성품의 본연에 근원하여 지각하게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심은 점점 위태로워져 편안하지 못하게 되고 도심은 미묘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형상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위태로운 인심을 갖고 있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미묘한 도심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 위태로움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미묘한 것은 더욱 미묘해져 천리의 공명성이 사람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밀하게 탐구하라는 말은 인심과 도심을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뜻이고 한결같이 실천하라는 말은 올바른 본심을 지키라는 뜻이니 조금도 중단하지 말고서 도심은 항상 육체의 주인이 되고 인심은 항상 천리의 공명성을 따르게 된다면 위태로움은 편안해지고 미묘함은 현저해져서 행동할 때와 안정할 때 또 말할 때와 실천 할때에 자연히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 제 2장 상제 임여장 (上帝 臨汝)

시경에 이르기를 상제께서 너희들을 굽어 살피고 계시니 너의 마음을 두 가지 마음으로 변하지 말라. 다시 이르기를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

라. 상제께서 너희들을 굶어 살피고 계신다.

※ 주자해설 : 천명의 필연성을 알아서 결심에 도움이 되기 위한 글이다.

※ 서산독서기 : 이 시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할 때의 일로서 학자들이 평소에 이시를 읊고서 상제께서 실제로 굶어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사특한 마음을 닫고 진실된 마음을 보존하는데 있어 도움이 도리어 크지 않겠는가!

또한 의로운 일을 보고도 용기가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해, 득실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갖은 사람도 마땅히 이 시를 음미하고서 스스로 결심해야 할 것이다.

◎ 제3장 시이우 군자장(視爾友 君子)

시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군자와 벗 삼는 때를 보아하니 너희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어떤 잘못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또 너희가 방안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서북향 구석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신명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신명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 주자해석 : 너희가 군자와 벗 삼는 때를 보아하니 너희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어떤 잘못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사람의 마음들이 드러나 보일 때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혼자 방안에 있을 때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게 해서 방이 어두워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신명의 신묘함이란 사물의 본체여서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지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어떤 잘못이라도 있지 않을까 두려운 일인데 더욱이 무시하면서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글은 다만 겉의 모습으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삼가하며 경계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 제 4장 한사존성(閑邪存誠)

주역의 곤괘 문언전 9-2호에서 공자가 말씀하기를 평소 말할 때에 신의가 있어야 하고 평소 행동할 때에 신중함이 있어서 사특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정자해설 : 신의와 근신은 창졸간에도 이렇게 해야 하며 사특함만 막게 되면 참된 마음은 저절로 보존되므로 참된 마음 한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특함을 막는 것일까? 예의가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곧 사특함을 막는 것이다.

◎ 제 5장 경이직내(敬以直內)

주역의 곤괘 문언전 6-2호에서 공자 말씀하기를 군지는 삼가 함으로 속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도의로 걸 행실을 바르게 하여 삼가하는 마음과 도의가 확립되어야 덕화가 외롭지 않을 것이니 정직하고 올바르게 원대함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이롭다는 사실은 행동함에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 이천해설 : 삼가하는 마음이 확립 되어야 속마음이 정직해지고 도의의 마음이 뚜렷해야 걸 행실이 올바르게 되므로 도의의 마음이란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이직내(敬以直內)와 의이방외(義以方外)를 보존하고 함양하여 오래 되면 자연히 천리(순리)에 밝아질 것이다.

※ 구산양씨해설 : 참된 마음을 극진이 하여 거짓된 마음이 없게 된 것을 정직이라고 하며 만약 이것을 모든 일에 시행하게 되면 후박한 문제와 융쇄한 문제가 일정하여 바뀌지 않고 반듯할 수 있게 된다.

삼가하는 마음인 경(敬)이 주장할 수 있게 되면 도의는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므로 안과 밖이라 구분 지은 것이다.

◎ 제 6장 징분질옥 (懲忿窒慾)

주역의 손괘 상전에 이르기를 산 밑에 연못이 있는 형상이 손괘 이므로 군자가 이러한 형상을 생각하고서 분한 마음을 징계하여야 하고 욕심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이천해설 : 자신을 수양하는 도리에 있어 당연히 덜어내야 할 것은 오직 분노와 욕심이 기 때문에 분노가 있을 때는 징계하여야 하고 욕심이 생길 때는 막아야 한다.

◎ 제 7장 개과천선 (改過遷善)

주역의 익괘 상전에 이르기를 바람(난기류)밑에 우레(전류)가 있는 형상이 익괘 이므로 군자가 이러한 형상을 생각하고서 좋은 조짐이 있으면 시행하고 과오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 정자해설 : 좋은 조짐을 보고 시행하면 세상에 좋은 점을 극진히 할 수 있고 잘못이 있을 때 바로 고치면 과오가 없게 되므로 사람에게 유익함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중대한 것은 없다.

◎ 제 8장 도의에서 벗어나면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와야.

주역 복괘의 초9효에서 이르기를 멀리 벗어나지 않고 돌아올 줄 안다면 후회 없이 매우 길하다고 하였으니 공자가 말씀 하시기를 안자(제자)는 거의 완성 되었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모른 적이 없었고 이미 알고 있을 때는 또 다시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이천해설 : 잃어본 다음에 대체로 돌아올 줄 아는데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줄 알겠는가! 혹시 잃었다 해도 멀리 벗어나지 않고 돌아온다면 다시는 후회가 없을 것으로 매우 길할 것이다.

멀리 벗어나지 않고 돌아온다는 말은 군자가 수신하는 도리로서 학문하는 길은 다름 아니라 좋지 못한 점을 알았을 때는 빨리 고치고 선행의 길을 갈 따름인 것이다.

◎ 제 9장 공자절사(孔子絶四)

공자께서는 자신에게 4가지만은 단절하셨는데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셨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꼭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셨으며 막힌 생각으로 고집하는 마음이 없으셨고 나를 사사롭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셨다.

◎ 제 10장 안연문인(顏淵問仁)

제자인 안연이 인(仁)을 질문하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사욕으로부터 극복하고 본연의 예의 도리로 돌아온다면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린 문제이겠는가!

그러면 그 조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의가 아니면 사욕으로 치우치게 되므로 예의가 아닌 것을 보고나 듣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예의가 아니면 경거망동하게 되므로 예의가 아닌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안연이 듣고는 제가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섬기며 실천하겠습니다.

◎ 제 11장 중궁문인(仲弓問仁)

제자인 중궁이 인(仁)을 질문하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대문밖을 나가게 되면 귀빈을 만나 뵙듯이 공손히 하여야 하고 또 백성을 다스릴 때는 중요한 제사를 올리듯이 신중히 해야 하며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싫다고 생각 되는 것을 나 역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에서도 원망을 받지 말아야 하고 가정에서도 원망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중궁이 듣고는 제가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섬기며 실천하겠습니다.

◎ 제 12장 천명위성(天命謂性)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그 부여받은 성(性)을 따르며 노력하는 것을 도(道)라 하고 이 도(道)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 도는 우리 몸에서 잠시도 떠나면 안되며 만약 떠난다면 그 순간도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지만 그러나 행동을 삼가하고 남들이 듣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은밀한 것 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한 거 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으므로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나 혼자만이 아는 일도 삼가한다. <바로 이것을 신독(慎獨)이라고 한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를 중(中, 균형)이라고 하고 이미 일어났지만 절도에 알맞은 상태를 화(和, 조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중(中)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화(和)는 세상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화(균형과 조화)상태가 지극하게 되면 하늘과 땅도 중화속에서 정위치에 있게 되고 삼라만상도 중화속에서 번창하게 될 것이다.

◎ 제 13장 잠수복의(潛水伏矣)

시경에 이르기를 물고기가 물속에 잠복해 있다 해도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군자는 마음속으로 살펴보아 꺼림직 하지 않도록 싫어지는 생각을 없게 한다. 보통 사람이 군자를 따를 수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삼가하고 신중히 한다는 점이다.

또 이르기를 너희가 어두운 방안에 혼자 있다 해도 더욱이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므로 그리하여 군자는 행동하지 않는 중에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말하지 않는 중에도 신의 지킬 것을 생각한다.

◎ 제 14장 성의(誠意)

대학에서 의지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말은 우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으로 마치 악취를 싫어하듯 호색을 좋아하듯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자겸(自謙: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싫어지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신독(愼獨:혼자 있어도 삼가하는 마음)을 지킨다. 그러나 소인들은 혼자 있을 때 좋지 못한 일을 아무렇게나 하다가 군자 앞에서는 공연히 좋지 못한 일을 감추고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한다.

이것은 남들이 가슴속을 훤히 보고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리하여 속마음이 진실하면 외형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군자는 반드시 “신독”을 한다고 한다.

증자가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10사람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10사람의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중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넉넉한 마음은 집안을 윤택하게 하고 덕망은 자신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의지를 성실히 한다.

◎ 제 15장 정심(正心)

수신을 하는 것이 우선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은 내 자신이 분하거나 화내는 일이 있을 때는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또 두려움이 있을 때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또 지나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또 걱정이 있을 때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마음이 없으면 본다 해도 보이지 않고 듣는다 해도 듣지 못하며 먹으면서도 맛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므로 수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을 갖는데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제 16장 예악은 내 몸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말아야.

악기편에 이르기를 군자는 예악이 잠시라도 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악을 지극히 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화평하고 정직하며 인자하고 진실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즐겁고 편안해지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노력하다보면 자연과 합치되어 신묘해진다.

자연(순리)을 따르면 말하지 않았어도 신의가 두텁고 화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어 보이므로 음악을 지극히 해서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또 예의를 지극히 해서 내 몸을 다스리게 되면 장엄하고 위엄이 있지만 만약 마음속이 잠시라도 즐겁지 않으면 비루하고 거짓된 마음이 들게 되고 태도가 잠시라도 장엄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경솔하고 거만한 마음이 짝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은 속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의는 외모에 감동을 준다. 그리하여 예악을 지극히 하여 속마음이 온화하고 외모가 유순하게 되면 백성들이 서로 얼굴빛만 보고도 다들 마음이 없게 되고 외모만 보고도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게 된다.

그러해야 덕치의 교화가 빛나서 백성들의 속마음을 움직여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게 된다. 때문에 예악의 도의가 지극해진 다음에야 세상 다스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된다.

◎ 제 17장 군자는 성정을 바로잡고 의지를 온화하게 해야.

군자는 성정을 바로잡아 의지를 온화하게 해야 하고 사례들을 비교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며 간사한 말과 난폭한 행동으로 충명을 흐리지 말아야 하고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점술, 무속 등)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편벽된 습관을 갖지 말고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마음쓰는 것 등 전체가 모두 올바른 도리를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 제 18장 군자는 도의 깨닫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군자들은 도의 깨닫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소인들은 욕심 채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만약 도의로써 욕심을 억제하면 지극히 즐거워도 혼란하지 않을 것이고 욕심 때문에 도의를 망각하게 되면 의혹만이 더해져 즐겁지 않을 것이다.

◎ 제 19장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남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선대왕들이 사람에게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차마 못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치를 시행 한다면 국가 다스리는 일은 내 손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자! 갑자기 젓먹이 영아가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 가엾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이 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고 싶은 이유도 아닐 것이고 고을에서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닐 것이며 냉정하다는 나쁜 소문이 날까봐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며 측은한 마음은 어질다는 단서이고 부끄러운 마음은 의롭다는 단서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가 있다는 단서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은 지혜가 있다는 단서이므로 마치 우리 몸에 팔, 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사단지심(四端之心)을 나는 그 것과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일 것이고 우리나라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못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망치는 사람일 것이다.

대체로 본래부터 갖고 있는 사단지심을 확충할 줄 안다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샘물이 솟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서 온 나라를 보전할 수 있겠지만 확충할 줄 모른다면 자기 가정 지키는 일도 못할 것이다.

◎ 제 20장 화살 만드는 사람과 갑옷 만드는 사람.

맹자가 말하기를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 화살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이 안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이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이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이다.

기술 역시도 그러므로 직업이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공자가 말씀 하시기를 살고 있는 고을에 인후한 풍속이 좋은 것인데 그 좋은 마을을 찾아 살려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떻게 지혜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인의(仁義)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존엄한 벼슬이고 사람들의 편안한 집으로 막지 않는데도 살지 않으니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부끄러운 생각이 있다면 인의를 실천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인의를 실천하는 일은 활쏘기 대회와 같아서 쏘고 난 뒤에 적중하지 못했다 해도 승리한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패배한 이유를 나한테서 찾아보아야 할 뿐이다.

◎ 제 21장 위대한 사람은 태어날 때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맹자가 말하기를 대인은 태어날 때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대인은 지혜가 만물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이고 태어날 때의 순수한 마음이란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두 가지가 매우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사물에 유혹되지 않고서 순수하여 거짓이 없는 마음만큼은 똑같기 때문에 대인이 되는 이유가 다만 이점에 있는 것이다.

◎ 제 22장 우산(牛山: 제나라 도읍에 있는 산 이름)

제나라 도읍 우산의 나무가 울창하였는데 큰 나라 도읍지였던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도끼로 벌목을 해서 과연 울창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밤낮으로 조금씩 자라나고 비가 와서 움이 돌아나지만 또 다시 소와 양을 방목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무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우산은 재목감이란 본래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떻게 산의 본래 모습이었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어떻게 인의(仁義)마음이 없었겠는가마는 그 양심을 잃은 이유가 도끼로 나무를 아침마다 베어가는 것과 똑같아서 과연 아름다울 수 있었겠는가! 나무가 밤낮으로 자라는 것과 아침마다 베어가는 현상이 사람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데 사람에게 양심을 잃게 하는 일이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람도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된다

사람들이 짐승 같은 형태만을 보고서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재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본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만약에 기르는 방법을 찾는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지만 만약에 기르는 시기를 놓친다면 식물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가 말씀 하시기를 잡으면 보존할 수 있고 놓아버리면 잃는다고 하였으므로 출입에 때가 없이 방향조차 알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오직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구나!

◎ 제 23장 인의(仁義)는 사람의 마음이고 길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을 놔두고 다니지 않고 마음을 잃고도 찾을 줄 모르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고도 찾을 줄 모르니 학문의 길이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 제 24장 무명지 손가락.

맹자가 말하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네 번째 무명지 손가락이 정상이 아니어서 구부렸다 퍼지질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아파서 못 견디거나 일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먼 외국도 치료 받으러 갈 것이다. 손가락이 남만 못하면 싫어하면서도 그런데 마음이 남만 못하면 싫어할 줄 모르니 이런 것을 따위(사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 제 25장 몸을 아낀다면 마음도 아낄 줄 알아야.

사람들이 몸에 있어서 아낀다면 기르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 좋고 나쁨을 참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데 있겠는가! 내 몸에서 찾아보면 되는 일이다. 내 몸에도 귀중한 곳과 덜 귀중한 곳, 사소한 곳과 중대한 곳이 있어서 사소한 곳으로 중대한 곳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고 덜 귀중한 곳으로 귀중한 곳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소한 것을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고 중대한 것을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된다. 지금 어떤 원예사가 있다고 하자, 귀중한 오동나무를 버리고 잡목을 기른다면 본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하여 손가락 하나 아끼느라 팔뚝을 자르게 된다면 좌우를 보살필 줄 모르는 낭질병이라고 한다.

먹고 마시는 것만 탐내는 사람을 천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소(입과 배)한 것을 기르느라 중대(마음, 의지)한 것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음식만을 탐내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중대한 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만 한다면 음식의 영양이 어떻게 입과 배로만 가겠는가! 물론 마음과 의지에도 영양이 가게 된다.

◎ 제 26장 대인과 소인

맹자의 제자 공도자가 질문하기를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이 되고 누구

는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큰 본체를 따라가면 대인이 되고 작은 본체를 따라가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질문하기를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큰 본체를 따라가고 누구는 작은 본체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귀와 눈의 기능은 생각하지 않아서 사물에 가려지게 되는데 사람의 이목이 사물과 어울리는 순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므로 하늘이 사람에게 중대하게 부여하신 것이 “생각”일 것이다. 그러므로 큰 본체를 확립한다면 작은 본체가 빼앗을 수 없을 것으로 이것이 대인이 되는 길일뿐이다.

◎ 제 27장 굶주린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

맹자가 말하기를 굶주린 사람이 맛있게 먹고 목마른 사람이 허겁지겁 마시는데 이것은 음식의 올바른 맛을 잃은 현상이다. 기갈이 해를 끼친 것으로 어떻게 입과 배만 기갈의 해를 받겠는가!

사람의 마음마저도 역시 해를 받게 된다. 우리 사람들이 기갈의 해를 받게 될 경우라도 마음의 해까지 받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남만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제 28장 사생취의(捨生取義)

맹자가 말하기를 물고기도 원하고 곰발바닥도 바라는 음식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곰발바닥을 원할 것이다.

삶도 원하고 의(義) 또한 바라는 것이지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의(義)를 따를 것이다. 삶 역시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을 구차하게 얻지 않을 뿐이고 죽음 역시 싫지만 때에 따라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정치를 펼친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왜 선택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정치를 펼친다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중요한 삶이라 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려운 환란이라 해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독 현명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있겠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생취의(捨生取義)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을 뿐이다.

대나무그릇에 담긴 밥 한 그릇과 나무그릇에 담긴 국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살 수 있고 못 얻어먹으면 죽는다 하더라도 욕을 하면서 준다면 먼 길 가는 나 그네도 받아먹지 않을 것이고 밥그릇을 발로 차면서 준다면 걸인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큰 뇌물이라면 예의나 염치없이 받으려고 하는데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뇌물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마는 그러나 만약 집을 화려하게 짓고 첩실을 거느리고 집안 궁핍한 친척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큰 뇌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가!

평소에 나는 큰 뇌물 같은 것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집을 화려하게 짓고 첩실을 거느리고 집안 궁핍한 친척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욕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을 과연 중지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것을 두고 본심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 제 29장 순임금과 도척(같은 시대에 큰 도적 두목)

맹자가 말하기를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정을 펼친 분은 순임금이었고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척이었는데 순임금과 도척의 구분을 알려면 다름이 아니라 이익의 길을 선택하느냐 선행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 제 30장 마음을 기르려면 욕심을 줄여야.

맹자가 말하기를 마음을 기르려면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본래부터 욕심이 적었다면 아무리 수양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해도 수양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본래부터 욕심이 많았다면 아무리 수양된 마음을 보존했다 해도 수양된 마음이 없을 것이다.

◎ 제 31장 주돈이의 마음 수양

주염계 선생이 말하기를 맹자께서는 마음 수양이 욕심을 적게 갖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욕심을 적게 해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경지까지 도달해야 하니 아주 없게 되면 진실된 마음이 확립되고 공명한 마음이 통달하게 될 것이다.

진실된 마음이 확립되면 현인인 것이고 공명한 마음이 통달하면 성인인 것인데 현인과 성인이 천성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을 수양해서 도달한 것이다. 마음을 수양해서 훌륭한 인격을 완성함이 이와 같아서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 제 32장 성인을 배워서 될 수 있을까?

주염계 통서에서 어느 사람이 질문하기를 성인을 배운다고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하자 다시 질문하기를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일(一)이 요점으로 일(一)이란 말하자면 무욕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욕심이 없게 되면 고요히 있을 때는 마음이 비위(천연 天然)지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되므로 고요할 때 비위지면 공명하여 통달하게 되고 움직일 때 곧으면 공정하여 널리 베풀 수 있으므로 공명하여 통달하고 공정하여 널리 베풀 수 있다면 성인 경지에 가까이 도달한 것이다.

◎ 제 33장 극기복례(克己復禮)

정명도 선생이 말하기를 공자의 제자인 안연이 극기복례의 조목을 질문하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예의가 아니면 보거나 듣지 말고 예의가 아니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네 가지는 육신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속마음으로부터 밖의 일에 대응하는 것인데 몸 밖에서 제재 하는 것은 속마음을 기르는 것이 된다. 안연이 이 말씀을 섬기고 성인 경지에 도달하였으므로 학자들은 가슴속에 품고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잠언을 짓고서 내 자신을 경계 할 것이다.

『시잠 視箴』에 말하기를 마음이어! 본래 신령하여 사물에 대응할 때에 자취가 없구나!

보는 것이 마음을 잡는데 요점이 있어서 시선이 법칙이 된다. 사물이 시선과 교접하여 가리워지면 중심이 바뀔 수 있다. 시선을 몸 밖에서 제재해서 속마음을 편안히 해야 한다. 자기 사욕을 극복하고 예의로 돌아와 오래되면 자연히 진실해 질 것이다.

『청잠 聽箴』에 말하기를 사람이 떳떳한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천성적인 근본에 있지만 생각하는 지각이 사물에 유혹되고 변해서 마침내 올바름을 잃게 된다. 위대하신 선각들은 그쳐야 함을 알아서 안정할 수 있었는데 사특함을 막고 진실성을 보존하여 예의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한다.

『언잠 言箴』에 말하기를 사람 마음의 동기가 말로 인하여 펼쳐지는데 발언할 때는 조급하고 경망스러운 말을 금하여 속마음을 고요하고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더욱이 말은 행동의 중추적인 동기가 되므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출발하기도 하여 세상일의 길흉과 영육이 모두 말로 불러들인다.

소홀히 하는 말에 해가 되면 허탄할 뿐이고 번잡한 말에 해가 되면 지루할 뿐이며 자기 말이 방자하면 남의 말도 거슬러 오고 거스르는 말이 나가게 되면 위배되는 말로 돌아온다, 때문에 법도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말아서 교훈적인 말

씀을 공경하며 들어야 한다.

『동잠 動箴』에 말하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기미(때)를 알아서 항상 행실을 성실히 할 것을 생각하고 지사(志士)는 행실에 힘써 자신 지키기를 실천으로 한다. 도리를 따르면 여유가 있게 되고 욕심을 따르면 위태로워지므로 황급한 경우에도 생각할 줄 알아서 두려움과 조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습관이 천성처럼 완성된다면 성인과 똑같아 지는 것이다.

◎ 제 34장 범준의 심잠(心箴)

범준의 심잠에 말하기를 아득한 천지를 굽어보고 우러러 보아도 끝이 없구나!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아주 작게 한 몸을 두고 사는데 이 육체의 미미함이란 수많은 곡식 중에 낱알 하나에 불과 하지만 천지간에 참여해서 삼재(三才)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음 한가지일 뿐이로다.

예로부터 어느 누가 순수한 마음이 없었겠는가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육체에서 사역을 당한 결과로 짐승처럼 되기도 하는구나! 다만 입과 귀와 눈과 수족을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을 때 때에 따라 틈이 생겨서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는구나!

한 조각의 미미한 마음을 여러 가지 욕심이 공격해서 진실한 마음을 보존하려 해도 얼마 남지 않으려니 군자들이여! 진실한 마음을 보존해서 생각하고 또 삼가 해야 하니 그리되면 마음이 태연해져 육체가 마음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 제 35장 주자의 경재잠(敬齋箴)

주자의 경재잠에 말하기를 의관을 바르게 갖추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꿰어앉아 상제(上帝)를 대하니라. 발의 모습을 신중히 하고 손의 모습을 공손히 하면서 땅을 가려서 밟을 때에 개미집이라도 밟지 말고 돌아서 가야한다.

대문 밖을 나설 때는 귀중한 손님 만나 뵈듯이 공경심을 다하고 일을 맡았을

때는 중요한 제사 올리듯이 정성심을 다하여 두려워하고 삼가 하면서 감히 혹시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입 관리하기를 물병 막듯이 하고 나쁜 생각 막기를 성벽 같이 하면서 성실히 실천하여 감히 혹시라도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말라.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지 말며 일을 맡으면 잘 살피고서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마음으로 변하지 말고 세 가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서 오직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모든 변수에 살피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경(持敬)공부라고 하니 행동하거나 조용히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말고서 겉과 속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잠시라도 틈이 생긴다면 사육이 만갈래로 일어나서 불이 없어도 뜨거울 것이고 얼음이 없어도 차가울 것이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하늘과 땅의 처지가 바뀌듯이 삼강(三綱)은 없어질 것이고 구법(서경의 홍범구주)도 또한 무너질 것이다. 아~아 제자들아. 생각하고 또 신중히 해야 한다. 붓글로 잠언을 쓰고서 감히 영대(마음)에 고하노라.

◎ 제 36장 구방심재명(求放心齋銘)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매우 인자해야 한다. 완성함이 나에게 달려 있으니 바로 육신을 주관하도다. 마음이 어떻게 주관하는가! 신명하여 예측할 수 없구나! 모든 변화에 마음을 발휘하여 사람의 법도를 세우도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천리길로 돌아날 것이니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소유할 것이며 삼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존하겠는가! 무엇을 놔두고 무엇을 찾아야 하며 무엇을 있게 하고 무엇을 없도록 해야 하나!

굴신이란 팔꿈치에 달려있고 반복이란 손목에 달려 있으니 항상 은미한 일을

막고 나 홀로일 때도 신중히 해서 진실된 마음과 삼가하는 마음을 일상적으로 지켜야 하니 간절히 물어보고 가까이 생각하면서 도움이 되기를 생각하여야 한다.

◎ 제 37장 존덕성재명 (尊德性齋銘)

거룩하신 상제(上帝)님이시여! 우리 백성을 내려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겠는가! 인(仁)과 의(義)로구나!

인의는 상제의 법칙이니 이 인의를 공경하고 받든다 하더라도 잘못될까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어둡고 광란해서 구차하고 천박하고 비굴하게 살겠는가!

훔쳐보거나 엇듣고 또 사지를 게을리 해서 하늘의 공명성을 더럽히고 사람의 기율을 업신여기면서 하루에 거처하므로 수많은 악행이 따르게 된다.

나는 이점을 귀감으로 삼아 내 마음을 삼가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두운 방에 있어도 남들이 보는 밝은 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큰 벽옥을 받드는 듯 기득 담은 물을 받드는 듯 조심하면서 창졸지간 넘어지는 순간에도 책임은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니 감히 흑시라도 게을리 할 수야 있겠는가!

유교와 횡성향교 (橫城鄉校)



역사가 있는 시. 군 에는 1개의 향교가 있다. 그래서 횡성군에도 향교가 있으며 수백 년 전부터 향교에 모여 유학을 공부하고 봄. 가을로 성현들의 제사를 받들고 있다. 흔히 유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지만 유학은 인의예지(仁義禮智)에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데 학문을 배워 실천하지는 유학 교육기관이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유학하는 노인들이나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는 향교와 유학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유교(儒敎)란?

공자에 의해 창시되어 증자. 자사. 맹자. 순자. 동중서. 한유. 유종원.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 주자 등으로 이루어진 사상체계로서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부터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수용하고 현실 생활에서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등의 도덕적 덕목을 중시한다.

사람의 성품은 누구나 착하다는 입장은 유교의 기본적 입장이다.

1. 유학(儒學)의 근본이념

유학(儒學)의 이념은 바로 인(仁)이다. 따라서 유학은 인(仁)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한다. 인(仁)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애인(愛人), 충서(忠恕), 극기복예(克己復禮)로 대표될 수 있다. 또한 인(仁)은 모든 덕목의 종합이며, 의(義)와 예(禮)를 통해서 사회적 이념으로 실현된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인(仁)을 고원하여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도 진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인(仁)은 고원하여 높은 것이 아니라 일용(日用)하는 가운데서 점차 실현되는 것이다.



1) 애인(愛人)

애인(愛人)은 타인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다. 타인이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유학에서는 그 중에서도 내 부모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천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바로 ‘친친이인물(親親而仁物)인민이애물(仁民而愛物)’이다. 사랑이 자기 가족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사물(事物)에까지 확산되어야 진정한 인(仁)이 되는 것이다. 유교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2) 충서(忠恕)

충서(忠恕)는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충(忠)이란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하는 것이요, 서(恕)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다. 공자께서는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자공(子貢)이라는 제자가 평생토록 한 마디 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자 바로 ‘서(恕)’라고 대답하였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의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곧 인의 정신이다. 역지사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역시 유림이 아니다.

3) 극기복예(克己復禮)

극기복예(克己復禮)는 안연(顔淵)이 인(仁)에 대하여 질문하자 공자(孔子)께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여 예(禮)를 회복하는 것이 인(仁)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방법으로 ‘비예물시(非禮勿視) 비례물청(非禮勿聽)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동(非禮勿動)’이라고 가르쳤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심이 자신의 이기심을 만들기에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2. 유교의 경전은 어떤 책인가?

사서(四書) :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삼경(三經) :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3. 향교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곳인가?

향교란 · 한마디로 말해 학교의 원조이다.

옛날에는 한글로 공부 한 것이 아니라 한문을 공부하여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아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채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마을단위에 서당(글방)이 현재의 초등학교의 역할을 했고 지방향교는 지금의 중. 고등학교 수준의 학교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어 지방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하기 위해



서울의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여 과거 시험을 보아 장원급제를 하여 관료 생활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향교에서는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유명했던 성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향교에 25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가을에 제례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음력으로 매월 1일과 15일 분향례를 올리고 있다. (전국 234개 향교가 있고 중앙에는 성균관)

우리 향교에 위패를 모신 분들은 간략히 소개하면

5성위(五聖位)

1. 공자(孔子) (BC 551-479년)

인의도덕을 뿌리 내린 유교를 창시하신 분이며 춘추시대 말기 노나라 추입에서 탄생, (불교의 석가보다 7년 전, 기독교의 예수보다 551년 전 탄생)

2. 안자(顏子) (BC 521-490년)

공자님의 수제자이고 자는 연이며 노나라 출신, 덕행이 뛰어 났으며 인(仁)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음.

3. 증자(曾子) (BC505-436년)

공자님의 대통을 이였으며 자(子)는 자여(子輿)이며 노나라 출신, 효의 실천자로서 유명하며 효의 내용을 학술적으로 다양화 시키고, 심화시킴.

4. 자사(子思) (BC483-402년)

명(名)은 공급(孔伋)이며 공자님의 손자이다. 기국(沂國) 공자님의 중용사상(中庸思想)을 계승 발전 시켰고 중용(中庸)을 저술하였다.

5. 맹자(孟子) (BC372-289년)

공자님의 버금가는 성인으로서 자(子)는 자여(子輿)이며 추국(鄒國)출신. 명





(名)가(軻). 전국시대(戰國時代)의 혼란 속에서도 공자님의 가르침을 전파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성선설(性善說)이 유명하다.

18현(十八賢)

1. 홍유후(弘儒候) 설총(薛聰) (650-740년)

신라 경덕왕 때의 학자로서 유교정신에 입각한 도덕정치의 실현을 추구함과 동시에 유교의 대중화에 공헌. 원효대사의 아들.

2.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857-?년)

신라를 대표하는 대 문장가이며 12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이름을 떨쳤으며 해동공자(海東孔子)라 칭송하였다.



3. 문성공(文成公)안향(安珰) (1243-1306년)

고려 말에 활동. 주자학에 대가이며 주로 일상생활에 실친 도덕과 관련 내용 강조. 선생이 죽은 뒤 고려 충숙왕의 명에 의하여 소수서원에 보관(가장 오래된 초상화 중에 하나)

4. 문충공(文忠公)정몽주(鄭夢周) (1337-1392년)

고려 말의 학자로서 호는 포은(圃隱)이며 교육기관 설립에 힘썼고 선비의 절개를 지킴으로서 후세에 귀감이 되다. 선죽교에서 살해되었다.

5. 문경공(文敬公)김굉필(金宏弼) (1454-1504년)

조선조 성종 연산군시 활동. 김종직의 제자. 무오사화 시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귀향살이. 1504년 갑자사화시 살해당함. 소학(小學)의 실천에 힘씀으로서 유교의 생활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



6. 문헌공(文憲公) 정여창(鄭汝昌) (1450-1504년)

호는 일두(一斗)이며 정몽주,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유교의 전통을 이어 받은 성리학의 대가(大家)이다. 41세에 급제 관직에 나와 무오사화로 유배. 갑자사화로 부관참시.

7.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1491-1553년)

호는 정암(靜庵)이며 유교의 지치주의(至治主義)에 기반을 둔 개혁 정치를 주장한 진보적인 정치가이다.

8.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1501-1570년)

호는 회재(晦齋)로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유교의 민본사상(民本思想)에 근거하여 도덕정치의 구현을 주장하였다.

9.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1501-1570년)

호는 퇴계(退溪)이며 유교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유교의 실생활과 관련된 윤리도덕을 우리나라의 토양에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10. 문정공(文正公)김인후(金麟厚)(1510-1560년)

호는 하서(河西)이며 유교의 중용사상(中庸思想)을 기본으로 하여 유교의 근본원리를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강조.

11. 문성공(文成公)이이(李珥)(1536-1584년)

호는 율곡(栗谷)이며 이황과 더불어 한국 유교를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아래 왜란에 대비해 10만대군 양병설(養兵設)을 주장 하기도 하였다.

12. 문간공(文簡公)성혼(成渾)(1535-1598년)

호는 우계(牛溪)이며 동 시대의 학자인 이이(李珥)와 별인 사단칠정(四端七情)과 관련한 수준 높은 토론은 유학의 역사상 손꼽을만한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13. 문원공(文元公)김장생(金長生)(1548-1631년)

호는 사계(沙溪)이며 특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그의 예론(禮論)은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의례의 규범이 되었다.

14. 문열공(文烈公)조헌(趙憲)(1544-1592년)

호는 중봉(重奉)이며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700명의 의병과 함께 최후를 마쳤다. 의병장(義兵將)700의총(義塚)

15. 문경공(文敬公)김집(金集)(1574-1656년)

호는 신독재(愼獨齋)이며 예학의 선구자로서 부친 김장생의 학문을 이어받아 생활 속에서 유교적인 예를 적극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16. 문정공(文正公)송시열(宋時烈)(1607-1689년)

호는 우암(尤庵)이며 이이(李珥)의 학설을 이어받은 유학자로서 삶을 살았으며 병자호란의 혼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17. 문정공(文正公)송준길(宋浚吉)(1606-1672년)

호는 동춘당(同春堂)이며 김장생과 김집으로부터 성리학과 예학을 전수

받아 예학에 정통하였던 그는 생활예절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18.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 (1631-1695년)

호는 남계(南溪)이며 우리 유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을 저술하여 학술적으로 큰 공헌을 하였다.

송조(宋朝) 6현(賢)중 2현(賢)인 모심

1.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1032-1085년)

명도(明道)선생으로 불리우며 유교의 인(仁) 사상을 발전시켜 만물이 하나가 되는 사랑(인)을 실천 할 것을 주장하였다.

2.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 (1130-1200년)

호는 회암(晦庵)이며 맹자 이후 1400여 년간 끊겨왔던 유교의 도통을 성리학에 다시금 접목시킴으로서 침체되었던 유교를 재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유교경전 집대성(儒教經典 集大成)

이상 5성현 동국 18현 송국 2현 합 25성현 모심.

4. 횡성향교 연혁

(횡성향교의 발자취)

고려 17대 인종5년 (1127년) 각주에 학교를 세우고 道를 가르치라는 교서에 따라 우리나라 각지에 향교가 설립된 것이 그 기원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횡성향교는 그 사실을 확인 할만한 사료가 없고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7년 무인(1398년)에 전국의 향교가 거의 동시기에 건립될 무렵 갑천면 화전리(횡성댐 수몰지역)에 건립되어 있다가 횡성읍 북천리 등 수차례 이전되었다는 구전은 있으나 고증이 없어 그 시기와 지점조차 불분명 하고 다만 현 위치인 횡성읍 읍상리 128번지 (향교로12)에 이전된 시기를 서기 1647년으로 믿는 것은 6.25전쟁으로 손괴된 대성전을 1971년 신해년에 복건 하던중 발견된 구상

량문(舊上樑文) 에 (淸順治5년丁亥 9.27일 上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할 때 현위치로 이전된 시기를 약 370년 경과 되었음을 알수있다.

또한 향교내에 있는 은행나무 수령이 대략 300년 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횡성향교 중수기(重修記)

서기 1950년 6.25 전쟁으로 향교건물 대부분과 많은 문헌 제기 제복 등 시설과 비품이 모두 소실되어 역대 전교들의 노력으로 중건 보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54년 동·서재(동재와 서재는 학생들의 기숙사이고 명륜당은 강의 장소이다.)복건 1960년 토지보상금으로 명륜당 복원 1962년 제기. 제복. 복원. 교사등 향교 재산 수습 복구 등 대성전 복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 1971년 대성전을 복건 1978년 대성전 담장 및 향교지 발간. 1985년 홍살문 및 외삼문 앞 계단 개축.

1991년~1993년 동서재 증.개축 명륜당 기와 대성전 담장 보수 1999년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 2000년 토지 보상금으로 연건평 922평방미터의 회관 건립과 649 평방미터의 식당을 건립 예식장 각종 행사 인성 교육장으로 활용. 2006년 도 군 비 보조로 대성전 및 담장 대중수 2007년 교직사 개축. 2008년 공부자 조정비 건립 2015년 군비 지원으로 대성전 마당 포장. 동.서재 사이 경계석 설치후 복 토 공사.

2016년 도비 군비 지원으로 교직사 지붕보수 대성전 주변정비 공사. 대성전내 마루설치. 2017년 군비지원으로 6.25전쟁이후부터 준비하여 사용하던 낡은 제 상.신위. 독. 교의를 신규 구입하여 50-60년만에 교체하게 되었다.

5. 향교 직제의 변천과정

옛날에는 도유사(都有司) 1인 장의(掌儀) 2인 읍장(邑掌) 1인을 유림 중에서 선출하여 동재에 거처하게 하고 교생 50명을 양민 중에서 선발하여 서재에 거처하게하여 글을 배우게 하였는데 성종 신묘년에 예조에서 각 향교에 명령하여 생도를 증원 하고 꾸준히 가르치도록 하였다.

순종 무신년에 도유사를 직원(直員)으로 개칭하였고 1946년 정해년에 직원(直員)을 전교(典校)로 개칭하여 선거제로 하였다.

역대 향교 대표자는 100여명으로 추정되나 6.25 전쟁으로 모든 기록이 소실되어 부득이 기록된 직원(直員) 및 전교(典校)는 정건시(鄭建時) 1대로부터 본인까지 30대에 이르는 전교가 횡성 향교를 이끌어 왔다.

6. 현대 유림의 역할과 자세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는 유교가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 그것이 공자께서 바라던 유교의 본래 모습이다. 21세기에 살면서 15세기의 유교를 한다는 것은 죽은 유교를 자처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방안을 강구해야만 우리의 우수한 유교문화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림(儒林)은 누구보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 입으로는 도덕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도덕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유림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위나 나이,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덕망이다. 덕망을 뒤로 하고 권위만 내세우거나 나이만 강조하는 풍토를 극복해야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이다. 어른이 어른답고, 유림이 유림다워야 사회가 밝아지고 인류의 미래가 희망을 품게 된다.

맹자(孟子)께서는 성인(聖人)에 대하여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지, 시자(聖之時者), 성지임자(聖之任者), 성지화자(聖之和者), 성지청자(聖之淸者)이



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간형은 바로 ‘성지임자(聖之任者)’이다. 이 시대의 무도(無道)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이를 개혁하고자 노력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指導者)가 되는 길은 덕(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周)나라무왕(武王)이 혁명을 통하여 주(周)왕조를 개창한 것도 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덕이 없는 왕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맹자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지금의 시대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고 유교(儒敎)의 지도자 역시 이러한 규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유림의 평균 연령은 어느 집단보다 많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래가 암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계승세대만 육성하고 있다면 암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유림은 계승세대를 육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성균관과 향교의 책임자들은 미래 세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의 해답을 제시해야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사회에서는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유교에 입문하면 나이가 적어서 어린애 취급을 받는다. 어른을 존경하고 받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있어야 유교의 미래가 보장된다. 지금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면 유림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양반으로서 지역사회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향교에 다녀야 되고 무관과 중하위 계층은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곳이었다.

일제(日帝)를 통해서 왜곡(歪曲) 되고 서양의 문물에 의해서 침체된 유교를 회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공맹에서 주자(朱子)까지 1500여년, 주자에서 퇴계(退溪)까지 300여년, 조선후기에서 오늘날까지 100여 년 동안 침체되었던 유교가 이제 다시 부흥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다자녀 시대에서 하나뿐인 자녀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시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하고 있다.

유교 발전의 핵심은 변화(變化)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좋은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며, 나쁜 것은 제거하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것만이 유림(儒林)이 이 시대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교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황성향교는 언제나 향교에 입문하는 군민을 환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횡성댐의 어제와 오늘 | 정재영

* 한얼문예박물관 | 박현숙

* 횡성의 벌레들 | 한상균

* 가천리노인회 짚풀공예 이야기 | 이영식

* 고향과 문학 | 김양수

* 재난구조를 위해 횡성에 등지를 틀다 | 조인식

횡성댐의 어제와 오늘



사진 : 정재영
(소설가, 횡성문인협회 회장)

1. 횡성호(橫城湖)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있는 인공호수로 1990년 첫 삽을 뜬 이후 11년 만인 2000년 완공된 횡성댐을 막아 생긴 호수이다. 횡성호는 수몰민들의 큰 반대 속에 부동리, 중금리, 화전리, 구방리, 포동리 등 갑천면 5개리가 수몰되어 만들어졌다. 이곳의 큰 특징은 댐과 함께 물전시관이 세워졌다는 것인데, 국내에서 유일한 이 전시관은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횡성호는 횡성군의 발전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수몰민들의 잃어버린 삶을 되새겨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횡성호의 끝 지점인 구방리에는 수몰민들의 고향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망향의 동산'이 있는데, 수몰지역의 문화유적과 그들의 삶과 자취를 보관한 자료관과 화성정이 옛 모습 그대로 옮겨져 있다. 이곳 화성정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물안개 자욱한 횡성호는 그림처럼 아름답다.

횡성읍에서 댐까지 가는 길도 좋지만 호수를 따라 각종 산장이나 전망 좋은 찻집 등이 어우러진 횡성호 주변도 드라이브하기에 좋다.



2. 황성댐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甲川面) 대관대리(大官垓里)에 있는 높이 48.5m, 길이 205m, 총저수량 8690만, 유역면적 209km²이다. 남한강의 제1지류인 섬강 중하류 지역에서 해마다 물 부족현상과 홍수피해가 되풀이되자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건설된 중앙 차수벽형 석괴댐이다. 1993년 12월 착공하여 7년여의 공사 끝에 2000년 11월 준공되었다. 대부분의 댐이 표면취수방식인 데 비해 황성댐은 국내 최초로 선택취수방식을 택해 댐 수질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댐과 수문 2문을 갖춘 여수로, 취수탑, 소수력발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댐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을 하는 황성댐발전소는 시설규모 1,000kW(500kW×2기)의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연간 500~6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황성댐이 완공되면서 농업용수와 주변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시를 비롯한 댐 하류의 중소 도시에 연간 1억 1160만m³의 용수를 공급하며, 900만m³의 홍수조절 용량을 갖추고 있어 섬강 하류지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 댐 위쪽 광장에는 주체관·영상관·체험관으로 이루어진 연건평 390평 규모의 물홍보관이 있다. 댐 관련 자료와 댐 모형물을 전시해놓았으며 물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상영하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된다.



3. 횡성댐 추진 경과

* 횡성댐은 2000년대의 강원 내륙 지방의 균형발전 및 횡성- 원주 지방의 생활- 공업용수 공급과 섬강 중 하류지방의 홍수조절,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발전 등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다목적댐으로서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 건설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5.10~86.9(1년간)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87.12~88.10 타당성 조사를 실시 후 '90.1~90.12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 예비조사 및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건설교통부에서 '91.5.27(공고 제 63호)기본 계획을 공고함으로서 횡성댐이 본격적으로 추진 됨.
- 횡성댐 추진을 위하여 '91.9.11 횡성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의 보상

업무를 위탁협약하여, 횡성군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물민 이주대책업무 및 문화재 이전 등을 추진하기로 함.

- 횡성군에서는 보상업무위탁협약을 근거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설치조례를 '91.12.26자로 공포 하였으며, 아울러 자금관리를 위해 횡성댐특별회계설치 조례도 동일 일자로 공포.
- 설치조례에 따라 '92.1.8자 소장 및 계장 2명을 동월 9일자로 직원 7급 2명, 8급 1명을 발령함으로써 근무를 시작함.' '91.12.16(건설부고시 774호) 하천예정지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92.12.3(건설교통부고시 제635호)로 공고함으로써 횡성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침.
- 횡성댐 보상 추진은 횡성댐건설을 위한 공사용 부지를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설치 이전 횡성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의 아래 '91.11월부터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을 실시하여 '91.12.20 토지 180 필지 286천 m² 902,780천원을 산정하여 협의 통보함.
- 횡성댐보상추진을 위하여 '92.3.31 보상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물지구 지장물조사는 사업소에서 추진한 공사용부지내 누락분 조사 후 수물지의 임야부터 실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 평가는 추후에 결정 추진키로 하였으나 수물민 주민 대표는 '92.4.1 19시 구방리에서 집회, 보상추진에 대하여 협의 한 결과 보상물건 조사 반대 및 집단행동 결의 등으로 사실상 보상업무추진을 반대.
- '92.4.9 횡성문화관에 집결 후 수물민 200 여명이 공시지가 현실화, 양도소득세면제요구, 영세민생계대책 및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도로점거, 삼일광장 및 군청광장에서 집단행동.
군수와 면담 후 해산.
- 집단행동 해소대책으로 지역구국회의원(박경수) 면담주선 및 경찰서장과 주민과 간담회, 건설교통부를 방문 해 건의 했으며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집단행동 마무리.

-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수몰지역 주민 37명과 공무원이 보령댐의 추진현황 및 보상실태를 견학 하였고, 주민홍보용책자 『보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를 500부 발간해 주민들에게 배부함 또한 군수와 면담, 부락별 간담회 개최, 화성소식지 발간 배부 등 주민 설득으로 토지 및 지장물만을 조사하고 건축물과 영년작물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92년도 감정미 실시 등의 약속으로 수몰지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착수함.
- '92년도 예산 및 '91년도 이월예산 집행을 위하여 수몰지역 리장,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 수몰지내 공공건물과 화성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보상 추진으로 수몰지 감정가격선 숙지등을 위하여 감정하기로 잠정 합의 후 군수의 서한문 발송으로 수몰지 감정을 시작 함.
- '93년도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 및 공특법 개정건의를 위하여 군의원, 수몰대책위원, 보상계장이 건설교통부 차관을 방문건의 함.
- 주민이 요구한 '93년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하여 군수, 감정사,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 주민홍보지 발간, 주민설득으로 부동리에서 주택 등의 조사를 요구하여 수몰대책위원회에서는 '93.3.15.오후 2시 화성초등학교에서 대책을 논의 하였으나 부동리장이 대책위원회에 불응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발표 후 퇴장. '93.3.17~3.18(2일간) 조사 완료.
- '93년도 감정 추진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93.3.28 군에서 개최, 부동리 및 영세가구(3가구), 전지역의; 호프, 산머루, 포도, 묘지 등을 감정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금리 주민도 그들의 건축물을 조사 후 부동리와 동일하게 감정을 요구함으로써 3.31~4.8까지 중금리를 조사완료 후 이의신청 및 열람과정을 거친 후 감정의뢰 함.
- 감정에 따른 주민과의 간담회를 '93.4.28 과 5.3 2회에 걸쳐 현지 주민들의 뜻을 전달 하였고,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사 3명, 중앙감정평가법인 3명이 주민과 협의하에 '93.5.3~5.9(7일간) 현지 조사를 완료함.

- 현지 감정기간중에 감정사, 주민대표, 유관기관장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상가가 최대한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보상산정기간에 소장이 감정평가법인 방문 3회, 군수전화 2회, 주민대표방문 2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또한 감정사, 주민대표 등의 의견 교환 등으로 최대한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 함.
- 감정평가서를 '93.7.11 접수 후 감정가격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7.13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 하였으나 주민들이 감정가격에 대하여 불만 표출 후 '93.7.14 주민 집단행동을 나타냈으나 군수의 면담과 설득으로 해산 됨.
- '93.7.15부터 군수와 지사 면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으로 진정 기미를 보였으나 '93.8.16 집단행동이 재발함에 따라 주민요구사항 수렴을 위하여 민자당 사무총장 방문 건의, 감정평가사 방문 대책 협의, 주민의 진정서 발송(청와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도)과 주민과의 간담회 2회 개최로 순화되어 '93.10.2 관외거주자에, 10.7 관내 거주자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10.11 일 대책위에서 협의 통보서를 회수, 반 송 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리 별 주민 설명회 개최 와 현안 사업 설명 등으로 11월부터 1차 지역(중금, 부동)에 대한 보상금 협의가 착수됨.
- 2차 지역 보상 추진은 주민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과 면담 주선, 수자원공사사장과의 면담 등의 추진으로 해결하였으며 또한 충분한 보상 예산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방문, 국회예산결산위원 면담 등으로 예산을 확보 함 또한 잔여 지역 보상물건 조사, 감정사 변경 등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순조롭게 물건을 조사하고 '94.11.21 보상심의 위원회 개최로 아세아, 나라 감정평가법인에게 보상액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을 실시 해 추진을 마무리함.



4. 횡성댐 수몰지역 대책위원회 운영 현황

1) 개요

횡성댐 수몰지 대책위원회는 기본계획이 공고되기 전 1990년 초 결성되었다. 이는 생활터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주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결집된 모임이었다.

정관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임원이 조직되고 각 부락 단위로 경비도 조성되었다.

댐건설로 인한 제반사항에 공동 대처하기위해 결성되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적절한 보상이 쟁취였다.

그러나 주민은 물론 임원진도 보상법에는 어두웠다. 그러기에 슬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과 수차례 걸친 집단 시위도 몇 겹으로 올타리 처진 현행법 앞에는 무기력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끈기 있게 투쟁했다. 단합된 힘과 일체감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태어난 고향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생존권 차원의 투쟁이었다.

2) 활동 상황

초대 수몰지 대책위원장은 유효준이었다. 이후 부동리 이수길이가 2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91.12.31 횡성군청에서 주민 100 여 명이 최초 집단시위를 했다. 댐건설로 인한 보상가, 대관대리 공사용 부지의 낮은 감정가가 시위 촉발요인이었다.

92.4.9 200 여 명 주민들이 문화원 앞에 집결 해 도로 점거 농성을 했는데 이현태가 위원장이었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주 요구사항 이었다.

아울러 전 수몰지 동시 보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요구 하였다.

93년 3월 15일 화성초교 대책회의 시 부동리가 조사 요구에 응함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어 중금리가 조사 신청함으로서 조사와 감정이 완료되었다.

93년 7월 13일 군청에서 3차 시위가 있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이 시위의 주요 쟁점이었다. 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같은 해 8월 16일 주민 250여명 주민들의 4차 시위가 있었다. 4차 위원장인 정원화 위원장 재직 때였다.

보상가의 실거래 수준의 재감정, 주택보상의 실건축비 지급, 실향위로금 가구당 5천만 원 지급 등을 요구 하였다. 10월 11일 협의통보서를 집단 반송하며 버텼으나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 서서히 와해 되어갔다. 결국 93년 12월부터 94년 3월 사이 1차 지역(중금리, 부동리) 주민들 대부분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

5대 위원장은 이대균이었다. 화전,구방, 포동리 2차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감정평가법인이 교체되었다. 그 해 11월 2차 지역 감정이 완료되었고, 감정평가액이 1차와 2차 지역간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95년 3월 1차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재구성 하였다. 정원화가 위원장을 맡아 불평등한 감정가 차액쟁취를 재천명 하였다. 95년 5월 16일 80 여명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 하였고, 마침내 그해 6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일 까지 장장 10 여 일 동안 중금, 부동리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횡성댐 건설사업소를 점거하고 끈질기게 농성 하였다.

년차별 평가보상으로 발생한 보상 차액의 보전과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중 자가노력비 미지급분의 조속한 지급요청 등이 주요쟁점 이었다.

수몰지 대책위원회 주요 활동은 한마디로 적절한 보상가 쟁취가 주목적이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였고 근 6년여 동안 주민들간의 일체감과 단결심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수확이었고 위안이었다.



Photo by / jae young

5. 수몰민의 한의 노래

횡성댐 수몰민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네들은 그들의 요구를 소리 높여 외치는 자리에서 그들만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비록 대중가요 가락에다 가사만 바꿔 부른 노래였지만 그들의 노래에는 횡성댐 때문에 즐지에 고향을 물속에 묻고 떠나야 하는 그들의 애절한 마음자리들이 노래에 잘 나타나 있다

횡성댐 수몰민들의 한(恨)의 노래

돌이갈래요 고향땅에

1. 꽃피는 고향땅을 죽어도 못 떠나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내고향을

죽어도 못 떠나네

오늘도 내일도 서러운 이 마음 그 누가 우리 맘을 달래어 줄까나.

돌아 갈래요 고향땅에 내 정든 갑천땅으로

2. 군수님 우리 군수님 우리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우리들도 어엿한 횡성군민 이랍니다.

군수님이 수몰민들을 사랑한다면 수몰되지 않도록 살려 줘야지
못 본체 죽으라고 구경만 할 건가요.

돌아 갈래요 고향땅에 내 정든 갑천땅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곡에 맞춰)

고향땅을 빼앗기고

1. 고향땅을 빼앗기고 어디로 가야하나
떨어지지 않는 발 길 죽어도 못 떠나네
가슴에 이가슴에 한 맺힌 이 서러움
누굴위해 가야하나 죽어도 못가겠네
아-아-아-아- 서럽다 수몰민들
2. 수몰민들 때문에 고생하는 전경 아저씨
어찌하다 우리들이 이런꼴이 되었나요
가슴에 내 가슴에 멍들기는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위로하여 오늘을 살아 가세
아-아-아-아 불쌍하다 전경아저씨
불쌍하다 수몰민들
(발길을 돌리려고 곡에 맞춰)

갑천면의 면장님

1. 우리가 사는 고향은 지상의 낙원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갑천의 요지
너도 나도 고향발전 힘쓰는 동네
죽어도 고향땅에서 살으렵니다.
2. 갑천면의 면장님 무얼하세요
갑천면민 쫓겨 나는 것 구경만 하세요
아직도 늦지 않으니 붙들어 주세요
죽어도 고향면에서 죽겠습니다.
(동요 고향의 봄에 맞춰)

수몰민

1. 수몰민 한두 사람 헤어지면 어떡하나
흩어지면 망하니까 뭉쳐야지 살아간다
그렇게도 막는 게 소원이라면 수몰민도 살게 끄 해주어야지
우리 마음 서러운데 너희 맘은 편안하나
죽어도 우리들은 고향땅을 못떠난다
2. 군수님 뭘 하길래 댐 막는 것 구경만 하나요
군수님이 주동이 되어 우리들을 쫓아내나요
그렇게도 쫓아내는 게 소원이라면 울면서 우리는 쫓겨나야지
죽어도 우리들은 고향땅을 못 떠난다.
(가요 오동일 곡조에 맞춰)

갑천의 찬가

1. 댐이 되면은 우리들은 울어야하나 웃어야 하나
그리워라 내고향땅 내결을 떠나지마오
처음 터잡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갑천 마음의 고향
아름다운 갑천에서 갑천에서 살으렵니다.
2. 수몰이 되면 우리들은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황성군민들 댐뭇막게 우리좀 살려 주세요
원주 시민 살리려고 갑천면민 쫓아내나요
아름다운 갑천에서 우리들은 살으렵니다.
(가요 서울의 찬가 곡으로)

앉으나 서나 고향 생각

1. 앉으나 서나 고향 생각 앉으나 서나 고향 생각
 떠오르는 고향산천 잊을 길이 없어라
 안갈려고 발버둥쳐도 쫓아내는 너희들
 소리쳐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앉으나 서나 고향 생각 앉으나 서나 고향 생각
 떠오르는 고향산천 잊을 길없는 내 마음
2. 자나깨나 갑천 생각 자나깨나 갑천 생각
 떠오르는 갑천 고향 잊을 길이 없어라
 잘살려고 평생동안 갑천에서 일만 했건만
 모두가 허사로다 댐이라니 웬말인가?
 떠오르는 갑천 산천 잊을 길이 없어라
 (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곡으로)

오로지 땅을 다오

1. 댐 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집도 잃고 고아 신세 떠나야 하는 신세
 정말로 너무하네 더 이상은 못참겠네
 댐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2. 우리는 돈도 싫다 오로지 땅을 다오 오로지 땅을 다오
 돈 줄려면 땅을 사서 땅으로 다오
 누가 땅을 판다했나 돈도 싫다 땅안판다
 우리는 돈도 싫다 오로지 땅을 다오 오로지 땅을 다오
 (가요 하숙생 곡으로)

군민들은 모를거야

1. 갑천땅에 집을 짓고 정 든 내 갑천 땅
황성담이 웬말인가 수몰이란 웬말인가
누구를 위해 희생을 하나 군민들은 모를거야 우리들이 쫓겨나는거
우리는 흙에 살리라 고향을 지키며 농사 지으며 흙에 살리라

2. 물속에다 수장하고 떠나는 이 마음
원주 시민 위하여 하루아침 수몰인생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으리 군민들은 모를거야 우리들이 쫓겨나는거
우리는 안 떠날거야 고향을 지키며 농사 지으며 흙에 살리라
(가요 흙에 살리라 곡에 맞춰)



6. 수하리 마을들.

구방리(舊坊里)

횡성댐 건설로 횡성호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북쪽에 계천이 흘렀지만 지금은 모두 수몰되어 북쪽지역은 모두 호수가 되었다. 서쪽에는 국사봉이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수하리 유일한 교육기관인 화성초등학교가 있었고 실질적인 수하리의 중심 마을이었다. 자연마을에는 개골, 다래말, 은곡, 응달말 등이 있다. 개골이라고 불렀던 곳에는 수몰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망향의 동산'이 들어서 있고 호숫가를 따라 주택들이 들어서 있지만 가구수는 많지 않다. 예전에는 이곳 마을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 대촌이라고도 불렀다. 다래말은 예전에 마을에 다래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방리는 횡성의 구읍이 화전리(花田里)에 있을 때, 이 곳이 한 읍내가 되므로 구방내(舊坊內)라 불렀다. 남쪽에 있는 정금산 해발 약 300m 지점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산촌을 이루는 마을이 있다. 19번 지방도로를 따라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중금저수지가 있고 정금산 아래 횡성군 추모관이 있다. 그리고 펜션과 찜질방, 식당이 모여 있는 호수파크벨리가 있다. 49 가구가 횡성댐으로 인해 수몰 되었다.



화전리(花田里)

화전리는 황성군의 옛 고을인 화전현(花田縣)이 있었다는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화전리에는 그 이름을 뒷받침 해주는 동한터가 실재 했었다. 또한 석기시대 유물이 다수 출토 된 걸로 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 온 흔적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서쪽으로 계천이 돌아 흐르고, 낮은 골짜기와 평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었지만 황성댐이 건설되면서 인공호수인 황성호가 형성되어 마을이 모두 수몰되었다.

화전리는 한창 번성 할 때는 74호 까지 살았으나 황성댐 건설로 모두 정든 고향을 떠났다. 수몰 전 자연마을에는 큰말, 버덩말, 옷말, 땅두루 등이 있었다. 큰말은 화전리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은 화전리에서 가장 넓은 들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큰말 일부가 남아있고 황성호 수변에는 펜션 단지인 레이크힐 펜션이 들어서 있다.

중금리(中金里)

중금리는 황성읍과 갑천면을 잇는 관문이었다

서쪽에는 계촌이 돌아 흐르고, 남쪽에는 군량골 저수지와 중금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낮은 골짜기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에는 군량골, 마당재, 아랫말, 짝바우 등이 있다. 군량골은 옛날 이 마을에 군량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당재는 , 고개 위에 마을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장현이라고도 한다.

한때는 120 여 호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수몰고시 때는 89세대가 거주 했었다. 5개 반이 있었는데 1,2,3,4 반 74세대가 수몰되고 4반 일부와 5반인 마당재가 수몰 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일제시대 시작 해 해방 후 완공 된 한치 저수지가 있고 짝바우 길옆에는 여양진씨 지평공파 23세 손 '종억' 이 식수했었다는 수령 200 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동구머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나무도 마을이 수몰되기 전 고사 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부동리(釜洞里)

부동리는 가마봉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가마골, 또는 부동(釜洞)이라 하였다.

부동리는 마을 전 지역이 수몰되는 중금리와 함께 수하의 요충지로서 수하 5개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답과 풍부한 일조량의 옥토를 자랑하고 있었다.

북으로는 삼거리, 동으로는 화전리, 남으로는 구방리 서로는 중금리와 계천의 하류를 두고 있는 부동리와 같은 보를 쓰는 뜰이 황성군에서는 제일 크다는 1500 마지기가 넘는 부동뜰과 밭으로도 평야를 연상케 하는 중뜰의 옥토와 중뜰에서 향교골까지 이어지는 야산자락의 견실 한 밭들이 타동에 비해 상대적

비교우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횡성댐 건설로 이 일대 거대한 인공호수인 횡성호가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대부분 수몰되었고 일부 몇가구가 남아있을 뿐이다. 낮은 골짜기와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농촌마을이 있었으며 자연마을에는 가마골, 아랫말, 중뜰 등이 있었다. 가마골은 마을이 골 막바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말은 중뜰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던 마을을 가리킨다. 중뜰은 부동리 중앙에 있던 마을로 넓은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횡성댐 건설로 30 여 호의 가구가 수몰되었다.

포동리

포동리는 횡성댐 최상류 지역이다.

원래는 1개리였으나 1973년 행정구역 조정시 1리와 2리로 분리되었다.

포동리는 계천을 끼고 그 주변에 이루어진 마을로 옛날 작은 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포동리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봉복산에서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계천이 포동리를 지나 횡성호를 이룬다. 포동리1리와 2리 마을 앞에서 계천은 큰 곡류를 이루고 횡성호로 흘러든다. 북쪽에는 어답산이 위치하고 있다. 포동리는 계천변의 낮은 골짜기를 이루며 강변에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을에는 건넌골, 고래골, 마무리, 모재기 등이 있다. 건넌골은 부영바우와 저고리골 사이에 있던 마을로, 두 마을을 왕래하려면 이곳을 건너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윗 건넌골과 작은건넌골이 있으며 포동1리 앞에는 계천을 건너는 포동교가 있고 포동2리 앞에는 포동2교가 있다. 19번도로나 지난다. 포동리에서는 24호가 직접 수몰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농경지 일부가 수몰되어 15호는 간접 보상을 신청했다. 마무리라는 자연부락까지 횡성댐 물이 마무리 돼 오래 전 조상들의 지명유래에 대한 선견지명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우뚱 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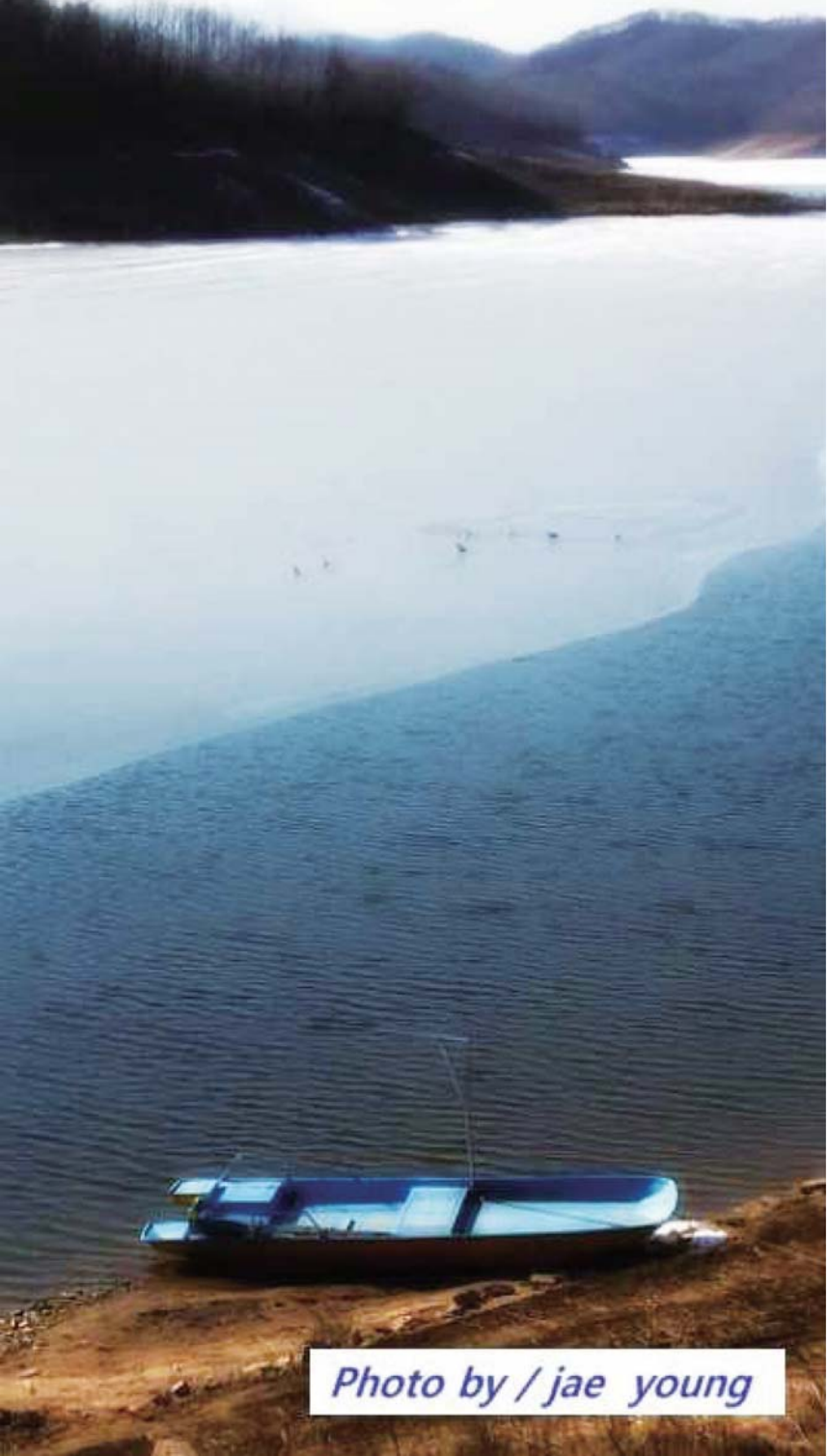


Photo by / jae young

7. 수하리를 그린다.

망향(望鄕)의 동산

2000년 횡성댐이 완공되면서 갑천면 구방리, 중금리, 화전리, 부동리, 포동리 등 5개리 258세대가 물속에 잠기게 됐는데, 이 수몰민들의 삶의 흔적과 역사를 전시해 놓은 곳이 바로 망향의 동산이다. 수몰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곳은, 고향이 물속에 잠기게 된 수몰민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 남긴 그들의 애환이 깃든 가구와 수몰되기 전의 흔적들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횡성댐 상류에 있으며, 횡성댐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면 꼭 한번 들르는 관광 명소이다. 이곳에는 기념비와 중금리 탐둔지에 있던 중금리 3층 석탑 2기와 화성정이 건립되어 있다. 망향의 동산은 횡성호를 끼고 있어 드라이브하기 좋으며, 횡성 441지방도에서 갑천으로 가는 길에 있다.



화성(花城)의 옛터 전시관(展示館)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 있는 화성의 옛터 전시관은, 옛 화성초등학교 자리에 화성의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꾸며놓은 곳이다.

특히 횡성댐을 만들기 위해 수몰되었던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이 전시되어 있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전시관 앞에는 중금리 3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9호)이 자리잡고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는 이 석탑은 원래 갑천면 중금리 탑둔지에 있었으나, 횡성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해 1998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것이다.



횡성댐 수몰 지리지 '화성의 옛터'

누구에게나 고향은 소중한 것이고, 언제나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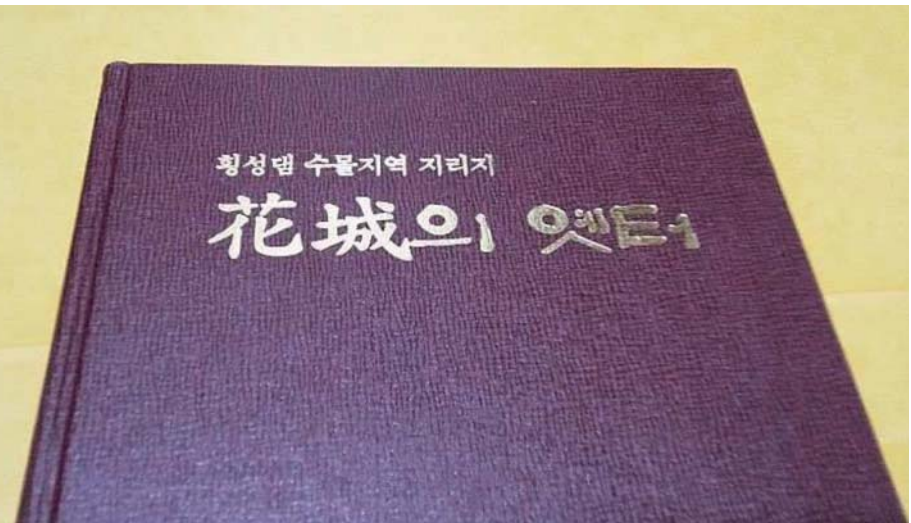
삶의 애환이 서리고 간혹 아픈 기억이 있을지라도 고향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곳이다.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건설되는 횡성댐으로 인해 정든 고향이 수몰되어 떠나야 하는 258 세대 수몰민들에게 다시는 되돌아 볼 수 없는 산천과 옛집, 문전옥답, 그리고 다정하기만 했던 이웃들을 마음속에서나마 영원히 되돌려주고자 수몰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몰민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취지에서 횡성댐 수몰지리지 '화성의 옛터' 가 1996년 만들어 졌다.

이 책은

정재영(소설가, 편집위원장), 박순엽(향토사연구가), 진용두(소설가), 고 이병복(소설가) 그리고 군청에 근무하는 사진작가 김시동에 의해 만들어져 고향을 물속에 빼앗긴 258세대 수몰민들에게 나누어졌다.

20 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이 책 '화성의 옛터' 를 꺼내 그 시절을 반추하며 수장 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망향제



20 여 년 전 물속에 고향을 빼앗긴 수물민들은 수장 된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망향의 동산에 모여 ‘횡성댐 망향제’ 를 올린다. 올해로 19번째.



횡성군수가 초헌관이 되고 ‘망향제 위원장(현재 이복균)’ 이 중심이 되어 수하 5개리 조상들의 은공과 수물민들의 만복을 비는 제례로 올해는 5월 28일(수)에 치러졌다.

아울러 물속에 모교를 잃어버린 화성초교 총동문 체육대회도 함께 이루어져 동문들의 화합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망향의 동산 아래 운동장 둘레에는 졸업생들의 졸업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일일이 넣고 게시 해 참가자들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하루를 보냈다.

8. 황성호의 내일



2000년 황성댐이 완공되면서 갑천면 구방리, 중금리, 화전리, 부동리, 포동리 등 5개리 258세대의 수몰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주로 황성 읍하 택지와 원주 단관택지 그리고 일부는 우천면에 대토를 해 낯선 삶의 공간으로 이주를 했다.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곤 농사 밖에 없던 그들에게 낯선 도시 공간은 그야말로 버겁고 지난스럽기만 했다.

그들은 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건설현장의 일을 하며 낯선 도시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들 수물민 마음자리에는 오직 고향 마을에서의 오순도순 두터운 이웃들과 살던 기억들이 쉽사리 떠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낯선 이주마을에서 고향마을 사람들과 향우회 모임을 갖고 고향마을을 반추했다.

그리고 매년 4월이면 그들이 살던 마을 언덕위에 세워진 ‘망향의 동산’에 모여 ‘망향제’를 올리고 이웃들과 서로 만나 그리운 정들을 쌓는 시간을 가진다.



정재영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고
‘문예사조’ 중편소설 부문 신인상 받으며 등단.

한국소설가 협회 회원

황성문인협회 회장

강원문학상(소설)

장편소설 ‘아름다운 것들’

중편소설집 ‘물속에 뜬 달’

소설집 ‘바우’

포토에세이집 ‘섬강에서 그리움을 만나다’ 외

한얼문예박물관



박현숙

유난히 단풍이 아름다운 한해,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한해가 무르 익어가고 있다.
벼를 벤 자리가 늘어가고 들꽃이 노랗게 어우러져 피어난다.
언덕배기엔 은색 갈대가 하늘거리고 낮은 자리엔 간혹 마른 풀 사이로 망쫂대가 파랗게 새움을 돋우고 있다.

마치 한쪽의 한국화를 활짝 펼쳐놓은듯한 화폭이 아름답다.

눈 안에 한쪽을 담고 한얼문예박물관을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고 파란 하늘이 나를 감싸 안 듯 포근하다.

양 옆으로 교실이 아담하다.

박물관을 들어서며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과 삶에 대한 오천년의 문화민족상을 후손들에게 알려 주고자 세운 의지가 보인다. 첫 번 방문때 자세히 들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다시 한번 세계의 교류 속에서 문화예술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보존하는 우리의 문화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2년 3월 아직은 싸늘한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지만 간혹 훈훈한 봄바람이 희망을 갖게 한다

수 없는 발걸음을 한 곳 횡성!



조용하며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이런 곳을 찾기에 갈급했던, 어느 화백에 딱, 어울리는 이 자리! 황성!

2002년 한얼문화예술관으로 개관하여 2010년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운영과 순수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얼문예박물관을 개관하고 제1전시실에는 근대 서화작가 작품과 수석들을 전시하여 자연상태와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였고 제2전시관에는 고문서와 법륜에 관한 자료, 화조도와 민화등을 전시하여 선조들의 생활의 지혜로움과 민초들의 삶을 엿 볼수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3전시관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서화 작가 작품들을 비롯하여 도자기, 벼루, 칠기등 기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제4전시관에는 관장 부부 화백의 창작 작품인 한국화 문인화 서예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야외 전시장 또한 눈길을 끈다.

장승을 비롯하여 목공, 석공예품, 그리고 야생화를 관람 할 수 있는 아담한 식



물원과 타조 등 미니 동물원은 꿈나무 아이들에게 인기를 만점이다.

그 수 많은 작품들을 보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들의 산물인 보물이 우리 횡성지역에 있음에 마음이 풍요로워 지고 행복함을 느끼며 자랑스러워진다.

전시분야로는 한국화가 296점이나 되는 보물이 있었고, 도예 석조각 외국작품도 25점이나 있었다. 문인화는 112점이 전시되어 있었고 북한작품도 500점이나 있었다.

정말 큰 규모의 전시관을 돌아보며 풍요로운 마음으로 우리 문화와 예술 작품을 접하게 됨을 감사했다.

그동안 찾아볼 겨를도 없는 바쁜 일상들을 타하며 마음껏 끼를 들어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따뜻한 봄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때 동양화를 그리던 열정을 되살려 보기로 결심도 해보았다.



산, 물, 숲,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평화로운 이곳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창작활동의 공간에 지금은 군장병, 노인, 다문화가정,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화 그리기 부채 만들기 한지공예 만들기등 창작 체험활동도 하고 있다.

강원도 풍경, 설악의 비경,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라 할수 있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 화백, 동헌 이양형선생과 설매 이정자 선생이다.

구도를 잡는 곳이 동양화이고 한국화이다

산골의 흐르는 물줄기, 듩직하고 우람한 바위의 비경, 소나무의 푸른절개등이 두분 선생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공기 좋고 물 맑은 하늘아래, 지인의 소개로 이곳에 머물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강원도를 두루 다니며 창작 활동을 하다가 한 지인의 소개로 횡성에 머물게 된 두 부부 화백은 전라남도에서 출생했다

한국의 거장, 고(故) 남농(南農)허건(許健)선생의 사사를 받아 횡성군 우천면 아담한 폐교에 설립한 한얼문예박물관은 연중 전통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에 황성한우 그리기 한우 탈 색칠하기, 박물관 예절교육, 남농 허건선생박물관 특별전과 강원 도민들에게도 한국화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를, 전시관을 통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양형관장은 현재, 강원도박물관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강원도와 특히 황성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

처음엔 주민들간의 소소한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짐에 지금이 자리가, 이 순간이 아름다운 것이다.

새봄에 잎이 나고 꽃이 피기까지는 한 겨울에 추위도 견디고 눈,비, 바람을 이겨낸 인고의 세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현실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해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비전을 보기때문이 아닐까 한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황성의 문예박물관은 박물관의 옛 문화를 보고만 가는 곳이 아닌 교육과 체험등 학습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고 프로그램이 가득한 문화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화와 서양화, 도자기, 유화, 민속자료, 수서, 서예 등 근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수천점이 교체 전시되고 있는 거대한 전시장에서 작은 꿈을 꾸고 있는 소소한 사람들에게, 들꽃처럼 피어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열린 박물관!

소탈하고 부담없는 예술가의 모습에서 그동안 어렵게만 느끼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3000여평의 넓은 부지에 아담하고 소박한 창작실, 전시실, 세미나실이 가족과 함께 자연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참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공간, 더욱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이런 곳이 횡성에 있음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것에 만족하며 비전있는 횡성을 꿈꿔본다.

멋진 횡성을.....

황성의 벌레들



한상균

I. 들어가는 말

‘벌레’, ‘버리지’ 하면 어딘지 모르게 정답고 어릴 때 추억이 스며나오는 정다운 이름이다. “버리지 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른들께 자주 들던 말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곤충이거나 개체가 크고 많아서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고 개체가 작거나 수가 적어서 보기 힘든 종류도 있다. 그 동안 촬영했던 벌레들 중 잘 눈에 띄지 않는 벌레와 어릴 때 추억이 묻어나는 벌레로 나누어 살펴본다.

20 여년간 산책하며 벌레를 만났던 곳



승지봉



승지봉 정상



섬강 산책로

II. 황성에서 촬영한 벌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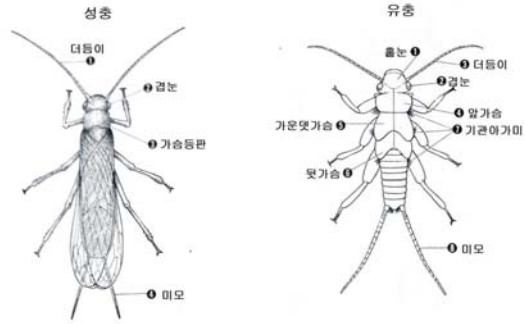
황성에서 주로 섬강둘레와 승지봉을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촬영한 벌레들 중에서 97종을 소개한다.

A. 잘 보이지 않는 벌레들

대부분 보기도 힘들지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벌레 20종을 소개한다.

가.강도래목(Plecoptera)

완전탈바꿈(알▷유충▷변태기▷성충)을 하는 곤충이다. 강도래목에 속한 무리들은 몸이 연약하고, 편평하다. 머리는 폭이 넓으며, 더듬이는 길다. 날개의 시맥은 그물모양이다. 우리나라에는 10과 61종이 알려졌다. 산지나 평지의 수변 중심으로 관찰되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가-1.강도래과(Perlidae)

몸은 납작하고 연약하며 녹색·노란색·연노란색 등의 빛깔을 띤다. 흐르는 물이나 호수·연못 등지에서 사는데, 날개가 전혀 없어 땅 위를 기어다니기만 하는 종류도 있다. 어른벌레는 주로 봄과 여름에 나타나 다른 작은 곤충이나 식물의 꽃·잎 등을 먹고 산다. 애벌레는 민물고기의 낚싯밥으로 쓰인다.

1.녹색강도래 (*Sweltsa nikkoensis* Okamoto, 1912)

유충의 몸길이는 10mm. 갈색을 띤다. 자연성이 높은 계류의 상류와 중류부에 서식하며 호박돌 및 자갈로 이루어진 여울과 수변부를 선호한다. 돌위를 기어 다니며 작은 수생동물을 잡아먹는다. 어른벌레는 몸길이 9~10mm. 크기가 작고, 앞가슴 등판에 짙은 갈색 세로 줄이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처음 보는 곤충이고 이름도 생소하다.

녹색강도래 - *Sweltsa nikkoen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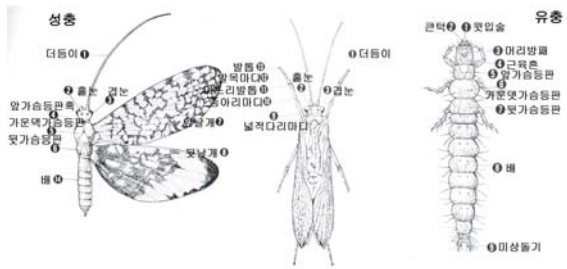
<사진 1>



성충-2008.6.1 황성읍 선강둘레길

나. 날도래목(trichoptera)

완전탈바꿈을 하는 곤충이다. 유충기에는 수중에 서식하며, 생김새가 나방과 비슷한 곤충이다. 우리나라에는 21과 86종이 있다. 날개의 색상 및 무늬가 매우 다양하고 크다.



나-1. 날도래과(Phryganeidae)

성충은 물가에서 발견되고 나방처럼 생겼으나 날개에 비늘가루가 없고 털만 있으므로 나비목 곤충과 쉽게 구별된다. 유충은 호수·하천 등에서 발견된다. 종류에 따라 잎이나 나뭇가지 등을 엮어서 원통형 또는 타원형의 집을 만들어 머리와 가슴만 내놓고 배는 그 속에 넣어 보호하고 있다. 이동할 때에는 이것을 끌고 다닌다. 유충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므로 유익하다. 한국에는 3속 8종이 분포한다.

2. 청나비날도래 (*Mystacides azurea* Linnaeus, 1761)

<사진2> 청나비날도래 - *Mystacides azurea*



성충-2007.8.15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몸길이 9mm. 마치 벵타이를 보는 듯한 광택이 있는 검은색인데 빛의 방향에 따라 청색 빛이 묻어난다. 더듬이에 흰 띠가 있으며, 매우 길다. 날개는 광택이 있는 짙은 푸른색이고 뒷부분이 지붕처럼 솟아 있다. 유충은 몸길이 7mm

내외. 물속에 살며 연한 황갈색을 띤다. 나뭇잎 조각과 가는 모래 등을 섞어 긴 원통모양의 집을 짓는다. 하천의 수변부나 물이 고여 있는 지역, 그리고 유속이 완만한 큰 강에서 주로 서식한다. ‘세상에 이런 벌레도 있나?’ 하고 놀랐다. 특히 긴 더듬이가 인상적이다. 처음 보는 곤충이며 이름도 생소하지만 멋진 신사를 만난 듯하다.

3. 바수염날도래 (*Psilotreta kisoensis* Iwata, 1928)

성충은 5~8월에 나타나는데 몸길이 7~11mm정도. 유충의 몸길이는 12mm정도이다. 물속에 살며 여러 하천 생물의 먹이가 된다. 모래로 곁이 매끈한 원통형 집을 짓는다. 산간에

<사진 3> 바수염날도래 - *Psilotreta kisoensis*



성충-2008.5.9 황성읍 섬강둘레길

흐르는 시냇가의 큰 바위 밑 등에서 볼 수 있다. 다 자라면 물으로 올라와 우화한다. 늦봄에 계곡 옆에서 검은색 날개에 긴 더듬이를 가진 성충들이 까맣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까마귀떼를 보는 듯한 검은색이 인상적이다.

4. 우묵날도래 (*Nemotaulius admorsus* McLachlan, 1866)

<사진 4> 우묵날도래 - *Nemotaulius admorsus*



성충-2008.5.1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몸길이는 25mm정도, 날개편 길이 55~70mm. 머리와 배는 누런 갈색, 가슴은 갈색이다. 5~8월에 활동하는데 나방처럼 생겼으나 앞날개에 비늘가루가 없다. 유충은 주로 낙엽 등의 식물질이 존재하는 소하천이나 호수의 물속에서

식물부스러기와 작은 돌을 이용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산다. 한국, 일본, 사할린,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5. 큰줄날도래 (*Macronema radiatum* McLachlan, 1872)

<사진5> 큰줄날도래 - *Macronema radiatum*



성충-2008.10.1 황성읍 성강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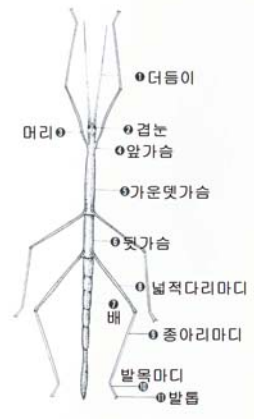
2008.5.17 황성읍 성강둘레길

성충은 몸길이는 14mm 내외, 날개편길이 23mm. 더듬이가 매우 길며, 앞날개에만 밤색의 뚜렷한 줄무늬들이 산재해 있다. 유충은 몸길이는 20mm정도, 머리와 가슴은 밝은 갈색 또는 갈색이고 배는 녹색이지만 서식환경에 따라 변이가 있다. 서식환경이 안정적인 하천의 종류에 서식하며 유기물이 풍부하고 여울이 잘 발달된 곳에서는 개체밀도가 매우 높다. 유숙이 빠른 여울부의 돌 표면에 견사망을 만들고 떠나려가는 플랑크톤과 미세한 유기물을 걸러 먹는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 분포한다. 잘 생긴 몸매와 예쁜 무늬, 긴 더듬이가 특히 인상적이다.

다.대벌레목 (Phasmidae)

몸이 대나무 마디 모양 또는 잎 모양으로 되어있어 대벌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불완탈바꿈(알>유충>성충)을 한다. 몸이 크고 길다랗다. 머리는 작고, 채찍 모양·실 모양의 것이 존재한다.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나뭇가지처럼 생긴 생김새로 천적을 속이는 의태로 자신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에는 3과 5종이 있다.

성충



다-1.대벌레과(Phasmidae)

날개는 퇴화해 날지 못한다. 몸은 녹색이고 길어서 나뭇가지에 앉아 있으면 발견하기 힘들다. 행동은 매우 느리고 주로 식물의 잎을 먹으며 야행성이다. 외국에서는 대량발생하여 수목해충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대량 발생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희귀한 곤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대벌레와 우리대벌레가 분포한다.

6.대벌레(*Baculum elongatum* Thunberg, 1815)

몸길이는 70~100mm, 몸과 다리는 대나무처럼 가늘고 길며 몸 색깔은 주위환경에 따라 녹색 또는 갈색을 띤다. 날개가 없으며 더듬이는 짧고 암컷은 몸에 한 쌍의 가시가 있다. 참나무 등 활엽수 잎을 먹는다. 연 10회 발생하며 7월부터 늦가을 까지 산란한다. 몸을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 위장한다. 한국, 일본, 타이완에 분포한다. '벌레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벌레 - *Baculum elongatum*
<사진 6>



성충-2005.7.10 월성읍 성강둘레길

라.밀들이목 (Mecoptera)

완전탈바꿈을 하고 포식성이며, 다리는 길고 가늘며 앉을 때 날개를 몸 위에 지붕 모양으로 접는 곤충이다. 밀들이목에 속한 무리들은 입 부분이 앞으로 길게 튀어나왔고, 날개는 가늘고 길다. 우리나라에는 2과 11종이 알려졌다. 등불에 가끔 찾아온다.



라-1.밀들이과(Panorpidae)

몸의 길이는 15mm 정도. 검은색이다. 넓고 둥그스름한 날개가 있는데, 몸에 비하여 가늘고 길며, 뚜렷한 무늬가 있다. 봄에 나타나 다른 곤충의 즙액을 빨아

먹고 사는데, 애벌레는 땅속에 굴을 파고 산다. 수컷은 일반적으로 둥근 줄기 모양의 외부 생식마디가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7. 참밀들이 (*Panorpa coreana* Okamoto, 1925)

<사진7> 참밀들이- *Panorpa coreana*



성충(암컷)

성충(암컷)-2008.5.22 형성을 성강둘레길

먹이사냥-2008.5.17

몸길이 12~15mm. 어른벌레의 머리와 겹눈은 검은색이고,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다. 수컷의 몸빛깔은 검은색이며, 암컷은 황색이다. 수컷 배끝에는 생식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위로 굽어 있다. 성충은 초여름 연 1회 발생한다. 성충은 주로 작은 곤충류를 잡아먹지만 식물의 잎살을 먹기도 한다. 짝짓기할 때는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주고 암컷이 먹이를 먹는 동안 짝짓기를 끝낸다. 사마귀와 같이 짝짓기를 하는 동안 암컷에게 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컷의 생식기가 위로 굽어져 있어 마치 전갈과 비슷하여 영어로는 'scorpionflies'라고 한다. 한국에서만 분포가 확인된 한국 고유종이다. 처음 만났을 마치 끔찍한 살인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벌레를 포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짝짓기할 때 수컷이 먹이(선물)를 준다는데 남자도 구애할 때 선물을 쥐야하는 것도 여기서 배웠나? 한국 고유종인데 학명을 일본인이 붙였다니 자존심 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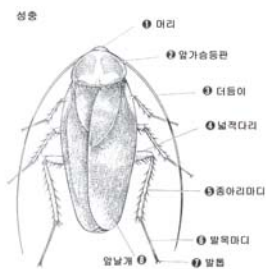
마.바퀴벌레목 (Dictyoptera)

기원이 오래된 곤충으로 약 4억 년 전 고생대의 석탄기에 처음으로 지구상에 나타난 곤충이다. 오늘 날에도 크게 번성하므로 흔히 '살아있는 화석' 이라고 한다. 불완전탈바꿈을 하며, 성충의 수명은 3~4개월 이지만 1년 이상 사는 것도

있다. 대체로 주행성이지만 30여종이 야행성으로 집안에 서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1.바퀴과

바퀴류의 경우 야외와 실내에서 서식하며 잡식성이다. 몸 표면은 윤기 나고 강인한 탄력성의 피부를 갖고 있으며 일부는 짧은 털로 덮여 있다. 몸 색은 대개 갈색, 회색, 적갈색, 및 흑색 등 다양하다. 국내에는 3과 10종의 바퀴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산바퀴(Blattella nipponica Asahina, 1963)

독일바퀴라고도 부르는데 성충은 몸길이 11.5~14mm. 집바퀴와 비슷하지만 앞가슴 좌우에 진한 줄무늬가 있다. 산바퀴는 사람이 사는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약충으로 겨울나기를 하며, 야외성으로 숲의 바닥이나 낙엽층에서 서식한다.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오며, 한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사진8> 산바퀴 - *Blattella nipponica*



성충-2007.7.15 황성 강림 2008.8.17 황성을 성강둘레길

바.사마귀목(Mantodea)

불완전탈바꿈을 하며 앞다리는 먹잇감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기에 알맞도록 낫 모양으로 가시가 많다. 보통 곤충을 잡아먹지만, 동족을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작은 개구리나 도마뱀까지 잡아먹는다. 사냥의 속도와 정확도를 최적화 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는데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먹이가 회피를 시도할 경우 앞다리를 뺏는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바-1.사마귀과

국내에는 2과 8종이 알려졌다. 곤충학자 앙리 파브르의 《곤충기》에 따르면 사마귀는 먹이의 종류에 구애없이 사냥하며, 목 부위를 먼저 물어뜯어 신경을 마비시킨 뒤 산 채로 잡아먹는다고 한다. 사마귀 암컷은 교미 후 수컷을 무조건 잡아먹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 이는 산란기로 말미암아 예민한 상태로 알을 키우기 위한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해 눈앞에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귀의 천적으로는 성충의 몸안에 기생하는 유선형동물(연가시)이 있다. 연가시류 동물은 잠자리나 여치 등의 먹이 곤충의 몸속에서 기생하고 있다가, 사마귀가 곤충을 잡아먹으면 그때 살 곳을 사마귀의 몸속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사마귀에게 기생한 연가시는 사마귀 배속에서 양분을 빼앗으며 산다. 그 외 사마귀 약충을 잡아먹는 여치와 개미와 깡충거미, 알집에 기생하는 사마귀꼬리좀벌과 사마귀수시렁이도 천적이다.

9.사마귀(*Tenodera angustipennis* Saussure, 1869)

<사진 9>사마귀 - *Tenodera angustipennis*



성충-2004.8.27 우천초등학교

약충-2008.7.23 황성을 성강동래길

버마재비. 오줌싸개라고도 한다. 한자어로는 당랑(亮螂)·거부(拒斧)라고 한다. 몸길이는 70~85mm. 몸색깔은 녹색 또는 갈색을 띠며, 앞다리는 길고 낮처럼 접히며, 톱날 같은 가시가 있다. 머리는 뒤까지 돌릴 수 있다. 주둥이가 삼각형으로 뾰족한 편이며 턱이 날카롭다. 전체적으로 몸이 가늘고 길며, 배는 뚱뚱한 편이다. 늦가을에 거품 같은 분비물과 함께 알을 낳는다. 알집은 다소 긴 편이다. 이른 봄 알집에서 깨어난 어린 약충은 탈피를 거듭하여 7월에 성충이 된다.

1년 1회 발생하며, 7월에서 11월까지 출현한다. 논·밭을 비롯한 들판, 산자락의 풀숲에서 서식한다. 밤에도 낮처럼 활동한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으로 우리 속담에 “벼마재비 수레 버티듯” 혹은 “벼마재비도 성나면 앞밭로 수레를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길에서 사마귀가 다가오는 수레에 맞서는 형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덤비는 무모함을 빗대는 표현이다. 또한,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데 그 뒤에서 참새가 노리고 있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는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의 뒤에서 참새가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방에서는 어린아이의 간질·뇌막염, 그리고 어른들의 류마티스 등의 진정제로 사용되었다. 폐결핵이나 늑막염, 기침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말린 사마귀를 달여 먹거나 간장을 넣고 구워 먹었다. 또한, 사마귀는 각기병의 치료약 또는 해열제로도 쓰였다. 사마귀류의 알집 말린 것을 상표소라고 하여 다양한 효능의 민간약으로 이용해 왔다. 외국에서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사육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서는 징그럽고 무서워 멀리 했던 곤충이다.

10. 왕사마귀(*Tenodera sinensis* Saussure, 1871)

<사진10> 왕사마귀 - *Tenodera sinensis*



성충-2013.8.7 황성읍 석강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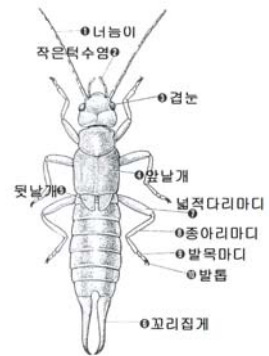
방어하는 모습

몸길이 70~95mm. 사마귀보다 약간 크고 몸빛깔은 녹색 또는 갈색이다. 8월에서 10월까지 들판이나 숲의 가장자리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나뭇가지나 잡초 위에서 먹이를 기다린다. 유충 때에는 진딧물과 같은 작은 곤충을 잡아먹다가 점차 자라면서 힘이 강해져 메뚜기, 나비, 매미, 벌 등 곤충을 닥치는 대로 먹는

다. 일반적으로, 사마귀는 숨어서 방어한다. 위협을 할 때에는 높게 서고 날개를 크게 펼치면서 앞다리를 치켜세운다. 날개를 크게 펼치고 앞다리를 치켜들어서, 사마귀는 자신의 몸집이 더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게 한다. 몇몇 사마귀들은 날개가 밝은 색이고, 날개에 모양이 있어서 효과가 더 큰 경우도 있다. 늦가을에 거품 같은 분비물인 알집에 싸인 알을 낳는데, 이 알집이 공기 중에서 굳어진 상태로 월동한다. 한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에 분포한다. 횡성담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무모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 집게벌레목(Dermaptera)

집게벌레목에 속한 무리들은 불완전탈바꿈을 성충 하며, 딱지날개가 축소되어 배 부분이 드러나 있고, 배 끝에 집게 모양 부속지가 있다. 보통 땅 속의 굴 안에서 산란하는데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암컷이 조심스럽게 보호하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이른 봄에 부화되어 갓나온 새끼는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어미의 몸을 뜯어먹고 자란다. 잡식성으로 우리나라에는 5과 21종이 알려졌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사-1. 집게벌레과(Forficulidae)

작은 앞날개 속에 뒷날개가 접혀 있지만 별로 날지 않으며, 잡식성이다. 온대 지방에서는 1년에 1세대인 것이 많고 어른벌레는 알이나 유충을 보호하는 습성이 있다. 2령 이상의 유충은 독립하여 생활하고 4~5령을 거쳐 성충이 된다. 배 끝 꼬리집게의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로 방어를 위해 사용하며 먹이를 잡을 때나 뒷날개를 펴고 접는 데도 사용한다. 어른벌레는 봄

부터 여름에 걸쳐 평지나 해안의 먼지 속 또는 돌 밑이나 낙엽 밑 등에 숨어 살며 야행성이 많다. 집게벌레는 꽃과 열매에 피해를 입히지만, 한편으로는 총채벌레, 달팽이, 나방의 유충을 잡아먹어 도움을 주기도 한다.

11. 줍집게벌레(*Anechura japonica* Bormans, 1880)

줍집게벌레 - *Anechura japonica*



성충-2008.6.12 황성림 섬강둘레길

몸길이 16mm. 몸은 짙은 갈색이며, 배 부분에는 붉은빛이 돈다. 딱지날개 끝 부분에 노란 무늬가 있다. 야외의 키가 큰 잡초 위에서 볼 수 있으며, 곤충의 알이나 번데기를 먹는다. 낮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등불에도 가끔 찾아온다. 습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일본, 시베리아에 분포한다.

12. 민집게벌레(*Anisolabis maritima* Bonelli, 1832)

‘집게벌레’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몸길이 약 22mm. 정도,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이고, 다리는 노란빛을 띤다. 배 끝의 집게는 짧고 굽으며, 끝 부분만 안쪽으로 휘었다. 어른벌레는 5월~10월에 주로 야외에서 볼 수 있으며, 겨울에는 집안에서도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습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집안으로 침입해 들어가 번식을 하고 건들면 집게로 위협을 하여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곤충이다. 한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분포한다.

민집게벌레 - *Anisolabis maritima*



13. 고마로브줍집게벌레(*Timomenus komarowi* Semenov, 1901)

한국산 집게벌레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이다. 몸길이 15~22mm. 머리, 딱지날개, 집게, 종아리마디, 발목마디는 암적색이고 나머지는 모두 흑색이다. 딱

<사진 13>고마로브집게벌레 - *Timomenus komarow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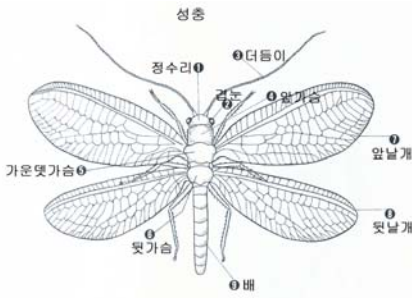


성충-2005.6.13 황성읍 섬강둘레길

지날개는 크고, 붉은빛 도는 갈색이다. 집게는 활처럼 휘었고, 안쪽으로는 작은 돌기가 있다. 봄에서 가을에 걸쳐 자주 출현하는데, 보통 습한 곳이나 풀숲

에서 자주 관찰된다. 알은 땅속의 굴 안에서 낳는다. 낮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등불에도 가끔 찾아온다. 한국, 일본, 타이완 등에 널리 분포한다.

아.풀잠자리목(Neuroptera)



풀잠자리목에 속한 무리들은 완전탈바꿈을 하며 앞날개와 뒷날개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고, 시맥은 그물 모양이다. 포식성이며, 우리나라에는 10과 41종이 알려져 있고,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아-1.풀잠자리과(Chrysopidae)

우리나라에는 11종이 알려졌다. 풀잠자리는 여름에 볼 수 있는 녹색의 곤충으로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애벌레도 진딧물의 천적으로 진딧물의 체액을 빨아먹은 뒤 그 껍데기를 위장을 위해 몸에 붙인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풀잠자리를 진딧물 소탕을 위한 천적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간혹 알을 불교에서 말하는 설화속의 꽃 우담바라로 혼동하기도 한다.

14.풀잠자리(*Chrysopa intima* McLachlan, 1893)

몸의 길이는 10mm 정도. 초록색이다. 날개는 투명하고 크며 가로 맥은 초록색, 세로 맥은 검은색이다. 풀잠자리 무리 중 크기가 중간인 편에 속한다. 산지나

<사진 14> 풀잠자리- *Chrysopa intima*



성충-2007.7.15 횡성읍 성강둘레길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여름밤에 불빛에 날아드는데 고약한 냄새가 난다. 진딧물 따위를 잡아먹는 이로운 벌레로 한국, 시베리아,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아-2. 뱀잠자리과(Corydalidae)

뱀잠자리(snakefly)라는 이름은 길고 둥근 머리와 긴 앞가슴 모양이 마치 뱀이 머리를 끈추세우고 있는 모습과 유사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종만이 보고되었다. 유충은 수서생활을 하며, 아가미로 호흡한다. 성충은 물가 주변에서 관찰되고 불빛에 날아들기도 한다. 뱀잠자리류는 맑은 담수에서만 관찰되어 환경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

15. 뱀잠자리(*Protohermes grandis* Thunberg, 1781)

뱀잠자리-*Protohermes grandis*

<사진 15>



성충-2013.8.8 횡성읍 서강테니스코트

성충은 계곡주변의 풀밭이나 나무에서 볼 수 있는데 몸길이 35~45mm, 앞날개길이 약 50mm. 뒷날개의 끝이 넓으며 정지할 때는 접어서 겹쳐둔다. 유충은 몸길이는 55~60mm. 긴 원통형으로 편평하며, 짙은 갈색이다. 하상이 호박돌 및 자갈로 이루어진 여울구간을 선호하는데 유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른 여울에서 날카로운 꼬리다리 발톱을 이용해 바닥을 기어 다닌다. 포식성이 강하며 작은 수생동물을 잡아먹는다.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징그럽고 혐오스럽다. 이름 때문인가?

16. 고러뱀잠자리(*Neochauliodes koreanus van der Weele*)

<사진 16> 고러뱀잠자리 - *Neochauliodes koreanus van 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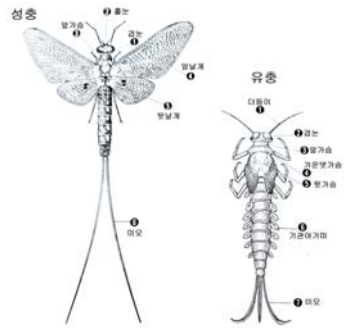


성충-2013.8.7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성충은 커다란 날개가 있지만 잘 날지 않고 던져주면 날개 짓을 한다. 속날개의 촉감이 매우 부드럽다. 물가 주변에서 관찰되고 불빛에 날아들기도 한다. 유충은 수서곤충, 양서류의 어린 새끼, 물고기의 치어까지도 포식하는 육식성이다. 맑은 담수에서만 관찰되어 환경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

자. 하루살이목(Ephemeroptera)

하루살이목에 속한 무리들은 입이 퇴화되었고, 더듬이는 매우 짧다. 몸은 연약하고 길며, 배 끝에는 가늘고 긴 꼬리가 있다. 날개는 막질로 앞날개가 뒷날개보다 매우 크다. 불완전탈바꿈을 한다. 유충은 호수, 하천, 연못 등에 널리 분포하여 담수 어류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 유충 기간은 긴 편이어서 빠른 종은 6주만에



성숙하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1~3년만에 성충이 된다. 상숙한 유충이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와서 돌 위나 나무위에서 유충의 껍질을 벗고 날개가 달린 개체가 되는데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성충처럼 보이지만 이 때는 아직 성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성충의 시기이며, 한 번 더 탈피를 해야 비로소 완전한 성충이 된다. 아성충과 성충기간은 약 1주일 정도인데 성충은 수명이 대단히 짧아 불과 몇 시간에서 2~3일 간이며, 대개는 성충이 된 그 날 교미를 하고 곧 산란을 한

다. 알은 보통 1~2주에 걸쳐 부화되는데 1개월 정도 걸리는 종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13과 79종이 알려졌다. 산지나 평지의 수변 중심으로 관찰되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때로는 셀 수 없이 많은 개체가 전등에 모여들기도 한다.

자-1. 하루살이과(Ephemeroidea)

2017.9.15. 아침운동을 하려고 갔는데 테니스장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하루살이 시체가 마치 눈처럼 덮



2017.9.5 황성읍 성강테니스코트

여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린내 같은 악취도 무척 심했다. 지난밤 밝은 조명에 하루살이가 모여든 모양이다. 얼마전 TV에 나왔던 “조명이 밝은 곳에 하루살이가 모여들어 간판이 보이지 않아 장사를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생각났다. 하루살이 애기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알고 더 놀란 것은 죽은 하루살이 시체마다 꼬리에 길이 1cm정도의 알덩어리가 달려 있는 것이었다. 테니스장에 노란 꽃가루같은 것이 다 알덩어리였다. 비로 쓸어도 테니스장(인조잔디)에 얼마동안 남아 있었다. 예년에도 몇 마리 정도는 보였지만 올해처럼 대량으로 발생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하루살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하루살이가 ‘동양하루살이’라 생각하며 사진을 찍고 자료를 찾아보니 ‘하루살이과의 동양하루살이가 대량번식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얼른 보도와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도감에 나와 있는 동양하루살이 사진과 대조해 보니 달랐다. 다른 과에 비해 하루살이과(Ephemeroidea)에 대한 전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찾기가 힘들었다. 모두 ‘하루살이과에는 무늬하루살이와 동양하루살이가 있다’는 설명뿐이다.

17. 무늬하루살이(*Ephemera strigata* Eaton, 1892)

<사진 17> 무늬하루살이 - *Ephemera strigata*



성충-2005.5.21 황성읍 섬강둘레길 섬강테니스코트

성충은 4~7월까지 출현하는데 몸길이 20~25mm, 날개 편 길이 30mm. 어른벌레의 몸빛깔은 갈색을 띠고, 날개는 옅은 갈색인데 앞날개 중앙에 갈색의 띠무늬가 있다. 한낮에는 숨어 있다가 해질녘이 되면

비행을 시작한다. 유충은 하천의 중류 지역에서 모래나 흙바닥 또는 낙엽층속으로 파고 들어가 생활한다. 한국, 일본, 극동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었다.

18. 강하루살이(*Rhoenanthus coreanus* Yoon and Bae 1985)

<사진 18> 강하루살이 - *Rhoenanthus coreanus*



성충-2005.7.8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2005.7.8 황성읍 섬강테니스장



성충은 몸길이 약 30mm. 갈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띤다. 앞날개 전연과 가운데 부분, 그리고 뒷날개 외연은 붉은빛 도는 갈색이다. 꼬리 3개에는 가늘고 긴 강모가 조밀하게 뻗어 있다. 유충은 호박돌 및 자갈로 구성된 평지하천과 강에 서식하는데 하천 바닥을 기어 다니며 퇴적된 유기물을 먹는다. 유숙이 완만한 여울 및 수변부를 선호한다. 우화시기에는 수변부에서 높은 밀도로 발견된다. 무늬가 예쁘다.

자-2. 꼬리하루살이과(Heptageniidae)

날개맥이 발달했고 1쌍의 꼬리털이 있다. 뒷다리는 5개의 고리마디로 되어 있

으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흐르는 물이나 호수 등에 살며 빠르게 물 위로 지나간다. 한국에는 약 10종이 알려져 있다.

19. 꼬리하루살이(*Ecdyonurus yoshidae*)

성충은 몸길이 9~10mm, 꼬리길이 30~40mm. 몸은 황록색을 띤다. 알에서 약충시기 약 2년 정도. 흐르는 물에 서식한다. 한낮에는 잘 활동하지 않으며 저녁 무렵 활동한다. 꼬리는 약충 시기에 3줄이나 성충이 되면 2줄로 된다. 흔히 4~5월에 발생한다. 한국, 일본에 분포한다.

꼬리하루살이 - *Ecdyonurus yoshidae*
<사진 19>



성충-2017.9.26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자-2. 꼬마하루살이과(Baetidae)

몸은 작으며, 날개는 퇴화해 작고 아주 없는 것도 있다. 수컷의 겹눈은 크고 2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암컷에서는 정상이고 작다. 약충은 각종 수질에서 발견되며 물고기의 먹이가 되므로 유익하다. 미국에서만 140여 종(種)이 발견될 정도로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꼬마하루살이(*Baetis thermicus*) · 쌍날개꼬마하루살이(*Cloeon dipterum*) 등 2종이 있다.

20. 나도꼬마하루살이(*Baetis pseudothermicus* Kluge, 1983)

약충은 각 배마디의 등면 후측 가장 자리에는 둥근형의 둔한 돌기가 있으며, 전체 배마디중 7~8배마디 등면이 짙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꼬리는 3개이며, 중간과 끝부분에 검은 무늬가 나타난다.

<사진 20>나도꼬마하루살이 - *Baetis pseudothermi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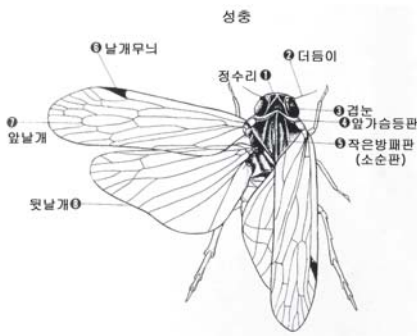


성충-2017.9.27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B. 추억이 담긴 벌레들

여름 한철 노래전도사인 매미류 16종, 방아개비 놀이와 맛있는 반찬이 되어 입맛을 사로 잡던 메뚜기류 14종, 꿀과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 벌류 28종, 잠자리채 들고 함께 뽀박질하던 잠자리류 19종. 모두 77종을 취급하였다.

가.매미목(Hemiptera)



비교적 아름답고 몸의 생김새가 좌우대칭인 곤충이다. 매우 많은 종류가 속하는 분류군이다. 몸은 소형 또는 대형으로 달걀 모양 또는 긴 타원형이다. 거의 육상 생활을 하며, 초식성이다. 불완전탈바꿈을 하며 다른 무리에 비해 7단계의 변태를 거치는 생활사는 복잡한 편이다. 많은

종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거품벌레, 뽕매미, 매미충, 꽃매미, 진딧물 등 940여 종이 분포한다.

가-1. 거품벌레과(Aphrophoridae)

항상 거품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이 거품 속에 숨겨 외적이나 천적이 발견하기 어렵거나 혐오감을 가지게 하여, 교묘히 도피할 수 있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또 이 거품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차단해 줌으로 약충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알로 월동하나 성충으로 월동하는 종류도 많다. 한국에는 11속 31종이 알려져 있다.

21. 노랑무늬거품벌레(*Aphrophora major* Uhler, 1896)

몸길이 12~13mm이다. 몸빛깔은 등면과 밑면이 일반적으로 노란빛을 띤 갈색이다. 한국·일본·사할린섬·쿠릴열도·연해지방 등지에 분포한다.

<사진21>노랑무늬거품벌레 - *Aphrophora major*



성충-2008.6.9 황성읍성 강돌래길

성충-2017.9.15 황성읍성 강돌래길

22. 쥐머리거품벌레 (*Eoscartopsis assimilis* Uhler, 1896)

몸길이 : 5.5-8.5mm이며 몸은 적갈색, 흑갈색, 검정색에 이르기까지 체색의 변화가 심하다. 머리를 포함한 전반부 등쪽의 체색이 더 심하다. 머리는 앞가슴보다 길고 좁으며 얼굴이 둥글게 팽창하였다. 약충은 5월부터 발견되나 아직까지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았다. 산야의 개울가 계곡 또는 경작지 주변 등 다소 습한 곳에 산다.

<사진22> 쥐머리거품벌레 - *Eoscartopsis assimilis*



성충-2010.7.8-황성읍 성강돌래길

가-2. 긴날개멸구과

우리나라에는 10종 알려졌다. 대부분 날개는 몸에 비해 매우 길다. 매미 무리 중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23. 주홍긴날개멸구 (*Diostrombus politus* Uhler, 1896)

<사진23> 주홍긴날개멸구 - *Diostrombus politus*



성충-2007.8.6 황성읍 성강돌래길

몸길이 약 3.9mm배 끝까지), 날개 편 길이 8.8~9.5mm이다. 몸은 전체가 선명한 등홍색 또는 주홍색이다. 건조한 산림지대에서 볼 수 있으며 칩에 기생한다. 6월부터 9월까지 나타나며. 성충의 경우 몸에 비해 날개가 매우 크지만 날지 않고 뛰어다닌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가-3.매미과-Cicadidae

우리나라에는 참매미를 비롯한 2과 18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 매미가 여름에 짝짓기를 통해 나무껍질 등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은 1년 동안 나무껍질 집에서 생활하다가 알에서 깨어나 땅속으로 들어간다. 땅속에서는 나무뿌리의 수액을 섭취하며 15회 정도 탈피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3~7년을 보낸 뒤에 여름이 되면 비로소 땅위로 올라와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된 뒤 약 한달 정도 살다 알을 낳고 죽는다. 수컷이 특수한 발음기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소리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몸길이 12~80mm.. 예로부터 여름 곤충을 대표해 왔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 쓰름매미, 애매미, 유지매미, 말매미 등 보통의 매미들은 여름이 시작되어야 울기 시작해 여름 내내 울다 사라지는데, 늦털매미와 같이 늦 여름에 나타나 가을을 지나다가 가는 종도 있다. 유충은 나무의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성충은 햇가지 속에 알을 낳아 나무를 말라죽게 함으로 식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매미 유충이 탈피하기 직전인 굼벵이는 신장염이나 간경화증의 한방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매미의 울음소리는 가곡이나 동요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24.유지매미(*Graptopsaltria nigrofuscata* Motschulsky, 1866)

몸길이 약 36-38mm. 날개 끝까지 50-60mm. 몸의 등면은 흑색 또는 흑갈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를 불규

<사진24> 유지매미- *Graptopsaltria nigrofuscata*



성충-2013.8.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2013.8.31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칙하게 가진다. 앞날개와 뒷날개는 특히 불투명하다. 성충은 7~10월에 산야의 산림지대에 출현하는데 시골 마을에도 날아든다. 성충은 배나 사과를 즙을 즐겨 빨아먹는다. 오전 7시 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흡사 기름이 끓는 것 같은 소리로 간헐적으로 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한다.

25. 참매미 (*Hyalessa fuscata* Distant, 1905)

<사진25> 참매미- *Hyalessa fuscata*



성충-2018.8.7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암컷은 교미 후 배마디 끝에 달린 바늘 모양의 날카로운 산란관으로 식물의 조직 속에 알을 낳는다. 1년이 지나면 흰 방추형의 유충이 부화하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 대롱 모양의 주둥이를 나무뿌리에 박고 수액을 빨아먹는다. 이렇게 2~3년을 땅 속에서 보낸 유충은 땅을 뚫고 밖으로 나와 나무를 타고 올라가 마지막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된다. 7~9월에 출현한 성충은 몸길이 약 36mm, 날개 편 길이 59mm. 뽕나무, 오동나무, 벗나무, 감나무 배나무 등에 수액을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대개 평지나 산기슭에서 산다. 날아다니는 시간보다는 굶은 나뭇가 지나 줄기에 앉아 쉬는 시간이 많다. 울음소리는 "끄-" 또는 "차-"하는 소리로 시작해 충분히 소리가 커지면 "뽀 뽀 뽀 뽀...미-"하고 몇 번 반복해 울다가 "뽀..." 하면서 울음을 그친다. 울 때는 날개를 약간 벌리고 배를 위로 올리면서 소리를 내고 울음을 그치면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한국,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알이나 애벌레로 월동한다.

26. 애매미 (*Meimuna opalifera* Walker, 1850)

성충의 몸길이는 암수가 대체로 30mm 정도이며 날개 편 길이까지 합치면 46mm

가량 된다. 애매미의 울음소리는 한국의 매미 중에서 가장 현란하며, 그 소리는 새소리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듣기 좋다. 수

<사진26> 애매미 - *Meimuna opalifera*



성충-2017.9.15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컷은 30초에서 1분가량 울음소리를 내는데 개체마다 달라 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울기도하고 한번 울음소리를 그치고 나면 참매미나 소요산매미 수컷처럼 다른 나뭇가지로 이동하기도 하며 계속 자리에 눌러앉아 다른 수컷의 울음소리에 대해 경고음(방해음)을 내기도 한다. 한국에서 가장 전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며 흔한 종이다. 저지대부터 산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출현시기는 7~9월이 보통이며 남부지방에선 10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몇 마리의 개체가 생존하기도 한다. 7월 하순과 8월 중인 무더운 한 여름에 개체수가 많다. 산지에선 대개 나무의 높은 가지에 많이 붙어있지만, 인가 주변이나 산지에서도 어린 나무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손이 닿는 높이에도 앉아있다. 주로 줄기가 회백색인 활엽수에 많다. 가로등과 같은 불빛에도 잘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와 일본, 중국에 걸쳐 동북아시아에 널리 분포한다. 알이나 애벌레 월동한다.

27. 털매미 (*Platypleura kaempferi* Fabricius, 1794)

<사진27> 털매미 - *Platypleura kaempferi*



성충-2007.8.6 황성읍 승지봉등산로

성충-2010.10.7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6월말에서 8월말에 출현하는데 몸길이 약 20-25mm, 날개 끝까지 35-40

mm 정도이다. 몸은 흑갈색을 띤다. 도시 주변이나 산야에 흔하게 분포하며, 때때로 사과나무에 모여들어서 과실에 산란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집단적으로 시끄럽게 합창하며 불빛이 있으면 밤에도 잘 운다. 유충은 땅 속에서 버드나무, 미루나무 등 각종 활엽수의 뿌리를 가해한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28. 늦털매미(*Suisha coreana* Matsumura, 1927)

<사진28> 늦털매미 - *Suisha coreana*



성충-2017.9.26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성충은 몸길이 약 22mm이고, 앞날개의 길이 약 31mm, 뒷날개의 길이 약 17mm이다. 산란은 마른 가지에 하는데, 줄참나무 윗면에 튀어나온 마른 가지 중에서 지름 10mm 전후의 작은 가지를 택한다. 벌판이나 인가 근처에 나무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있고 높은 산에서도 볼 수 있다. 8월 말에 나타나 10월 까지 주로 활동한다. 암수 모두 성질이 민감한 편으로 울고 있는 수컷에 접근하면 발견 전에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울음소리는 털매미와 비슷하나 약간 낮으며 금속성 소리가 강하고 단절된 소리를 반복한다. 몇 시간이나 쉬지 않고 울음소리를 계속 내는 점도 털매미와 같다. 맑은 날 오전에 가장 활발하나, 날씨가 흐려도 울음을 잘 그치지 않는다. 한국, 일본, 타이완, 말레이반도 등지에 분포한다.

가.4.꽃매미과(Fulgoridae)

대부분이 열대지방에 널리 번식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종이다. 날개는 크고 잘 발달하였으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가 있다. 한국에는 꽃매미, 희조꽃매미의 2종이 분포한다.

29.꽃매미(*Lycorma emelianovi* Oshanin, 1908)

연 1회 발생하며 알로 월동한다. 약충은 5월 상순에 나타나고 7월 하순에 성충이 된다. 암컷 성충은 9월 이후 줄기에 무더기로 산란한다. 어린 약충은 검은색 바탕에 작고 흰 반점이 있으며, 4령 이후에는 등이 붉은색을 띤다, 성충은 날개편 길이가 38~55mm이고 연한 갈색을 띤다. 성충과 약충이 가중 나무, 쉬나무, 참중나무, 소태나무, 포도, 머루 등 각종 활엽수 수액을 빨아 먹어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에 큰 지장을 주며, 분비물과 가해 부위의 수액 유출로 인해 그을음병이 유발된다.



성충-2017.8.15 황성읍 섬강둘레길

가-5.매미충과-Cicadellidae

곤충류 중에서 가장 큰 과이며 그 진화 양상도 매우 복잡하다. 매미과에 비해 작고 더 활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보통 유충은 5~6번의 영기(齡期)를 거쳐 성충이 된다. 한국에서는 알로 월동하나 성충으로 겨울을 지내는 종류도 많다. 거의 대부분이 식물체에 기생하고 특히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현재까지 1만 2000여 종이 알려져 있어서 단일과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한국에는 250종 이상이 알려져 있으나 각 종의 구별이 쉽지 않다.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한다.

30.끝검은말매미충(*Bothrogonia japonica* Ishihara, 1962)

<사진30>끝검은말매미충- *Bothrogonia japonica*



성충-2007.8.20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2009.6.12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몸길이 11~14mm. 몸은 전체적으로 진한 황색을 띠고 있다. 초봄부터

낮은 산지나 초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집단적으로 서식한다. 주로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이며 다른 매미충에 비해서 비행능력도 뛰어나다. 온도가 낮은 아침이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나무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나 한낮이 되어 온도가 올라가면 활발히 활동한다. 성충으로 나무껍질 속에서 월동하며 거의 1년 내내 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31. 제비말매미충(*Mileewa dorsimaculata* Melichar, 1902)

<사진31> 제비말매미충 - *Mileewa dorsimaculata*



성충-2008.6.6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약6~6.3mm. 몸의 등면은 짙은 청색, 또는 암청색 또는 흑색을 띤다. 아랫면은 담황색을 띤 미려종이다. 머리는 앞가슴보다 약간 좁고 둥근 세모꼴로 돌출하였고 흘눈은 정수리 중앙부에 위치한다. 주로 산야의 초원지대, 산림지역의 소로 주변에서 기생한다. 보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제비를 생각나게 하는 곤충이다.

32. 일본날개매미충(*Orosanga japonica* Melichar, 1898)



성충-2008.10.3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6~11mm, 날개편길이 20~24mm, 몸빛깔은 등쪽에서 보면 연한 갈색 또는 연한 황록색이다. 날개는 매우 넓다. 병꽃나무를 비롯해 사과나무, 배나무, 굴나무 등에 서식한다. 7~9월까지 볼 수 있으며 알로 월동한다. 유충은 5월부터 각종 과수의 수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입힌다. 한국, 일본,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33. 넓적매미충(*Penthimia nitida* Lethierry, 1876)

몸길이 4~5mm. 몸빛깔은 광택이 있는 칠흑색이다. 등쪽에서 보면 달걀 모양이고 머리는 앞 아래쪽으로 숙여져 있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북동부), 연해 지방,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가-6. 멸구과-Delphacidae

흔히 매미충과 혼동하기 쉬우나, 뒷다리 종아리마디를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머리는 좁고, 그룹에 따라 날개 크기가 다르다. 매미 무리 중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식물에서 생활하며 성충, 약충 모두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으므로 해충으로 알려진 종류가 많다. 특히 벼멸구와 토란멸구의 유충은 줄기에서 서식하면서 산란해 황화(집중고사현상)와 발육저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이 두 곤충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바이러스의 매개충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50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34. 일본멸구(*Stenocranus matsumurai* Metcalf, 1943)

몸길이는 5~6mm. 암컷이 조금 더 크다. 몸은 황백색 또는 담황색을 띠고 있으며, 등면에 황갈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산재한다. 경작지 주변의 억새나 갈대 등에서 발견된다.



가-7. 진딧물과-Aphididae

몸이 미소 또는 소형인 연약한 초식성 동물들로 종류수가 많다.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이주형이나 유성 개체의 수컷에게만 날개가 있고 암컷

이나 무성형에게는 없다. 몸에 아무 것도 덮여 있지 않거나 흰색 납질로 싸여 있다. 대개 활동적이고 생활사는 복잡하며 단성생식 또는 양성생식을 한다. 식물의 줄기나 잎에 기생하는 경우 많고 큰 줄기나 뿌리에 기생하는 종류도 있다. 단식성과 다식성이 있으며 계절에 따라 서로 상이한 숙주로 전이하는 것이 많고 대부분의 종류는 알 상태로 월동한다. 한국에는 장미진딧물·배추진딧물 등 많은 종류가 각종 곡물, 채소나 과수, 목화, 장미, 무궁화 등 많은 농작물의 해충으로서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5. 긴꼬리볼록진딧물(*Megoura crassicauda*)

무시형 암컷성충의 경우 몸은 짙은 녹색으로 더듬이, 다리, 뿔관 끝편 등은 짙은 검은색으로 광택이 난다. 비교적 큰 진딧물(2.87-3.43mm)로 뿔관이 볼록하고, 끝편이 매우 길다.

<사진35> 긴꼬리볼록진딧물 - *Megoura crassicauda*



성충-2008.6.26 황성읍 석강둘레길

가-8. 큰날개매미충과-Ricaniidae

우리나라에는 5종 알려졌다. 날개는 크고 세모꼴이다. 매미 무리 중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등불을 켜고 1~2 시간이 흐른 뒤부터 찾아온다.

36. 남쪽날개매미충(*Ricania taeniata* Stal, 1870)

<사진36> 남쪽날개매미충 - *Ricania taeni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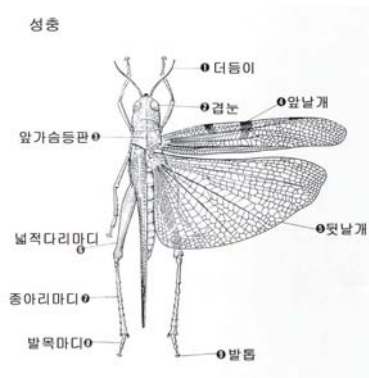


성충-2015.8.15 황성읍 석강테니스코트

2007.8.9 황성읍 석강둘레길

양날개를 폈을때는 11-13mm 내외이다. 몸은 회황색 바탕에 청회색 무늬를 띠기도 하며, 흑갈색또는 검정색을 띠기도 한다. 채색의 변이가 심하다. 앞날개는 부채를 편 것처럼 넓다. 산야의 경작지 주변이나 초원지대에 흔히 서식하며, 화본과 식물에 기생한다.

나.메뚜기목(Orthoptera)



여치 무리와 메뚜기 무리가 속한다. 대부분 녹색 또는 갈색이며, 더듬이는 길다. 뒷다리는 뛰기에 알맞게 잘 발달되었다. 메뚜기무리는 번데기 과정이 없는 불완전탈바꿈을 한다. 약충은 성충의 모습을 빼어 닮았지만 날개와 몸집이 작다. 허물을 벗으며 점점 몸집이 커지고 날개도 자라 성숙한 성충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11과 161종이 알려졌다. 이 중 일부

종만 등불에 찾아온다. 수컷 앞날개의 맥상(脈相)은 복잡하고, 발음기가 잘 발달되어 있다.

나-1.귀뚜라미과(Gryllidae)

발음기를 가진 종의 대부분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데, 종에 따라서는 울 때, 영역권을 주장할 때, 싸움을 할 때, 근처에 있는 암컷을 유혹할 때 각각 음조를 바꾸어 소리내며, 교미 중에는 다른 곡조로 노래하기도 한다. 한편 수컷의 배쪽에 있는 유혹샘에서의 분비물에 의해 근처의 암컷을 유혹하는 종도 있다 한국에는 40종 정도가 알려졌다. 몸길이는 30~40mm로 크기가 다양하다. 체형은 등과 배가 편평하여 지상생활에 알맞다. 몸색은 지면의 색과 비슷한 흑갈색 내지 갈색 계통이 많다. 암컷은 창모양의 산란관을 갖고 있으며, 땅속이나 식물조

직 내에 알을 낳는다. 돌 밑이나 풀숲 등에서 숨어 있는 습성이 있으며, 수컷의 경우 영역을 설정한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암수가 서로 만나는 것을 도와 준다. 앞날개에 . 대부분 땅 위에 살지만 물 위, 나무 위, 집안, 동굴 안에 사는 종류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잡식성이며, 주로 다른 곤충을 잡아먹거나 식물을 먹는다. 또한 곤충이나 지렁이 등의 시체를 먹어 치우기도 한다. 천적으로는 때까치, 기생파리, 사마귀, 기생벌, 철선충, 곰팡이, 두꺼비, 도마뱀 등이 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소리를 감상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귀뚜라미를 길러 왔다. 또한 중국의 귀뚜라미 싸움은 유명하다. 몇몇 국가에서는 귀뚜라미를 식용으로 쓴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귀뚜라미를 이노제 등의 용도로 약용(藥用)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식용곤충이 이슈화되면서 귀뚜라미를 이용한 요리와 음식 개발 방법 등도 활성화되고 있다.

37. 왕귀뚜라미(*Teleogryllus emma Ohmachi et Matsuura, 1951*)

<사진37> 왕귀뚜라미 - *Teleogryllus emma*



성충-2008.8.17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26~40mm이다. 몸은 광택이 나는 갈색이거나 흑갈색이다. 돌 밑이나 풀뿌리 둘레에 난 구멍에 서식한다. 수컷은 앞날개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비비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뒷다리의 허벅마디는 크고 단단해서 뛰어오르는 능력이 뛰어나고 밤에는 짧은 거리를 날아 이동하기도 한다. 암컷의 산란관은 길이 21mm로 약간 구부러져 있으며, 뒷다리의 허벅마디의 길이보다 훨씬 길다. 창처럼 생긴 산란관으로 땅을 파고 그 속에 산란관을 꽂아 알을 낳는다. 알 상태로 겨울을 나며, 부화한 애벌레는 식물질을 먹고 여러 번의 허물을 벗은 후 어

른벌레가 된다. 수컷은 낮에는 구멍 바깥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울음소리를 낸다. 울음소리를 듣고 암컷이 다가오면, 구애의 소리로 바꾸어 가락과 장단을 빠르게 하면서 유혹한다. 그후 짝짓기에 성공하면 울음소리는 단조롭게 바뀐다. 귀뚜라미 종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해 동양 일대에 서식한다.

38. 먹종다리(*Trigonidium japonicum* Ichikawa, 2001)

머리와 앞가슴등판, 등은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이며, 다리는 누런빛 도는 갈색이다. 크기가 작다. 등불 주변에 가끔 찾아온다. 귀뚜라미 종류지만 날개에 발음기가 없어 울지 못하므로

<사진38> 먹종다리 - *Trigonidium japonicum*



성충-2008.6.13 황성읍 선강둘레길

‘먹종다리’라 명한 것 같다. 종령 유충상태로 활동하고 성충은 야산의 건조한 풀밭에서 늦은 봄인 5월 초순부터 여름에 활동한다. 몸길이는 암컷은 75mm 내외, 수컷은 45mm 내외이며 긴 원통형으로 앞쪽으로 뾰족하고 몸은 녹색이지만 갈색형의 개체도 있다.

나-1. 메뚜기과(Acrididae)

이 종류는 초식성이며 여기에는 혹심한 피해를 주는 농업 해충들 가운데 일부도 포함된다. 메뚜기류는 크기가 작은 것(성체가 단지 5mm에 불과함)에서부터 큰 것(성체가 11cm나 됨)까지 있으며, 몸의 형태는 길고 가늘거나 작고 통통하다. 대개 녹색이거나 밀짚색깔을 띠고 있어서 주위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알에서 바로 약충으로 부화하여 어른벌레가 되는 안갯춘탈바꿈을 한다. 메뚜기류에 있어서 약충과 어른벌레의 구분은 날개의 유무를 따져서 날개가 있으면 어른벌레로 취급한다.

39. 방아개비(*Acrida cinerea* Thunberg, 1815)

<사진39> 방아개비- *Acrida cinerea*



성충-2016.8.9 황성읍 섬강둘레길

긴 뒷다리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마치 방아를 짚는 것처럼 행동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어렸을 땐 장난감이었다. 몸빛깔은 녹색 또는 갈색이 대부분이나 드물게 붉은색을 띠는 개체도 있다. 성충은 7~8월에 출현하는데, 몸길이 수컷 40~50mm 암컷 75mm로 수컷이 암컷보다 작다. 암컷은 한국에 서식하는 메뚜기류 중에서 가장 길다. 산란관은 짧고, 촉각은 넓적하며 칼 모양이다. 날개가 발달해 배 말단보다 길고, 앞날개의 말단은 뾰족하며, 뒤허벅마디는 특히 길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대단히 작아서 다른 종류처럼 보인다. 수컷은 날아다닐 때 날개를 부딪혀 '타타타하는 소리를 낸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에 분포한다.

40. 팔공산밑들이메뚜기(*Anapodisma beybienkoi* Rentz et Miller, 1971)

<사진40> 팔공산밑들이메뚜기- *Anapodisma beybienkoi*



성충-2016.8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40~50mm이다. 어른벌레의 몸은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띤다. 다른 메뚜기류에 비해서 날개가 매우 작아서 마치 없는 것과 같다. 팔공산밑들이메뚜기의 경우에는 날개의 흔적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른벌레인지 유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성충은 6~9월에 낮은 산지나 초지에서 볼 수 있으며, 알 상태에서 겨울나기를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41. 섬서구메뚜기(*Atractomorpha lata* Motschulsky, 1866)

몸길이 28~42mm(날개끝까지). 몸빛깔은 녹색, 회록색, 갈색 등 여러 가지이다. 논밭이나 풀밭에서 볼 수 있으며, 각종 풀잎이나 꽃잎 등 식물질을 먹는다. 때로는 벼와 보리 같은 여러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으로 취급한다. 몸집이 작은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타 오랜 시간 짝짓기를 하는데, 마치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연 1회 발생하며 알로 겨울을 지낸다. 성충은 6~11월에 나타난다. 최근에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등에 분포한다.

섬서구메뚜기- *Atractomorpha lata*
<사진41>



성충-2005.8.21 황성읍 섬강둘레길

42. 팔중이(*Oedaleus infernalis* Saussure, 1884)

<사진42> 팔중이- *Oedaleus infernalis*



성충-2008.7.20 황성읍 섬강둘레길



약충-2008.5.24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날개끝까지) 32~45mm. 몸빛깔은 갈색으로 녹색 반점이 복잡하게 나타나 팔 색깔과 비슷하다. 산기슭이나 하천가에 있는 풀밭이나 자갈밭에 서식한다. 주행성으로 낮에 활동이 활발하며 주된 먹이는 콩과식물이다. 성충은 7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43. 원산밀들이메뚜기(*Ognevia lkonnikov*, 1911)

몸길이는 날개끝까지 15~35mm이다. 몸 색은 녹색을 띠지만 계절에 따라 황색을 띠는 개체도 있다. 4월말에 부화한 유충은 6월중순에 성충이 되어 9월

<사진43>원산밀들이메뚜기- *Ognevia lkonnikov*



성충-2007..21 황성읍 섬강둘레길

까지 활동한다. 분포는 한국, 중국, 러시아이다.

44. 벼메뚜기(*Oxya chinensis sinuosa* Mistshenko, 1951)

<사진44> 벼메뚜기- *Oxya chinensis sinuosa*



성충-2008.8.17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30~38mm로 몸빛깔은 황록색이지만 머리와 가슴은 황갈색이다. 논이나 경작지 근처의 풀밭에 서식하며, 연 1회 발생한다. 겨울에

땅 속에서 알무더기로 월동하는데, 알무더기는 아교질의 얇은 막으로 싸여 있다. 다 자란 약충은 몸길이가 약 30mm이며, 날개가 배의 제 4마디에 이른다. 벼의 주요 해충으로 농약을 사용하면서 그 수가 줄어들었으나 다시 늘어나고 있다. 1930년 황해도에서는 피해가 엄청나서 알덩어리를 정부에서 사들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쓰는 메뚜기가 바로 이 종으로 최근에는 청정논이라는 인증의 대표 주자로 취급받기도 한다. 1970년대에 하던 식용연구가 경제개발과 함께 천천히 사그라들었다가 현재 그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미래식량의 대표후보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서식한다.

나-3. 모메뚜기과(Tetrigidae)

몸길이가 15mm 이상의 것은 거의 없으며 몸빛깔은 갈색이다. 앞날개는 퇴화되어 비늘 조각 모양의 작은 조각으로 뒷날개 밑에 위치한다. 주로 못 주위에서 서식한다. 성충으로서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에 땅속에서 산란한다. 젖은 땅 표면 위에 있는 유기물이나 조류(藻類) 등을 먹는다. 위장술에 능하다.

45. 모메뚜기(*Tetrix japonica* Bolivar, 1887)

<사진45> 모메뚜기- *Tetrix japonica*

몸집이 작고 통통하며 마름모꼴이다. 몸길이 7~11mm이고 회갈색 또는 흑갈색이며 앞가슴등 위에 흑색 무



성충-2008.8.1 황성읍 섬강둘레길

니가 2개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 까지 들판이나 밭에서 눈에 띈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나.4. 여치과(Tettigonidae)

46.좁날개여치(*Atlanticus brunneri* Pylnov, 1914)



좁날개여치 - *Atlanticus brunneri*
<사진46>
성충-2004.5.29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는 수컷 25-27mm, 암컷 28mm이다. 체색은 짙은 갈색이다. 앞날개가 뒷날개보다 두껍고 수컷은 이 앞날개가 배 제3마디까지 이른다. 암컷의 경우는 앞날개가 흔적만 있는 정도이다. 산란관은 길이 20.0~20.5mm로 후퇴절보다 약간 짧고 기부에서 절반까지는 곧지만 뒷부분은 뚜렷하게 위로 굽는다. 한국, 중국 동북부, 극동 러시아에 분포한다.

47.긴꼬리썩새기(*Conocephalus gladius*, Redtenbacher)



<사진47> 긴꼬리썩새기 - *Conocephalus gladius*

몸길이 15~20mm이며 몸은 비대하고 머리와 겹눈은 돌출하였다. 수컷의 생식관은 폭이 넓고 뒷가두리 전체가 알개 우묵하다. 암컷의 산란관은 길다. 어린 애벌레의 몸은 우윳빛인데, 등 쪽에 쌍을 이루는 갈색 줄무늬가 머리에서 배 끝까지 있고, 그 가장자리는 희다. 다 자란 애벌레는 날개 길이만 어른벌레와 다르다. 인기척이 나면 풀 뒤쪽에 숨거나 재빨리 도망간다. 각종 풀과 나뭇잎, 작은 곤충류를 먹는다.

48.여치(*Gampsocleis sedakovii obscura* Walker, 1869)

몸길이는 30~36mm이고 머리부터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32~44mm다. 몸은 비대하고 황록색 또는 황갈색이며 날개의 가운데 방에 뚜렷한 흑색 점렬이 있다. 앞날개는 몸길이에 달하지 못한다. 수컷은 낮에 '찌르르 찌르르' 하는 베틀과 비

<사진48>여치 - *Gampsocleis sedakovii obscura*

성충-2008.8.3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2005.7.31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2008.7.2 황성읍 섬강둘레길
 슿한 소리를 연속해서 낸다. 주된 먹이는 작은 곤충이며 때로는 종족끼리도 잡아먹는다. 성충은 6-9월에 출현하고 해가 잘 드는 산지 가장자리의 풀밭이나 덩굴에 산다. 알로 겨울을 지낸다. 날개는 잘 발달하였으나 펄럭펄럭 날아가는 모습은 민첩하지 못하다. 그 대신 뒷다리를 이용하여 멀리 뿔 수 있다. 산란은 잎 속에 알을 낳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땅속에 흩어지게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전역과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에 분포한다.

49. 갈색여치 (*Paratlanticus ussuriensis* Uvarov, 1926)

<사진49>갈색여치 - *Paratlanticus ussuriensis*

성충-2013.8.5 서원면 옥계리

성충-2008.5.22.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약 25~30mm이다. 몸빛깔은 암갈색 또는 흑갈색이다. 수컷은 왼쪽 앞날개와 오른쪽 앞날개를 비벼 울음소리를 내서 암컷을 유인해 교미한다. 산지의 낙엽이 쌓인 곳이나 작은 나무 주위에서 서식한다. 성충은 대개 8월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다. 암컷의 산란관은 길어 몸길이보다 길다. 알로 월동하며 한국에 분포한다.

50. 검은다리실베짱이 (*Phaneroptera nigroantennata*)

비교적 흔한 종으로 몸길이는 23-30mm정도이고, 몸은 가늘며 녹색을 띤다. 서

<사진50> 검은다리 실베짚이 - *Phaneroptera nigroantennata*



성충-2008.10.1 황성을 성강둘레길

식지의 풀밭이나 숲 가장자리의 덩굴에서 발견된다. 성충은 8-9월에 출현하여 낮에 주로 활동한다. 키 큰 풀이나 나뭇잎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며, 여러 종류의 풀과 나뭇잎을 먹는다. 중부지방에서는 8-9월에 한 세대가 나오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두 세대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알로 월동한다. 한반도 중부, 남부에 서식하며, 일본, 중국 동부, 대만에도 분포한다.

다.벌목(Hymenoptera)

벌목에 속한 무리들은 완전탈바꿈을 하며, 크기와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 무늬가 뚜렷하더라도 사진으로 동정하기 어려운 종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58과 2,791종이 알려졌다. 등불에 다양한 무리가 찾아오며, 대부분 이른 밤부터 모여든다.



다-1.개미과(Formicidae)

개미의 크기는 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녀석들로부터 시작해서 일개미의 크기가 30mm에 육박하는 거대한 녀석들까지 다양하다. 개미는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어 허리라는 부분이 아예 없다. 일반적으로 근면, 성실의 대표적인 생물로 사회성을 가지며 생식계급인 여왕개미와 수개미, 불임 노동계급인 일개미와 병정개미로 나누어져 있다. 개미가 페로몬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유명하지만, 소리와 몸을 두드리는 것으로도 의사

소통을 한다고 한다. 개미는 최고 자기 몸무게의 20배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매우 좋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집어가서 먹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동물 중 하나이다. 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 군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도의 권력쟁탈전까지 벌어진다 한다. 성충 개미는 자신이 섭취한 음식물의 일부를 신체 내의 사회위에 보관해 두었다가 배고픈 동료개미와 마주치면 음식물을 토해내 배고픈 동료에게 먹여주는 영양교환행위(Trophallaxis)를 한다. 인간과 더불어 생태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단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생물이다. 정복자는 패배자의 알과 애벌레 고치등을 다 훔쳐가고 깨어난 개미들은 노예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곤충처럼 물어뜯거나 하지만, 많은 종은 '개미산'이라는 산성 액체를 쏘아서 사격을 가하기도 한다. 개미의 천적으로 명주잠자리의 애벌레인 개미귀신은 함정을 파 놓고 걸려든 곤충을 잡아먹는다.

51. 일본왕개미(*Camponotus japonicus* Mayr, 1866)

<사진51> 일본왕개미 - *Camponotus japonicus*



성충일개미-2008.5.24 황성읍 선강둘레길

성충수컷-2005.5.9 황성읍 선강둘레길

성충은 수컷이 몸길이 11mm 정도로 몸이 가늘고 길며, 겹눈과 홑눈이 크다. 여왕개미(암컷)의 몸길이는 17 mm이고, 일개미는 7~13 mm이다. 여왕개미는 가슴이 발달했으며, 날개와 시맥은 갈색이나, 일개미는 흑색이다. 일본왕개미의 일개미 수명은 1~3년, 여왕개미 수명은 15년 정도이다. 연중 발생한다. 여왕개미의 짝짓기는 5~6월의 날씨가 좋은 날 저녁에 이루어진다.

52. 홍가슴개미(*Camponotus obscuripes* Mayr, 1879)

<사진52> 홍가슴개미- *Camponotus obscuripes*



성충의 먹이활동- 2008.6.1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일개미 8~12mm, 암컷 약 16mm이다. 일개미의 몸빛깔은 흑색이며 가슴은 암적색이다. 수컷은 온몸이 흑색이며 날개미는 5~7월에 나타난다. 지대가 낮은 곳에서도 발견되나 해발 500m 이상의 산지에 많이 분포하며 울창한 산림이나 숲, 암석이 많은 지역의 나무 기둥이나 뿌리 속 등에서 산다.

다-2. 구멍벌과(Sphecidae)

땅에 구멍을 파 집을 짓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중형에서 대형의 사냥벌이며 몸빛깔은 흑색이고 때로는 금속광택이 나는 청색 또는 자색종도 있다. 홀로 살며, 암컷은 종류에 따라 메뚜기·나비목의 유충·거미 등을 찾아 독침으로 유충이나 거미의 운동중추를 찔러 마비시킨 다음 운반하여 여기에 산란한다. 부화한 유충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신선한 유충과 거미 등의 먹이를 먹고 자란다. 종에 따라 땅속에, 자연의 공간에, 또는 진흙으로 먹이 저장실을 만든다. 한국에서는 조롱박벌, 왕나나니, 유리나나니의 3속에 16종이 분포한다.

53. 나나니(*Ammophila sabulosa infesta* Smith, 1873)

<사진53> 나나니- *Ammophila sabulosa infesta*



성충-2005.5.30 황성읍 섬강둘레길

2005.7.30 갑천 병지방

2005.8.30 송지봉

나나니의 학명인 ‘Ammophila’ 라는 말은 ‘모래땅을 좋아하는 자’ 라는 뜻이다. 이것은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이라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사냥에 몰두하는 재미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나나니의 활동은 5월부터 시작되어 늦은 10월까지 계속되는데, 성충의 몸길이는 암컷이 20~25mm 수컷이 18~20mm이다. 수컷은 몸이 가늘고 길다. 암컷은 배추밤나방, 작은갈고리밤나방, 배추흰나비의 유충을 잡은 후 배다리가 있는 옆구리에 마취침을 찌른 다음 포식하고, 땅속의 집에 끌고 들어가 산란한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옛날 어른들의 ‘나나니허리’ 란 말이 생각나게 하는 날씬한 허리가 인상적이고 승지봉 정상에서 집공사 하는 모습이 감명깊었다.

54. 홍띠윤구멍벌(*Larra amplipennis* Smith, 1873)

<사진54> 홍띠윤구멍벌 - *Larra amplipennis*



성충의 사냥모습-2011.7.21 황성 서원 옥계

사냥감-갈색여치

암컷의 몸의 길이는 16~18mm이고 잿빛 잔털이 있다. 머리와 가슴은 검은색, 배는 앞쪽이 붉은 갈색, 뒤쪽은 검은색이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다-3. 꿀벌과(Apidae)

꿀벌, 호박벌, 뒤영벌, 꽃벌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55. 청줄벌(*Anthophora zonata* Linnaeus, 1758)

몸길이 약 14mm이다. 수컷의 몸빛깔은 흑색이다. 성충은 8~9월에 활동한다. 한국 · 중국 동북부 · 타이완 · 동남아시아 · 호주 · 인도에 걸쳐 분포한다.

<사진55>청줄벌 - *Anthophora zonata*



성충-2007.7.18 황성음 석강둘레길

2011.8.7 황성음 석강둘레길

56. 꿀벌 (*Apis cerana* Fabricius, 1793)

일반적으로 양종(洋種) 꿀벌 및 재래종을 말한다. 이 밖에 야생인 꿀벌이 있는데 산지의 나무구멍 등에 집을 만들며, 일부에서는 사육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꿀을 따기 위해 사육되고 있는 것은 유럽 원산의 양종 꿀벌이 주종이다. 꿀벌은 인도 북부 지역이 원산지로, 밀원을 찾아 이동하면서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진화하였다. 동양종은 열대 및 아열대성으로 한국·중국·일본에 분포하였다. 한국에 양봉이 시작된 것은 약 2,000년 전 고구려 태조 때 중국에서 꿀벌을 가지고 와서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며 이미 삼국시대에 양봉이 보급되었다. 양봉은 독일인 선교사가 이탈리아종을 들여왔다. 꿀벌의 벌집

<사진56>꿀벌 - *Apis cerana*



성충-2007.10.6 황성음 석강둘레길

2007.9.17

2010.6.21

은 야생상태에서는 수목이나 동굴 틈에 있지만, 양봉은 나무상자에 넣은 틀의 양면에 6각 통형(筒形)의 방을 틈새 없이 만든다.

57. 어리호바벌 (*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 Smith, 1873)

몸길이 약 20mm이다. 몸빛깔은 흑색이며 머리방패와 그 위쪽의 삼각무늬, 큰턱 밑부의 무늬, 더듬이의 자루마디 등은 담황색이다. 날개는 흑색으로 흑자색

<사진 57> 어리호박벌 - *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



성충-2011.8.20 황성읍 섬강둘레길

의 광택이 난다. 성충은 4~5월에 나타난다. 한국 · 일본에 분포한다.

다.4.대모벌과(Pompilidae)

‘거미벌과’라고도 한다. 대모벌류는 몸이 가는 편이고 다리도 길며 가시털이 많다. 몸길이는 15~25mm이고 몸빛깔은 대개 흑색이다. 날개는 대형종은 암색이나 적갈색을 띠는 것도 있으나 소형종은 투명하다. 성충은 보통 꽃이나 땅 위에서 활동하며 새끼를 위해 거미류를 마비시켜 땅 속의 육아실(育兒室)에 저장하고 산란한다. 예외 없이 거미류만을 사냥하는 습성도 또한 대모벌의 특징이다. 대모벌이란 이름은 일본명을 옮긴 말인데 거미를 사냥하는 특성 때문에 영어로도 거미벌(spider wasp)이라 한다. 한국에 16속 28종이 분포한다.

58.왕무늬대모벌(*Anoplius samariensis* Pallas, 1771)

<사진 58> 왕무늬대모벌 - *Anoplius samariensis*



성충-2005.6.14 황성읍 섬강둘레길

먹이사냥-2007.8.1 황성읍 승지봉

수컷은 암컷에 비하여 몸은 가늘고 길며 더듬이도 길고 얼굴은 잔털에 의하여 다소 은백색을 띠고 있다. 몸길이 1.3~5mm인 성충은 6~8월에 활동하며 거미를 잡아 새끼의 먹이로 삼는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몽골, 시베리아, 인도,

북아메리카, 유럽까지 분포한다. 거미를 사냥해 끌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다-5. 등에잎벌과(Argidae)

몸크기는 소형 · 중형의 벌로서 몸빛깔은 흑색이다. 다른 잎벌에 비해 피부가 단단하며 언뜻 보기에 등에와 비슷하다. 유충은 각종 식물의 잎을 먹는다. 한국에는 1속 17종이 알려져 있다

59. 극동등에잎벌(*Arge similis* Vollenhoven, 1860)

<사진 59> 극동등에잎벌 -*Arge similis*



성충-2008.5.20 황성읍 성강둘레길

년3~4회 발생하는데, 유충은 5~9월에 주로 철쭉류의 잎을 먹으며, 잎 뒤에 모여 산다. 대량 발생하면 잎 전체를 먹어치워 나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다 자란 유충의 몸길이는 25mm이고 번데기는 황색으로 7mm이다. 3세대의 유충은 10월 상순에 낙엽 밑 또는 흙속에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유충으로 월동한 다음 해 봄에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는 4월 하순~5월 상순, 7월 상순, 9월 상순에 우화 한다. 암컷성충은 톱과 같은 산란관을 잎가장자리 조직 속에 삽입하여 산란 하며 산란 된 곳은 팽대해지고 갈색으로 변한다. 한 잎에 일렬씩 다수 산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 마리가 함께 있다가 자라면서 분산한다.

다-6. 말벌과(Vespidae)

말벌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는 82종이 알려졌다. 대부분 배에 무늬가 있으며,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다. 벌 무리 중 크기가 큰 편이다. 산지나 평지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른 밤부터 등불에 찾아온다. 성충으로 월동한다.

60. 꼬마쌍살벌(*Polistes japonicus* Saussure, 1858)

<사진60> 꼬마쌍살벌 - *Vespa ducalis*



성충-2017.6.11 황성음 습지봉등산로

몸의 길이는 2~2.5cm이다. 몸빛은 전체적으로 검은 갈색이고, 더듬이는 붉은 갈색이다. 얼굴에 2개의 노란색 무늬가 있다. 가슴에는 쪽쪽 팬 점들이 흩어져 있고 잔털이 있다. 배는 명주처럼 윤이 난다. 날개는 누런 갈색, 발은 검은 갈색이다. 날아다닐 때 발을 길게 드리우고 난다. 한국의 각지에 분포한다.

61. 뱀허물쌍살벌(*Parapolybia varia* Fabricius, 1787)

<사진61> 뱀허물쌍살벌 - *Parapolybia varia*



성충-2014.7.20 황성음 습지봉 등산길

배마디 끝에 가늘고 검은 선이 있다. 성충의 몸길이는 암컷 15~22mm, 수컷 10~13mm이다. 몸빛깔은 대체로 황적갈색이며, 날개는 투명한 황갈색이다. 성충은 4~9월에 흔히 나타나고, 나비목 곤충의 유충을 잡아서 그 먹이로 새끼를 기른다. 몸의 무늬와 색깔이 뱀이 벗어 놓은 허물 같다. 나뭇가지에 길쭉한 벌집을 만드는데 방마다 알을 하나씩 넣고 늘 집 주변에 머물며 새끼를 돌본다. 비가 오면 입으로 물을 빨아 내 습기를 없애고, 날갯짓으로 더위도 식혀 준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62. 큰뱀허물쌍살벌(*Parapolybia indica* Saussure, 1854)

<사진 62> 큰뱀허물쌍살벌 -*Parapolybia indica*



성충-2007.8.20 황성읍 섬강둘레길

누런빛 또는 붉은빛 도는 갈색이며, 노란 무늬가 발달한다. 배마디 끝에 가늘고 검은 선이 있다. 아사회성벌로서, 지난해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군체를 형성하는 1년생이다. 나뭇가지에 집을 지으며 집의 모양은 길쭉한 뱀허물 모양이다.

63. 왕바다리(*Polistes rothneyi koreanus* Vecht, 1968)

<사진 63> 왕바다리 -*Polistes rothneyi koreanus*



성충-2008.7.17 황성읍 섬강둘레길

2008.5.12 대동아파트

왕바다리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 쌍살벌이다.

64. 말벌(*Vespa crabro crabro* Linnaeus, 1758)

<사진 64> 말벌 -*Vespa crabro crabro*



성충-2013.9.2 흥천 동면 노천

2005.8.6 황성 공근 상동

성충의 몸길이는 암컷이 약 25mm, 수컷이 약 20mm이다. 암컷의 몸빛깔은 흑갈색이지만 황갈색과 적갈색의 무늬도 있다. 곤충을 잡아먹으며, 한국을 비롯하

여 유럽에서 극동에까지 널리 분포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벌 공격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 말벌의 공격성은 노란색 등 밝은색보다 검은색에 강했다고 한다. 말벌은 사람의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 부분을 우선 공격하고, 머리카락 등 검은색 털이 있는 곳을 집중 공격하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말벌의 공격성은 검은색, 갈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으로 강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야외활동을 할 때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말벌 공격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말벌은 소리보다는 진동에 예민해서, 약한 진동에도 수십 마리의 말벌이 벌집 밖으로 나오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벌집이 달린 기둥이나 나무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말벌집을 건드렸을 때 팔을 휘저으면 안 되고, 머리를 감싼 후 벌집에서 직선거리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말벌의 공격성이 검은색이나 갈색에 강한 것은 천적인 곰, 오소리, 담비 등 색상이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집이 크고 화려하여 인상적이다.

65. 장수말벌(*Vespa mandarinia* Smith, 1852)

<사진 65> 장수말벌-*Vespa mandarinia*



성충-2016.7.15 황성읍 송지봉등산로

20157.27 황성읍 송지봉등산로

말벌에서 ‘말’은 ‘크다’는 뜻의 접두사다. 즉 말벌은 큰 벌이라는 말이다. 말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인 장수말벌은 몸길이가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5cm에 이른다. 장수말벌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무는 힘도 세고 독침의 독도 강력하

다. 꿀벌 집을 초토화해 양봉 농가를 울리는 녀석들도 대부분 장수말벌이다. 추석 때 벌초나 성묘를 하다가 벌에 쏘여 죽는 경우가 매년 몇 건씩 나오는데 역시 장수말벌이 주범이다. 새끼를 먹이기 위해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참나무 진을 훔쳐 먹는 것을 좋아한다. 여왕벌은 우화 후 수명이 1년 정도이다. 보통 9월 무렵부터 우화하기 시작하며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 몸속에 쌓아둔 후 나무껍질과 줄기 사이의 틈바구니나 사람이 지은 집의 벽 틈 등에 틀어박혀서 바람을 피하며 겨울을 난다. 이듬해 동면에서 깨어난 여왕벌은 설치류가 뚫어놓은 굴이나 썩은 나무뿌리 근처, 혹은 빈 나무등걸 속 등 어두운 구멍속에 나무껍질을 갈아다가 침과 버무려 작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일벌을 길러낸다. 일벌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집짓기, 사냥, 육아는 모두 여왕벌의 몫이다. 일벌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다른 벌레를 날렵하게 사냥해 입으로 꼭꼭 씹어서 고기 경단처럼 만들어 유충을 먹인다. 유충은 ‘부화 이후 다섯 번 탈피를 거쳐 번데기가 된다. 유충은 육식을 하며 하얗고 다리가 매우 짧다. 몸은 뚱뚱하고 날카로운 턱이 있다. 이 턱으로 성충들이 구해오는 곤충 경단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승지봉 등산로 샘터에서’ 부우웅, 부우웅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무서웠다. 승지봉 정상 부근에서 다른 곤충들을 몰아내고 참나무진을 빨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66.좀말벌(*Vespa analis parallela* Andre 1884)

<사진66-1>좀말벌-*Vespa analis parallela*



성충-2014.8.28 횡서읍 석강둘레길

몸길이 암컷 26~29 mm, 일벌 22~27 mm, 수컷 23~26 mm이며, 몸빛깔은 흑색이다. 어느 정도 개방된 혼효림이나 관목의 바닥 부근에 집을 짓는다. 사회성벌로서, 지난해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군체를 형성하는 1년생이다.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에 분포한다. 얼굴 모습이 인상적이다.

67. 땅벌(*Vespula flaviceps* Smith, 1870)

<사진67> 땅벌 - *Vespula flaviceps*



성충-2007.10.16 황성음 섬강둘레길 2017.9.15 황성음 섬강테니스장 2017.10.18 황성음 섬강테니스코트

수컷 몸길이 12~14 mm이며, 여왕벌의 몸길이 15~16 mm, 일벌 10~12 mm이다. 몸빛깔은 검은색이며 광택은 선명하지 않다. 몸과 다리에 노란색의 선명한 무늬가 많다. 들판이나 논두렁, 밭두렁 등 마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땅속에 여러 층의 집을 짓는다. 참나무의 나무진을 먹기 위하여 모이며, 침을 쏘아 피해를 주기도 한다. 여왕벌은 가을에 짝짓기를 하여 알을 낳는다. 알이 부화하는데는 5~8일 정도 걸린다.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90일 정도 걸리며, 다섯 번의 허물벗기를 한다. 사회성벌로서, 지난해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군체를 형성하는 1년생이다.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다. 어렸을 때 ‘땡땡’이라고 불렀는데 갯가에서 목욕하다가 땡비집을 건드려 친구들과 함께 나체질주를 하던 일이 자주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테니스장에서 산누에나방을 사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68. 꼬마장수말벌(*Vespa ducalis* Smith, 1852)

성충의 크기는 25~30mm 정도로 말벌과에 속한 벌 중 장수말벌 다음으로 큰 곤충이다. 장수말벌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약간 작아 꼬마장수말벌이라는

<사진68>꼬마장수말벌-*Vespa ducalis*



성충-2017.6.11 황성읍 승지봉등산로

이름이 붙었다. 생김새는 비슷하나 검정색 무늬가 더 많다. 왕바다리의 유충을 새끼들의 먹이로 사용한다. 사회성벌로서, 지난해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까지 군체를 형성하는 1년생이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주로 서식한다. 쌍살벌집을 습격하여 집을 파괴하고 새끼들을 잡아간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69.참어리별쌍살벌

(*Polistes djakonovi* Kostylev, 1940)

성충의 몸길이 15mm 정도이다.

참어리별쌍살벌-*Polistes djakonovi*



성충-2008.4.6 황성읍 성강둘레길

다-6.맷시벌과(Ichneumonidae)

다른 곤충에 번식을 위해 기생하는 기생벌들이다. 맷시벌의 숙주는 사슴벌레, 하늘소 등 나무속에서 사는 곤충들의 유충으로, 기생당한 숙주는 유충에게 체 내를 빼앗겨 껍질만 남게 된다. 종류에 따라서는 흑백알락나비, 왕오색나비, 호랑나비의 유충에 기생하기도 하는데, 나비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안에서 어른벌레가 되어 번데기를 뚫고 나온다. 맷시벌과의 벌들은 몸이 길고 날씬한 게 특징이며, 기생 곤충에 알을 낳기 위해 발달한 산란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는 3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70.검정맷시벌(*Amblyjoppa cognatoria* Smith, 1874)

성충은 몸길이 24mm로 몸은 강대하고 짐작이 밀포하며 백색인 무늬가 많은 흑색종이다. 주홍박각시, 등줄박각시등의 유충이나 번데기에 기생한다. 곤충을

<사진70> 검정맷시벌 - *Amblyjoppa cognatoria*



성충-2008.5.1 황성읍 섬강산둘레길

떨러서 기절시킨 후 땅속에 있는 꿀에 저장하고 알을 낳아두면 부화하여 곤충의 살을 먹고 유충이 자란다. 한국, 일본에 분포한다.

71. 곤봉자루맷시벌 (*Habronyx insidiator* Smith, 1874)

<사진71> 곤봉자루맷시벌 - *Habronyx insidiator*



성충-2008.6.9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45mm정도이며, 성충은 6월부터 보인다. 산누에나방의 애벌레에 기생하는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72. 검보라맷시벌 (*Ichneumon nigroindicum* Kim, 1955)

<사진72> 검보라맷시벌 - *Ichneumon nigroindicum*



성충-2005.7.12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2008.5.12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5~10월에 출현하는데, 몸길이 23mm정도이며, 암컷은 강한 바이올렛 빛이 도는 흑색이나 머리와 가슴은 흑색이다. 다른 곤충의 애벌레에 산란을 하고 애벌레의 먹이로 삼는 기생벌입니다. 한국에 분포한다.

73. 대한알락맷시벌(*Pterocormus sarcitorius chosensis* Uchida, 1927)

대한알락맷시벌 - *Pterocormus sarcitorius*

<사진 73>



성충-2008.10.1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16mm 정도로 머리와 가슴은 검은색, 배는 검은색과 붉은 빛을 띤 노란색으로 나누어져 있다.

74. 밀노랑뿔맷시벌(*Smicroplectrus quinquecinctus* Gravenhorst, 1820)

성충은 4~6월에 출현하는데, 몸길이 6~10mm이며, 얼굴은 황색이고 입술수염도 황색이다. 잎벌류의 유충 머리에 알을 낳기도 한다.

밀노랑뿔맷시벌 - *Smicroplectrus quinquecinctus*

<사진 74>



성충-2008.5.15 황성읍 섬강둘레길

다-7. 호리병벌과 (Eumenidae)

진흙으로 둥지를 만드는 벌들을 포함한다. 다 자란 어미는 진흙으로 호리병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애벌레의 먹이인 나방 애벌레를 잡아놓는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어미가 잡아놓은 먹이를 먹고 자란다.

75. 황습감탕벌 (*Anterhynchium flavomarginatum* Smith)

성충의 몸길이는 15~18mm. 몸은 흑색이며, 머리와 가슴에 점각이 밀포되어 있고, 머리방패의 변두리는 흑색이다. 날개는 짙은 자주색으로 아름다운 무지개빛이 난다. '뽕나무들명나방', '숨들명나방', '포도들명나방' 등의 유충을 포식한다.

<사진 75> 황습감탕벌 - *Anterhynchium flavomarginatum*



성충-2000.7.3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6.6.18 황성읍 섬강둘레길

76. 띠호리병벌(*Discoelius japonicus* Perez, 1905)

<사진76> 띠호리병벌 -*Discoelius japonicus*



성충-2008.6.19 횡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는 15~19mm이고 몸빛깔은 흑색이며 강한 광택이 있다. 성충은 5~6월에 나타난다. 한국(중부 이남),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77. 별감탕벌(*Euodynerus dantici* Rossi, 1790)

<사진77> 별감탕벌 -*Discoelius japonicus*



성충 암컷의 몸길이 10.5~11.5 mm이다. 잎말이나방의 유충을 새끼의 먹이로 준비한다.

성충 암컷의 몸길이 10.5~11.5 mm이다. 잎말이나방의 유충을 새끼의 먹이로 준비한다.

78. 호리병벌(*Oreumenes decoratus* Smith, 1852)

성충 수컷의 몸길이가 25~30mm이다. 성충(成蟲)은 6~10월에 걸쳐 많이 나타난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호리병벌 -*Oreumenes decoratus*

<사진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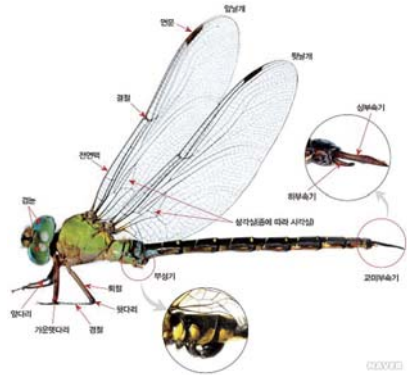


성충-2007.7.30 횡성읍 섬강둘레길

라. 잠자리목(Odonata)

잠자리목에 속한 무리들은 불완전변태를 하는데, 포식성으로 입 구조가 씹어 먹기에 알맞다. 겹눈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촉각은 아주 작다. 크기, 색상 및 무

니가 다양하나 날개는 크며, 시맥이 그물 모양으로 잘 발달한다. 우리나라에는 11과 123종이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 종만 등불에 찾아온다.



라-1. 물잠자리과 (Calopterygidae)

국내에는 3속 5종이 기록되어 있다. 정지할 때에는 날개를 곧게 세운다. 날개에는 삼각실이 없으며 결절앞가로맥은 그 수가 많고 날개 밑부분은 자루 모양으로 되지 않는다. 앞·뒷날개는 크기가 거의 같고 겹눈은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배는 원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다. 먼 거리를 날지 않는다.

79. 검은물잠자리 (*Atrocalopteryx atrata* Selys, 1853)

<사진 79> 검은물잠자리 - *Atrocalopteryx atrata*



성충-2005.5.20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배길이 약 46~50mm 뒷날개길이 40~43mm이다. 몸빛깔은 수컷의 경우 날개는 검은색, 가슴과 배는 청록색으로 금속광택이 난다. 암컷의 경우 날개는 옅은 흑갈색, 가슴과 배는 흑갈색으로 광택은 없다. 암수 모두 날개의 가두리 무늬가 없다. 성충은 5월~10월경 물가의 숲에서 볼 수 있다. 검고 긴 날개를 펼럭이면서 천천히 나는 모습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앉을 때는 날개를 곧게 세운다. 짝짓기 후 암컷은 혼자 수생식물의 줄기 속에 알을 낳는데 알로 월동한다.

유충은 몸길이 27~29mm로 흘쭉하고 담갈색이며, 계곡이나 평지의 물 흐름이 약한 하천 가장자리의 수생식물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서 더 많이 관찰되며, 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80. 물잠자리(*Calopteryx japonica* Selys, 1869)

성충은 5~7월에 출현하는데 청정 하천의 갈대나 수생식물이 있는 주변에 서식한다. 배의 길이 41~48mm이며 뒷날개의 길이는 31~41mm이다. 암수 모두 청동색이며 날개는 둥근 타원형으로 검은물잠자리보다 짧다. 암컷은 날개 끝에 연문이 있다. 암컷은 물속에 자라는 식물 줄기에 산란관을 찢어 넣고 단독 산란한다. 유충은 수생식물이 풍부한 하천 상류유역 가장자리의 수생식물 줄기에 붙어서 생활한다. 유충기는 20개월이며, 43~47mm 까지 자란다.

<사진80> 물잠자리 - *Calopterygidae*



성충-2008.8.17 황성읍 섬강둘레길

라-2. 방울실잠자리과(Platycnemididae)

수컷은 가운데 다리와 세 번째 다리 종아리마디가 방울 형태이며 암컷은 방울 형태가 아니다. 2속 4종이 보고되어 있다.

81. 방울실잠자리(*Platycnemis phyllopoda* Djakonov, 1926)

<사진81> 방울실잠자리 - *Platycnemis phyllopoda*



성충-2008.6.19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배의 길이 30~33mm이며, 뒷날개길이 20~22mm인데 5월 중순부터 우화를 하며, 10월까지 전국 대부분의 연못과 저수지 및 정수성 하천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좁은 지역에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종일수록 산란할 때 암컷과 연결하여 다른 수컷과의 짝짓기를 원천 봉쇄한다고 한다. 유충은 구렁지와 저지대 습지, 연못, 저수지, 하천 정체수역 수생식물 뿌리 근처에 밀착해 서식한다. 유충기 10개월, 크기 18-20mm이다.

라-3.부채장수잠자리과-측범잠자리과(Gomphidae)

측범잠자리과는 전 세계에 5아과 91속 951종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3속 22종이 기록되어 있다. 성충의 겹눈이 서로 떨어져 있고 날개의 횡맥이 복잡하며, 앞, 뒷날개의 삼각실 모양이 같아 원시적인 분류군으로 취급된다. 주로 저수지와 우수성 하천에 서식을 하며 하천에 서식하는 종의 대다수는 인근의 숲 속에서 생활하며 부정기적으로 하천에 출현하여 생식활동을 하므로 관찰이 쉽지 않다.

82.미아키측범잠자리(*Anisogomphus maacki* Selys, 1872)

<사진82> 미아키측범잠자리-*Anisogomphus maacki*



성충-2005.6.3 섬강둘레길

성충은 배의 길이 39~41mm, 뒷날개길이 31~33mm. 평지나 구렁지 하천의 중·하류 유역에서 5월부터 우화를 하며 국내의 대부분 하천에서 9월까지 관찰할 수 있다. 5월에 우화한 미성숙 개체는 근처의 산지 계곡으로 이동하여 성장을 하는 산지이동형 성장을 하는 측범잠자리로 분류되며, 8월에 하천 유역에 내려와 암컷 혼자 타수산란을 한다.

83.쇠측범잠자리(*Davidius lunatus* Bartenef, 1914)

전국 대부분의 하천 상류역에서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관찰되는 조기 출현종

<사진83>쇠촉범잠자리-*Davidius lunatus*



성충-2005.5.7 섬강둘레길

이다. 배길이 28~30mm, 뒷날개길이 47~56mm. 가슴의 크기에 비해 머리가 작다. 유충은 특히 1급수의 청정 하천 지역에서 서식하므로 수서생태계의 지표곤충이기도 하다.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짝짓기와 산란을 마치고 6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유충은 산지 청정 계류의 유속이 있는 웅덩이에 쌓인 모래 속에서 생활한다. 4월부터 관찰되는 잠자리들 중 찬 계류에 서식하는 촉범종류의 잠자리들은 햇살이 비취 비교적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에 주변의 돌이나 나뭇잎, 풀잎 위에서 우화를 한다. 암컷은 수면 위에 떠서 정지 비행을 하며 알을 떨어뜨리듯 산란을 한다.

84. 노란촉범잠자리(*Lamelligomphus ringens* Needham, 1930)

<사진84> 노란촉범잠자리- *Lamelligomphus ringens*



성충-2008.10.1 횡성읍 섬강둘레길

배길이 수컷 약 45mm, 암컷 약 47mm이다. 7월 초순부터 9월 하순까지 물가에서 볼 수 있으며, 나는 모습이 실 끊어진 것처럼 매우 유연해

보인다. 교미 후 암컷은 홀로 물흐름이 느린 여울 가까이에서 산란관으로 알을 내보내 적당한 크기로 뭉쳐서 수면 위를 스치듯이 산란한다. 유충은 몸길이 27~30mm로 황갈색이고 촉각의 세마디가 주걱 모양이며 강기슭에 산다. 우화는 오전 10시경에 바로 선 자세로 이루어지며 우화한 뒤 야산으로 이동한다. 한국, 중국 동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85. 어리장수잠자리(*Sieboldius albardae* Selys, 1886)

<사진 85> 어리장수잠자리 -*Sieboldius albardae*



유충-2005.6.6 황성읍 섬강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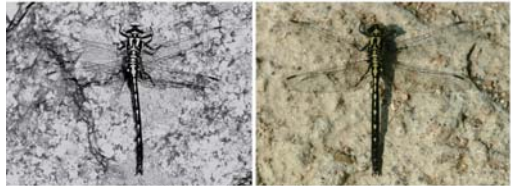
성충

성충은 배길이 53~65mm, 뒷날개길이 47~56mm. 가슴크기에 비해 머리가 작다. 5월 초부터 우화를 하여 8월 하순까지 유수성 하천의 중·상류 유역의 흐름이 정체된 곳에서 관찰된다. 유충은 하천의 돌 틈에서 생활하며 유난히 납작하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유충은 2년 동안 성장 후 성충으로 우화하는 2년1세대 의 한살이를 한다. 이 과에 속하는 잠자리 중 크기가 제일 큰 종이다. 우화한 미 성숙 개체는 하천 인근의 숲과 산에서 성장을 하며, 포식성이 강하여 나비와 나방 등 일반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잠자리, 심지어 동족을 사냥하기도 한다. 성숙하면 하천으로 내려와 암컷을 기다리는데 암컷은 흐름이 완만한 정체수역에서 정지비행산란을 하거나 옮겨다니며 타수산란을 한다.

86. 가시촉범잠자리(*Trigomphus citimus* Needham, 1931)

암컷의 산란관은 끝부분만 약간 갈라진 형태다. 수면 위에서 알을 떨어뜨리는 단독 공중산란을 한다. 유충은 연못과 저수지, 하천 정수 유역의 퇴적층에서 생활한다. 유

<사진 86> 가시촉범잠자리 - *Trigomphus citimus*



성충-2006.4.10 황성읍 섬강둘레길

충기 20개월, 크기 22-24mm, 몸길이는 22~25mm이고, 긴 타원형으로 짙은 갈색이다. 작은 수생동물을 잡아먹는다.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87. 검정촉범잠자리(*Trigomphus nigripes* Selys, 1887)

몸길이는 23~25mm이고, 긴 타원형으로 짙은 갈색 또는 갈색이다. 연못, 인공호와 같은 정수역에 주로 서식하지만, 평지하천, 강의 배후습지에도 발견된다. 점토와 유기잔사물이 많이 함유된 퇴적층에 굴을 파고 숨는 습성이 있다. 작은 수생동물을 잡아먹는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요 서식지는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이다.

검정측범자리-*Trigomphus nigripes*
<사진87>



성충-2005.5.9 황성읍 섬강둘레길

라-4.실잠자리과(Coenagrionidae)

연못과 습지 등 수생식물이 자라는 곳에 많이 서식하며 국내에는 9속 22종이 분포한다.

88.아시아실잠자리(*Ischnura asiatica* Brauer, 1865)

<사진88> 아시아실잠자리-*Ischnura asiatica*



성충-2008.7.8 황성읍 섬강둘레길



2007.7.22 황성읍 섬강둘레길



연못, 인공호와 같은 정수역에 주로 서식하지만, 평지하천, 강의 배후습지에도 발견된다. 점토와 유기잔사물이 많이 함유된 퇴적층에 굴을 파고 숨는 습성이 있다. 작은 수생동물을 잡아먹는다.

라-5.왕잠자리과(Aeshnidae)

뒷날개는 앞날개보다 크다. 겹눈이 정수리에 서로 한데 붙는 것과 서로 붙지 않는 것이 있다. 정지할 때는 날개를 수평으로 벌리고, 일정한 장소를 날아다니는 것도 있으나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것이 많고 정지하는 일이 적다. 석양에 높이 날아다니며 모기를 잡아먹는다. 한국에는 7속 13종이 기록되어 있다.

89. 왕잠자리(*Anax parthenope julius* Brauer, 1865)

성충은 몸길이 70~75mm이다. 4월~5월, 8월~10월에 볼 수 있다. 우화는 수면 위로 나온 수생식물의 줄기에 거꾸로 매달린 채 이루어지며 우화해서 날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이다. 교미가 끝나면 암수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못이나 저수지, 둑, 늪 등을 날아다니다가 수생식물의 조직 속에 산란관을 꽂고 산란한다. 유충은 몸길이 48~54mm로 주된 먹이는 처음에는 물벼룩이며 점점 자라면서 송사리·올챙이·실지렁이 등을 잡아먹는다. 유충기는 10개월이다. 대부분의 개체가 종령으로 월동하나 늦게 부화한 개체들은 어린 유생의 상태로 월동하기도 한다. 먹이를 보면 급히 입술을 뺏어 그 끝의 갈고리로 먹이를 잡아먹는데, 직장에 기관새(기관아가미)가 있어 이것으로 호흡한다. 한국·일본·타이완·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성충-2005.7.27 황성읍 마산리

라-6. 잠자리과(Libellulidae)

몸크기는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양해서 몸길이 20~60mm, 날개길이 30~100mm이다. 날개길이가 몸길이에 비해 눈에 띄게 길다. 뒷날개는 앞날개보다 크며, 정지할 때에는 날개를 수평으로 벌린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몸빛깔이 덜 화려하지만 날개 무늬는 같다. 수컷은 세력권을 유지하면서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날아다니며 다른 잠자리류에 비해 쉬는 시간이 많다. 물흐름이 빠른 곳보다 연못처럼 물흐름이 거의 없는 곳을 더 좋아한다. 교미 후 암컷은 수컷의 보호를 받으며 배를 물속에 담그고 알을 낳는다. 한국에는 15속 40여 종이 분포한다.

90. 붉은배잠자리(*Crocothemis servilia*)

우리나라에서 '고추잠자리'로 불리는 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널리 분포한

<사진90> 붉은배잠자리-*Crocothemis servilia*



성충-2005.6.10 황성읍 섬강둘레길

2005.8.17 황성읍 섬강둔치

2005.8.23 황성읍 섬강둔치

다. 배길이가 약 28~32mm, 뒷날개길이가 약 33~36mm이다.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잠자리는 몸 전체와 날개가 오렌지색이다. 성숙한 수컷은 몸 전체가 붉게 변하는데, 날개 밑부분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해진다. 성숙한 암컷은 희미한 오렌지색으로 변한다. 5~6월부터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우화(羽化)하고, 11월까지 성충을 볼 수 있다. 교미는 공중에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암컷은 수컷의 세력권 안에서 수면을 치며 산란한다. 암컷은 세력권을 옮겨 가며 다른 수컷들과 여러 번 교미와 산란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 약충은 몸길이 17~20mm로 높이나 연못 등 수생식물이 많은 곳에 산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인도차이나반도,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91. 배치레잠자리(*Lyriothemis pachygastra* Selys, 1878)

<사진91> 배치레잠자리-*Lyriothemis pachygastra*



성충-2007.6.24 황성읍 섬강둔치

2005.7.20 황성읍 섬강둔치

2005.6.13 황성읍 섬강둔치

2004.9.6.24 우천초교

앞이마에는 금빛 나는 무늬가 있고 암컷의 배가 특히 넓다. 미성숙 개체는 황색이며 수컷은 중간성숙 단계에서 흑갈색이 나타나다가 성숙하면 회색으로 변한다. 암컷은 색 변화가 없고 배가 특히 넓으며 서식처 가장자리에 단독 타수산란한다. 유충은 평지와 구릉지의 수생식물이 풍부하고 유기퇴적물이 많고 얕은

소규모 습지 및 연못에 서식한다. 유충기 10개월, 크기 14-16mm이다. 가장 흔했던 잠자리로 잡아서 가지고 놀던 일이 생각난다.

92. 밀잠자리(*Orthetrum albistylum speciosum* Selys, 1848)

<사진 92> 밀잠자리 -*Orthetrum albistylum speciosum*



성충-2006.8.10 황성읍 섬강둔치

2005.8.28 황성읍 마산리 2005.8.28 황성읍 섬강둔치

성충은 4~9월에 출현하며 4~9월에 출현하여 주로 평지 또는 구릉지의 수초가 많은 연못, 습지, 논 등에서 서식한다. 유충의 환경적응력이 높아 다양한 수서 환경에 적응해 넓게 분포한다. 미성숙 암수는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며 성숙한 수컷은 배가 회색으로 변한다. 암컷은 서식지 가장자리에서 수컷의 경호를 받으며 타수산란한다. 유충은 산지와 구릉지 및 평지의 습지, 연못, 저수지, 정체수역 등 다양한 수역의 퇴적층에 서식한다. 유충기 10개월, 크기 23-25mm이다. 흔한 종으로 많이 볼 수 있다.

93. 노란허리잠자리(*Pseudothemis zonata* Burmeister, 1839)

5월 하순부터 9월까지 저지대의 연못이나 유속이 느린 하천의 가장자리에서 관찰된다. 주로 물가의 나무 그늘이나 갈대 주변을 왕복비행하며 영역경계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여러 마리가 동시에 같은 영역을 경계비행하는 것이 관찰된다.

노란허리잠자리 -*Pseudothemis zonata*

<사진 93>



성충-2005.9.6 황성읍 섬강둘레길

갓 우회한 미성숙 개체는 배 3, 4마디가 모두 노란색이며, 성숙하면 수컷만 흰색으로 색변이를 한다. 암컷은 성숙하여도 노란색을 간직하고 있지만 일반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근처의 숲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물가에서는 산란하거나 짝짓기

할 때만 관찰된다. 산란은 수면 위에 떠 있는 풀줄기나 나무 등에 비행하면서 알을 붙이는 산란을 하며, 일주일 정도 지나 부화한 유충이 월동을 한다.

94. 여름좀잠자리(*Sympetrum darwinianum* Selys, 1883)

<사진 94> 여름좀잠자리 -*Sympetrum darwinianum*



성충-2008.10.1 횡성읍 성강둘레길

2008.8.26 횡성읍 성강둘레길

성충은 6~10월에 출현하며 평지 또는 구릉지나 야산의 늪, 습지, 논 등에서 서식한다. 배의 길이 22~27mm이며, 뒷날개의 길이는 25~32mm이다. 미성숙 개체는 황색이며 성숙한 수컷은 몸 전체가 빨갭게 변한다. 암컷은 색 변이가 없는데 일부 배가 빨갭게 변하는 적화형이 있다. 옆가슴 무늬가 굵으며 가운데까지 뻗어 있다. 암수 연결해 습지 가장자리나 논에 비행하면서 알을 떨어뜨리는 공중산란을 한다. 유충은 평지와 구릉지의 갈수기에 물이 마르는 습지와 논 및 연못 주위에 서식한다. 유충기 4개월, 크기 16-18mm 이다.

95. 깃동잠자리(*Sympetrum infuscatum* Selys, 1883)

<사진 95> 깃동잠자리 -*Sympetrum infuscatum*



성충-2005.7.22 횡성읍 성강둘레길

2001.8.26 횡성읍 성강둘레길

2016.7.13 횡성읍 성강둘레길

암수 모두 날개 끝에 깃동무늬가 있다. 미성숙 개체는 황색이며 성숙 수컷은 전체적으로 붉은 갈색을 띤다. 논과 연못 및 습지 가장자리에 암수 연결해 알을 떨어뜨리는 공중산란을 한다. 유충은 평지와 구릉지의 습지와 웅덩이, 논 등

우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고이는 환경에 서식한다. 유충기 4개월이며, 몸 길이가 16-18mm이다. 성충은 7~10월에 출현한다. 가을이 되면 하늘에 가장 많이 날아다니던 잠자리다. 어릴 때 깃동잠자리를 잡아 꼬리를 자르고 바랭이꽃을 꽃아 날리며 누구 잠자리가 멀리 날아가는지 내기했던 기억이 난다.

96. 날개떡좀잠자리(*Sympetrum pedemontanum elatum* Selys, 1872)

<사진96> 날개떡좀잠자리-*Sympetrum pedemontanum elatum*



성충-2008.10.1 횡성읍 섬강둘레길

유속이 느린 하천과 습지에서 7월부터 출현하며, 11월까지 관찰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우화한 개체는 부근의 풀숲에서 성장을 한다. 날개의 끝부분에 갈색의 띠 모양이 있으며, 미성숙시 암수 모두 연한 갈색이나 성숙한 수컷은 몸 전체가 빨갱게 물든다. 또한 수컷은 풀 가지에 여러 마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이 관찰되므로 영역 경계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수면 혹은 가장자리의 진흙이나 모래에 암수 연결한 채 타수산란을 하며, 산란된 알은 월동을 하여 봄에 부화하여 성장을 한다.

라-7. 청실잠자리과(Lestidae)

극지방과 그린랜드, 시베리아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고루 분포한다. 국내에는 3속 6종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 청실잠자리속은 몸색이 짙은 청록색이고 일반 실잠자리들과는 다르게 날개를 펴고 앉는 특징이 있으며, 가는실잠자리와 묵은실잠자리는 성충으로 월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97. 청실잠자리(*Lestes sponsa* Hansemann, 1823)

<사진97> 청실잠자리- *Lestes sponsa*



성충-2005.5.29 황성읍 선강둘레길

2008.8.19 황성읍 선강둘레길

성충은 배길이 28~30mm, 뒷날개길이 20~22mm이다. 성숙하지 않은 개체의 경우 몸빛깔이 연한 노란색이나 성숙할수록 녹색으로 변한다. 암수 모두 머리 뒷부분이 금속성 광택이 나고 머리는 녹색이며 겹눈의 뒤쪽은 중앙의 뒷머리구멍까지 산뜻한 노란색이다. 수컷은 흑청색이다. 6월 초순부터 8월 하순까지 활동한다. 교미가 끝나면 암수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자세로, 수생식물 조직 속에 산란한다. 유충은 몸길이 17mm로 연한 갈색을 띠며 평지의 작은 물웅덩이나 야산의 연못 등에 서식한다. 한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IV.나가는 글

이 글을 쓰는 동안 벌레를 가지고 놀던 어릴 때 추억이 떠올라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었던 점과 보기 어려운 새로운 벌레들의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많이 좋았다. 이제 이 글을 마치고 그동안 미뤄뒀던 밝히지 못한 벌레들의 이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

끝으로 부족한 사진과 자료로 소개를 하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충고와 아울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 '강원의 자연(제6집-곤충편)' 1997년 12월 30일

남상호 '한국의 곤충' 교학사 2003년 9월 20일

조영권 '주머니속 곤충도감' 황소걸음 2006년 8월 10일

손재천 '주머니속 애벌레 도감' 황소걸음 2006년 9월 21일

안수정 '노린재 도감' 자연과 생태 2010년 6월 5일

백문기 '한국 밤 곤충도감' 자연과 생태 2016년 10월 31일

네이버 '두산백과', '곤충나라 식물나라 카페'

가천리노인회 짚풀공예 이야기



이 영 식
(황성문화원 이사)

가천리(佳川里)는 마을이 주천강가와 접해 있다고 해서 가이내라 불렸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몇 개의 자연마을을 합하여 가리천리(佳里川里)라 고쳤다. 이후 1937년에 또다시 가천리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천리에는 밤나무골, 안터, 황성말 등 크게 세 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황성말은 이웃한 강림리가 한때 원주시 및 영월군에 속해 있던 까닭에 이들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물론 황성말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말이 황사했다”는 또 다른 지명유래가 전하고 있으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앞의 유래가 더 많이 회자된다.



그런가하면 가천리 마을 분들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주천강을 둔내 앞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까닭은 주천강이 둔내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을 앞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풍부한 강물과 주변의 넓은 들로 인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농사에 많은 공을 들였다.



치악산이 가까이 있고, 마을 주위는 산으로 둘러져 있지만 마을 앞으로 주천강이 흐르고 그에 따른 넓은 들이 형성이 되어 가천리는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마을에는 벼농사와 관계된 논 삶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이 전해진다. 논을 삶는 일은 지금처럼 트랙터가 아닌 소를 부렸다. 논 삶는 일은 마을의 논 사정을 잘 알고 소를 잘 부리는 분이 하는데, 그러한 분을 마을에서는 성군이라 불렀다. 여느 마을도 그렇겠지만 가천리에서는 논을 삶을 때 성군에게 담배도 주고 밥이나 새참도 별도로 차려주는 등 특별

대우를 했다. 이는 논 삶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논을 평평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성군에게 신경 써서 일을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마음이 들어있다. 성군은 논을 삶으면서 소에게 지시를 하거나 본인의 흥에 따라 소리를 한다. 성군이 소를 부리면서 부르는 소리를 흔히 <이라소리>라 하는데, 가천리에서는 한 마리인 호리소로 논을 삶았다. 이러한 까닭에 겨리소로 씨레질을 하는 지역보다 소리의 사설이 풍부하지 않다.

이런

어디 알큰가자

이런

논 삶는 일이 끝나면 번지를 치고 못자리에서 모를 썬다가 모심기를 하는데, 가천리 마을에서는 마을구성원들이 함께 손으로 모내기를 하며 <심어주게>를 부르고 점심과 새참을 같이 했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열두푼 줄모르다 심어주게

모를 심은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초벌매기를 하는데, 마을에서는 초벌인 아이매기를 할 때 호미로 땀다. 아이매기를 할 때 마을에서는 <단허리>를 불렀는데, 일의 어려움과 몸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막걸리 한잔씩 나누며 선소리꾼의 메기는 소리에 맞춰 모두들 ‘어하얼썸 단호리야’를 힘껏 받았다.



어하이썸 단항리아 어하이썸 단항리아
 이논배미 알큰매고 어하이썸 단항리아
 저논다리로 넘어가지 어하이썸 단항리아
 여보시오 농부님네 어하이썸 단항리아
 잘두매구 잘두히시네 어하이썸 단항리아
 목이말르니 술한잔먹고싱세 어하이썸 단항리아¹⁾

1960년대까지도 거둬들이 끝나고 겨울이 되면 밤낮으로 하는 일이 가마니 짜기였다. 겨우내 쉴 새 없이 집에 틀어박혀 가마니를 짜는 일은 농촌에서 가마니의 쓰이는 바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한편으로는 가마니를 팔아서 현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였다. 가마니 짜기와 더불어 필요에 의해 짚신을 삼고, 자

1) 논삶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는 2000년 2월 22일 가천리에 거주하신 김도학 어른으로부터 들은 소리이다. 당시 김도학 어른의 연세는 75세이며, 가천리노인회에서 본격적으로 짚풀공예를 시작한 것 또한 이 분이 노인회장을 맡고 있을 때이다.

리도 매고, 명석을 매고, 맷방석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짚으로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만들어 썼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나일론,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의 제품이 가정에 파고들어 벗짚이나 삼 껍질, 그렁, 띠 등의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던 짚풀공예품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이제는 농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골동품이 되었다.



[가천리 경로당]

예전 가천리 마을 분들이 짚풀공예를 하는 것은 이웃한 여러 마을과 다르지 않았으나, 지금은 사뭇 다르다. 물건이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생산되는 것이는데, 요즘 가천리노인회에서 만드는 짚풀공예품은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대부분이 오늘날 생활에 그다지 쓰임새가 없다고 관심두지 않는 짚풀공예품을 가천리노인회에서는 해마다 만들고 있으니 경제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천리노인회에서 짚풀공예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조들의 생활지혜에 대해 횡성



[명(부리망)]



[교뚜레]



[또바리(따리)]



[짚신]



[제석]

군민 및 지역 방문객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가천리노인회에서 본격적으로 짚풀공예를 시작한 것은 15년 전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의 가천리노인회 김도학 회장께서 지역의 축제장에서 짚풀공예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낸 것이 계기가 되어 횡성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에 해마다 나오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가마니, 짚신, 또바리(따리), 닭등지(닭등우리), 자리 등과 같이 벗

짚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만 선보였으나, 공예품의 다양화를 보여주기 위해 코뚜레, 멩(부리망) 등과 같이 소를 키움에 있어 꼭 필요한 물건들도 만들게 되었다.

가천리노인회에서는 짚풀공예를 할 때 서로 맡은 역할이 정해져 있다. 곧 특정 용품 하나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만드는데 이는 일의 능률을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다른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한 가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일이 쉽게 익숙해져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 때보다 더 꼼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리매기는 송익섭 회원이 한다.

송익섭 회원은 전임 노인회장으로 처음부터 짚풀공예를 함께 했다. 자리는 보통은 제사 때 쓰는 제석을 매는데, 자리를 매 때는 자리틀과 70여 개의 고드랫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이 좋은 벚짚, 부들과 튼튼하고 질긴 실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고드랫들은 재료가 돌이 아니라 주물로 만든 것으로 젊었을 때부터 사용하던 것이다.



[송익섭]

자리를 처음 맨 것은 군에 다녀온 후인 35세쯤인데, 당시 집에 자리가 낡아 불편하므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매던 걸 기억해서 매게 되었다. 처음 맨 것은 볼품이 없었으나 이후 몇 번을 매다보니 익숙해져서 지금까지도 튼튼이 매고 있다.

자리를 매려면 먼저 좋은 벚짚이 있어야 한다. 좋은 벚짚은 기계가 아닌 낫으로 베어야 하는데, 낫으로 벤 벚짚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가천리에서는 벼를 모두 기계로 추수한 까닭에 부득이 청일에서 벚짚을 구입해 왔다. 벚짚은 벼 수

확이 끝난 뒤 구입해 마을회관에 보관했다가 안흥전빵축제와 횡성한우축제 때 사용한다. 지금은 창고가 있어 벧짚을 보관하기 편리한데, 예전에는 짚을 양손으로 쥘 만큼의 굵기로 한 다음 위아래를 단단히 묶어 눈비가 맞지 않도록 처마 밑에 두었다. 그러면 쥐가 짚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제대로 보관할 수 있다. 짚의 양이 적은 경우는 처마에 달아매기도 했다.

자리를 땀 때 벧짚과 더불어 부들이 필요하다. 자리의 안쪽은 바닥으로 향하기 때문에 거칠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 신체가 직접 닿는 바깥쪽은 때같이 곱고 미끈한 부들을 땀다. 부들은 습지에 많이 나며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경에 배어 응달에서 말린다.



[부들]

자리를 땀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끈이다. 지금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일론 줄로 엮지만 삼을 재배할 때는 조락으로 노를 만들어 썼다. 삼을 심으면 처서 때쯤 배어 삼굿을 한 다음 물에 씻어 말린 후에 삼실을 뽑아 옷을 해 입었는데, 이때 다음해 종자용으로 쓰기 위해 가장자리 일부는 베지 않고 둔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 서리를 맞힌 후에 씨를 따고 그대로 두어 눈비를 맞히고 얼리면 삼의 겉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이렇게 겉껍질이 얼어서 벗겨지고 속껍질만 남은 것을 조락이라 하는데, 조락으로 노를 짜서 자리도 매고 미투리도 삼아 신었다.

자리의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 2미터 정도로 하고 폭은 4자 반을 기준으로 한다. 자리의 폭에 제한을 두는 까닭은 예전 농촌의 방들은 보통 4자 반인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자리가 방의 길이보다 길면 위아래를 감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폭은 접을 수 없기 때문에 넓지 않게 한다.

짚자리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하지만 누구나 짚자리를 깔고 지낸 것은 아니다. 예전에도 자리매기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의 집은 괜찮았으나, 건달들 집에 가면 명석이나 가마니를 방바닥에 깔고 지냈다고 한다. 그래 자리매기를 잘하는 집은 짚자리를 깔고 지내고, 그 다음으로 형편이 좋은 집은 갈대로 엮은 갈자리, 갈자리도 어려운 집에서는 명석자리를 깔았고, 아주 못하는 집에서는 가마니매기를 자리로 썼다. 일반적으로 짚자리를 깔고 지내는 집은 부엌에 뿔나무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게으른 집에서는 청소아리(청솔가지)를 갖다 댄다. 청소아리 또한 남자가 아닌 부인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시에 짚자리를 깔고 지낸다는 것은 남자가 그만큼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상징의 하나이다.

짚신삼기는 연규하 회원이 한다.

짚신을 지역에서는 흔히 짚세기라 하는데, 짚세기는 10년 전부터 땀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매는 것을 봤지만, 짚세기를 신어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짚세기를 직접 매지는 않았다. 이후 경로당에 나와 지역의 선배들에게 짚풀공예를 배우게 되었다.



연규하

여러 해 만들다보니 지금은 모

양이 제대로 나온다. 짚세기를 크게 만들지 않는 까닭은 요즘 짚신을 신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이나 자동차 등에 장식품으로 쓰라고 작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짚세기도 지역민들이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광객들이 신기한 맛에 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짚세기를 만들 때도 부들을 넣어 모양과 색이 잘나오도록 만든다. 짚신을 만들 때 짚신골을 끼워 모양을 내야하지만 작게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아라리에 “네날 짚세기 육날미투리 신들레 짚끈 매구서 문경새재를 넘어가니 눈물만 팽팡 도네”²⁾ 와 같은 가사가 있듯이, 미투리는 날이 6개이지만, 짚신은 날이 4개이다. 짚으로 새끼를 끈 것과 조락으로 노끈을 만들어 날을 세우는 것은 그 굵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짚으로 아무리 가늘게 끈다 해도 노끈보다 굵을 수밖에 없으므로 미투리처럼 육날로 만들기가 어렵다.

삼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짚이 좋은 삼으로 미투리를 삼았을지 모르지만 가천리에서는 조락으로 삼았다. 미투리는 서민들의 고급 신발로 잔치 때 신랑이나 신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의 구두보다 더 귀한 신이었다. 짚신은 서민이 많이 신었는데, 산에 나무하러갈 때도 짚신을 신고 갔으니 옛날 어른들은 고생이 참 많았다.

쇠코뚜레는 김순복 회원이 만드는데, 현재 가천리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코뚜레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만드

는 것만 봤다. 당시 집에서도 소를 키웠지만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코뚜레는 원래 노가지나무(노간주나무)로 많이 만드는데, 마을에는 노가지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다래나무로 만들고 있다. 산에



김순복

2)진용선,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 2014, 119쪽.

가서 다래넝쿨을 베어와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렇게 삶아야 껍질이 잘 벗겨지고 나무색이 좋을 뿐 아니라 나무도 질겨진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라 삶지 않고 껍질을 벗겼더니 나무가 너무 불똥이 없어, 옛날 어른께서 하시던 것을 되새기니 삶아야 한다는 것을 터득했다.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 한두 개씩 만들었으니 굳이 가마솥에 넣고 삶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댈 때 노가지나무를 불에 잠깐 넣어 달군 후에 휘어서 코뚜레를 만들곤 했다. 그런가하면 소죽을 끓일 때 다래나무를 함께 넣어서 익힌 후 껍질을 벗겨서 코뚜레를 만들기도 했다.

코뚜레는 주로 노가지나무, 다래나무로 만들지만 느릅나무로도 만들었다. 작년에는 코뚜레 2천 개를 만들어 횡성시장조합에 납품했다. 산에 가서 다래넝쿨을 해오고 삶아서 2천 개를 만들러니 힘에 벅차 마을의 젊은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 덕분에 마을 젊은이에게 코뚜레 만드는 일을 가르쳐줄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



[다래나무 껍질]

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살 정도 되었을 때 코를 뚫는데, 역센 소는 길들이기 위해 이보다 먼저 뚫기도 한다. 코를 뚫는 나무는 단단한 대추나무나 박달나무로 만드는데, 이렇게 소코를 뚫는 기구의 명칭은 딱히 없으나 마을에서는 보통 코뚫개라 한다. 코뚫개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보관했다가 여러 번 쓰지만 필요할 때 바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른들은 송아지 코 뚫는

다고 말하기보다는 ‘코를 낀다’ 또는 ‘코 낀다’ 고 얘기했다. 소코 뚫기는 보통 단오 때 많이 했다. 예전부터 단오에 소코를 뚫으면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아마도 단옷날이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그래서 단옷날을 지역에 따라서는 ‘소코 뚫는 날’, ‘소 시집가는 날’, ‘소 군둘레 끼우는 날’ 등과 같이 소코를 뚫는 일과 관련되어 이름이 붙여진 것이 여럿이다.

코뚜레는 집이나 가게 문 위에 걸어놓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구입해 가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코뚜레는 실제 소가 끼었던 것이라야 좋다고 한다. 하지만 농촌에 한우가 많아도 농우인 부림소가 없으니 소코 뚫을 일이 없고, 부림소를 여러 마리 키우던 집도 철물점에서 쇠로 만든 코뚜레를 구입해 끼웠던 까닭에 실제 소가 사용한 나무로 만든 코뚜레는 흔치 않다.

소를 많이 먹이던 집에서는 소를 팔 때마다 코뚜레를 외양간에 하나씩 걸어뒀다고 한다. 실제 둔내에 살던 전씨네는 소를 키우고 팔면서 코뚜레를 하나씩 걸어뒀던 것이 백 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외양간에 걸어두었던 코뚜레를 세어보고 그동안 몇 마리 키웠나를 짐작했다.

또바리(뽕리)는 최승순 회원이 만드는데, 또바리는 올해 처음 만들어 본다. 시집오기 전에 친정어머님께서 짚으로 만든 또바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며 자랐으나, 결혼해서는 수건을 감아 머리 위에 받쳤다.

또바리를 짚어서 많이 보고 사용도 했지만 만들어보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2017년 횡성한우축제장에 나



[최승순]

오기 위해 마을 경로당에서 김순복 노인회장에게 또바리 만드는 것을 며칠 배운 것이 전부이니 실제로 시작한 것은 며칠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처음 하는 솜씨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든다고 회원들이 모두 칭찬한다.

또바리는 짚으로 만드는데, 마무리할 때면 부들로 걸을 감싸서 부드럽고 깔끔하게 해서 때깔 나게 한다. 또바리 만드는 일이 올해 처음이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만들어서 진열대에 걸리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재미있다고 한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짚풀공예 작업은 종일 앉아서 일하다보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도 아프다. 그렇게 저린 다리와 아픈 허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은 일의 즐거움일 것이다.

판매는 이하자 회원이 한다.

판매 담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우두커니 앉아 있지 않는다. 회원들이 완성한 물건들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 피어 작은 지푸라기라도 빠져나온 것이 있으면 다듬어 더욱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

짚풀공예품을 구경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시집가는 처녀들이 장롱 밑에 코뚜레를 넣어 가면 잘 산다!”고 말을 한다. 웃으며 실제로 그러냐고 물으면 “나는 모르는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하며 많이 사갔다.”고 얘기를 한다. 손님들은 필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한다. 자리, 코뚜레, 짚세기, 또바리 등은 현대 가정에서 그렇게 소용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관광객들이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까닭은 대부분



[이하자]



장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할 때 코뚜레에 얽힌 민속적 이야기, 짚신과 관계된 얘기 등을 해주면서 구매를 충동한다. 물론 들려주는 이야기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재미있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구매토록 도와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스토리텔링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장난감이 흔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린이들은 상황에 맞게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인형놀이를 할 때 인형이 있어야 하는데, 인형은 저릅대(겨릅대)를 잘라 몸을 만들고 옥시기(옥수수)수염으로 머리 카락을 만들었다. 일제 때 삼을 많이 심었던 까닭에 저릅대는 흔했다. 이른 여름에 인형을 만들려고 여물지 않은 옥수수를 벌려 수염을 따다가 오빠에게 혼나기도 했으나, 지나고 보니 그것은 참 아름다운 추억이다.

“조락 대신 어저귀”라는 말이 있다. 어저귀(어저귀)는 일제 때 우리나라에 들

어은 식물인데, 일제가 삼을 많이 취할 목적으로 삼 대신 어저구를 심게 했다. 그러나 어저구는 삼만큼 질이 좋지 않아 한두 해 심다가 심지 않았다. 오히려 조락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떨어지기에 그 당시 생긴 말이다. 새삼 우리네 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보면 일제가 우리들에게 수탈해 간 것이 참 많다.

가천리에서는 자리매기 마무리하는 걸 ‘자리 깬다’고 얘기한다. 글방에서 학동이 책 한 권을 떼면 훈장과 동료에게 한턱내기 위해 집에서는 떡을 하는데, 우리는 이를 책거리라 한다. 예전에는 자리를 깰 때도 떡을 해서 식구들과 이웃이 함께 먹었다고 한다. 자리를 매는 일이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겠으나, 지역민들에게는 자리 한 닢 매는 것과 책거리하는 과정 및 그 성과를 볼 때 결코 다르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툼툼이 자리 한 닢 매려면 한 달은 걸렸다고 한다. 낮에는 논밭에서 일을 하고 새벽녘으로 등잔불을 켜고 동트기 전까지 잠깐씩 하였으니 얼마나 고되었을까! 어머니들이 밤새워 베를 짜던 것과 다르지 않았으리라.

가천리노인회에서는 황성한우축제장, 안흥전뽕축제장 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짚풀공예 솜씨를 보여주었다.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황성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지역의 짚풀공예품을 보여준다는 자긍심에 더 즐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힘이 들어 그만 불러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일하기를 며칠씩 계속하다보니 고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이럴 때 젊은이들이 맡아서 했으면 좋으련만 ….

고향과 문학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다. 그것이 뿌리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곧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알차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고향적인 문학이 가장 위대한 걸작이 아닌가 싶다.

2006년 한국계 하인즈 워드가 미국 슈퍼볼 mvp로 선정되면서 혼혈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다.

하인즈 워드, 그가 한국을 찾아온 건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이 대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연고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향을 매개로하지 않고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어렵듯이 문학에서도 고향은 나름대로 무시 못 할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우리는 연어의 회귀본능에 대해서 알고 있다. 수구초심이란 말도 그냥 만들어 낸 말은 아닐 듯싶다.

문화란 인간의 공동 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차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소재로 또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를 소재로 글을 쓴다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흔히 말하길 ‘한국전쟁(6.25)’을 겪은 우리나라에 ‘전쟁과 평화’ 같은 걸작이 왜 없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쟁과 평화’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이 허다하다고 한다. 단 그 작품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번역이 불충분할 뿐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는 것도 무



김 양 수
(시인, 시조시인, 아동문학가,
강원문인협회장)

조건적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웬지 편지를 쓰고 싶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진다. 고향을 사랑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고향을 소재로 한 글을 쓰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향을 소재로 한 글이 많고 그 작품들이 뛰어나기도 한 것이다.

고향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대개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는 더 절실하다.

필자는 현재 한국문인협회강원도지회(강원문인협회) 회장으로서는 강원문인협회 행사를 고향인 횡성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는 횡성이 필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모임장소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마다 각종 문예행사들이 줄을 이어 열리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것은 자극이다. 자극을 받아야만 반응이 오게 마련이다. 작고 큰 행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대한 작품들이 또한 쏟아져나올 것이다.

어머니의 품같은 아늑한 고향, 고향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작품을 읽고 싶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의 작은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여 필자의 주장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어머니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글과 ‘엄마가 아플 때 나는 잠이 오지만 내가 아플 때 엄마는 잠을 자지 않아요’ 라는 글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가식적이지만 후자는 마음속에서 우러난 글이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으면 어떤 글을 쓰든 간에 배어있는 마음이 녹아들어가게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글을 읽는 문학인들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하노니
“고향을 사랑합시다.”

재난구조를 위해 횡성에 등지를 틀다



조 인식
(횡성군특수임무구조대장)

살다보면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살아 갈 때도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더욱 열심히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전사 훈련 사진

나는 정읍에서 태어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양복점을 운영하셨다. 근처에 있는 정읍 호남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특전사에 입대하였다. 가장 힘들다는 특수 훈련을 받고 싶었고, 남자로서 멋지게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젊음을 특전사에서 불태우고 싶었다. 그리고 특전사에서 근무 하다가 83년 횡성 학곡리 공병부대로 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된 횡성과의 인연이 시작 되었다.

그러다가 전입 후 1985년도에 진부~정선간 도로공사 중 불의의 폭발사고를 당하여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어이없게도 전역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횡성에서 봉사활동 및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모으고 장

비를 구입하였다. 수상인명 구조대원을 모집하여 수상 안전근무를 시작 하였고, 각종 교통사고 및 물놀이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고,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익사위기에 닥친 환자를 구조하여 살려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몇 년을 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였고 군청과의 협조도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여러 대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횡성 읍내에 특수임무구조대를 만들게 되었다.

특수임무구조대는?

특전사에서 스킨스쿠버와 스키훈련 및 인명구조와 특수훈련을 받은 구조대원들을 주축으로 수상사고 및 홍수사태나 설상사고 등 각종 국가 재난사고시에도 출동 할 수 있는 구조대이다. 나름대로 연구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노력을



(횡성부근 구조사진)

거듭한 결과 여러 곳에서 구조요청이 들어왔고, 대원들과 출동하여 많은 구조 활동을 하게 되었다. 서해 페리호 사고 때 직접 출동하여 수중인명구조 활동에 참여 하였고,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때에도 구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재군 재난 홍수사고, 춘천 소양강댐 실종자, 용인 저수지 자동차 수중매몰 사고 등 많은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 좀 더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깨달았

고, 그래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생활안전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배워야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춘 환자를 무조건 병원으로 이송만 한다고 인명구조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특수임무구조대 현수막 들어간 구조 사진)



(특전동지회 인제 홍수사대 구조 사진)

2000년도 쯤인가? 그때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봉사하기 시작 했고, 해마다 스키장에서 안전근무를 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실시해서 살려냈고, 마라톤 대회 근무시에는 특수임무구조대원들과 함께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하여 살려 내기도 하였다.



(상암마라톤대회 구조 사진)

그리고 여름 하절기에는 6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매년 횡성군 섬강일대 수심이 깊은 곳, 유원지 및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철저히 근무하고 있으며 횡성 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특수임무구조대에서 수상안전근무를 하면서부터는 익사 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위에서 많은 칭찬을 듣고 있으며 구조대원들 모두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현재는 날씨가 춥고 겨울이다 보니 평창 동계올림픽 근무 때문에 주로 스키장에서 스키대회 심판 및 안전근무를 하고 있으며 횡성군내 공무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누구나 다 배워야 할 과목이면서도 필수 교육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보급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보급되어서 다행이며, 심정지 환자를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살려내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모든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안전근무 하는 것은 몸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필요한 고가 장비가 있어야 하며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도 들

어간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심폐소생술 장비는 테스트 애니 1개, 교육용 애니 10개, 어린이용 애니 1개, 유아용 애니 2개, 교육용 전기충격기(AED) 2세트, 실제 사용 전기충격기 1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킨스쿠바 장비로는 공기탱크 20개, BC 5RO, 호흡기 5개, 공기탱크충전용 콤프레샤 1대, 구명부환 2개, 구명 캔 6개 등 여러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여러 장비를 보유하고 구조대원들과 안전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장비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며, 응급시설



(섬강 인명구조 근무 사진)



(횡성 심폐소생술 교육 사진)



(횡성 심폐소생술 교육 사진)

이 내장된 차량도 필요하고, 구조대원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해서 더 많은 구조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의 각오는 횡성군에 우리가 있는 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의 경우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환자를 응급처치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며, 누구나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해 나가고 싶다.



(섬강에서 스킨스쿠버 장비사진)

30년 넘게 재난구조 봉사에 앞장선 횡성군 특수임무 구조대는 앞으로도 횡성군 및 강원도 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함을 물론 수상안전 근무를 위해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할 것이며 섬강일대 유원지의 수중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황성향교 다도(茶道) 교실

주최: 황성향교 주관: 여성유림회



IV. 학습문화의 고찰

- * 친구사이 愛 | 현원명
- * 다도의 실제 | 최명규



행복과 성공을 주는 친구사이愛



현 원 명
(횡성향교 교육원장)

1. 들어가는 말

인생(人生)의 사람 인(人)은 두 사람이 의지하는 모습이고, 날 생(生)은 소 우(牛)와 한 일(-)의 합성어로 살아가는 것은 소가 외나무 다리를 지나는 것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만남이 필요한 것이다. 만남은 관계완성으로 우선 친구사이가 핵심이다. 즉 친화만사성(親和萬事成), 친구와 화목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친구는 비교와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나를 믿어주는 친구의 힘에 의지하고 성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친구는 삶의 동반자이다.

2. 친구 사이란?

친구(親舊)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다. 친구의 영어 단어 friend에 end가 붙은 이유가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친할 친(親)은 “나무(木)위에 올라서(立) 소중한 친구를 바라본다(見)”는 뜻이다. 사람이란 개인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사람을 한자로 인간(人間) 즉 ‘사람 사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흔히 ‘사이 좋게 지내라.’ 즉 내 인생이 온전한 한쪽이 되기 위해서는 친구라는 반쪽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미래 핵심 역

량은 인성으로 그 첫째가 인간관계이며 친구가 가장 중요하므로 매년 7월 9일은 친구의 날로 정하였다. 즐거운 학교, 행복한 인간 생활은 친한 친구(7179)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다.

국영수 지식교육보다 학생들은 평소 친구와 잘 노는 것이 최고의 학습, 진정한 실력이 된다. 친구와 잘 놀면 의사소통, 인간관계가 향상되어 개인 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성공할 수 있다.

3. 좋은 친구 만들기

관심 ▶ 칭찬 ▶ 이해 ▶ 존중

1. 친구의 관심을 끌려는 1년보다, 관심을 보이는 1개월이 친구를 얻는다.
운동, 봉사, 취미활동 등을 친구와 같이 하라.
2. 사소한 일이라도 친구를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라.
3. 친구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그 친구를 진정 알 수 있다.
4. 친구 의견을 존중하라. 존중받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상처를 준다.
5. 친구의 잘못은 바다 모래위에 적어라 —밀물, 썰물에 쉽게 지워진다.

친구의 고마움은 바위위에 새겨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친구의 눈물은 구름위에 올려놓아라 —힘들면 비가 내릴 때 나도 같이 울어준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긍정적인 뇌파가 발생하여 즐겁고 평소보다 30배 이상 많이 웃게 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의 이익보다 친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효과적이다.

공통 관심사 발견 ▶ 상대방 장점 찾기 ▶ 함께 원하는 일 해보기

친구를 찾아내고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세 가지 법칙은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상대의 장점을 최대한 알아내며,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친구관계는 크게 향상될 수 있다.

▶ 친구 관계 맺기 TAPE 요법

(진실한 친구 관계 맺기를 위한 4 단계별 실천)

1. 감사하기(Thank you)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지속적인 관계를 증진시킨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태도 마음 행동 등에 감사를 한다. 감사는 멀어진 친구관계를 회복한다.

2. 용서 구하기(Apologize)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나의 잘못에 대해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친구관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3. 요청하기(Please)

서로의 욕구 충족이 안될 때 강요 명령 협박보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다. 나의 욕구, 주장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여 친구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시킨다.

4. 내 마음 표현하기(Express)

친구 사이에 나와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수시로 터놓고 이야기하면 더욱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나 + 친구 5명 = 나의 현재 모습(자화상)

지금 내가 가장 친한 친구 다섯 명을 떠올려보자. 그 다섯 사람을 하나로 합하면 어떤 사람이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가 나를 결정한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가정, 학교, 직장, 모임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 존 맥스웰이 말하는 인간의 환경법칙이다. 자신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내려놓아야 한다.

▶ 친구 선택 및 의사소통 방법

옛날에는 친구 대신에 붕우(朋友)라고 하여 붕(朋)은 함께 있기는 하지만 마음까지 나누지 않는 친구이다. 우(友)는 멀리 있어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이다. 함께 일과 공부를 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친구이다. 새는 양 날개없이 날지 못하듯, 사람은 한 손으로만 생활하기 어려워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관계가 봉우이고 친구이다. 한 쪽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고 부족하면 메워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공부 잘하는 친구만 찾지 말자. 공부를 잘하면 좋은 친구이고, 못하면 나쁜 친구는 아니다.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이다. 공부만 잘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부보다 내 인격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성실하며 착한 친구가 필요하다.

인정이 많고 성실하며 거짓이 없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유익한 친구이고, 아첨하고 경박하며 오만하여 나쁜 짓을 하도록 유인하는 사람은 해로운 친구이다. 가끔씩 “너 요즘 공부를 잘 안하는 거 같아, 우리 좀더 열심히 하자.” “너 요즘 말투가 약간 거칠어진 거 같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는 친구는 유익한 친구이다. “나는 시간에 맞춰서 숙제를 다 했는데 넌 왜 그 모양이나? 좀 빨리하지.” “말이 그게 뭐냐? 창피하지도 않아?” “나 요즘 게임을 하는데 같이 안 할래? 너무 재미있어.” 이런 친구는 해로운 친구이다.

4. 친구의 유형

■ 중국 명나라의 소준(蘇濬)이라는 시인은 계명우기(鷄鳴偶記)에서 친구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외우(畏友)**로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존경할 만한 친구이다.

둘째, **밀우(密友)**로 절굿공이와 절구처럼 친밀하여 서로 돕고 함께하는 친구이다.

셋째, **널우(昵友)**로 언제나 함께 놀기만 하는 친구이다.

넷째, **적우(賊友)**로 서로를 해치며 나쁜 일은 상대방에 책임을 미루는 친구이다.

따라서 외우와 밀우는 좋은 친구이고, 널우와 적우는 나쁜 친구이다.

■ 공자는 익자삼우(益者三友), 사귀어서 이익이 되는 세 가지 친구를 말씀하였다.

첫째. 강직(剛直)한 사람을 친구로 하라.

비뚤어진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즉 올바른 사람이다. 자기가 올바르게 못한 일을 했을 때 거리낌 없이 지적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하면 잘못을 했더라도 늦기 전에 그 잘못을 고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실(誠實)한 사람을 친구로 하라.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하면 자기도 그 사람에게 감화를 받아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된다. 고맙고 이익이 되는 친구인 것이다.

셋째. 박식(博識)한 사람을 친구로 하라.

박식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냉혹한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해로운 친구 세 유형이 있다.

첫째, 쉽게 붙좃는 사람. 둘째, 남의 방해를 일삼는 사람. 셋째, 입만 살아서 떠드는 사람.

▶ 주식형제 vs 급난지붕

날씨가 추워져야 소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움에 처해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 명심보감에 보면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이나 동생이니 하는 사람들을 주식형제(酒食兄弟)라고 하며 반면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함께 하는 친구를 급난지붕(急難之朋)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주식형제를 만나고 있는지 급난지붕을 만나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 부화뇌동(附和雷同)

죽대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것으로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는 뜻. 초지일관(初志一貫): 처음부터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독야청청(獨也青青): 홀로 절개를 굳건히 지켜감

만고상청(萬古常青): 만년동안 항시 푸르다는 의미로 항상 변함없는 기개.

▶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가까이 살았더니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기에, 맹자 어머니가 집을 시장근처로 옮겼더니 물건 파는 흉내를 내므로, 다시 글방 있는 곳으로 옮겨 공부를 시켰다는 것으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인간의 성장에 그 환경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가리키는 말이다. → 친구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 **붕생마중 불부자직(蓬生麻中 不扶自直)**

굽어지기 쉬운 쭉대는 삼밭 속에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진다. 꾸불꾸불한 쭉도 곧은 삼베나무 속에서 자라면 곧게 자란다는 말이다. 삼은 키가 크고 곧게 자라는 식물인데 쭉도 삼밭 속에서 자라게 되면 삼의 영향을 받아 곧게 자라게 된다. → 좋은 벗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 **근묵자흑 근주자적 남굴북지**

근묵자흑(近墨者黑)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먹물 있는 곳에서 놀면 아무리 조심해도 먹물이 흰 옷에 묻어 버린다는 뜻이다. 즉 친구와 사귀는 동안 은연중에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 흰 모래가 검은 흙과 섞이면 검은 모래가 된다.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친구를 보면 예비 배우자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근주자적(近朱者赤) 붉은 것을 가까이하면 붉은 물이 든다는 것으로 어느 것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남굴북지(南橘北枳) 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탕자나무로 변한다. 사람도 그 처해있는 곳에 따라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변한다.

인품의 향기가 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몸에서도 그 향기가 날 것이다.

화향백리: 꽃 향기는 100리를 간다.

주향천리: 술 향기는 1000리를 간다.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10,000리를 간다.

■ 유익한 세 가지 벗과 손해되는 벗

유익한 벗: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

손해되는 벗: 치우치기를 잘하는 사람, 나약한 사람, 아침하기 잘하는 사람

■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다.

→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유순함을 가르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친다.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나에게 자립심을 가르쳐준다.

■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작품 속에 세 가지 의문을 던졌다.

첫째,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둘째,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이냐? 셋째,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친구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제일 중요한 때는 현재이다. 현재에 충실해야 영광된 미래가 열린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 3대 친구

첫 번째: '보자' 친구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

데,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으면 행복도 적어진다.

두 번째: '놀이' 친구

같이 놀 사람이 없으면 행복도 멀어진다. 놀기는커녕 함께 있기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같이 놀지 않으면 자꾸 멀어진다. 놀자는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 생각만 하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같이 놀아야 된다.

세 번째 친구: '쉬자' 친구

함께 쉬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같이 있으면서 함께 마음 편하게 부담없이 쉴 수 있으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통하면 말이 없어도 편안해진다. 같이 놀 친구도 좋지만 함께 쉴 친구가 더 있으면 좋겠다.

▶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아의 사귄(변함없는 돈독한 우정)

관중은 욕심쟁이, 가난한 자, 직장에서 파면자, 전쟁 중 도망자였지만 포숙아는 비난하지 않고 용기를 주어 진실한 친구로 남았다. 관중이 후에 천하를 움직이는 대정치가가가 되어 “나를 낳은 이는 어머니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숙아다.”라고 말했다.

문경지교(刎頸之交): 목을 베어줄 정도의 우정.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향기롭고 두터운 벗

막역지우(莫逆之友):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친한 친구.

죽마고우(竹馬故友): 오랜 시련을 이겨낸 우정.

수어지교(水魚之交):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사이

빈천지교(貧賤之交): 가난할 때의 친구 사이.

거림지교(車笠之交): 생활수준이 달라도 절친한 친구 사이.

저구지교(杵臼之交): 절굿공이와 절구의 관계처럼 친밀한 사이.

포의지교(布衣之交): 신분, 지위를 떠나서 순수한 벗으로 사귀는 친구.

교칠지교(膠漆之交), 금란지계(金蘭之契), 백아절현(伯牙絕絃).

▶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따르는 체하고 속으로는 배반함.

표리부동(表裏不同) 겉과 속이 다름.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으로 달콤한 말을 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

5. 친구(우정)의 모범 사례

▶ **(플레밍 ♣ 처칠) 위대한 우정**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수영하다 익사직전에 한 시골 소년이 목숨을 구해주었다. 이들은 서로 우정을 키웠다. 시골소년이 초고를 졸업하자 귀족의 아들이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가난해서 집안일을 도와야 해” 귀족의 아들은 친구를 런던으로 데리고 갔다. 그 시골소년은 의과대학 졸업 후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만들어 노벨의학상을 받은 플레밍이었다. 그 귀족소년은 26세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전쟁 중에 불치병 폐렴에 걸려 친구가 건네준 페니실린으로 생명을 건졌다.

시골소년이 두 번이나 생명을 구해준 귀족소년은 윈스턴 처칠이었다. 후에 영국 수상이 된 처칠은 만약 그 시골소년을 무시했었다면 그는 페니실린을 만들 수 없었고 처칠은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골소년도 깊은 우정으로 의사가 되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

→ 위대한 우정은 기적을 낳는다.

▶ **백만금은 집, 천만금은 이웃(친구)**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조 역사서인 남사(南史)에 보면 송계이라는 고위 관리가 퇴직 후 여생을 살 집을 찾아 다녔으나 헛수고였다. 그러던 중 천백만금을 주고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을 사서 이사했다. 백만금밖에 안 되는 집값을 천백만금이나 주고 샀다. “백만매택(百萬買宅)백만금은 집값이고, 천

만매린(千萬買隣)천만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값으로 지불한 것이다! 송계이는 집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좋은 이웃에 둔 것이다.

좋은 이웃이 향기로운 삶을 만든다. 함께하는 이웃사촌은 친구로서 생활의 행복을 준다.

6. 교실의 내 옆에 앉은 짝은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이다

영화 「Beautiful Mind」에서 술집 한 무리의 남자들이 맞은편에 또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어 합석을 한 후 모든 남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에게 집중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콧대가 높아지고 친구들의 질투도 부담되어 모든 남성들을 거절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나머지 여성에게 접근하지만 그 여성들은 자존심이 상해 역시 거절하고 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쉬는 '내쉬균형 이론' 을 만들었다. 즉 남성들이 미리 내부적으로 각자 접근할 여성을 협의하여 집중하면 남성 모두가 한 명의 여성과도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 점수보다 석차를 본다. 실제로 같은 반에서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설령 그렇다 해도 나의 경쟁자는 아니다. 만약 친구와 내가 K대학 B학과를 지망했는데 정원이 200명일 때 친구는 합격이고 내가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지원자 중에 내 등수는 201등인 경우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200등으로 합격할 때는 경쟁이다. 내가 202등이면 친구가 없다면 201등이 되지만 불합격은 변함없다.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나의 짝은 경쟁가가 아니라 친구일 뿐이다.

7. 친구에 대한 배려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면 밥을 같이 먹어보라. 젓가락이 먼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행을 같이 해보라. 먼저 남부터 배려하는지?” 를 살펴보자.

행운을 떼어내면 그 자리에 행복이 붙는다고 한다.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세잎 클로버를 밟는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다. 세잎 클로버는 행복이다. 행운을 찾으려고 친구의 행복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 각자 행운을 버리고 노력과 정도(正道)를 걸으면 행복이 올 것이다.

▶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내가 먼저 웃어주면 반드시 웃음으로 화답한다는 점이다. 거울처럼 말이다. 학교도 학생들 각자 스스로 먼저 웃으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따라 웃게 되어 인화가 잘 될 것이다. 내가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자신감의 미소를 보내면 거울처럼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도 환한 미소로 보답할 것이다.

▶ 입술의 30초, 가슴의 30년

개는 꼬리만 흔들지 혀를 굴리지 않아 친구가 많다. 입술의 30초, 가슴의 30년이다.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사흘이다. 단 한마디의 말이 가슴의 한으로 30년 지속될 수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어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어순화 및 말조심 특히 욕설을 금지해야 한다. 욕설은 너와 나를 갈라놓아 갈등을 조장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친구 얼굴만 보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겨 갈등이 심화된다. ‘모든 것은 내 탓이오’ 라는 의식을 가지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 벗은 벗이다.

몽골의 지배자 징기스칸은 매 사냥을 즐겼다. 매는 그의 친구였다. 어느 날

산 계곡의 바위 아래에서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는 데 매가 물 바가지를 쳐서 떨구어 마시지 못했다. 두 번 세 번 시도해도 물 바가지를 떨구어 화가 난 징기스칸은 매를 단 칼에 베어 죽였다. 그리고 바위위로 올라가 보니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맹독사 내장이 터져 죽어 있었다. 매가 징기스칸의 생명을 구했다.

징기스칸은 너무 슬피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매를 위해 동상을 세우고 한 쪽 날개에는 “화를 내어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다른 쪽 날개에는” 큰 잘못된 일이 있어도 벗은 벗이다.”

▶ 진정한 우정(友情)

우정은 사랑과 존경의 조화이다. 칸트는 “우정은 두 개의 인격이 서로 같은 사랑과 존경에 의해서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다.” 친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 영원한 우정을 지속할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다정한 친구가 필요하다. 완전한 고독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신(新)과 짐승뿐이다. 인간은 완전한 고독에 빠지면 미쳐버린다. 우리에게서 사랑과 정(情)이 요구된다.

우리는 인생의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동시에, 나 스스로가 남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진정한 우정은 인생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8. 고전의 산책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고 말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논어에 유봉자원방래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벗이 있어 먼 곳에서 때 맞추어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인생항로에서 친구는 가장 큰 자산이며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다. 진정한 친구 셋을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한다. 봉우유신(朋友有信), 봉우(朋友)에서 봉은 동문수학은 같은 스승을 모시고 배운 친구이고,

우는 행동과 뜻을 함께 하는 동지(同志)이다.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의(信義)이다. 동양의 선철(先哲)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어질고 의롭고 예절바르며 지혜롭고 신의를 중시하였다.

▶ ‘부부는 의복이요, 형제는 수족이다.’

의복은 떨어졌을 때 다시 새로 얻을 수 있지만 수족(손발)은 끊어지면 잇기 어렵다. 내 이웃, 친구들도 형제로 보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어떤 일을 할 때 하늘의 때를 얻었을지라도 땅의 이익이 없으면 성취되지 않으며, 땅의 이익이 있다해도 사람의 화합 인화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즉 성공하려면 하늘의 때를 얻는 것과 땅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화합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도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바른 인성과 인품이 되살아나 원만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 학창시절에 얻는 3가지 기쁨

첫째 진리를 얻는 기쁨, 둘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기쁨, 셋째 좋은 벗을 사귀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영국 격언)

공자의 제자 증자는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다. 즉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정성을 다했는가? 벗과 사귀에 믿음을 다했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등이다. 친구와 사귀에 첫째는 믿음이다.

→ 화랑(花郎, 신라 진흥왕 때 인재를 선발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중에 사다함과 무관량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둘은 사우(死友, 죽는 한이 있어도 서로 저버리지 않은 절친한 벗)를 약속하였다. 무관량이 병으로 죽으니 사다함은 7일간 밤낮 통곡하다 숨을 거두니 그때 17살이었다.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우이신(交友以信)의 정신은 친구를 사귄 귀감이 되고 있다. 화랑도 정신이 중핵이 되고 있는 세속오계(신라 진평왕때 원광(圓光)이 화랑에게 일러 준 다섯 가지 계율)은 충(忠) 효(孝) 신(信) 용(勇) 의(義)가 중심이 되고 있다.

9. 친구와 동행동행(同行同幸)

탈무드는 인생에 세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재산, 둘째는 친척, 셋째는 선행이다. 죽음이 임박하자 가깝던 첫째, 둘째 친구는 동행을 거부했지만 셋째 친구는 동행을 약속했다. 죽은 뒤까지도 함께하는 선행이 귀중한 친구이다.

남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면 죽어도 선행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

노인 3명—선(善), 성공, 재물이 식사 초청을 받았다. 노인들은 함께 들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생각 끝에 집 식구들은 ‘선’을 초대했다. 선이 들어가자 성공과 재물도 들어왔다. “두 분은 왜 들어오시나요?” — “선(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성공 재물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빨리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동행을 구해서 멀리 가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어려운 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좌절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였다.

길은 분명히 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그것이 동행의 위대한 힘이다. 성공은 실패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일이다. 누구나 넘어진다. 그러나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면 된다, ‘내가 소중하면 친구들도 소중하다. 한 사람 열 걸음보다 열사람 한걸음으로 가야 한다.

▶ 영국 국토 맨 끝지점에서 수도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도 아닌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친구와 소통하고, 다양한 대화를 하며 가면 결코 지루하지 않고 재미나 한숨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학

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사제동행하면 가장 빠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교육의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듯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따르는 사제동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단명하는 사람 vs 장수하는 사람

미국인 7000명 대상 9년간 추적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상관없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구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병에 잘 걸리고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

10. 사람 사이愛

▶ 이석투수(以石投水) vs 이수투석(以水投石)

이석투수(以石投水): 돌을 물에 던지면 풍당하고 물속으로 쏙 들어간다.

이수투석(以水投石): 물을 돌에 부으면 물은 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다투던 진(秦)나라에 천재적 책략가 장량이 있었다. 장량을 만난 항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반면 유방은 장량의 말을 귀담아 들어 이석투수처럼 장량은 유방을 주인으로 섬겨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를 세웠다. 포용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말도 들어 주지만, 완고한 사람은 쉬운 말조차 들어주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돌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남의 말을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 자기완성 + 관계완성

공자의 인(仁)은 충서(忠恕), 즉 충(忠)은 가운데를 뜻하는 중(中)과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로 '마음의 한 가운데'를 뜻하여 가장자리나 변

두리에서 헤매지 않는 한 개의 마음으로 자기완성이다. 참고로 환(患)은 한 가운데 마음이 두 개가 되어 근심 환자이다.

서(恕)는 같음을 뜻하는 여(如)와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로 나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같다는, 혹은 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계완성이다. 인간은 자기를 완성하고 친구로서 관계를 완성해야 행복한 삶을 이룬다.

▶ 우월감 vs 열등감

우월감의 근원은 열등감이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한 몸이다. 우월감, 열등감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과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 역시 잘못이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 Want-have 매트릭스

‘내가 원하고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원하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은 것’ 이들 두 가지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교우관계에서 내가 원하지만 아직 갖지 못한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데 갖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하지만 갖지 못한 친구는 언도록 노력하고, 원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친구는 과감히 버리도록 해야 한다.

▶ 자기주도성, 내적동기, 자아존중감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과학 부문에서 세계 정상권이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이 자기주도성, 내적동기, 자아존중감이 없다. 즉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목표설정의 큰 뜻을 세우는 일이 미약하며,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즉흥적인 언행으로 친구간 우정을 해치게 된다.

▶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고대 이스라엘 다윗 왕이 세공인을 불러 반지를 만들되 승리를 거둬 기쁨에 넘칠 때와 절망을 극복하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였는데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알려준 말이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였다. 큰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면 후에 어려움을 겪고, 큰 절망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면 전화위복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늘 유비무환으로 공부나 친구관계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개선하며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 만남 = 만남

만남 = 만남, 서로 만나서 맛나는 음식을 먹으며 맛갈스런 대화를 나누면 우정이 꽃피며 원만한 친구관계가 증진된다.

킨포크(KINFOLK)란 미국 포틀랜드의 라이프스타일로 친구,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인간 중심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한다. 이처럼 같은 기호의 학생들이 만나 함께 공통의 취미, 관심사,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소통하며 재미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져 친밀한 유대를 맺고 교우관계를 증진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기성세대의 최근 인기를 끄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과 유사하다. 학생들의 Peer Group(또래 집단) 성격으로 스터디그룹, 특기적성반, 과학탐구반, 예체능모임 등을 형성하여 관심사가 동일한 학생들이 만나 소기의 성과를 내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면 친구관계도 향상된다.

11. 진실한 친구의 기대 효과

가정=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학교=학화만사성(學和萬事成), 친구=친화만사성(親和萬事成)

가족간 서로 화목하면 가정의 만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학교도 학생 교사 학부모의 화합으로 교육가족공동체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누구

나 친구와 화합하고 하나 되면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해결 할 수 있다.

하버드대 주요 교육과정은 인맥 네트워크(인적자원)으로 당신이 누구를 알고 교류하느냐가 재산 지위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인생은 자기완성과 관계완성이다. 성공의 핵심은 인간관계를 맺고 잘 유지하는 것이다. 올바른 교우관계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친근하게 지내면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톨수가 되어 편협한 인간이 되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없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혈연지간을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친구사이가 될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노인 자살률이 20배나 높다.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1명만 있어도 고독 사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말한다.

→ 한 시간이 주어지면 책을 읽고, 한 달이 주어지면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좋은 친구를 만나 하룻밤의 청담을 나누는 것은 10년 동안 독서하는 것과 맞먹는 다고 한다.

진정한 친구를 지기(知己)라고 한다. 지기는 '나를 알아주는 자'란 뜻이다. 지기는 우정(友情)의 새벽별처럼 드물지만 빛은 영원하다. 우정은 사랑과 존경의 조화이다. 사랑속에 존경을 잃지 않고, 존경속에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참다운 우정이다.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 날카로움은 쇠도 자를 수 있어 내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동력), 미래 설계의 나침반이 된다.

동심지언 기취여란(同心之言 其臭如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은 그 향기가 마치 난초 향기와 같다. 즉 1+1=2가 아니라 무한대의 나를 키우는 힘이 나올 수 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어제의 친구가 적이,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친구와 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돈독한 우정을 길러야 한다. 친한 친구는 **가슴속의 친구(bosom friend)**로서 나의 행복 충전소이다.

우리는 인생의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나 스스로 남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한다. 참다운 우정은 인생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며 희망의 마중물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진실한 친구는 내적 성장, 동기부여, 자기혁신의 열쇠이고 삶의 동반자, 인생의 희망 풍차, 우리의 성장과 성공 키워드이다.



다도(茶道)의 실제



최명규

1. 차 생활 교육의 목적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를 이해하며, 차 생활문화의 부흥을 기하여 국민들의 차 생활 습관화에 앞장서고, 차 생활을 통하여 바른 생활을 익혀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잊혀져가는 예의범절을 계승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2. 차의 전래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3년(828년)에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대립이 차 씨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왕이 명하기를 지리산 남쪽에 심게 했다고 적고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623-637년)때 어느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씨앗을 가져와서 경상남도 하동군 쌍계사 근처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우리나라에 차가 전해진 것은 적어도 1300여년 전의 일이다. 이러한 기록들에 따르면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는데 흥덕왕 때에 이르러서야 성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흥왕때 화랑들이 강릉 한송정에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3. 차의 정신

우리나라 차의 정신은 中과正에서 비롯된 것이다.

中,正이란 차인은 모든 일에 지나쳐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차란 무엇인가

차나무의 어린 잎을 따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더운 물에 우려낸 차물을 차라고 한다.

● 차는 왜 녹차라고 하느냐?

차는 차에 푸른 엽록소 때문에 녹차라 한다.

엽록소가 나와야 녹차라고 할 수 있다.

5. 다례(茶禮)란 무엇인가

다례(茶禮)란 한 마디로 말한다면 茶와 더불어 인간의 길을 걷자는 것이다.

우리 人間生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깨달음과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실천 행동하는 면이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의 열이 담겨져 있는 차 생활을 정성스럽고 온화하게 익혀 남을 공경하고, 겸허한 마음을 지녀 茶 마시는 멋을 통해 전통 차문화 정

신을 되살려 보자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茶를 통해 바른 역사를 구명하고 민족의 참모습을 되새기며, 茶를 마시면서 미풍양속(美風良俗)의 근본을 깨닫고, 茶를 예의 작법의 기준으로 삼아 차생활(茶生活)을 통한 세대간의 대화와 이웃간의 화합을 이룩하는 보탬이 되게 한다.

우리 조상들은 오감(五感)으로 茶를 음미(吟味)하셨다고 한다.

눈으로는 은은한 색을

코로는 싱그러운 향을

입으로는 오묘한 맛을

귀로는 차술에 물 끓는 소리를

손으로는 다기의 촉감을 느끼면서 음미(吟味)하셨다고 한다.

6. 차의 효능

- 노화억제 작용
- 항산화 작용
- 항돌연변이 작용
- 해독 작용
- 항암 작용
- 지방간 예방 효과
- 항종양 작용
- 항충치 효과
- 항균 작용
- 다이어트 작용
- 항알레르기 작용
-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 항당뇨병
- 숙취 해소 효과

채엽 시기에 따른 제품 특징		
구 분	채 엽 시 기	제 품 특 징
첫물차	4월 중순, 5월 초순	차의 맛이 부드럽고 감칠맛과 향이 뛰어나
두물차	6월 중순, 6월 하순	차의 맛이 강하고 감칠맛은 떨어짐
세물차	8월 초순, 8월 중순	차의 떫은 맛이 강하고 아린 맛이 약간 있음
네물차	9월 하순, 10월 초순	섬유질이 많아 형성이 거칠고 맛이 떨어짐

실록차의 채엽 시기에 따른 차성분 변화							
차종류	폴리페놀	카페인	아미노산	비타민C	조섬유	엽록소	회분
첫물차	10,71%	2,20%	5,3%	454mg	7,7%	357mg	5,0%
두물차	11,75%	2,03%	2,5%	380mg	8,9%	303mg	5,8%
세물차	12,73%	1,81%	2,2%	405mg	10,0%	330mg	4,8%
네물차	12,40%	1,79%	1,8%	320mg	10,4%	340mg	4,5%

7. 차문화 예절이 생활화되면

인(仁)으로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며, 의(義)로서 올바른 사회 규범을 따르는 마음이 생기고, 예(禮)로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마음이 만들어질 것이며, 지(智)로서 자기 자신을 닦는 배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신(信)으로서 사람을 믿는 마음이 생길 것이며, 덕(德)으로서 공정하고 포용성 있는 마음이 만들어질 것이고, 충,효(忠,孝)로 낳고 길러준 부모와 사회를 위하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각 가정의 화목해지고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부강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차문화 예절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음다(飲茶) 생활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화목한 가족,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든다.
- 진다(眞茶) 예절로 어른을 공경하는 효친사상을 배운다.
- 헌다(獻茶) 의식으로 나라와 조상을 받들고 기리는 충과 효를 실천한다.
- 다도(茶道)로서 마음을 밝히고, 예를 가지고 덕을 쌓아 군자와 같이 사특함이 없는 선비정신을 닦는다.

8. 차 다루기(行茶)

팽 주(烹煮)-----차를 다루는 사람.

삶음팽, 워힐팽

- 차를 만들 때는 정성이 담긴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차를 맛있게 우리자면 우선 물을 잘 끓여야 한다.

차는 물에 신(神)이요.

물은 차에 체(體)라 했다.

- 신과 체가 어울려져 좋은 차를 낸다.

神은 우리나라 찻물의 찻기를 비유한 말이고

體는 우리나라 찻물의 몸을 뜻하는 말이다.

▶ 봄, 가을 : 중투 ▶ 여름 : 상투 ▶ 겨울 : 하투

1. 맑은 물을 100도로 끓인 다음 70도로 식힌다.

2. 차의 량 : 1인분 2g 정도

3. 우려내는 시간은 약 2분 ~ 3분

첫 우림 : 차향으로 마신다.

둘째우림 : 맛으로 마신다.

차에 상징적 의미는 색, 향, 매를 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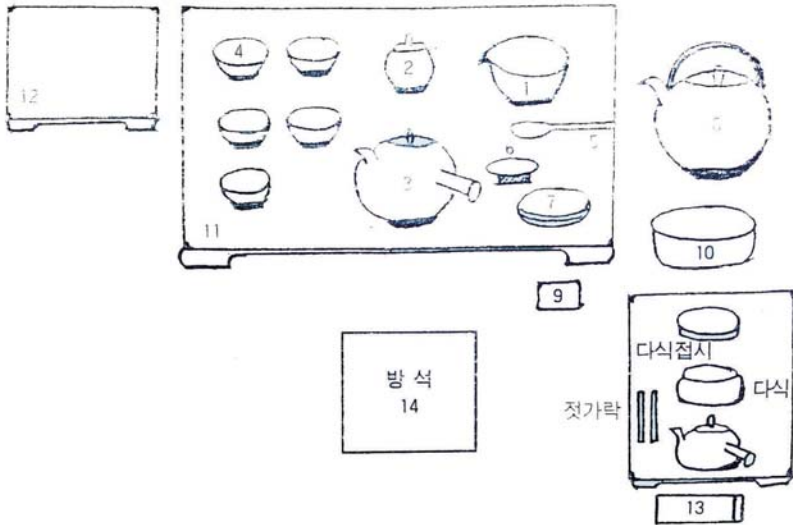
차에 삼기(茶에 三奇)

- 전다법(煎茶法) : 차를 다려서
- 포 법(包法) : 차를 우려서

9. 실습준비물(행다례 다 도구)

○ 한복 한 벌 ○ 행다 다기일습

1	숙 우(熟盃)	8	불 주전자(끓인물)
2	차 호(茶壺)	9	차건(행주)
3	다 관(茶罐)	10	퇴수기
4	찻 잔(茶盞)	11	찻 상
5	차 시(차측)	12	작은 다반
6	뚜껑받침	13	상보(홍,청)
7	찻잔받침	14	방 석



10. 차내는 법 (行茶法)

1. 손님이 오시면 정중하게 맞이하여 방으로 안내한다.
2. 주인과 손님은 평절로 맞절을 하고 방석 위에 정중히 앉아서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한다.(자리를 권한다.)
3. 팽주가 자기 자리로 와서 앉은 후 시작한다는 인사를 한다.(이때 시공자도 함께 예(禮)를 올린다.)
4. 팽주는 약간 몸을 돌려 다반에 상보를 건고 (시공자는 다상을 손님 앞에 내간다.)
5. 바로 앉아 몸 매무새를 고치고 잠시 침묵한 후 차 상보를 걸어 상 아래 오른쪽에 놓는다.(차건 그릇도 내려서 퇴수기 옆에 놓는다.)
6. 화로에 있는 주전자를 차 상쪽으로 돌려 놓는다.
7. 탕관을 들고와 왼손에 차건든 손이 탕관 뚜껑을 가볍게 누르면서 숙수기에 탕수를 붓고 제자리에 놓는다.(알맞는 온도 70도 ~80도로 식히기 위함.)

8. 다관 뚜껑을 연다음 양손으로 숙수기를 들고와 다건 든 손은 밑을 받쳐주며 한 두 번 그릇을 덮히고
9. 다관에 탕수를 붓고 제자리에 놓는다.
10. 다관 뚜껑을 닫고 무릎 위로 가져와 한 두 번 살그머니 돌려서 반듯하게 한 뒤 찻잔에 따르고 제자리에 놓는다.
11. 다관 뚜껑을 열어 상 위에 놓고 차호를 들어 뚜껑을 덮어 제 자리에 놓는다.

봄, 가을	중투	탕수를 반 붓고 차를 넣고 탕수를 붓는다.
여름	상투	탕수를 다 붓고 차를 위에 넣는다.
겨울	하투	차를 다관에 넣고 탕수를 붓는다.

12. 차가 우러나는 동안 차건을 들어 왼손에 끼고 찻잔을 (1)~(5)의 순서로 무릎 위로 가지고 와서 두어번 잔을 덮히고 청결히 하여 퇴수기에 버리고 차건으로 잔 바깥의 물기를 닦고 제 위치에 놓는다.
13. 다관을 들고 왼손으로 받쳐서 약간 돌린 다음 자기잔 (5)에 1/3정도 부은 다음 차가 우러난 농도를 본 다음 차가 우러났으면 1~5번 5~1번 순으로 세 차례 나누어 부어 차의 농도를 고르게 한다.
14. 차탁을 들어 왼손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찻잔(1)을 올려 놓아 두 손으로 다반에 놓는다.
15. 시공자(시자)는 팽주에게 가벼운 예(禮)를 갖추어 다반을 (저고리 도련높이로 든다) 다과상 앞에 들고와 장유순으로 대접한다.
16. 주인은 한모금 마신다음 손님에게 차를 들 것을 권하며 주객은 동시에 마신다.
17. 손님은 잔을 들고와 먼저 차의 색과 향기를 감상하면서 세 번정도 나누어 마신다.(소리를 내거나 한꺼번에 마시지 않는다.)

18. 주인은 차를 마신후 다식을 권하면서 두 번째 차를 준비한다.
손님은 차를 마신 후 그림이나 잔의 품위를 감상하면서 잔의 입술 자국을 엄지로 검지로 가볍게 닦은 후 잔을 조용히 내려 놓는다.
19. 다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으며 담소한다.(2번째 차는 물식힘 그릇에 붓는다.)
20. 시공자는 두 번째 차를 올리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으면 함께 다과상에 대접한다.
21. 연하 손님의 잔부터 시작하여 주인의 잔까지 찻상을 옮기면서 찻잔은 제 자리에 잔 받침은 찻상 오른쪽에 차근차근 놓는다.
22. 숙수기에 탕수를 부어 잔에 붓고 (1) - (5)순위로 붓고 잔의 물을 퇴수기에 버린 후 다건으로 가볍게 닦은 후 제 위치에 바로 놓는다.
23. 다반에 상보를 덮은 다음 다상에 상보를 덮고 뒤로 조금 물러 앉은 후 다 끝났다는 인사를 한다.
24. 끝으로 다과상을 내간다.
25. 주객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일어서서 나가며 대문까지 정중하게 배웅한다.



V. 문화유산을 찾아서

* 관내 문화유적지순례 답사기행문 | 민사고 3편, 흥성고 3편

* 선비의 고장 영주시 역사문화 탐방기 | 김준구

*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다녀오다 | 원재성

* 안동댐문화권 견학기행문 | 한아름

* 강화문화권 향토문화답사 기행문 | 원종춘

횡성문화탐방

21기 홍지민 (민사고)

사실 하루종일, 그것도 소중한 토요일에 아침일찍 일어나서 가야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한 번 걷다오지~ 볼 것도 없을텐데 참여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 문화탐방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 그렇지만 다녀오고 횡성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온 지금은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다.

횡성이라는 곳이 내가 지금 1년 반동안 살고 있는 장소고, 고등학교 3년을 내내 보낼 장소이지만 나는 횡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가질 생각도 없었다. 그냥 횡성은 한우가 맛있고 안흥은 전땀으로 유명하고가 내가 아는 전부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문화탐방을 갔다오고 나서 횡성이 생각보다 볼 것이 많고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장소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먼저 태종대는 태종이 스승을 찾으려다 노구 할머니가 일부러 잘못 알려주어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쉬어간 장소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신선했던 것 같다. 단순히 그런 곳이 있었네를 말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닌, 비석이 세워진 자리를 보고 구체적인 설명과 노구 할머니가 빠진 강을 보면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이 세운 성당이라는 풍수원 성당이라는 곳도 가보았는데, 비록 미사가 진행중이어서 안을 구경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갔던 박물관도 꽤 흥미로웠다. 우리의 조상이 옛날에 사용하였던 물품, 해산줄, 가마 등의 물건을 사극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가마가 내가 생각했던것처럼 정말 편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몇날 며칠을 가면서 멀미도 하고 어지럽기도 한 불편한 이동수단이라는 것에 조금 놀랐기도 하고, 다양한 장식들을 보면서 감탄도 했었다.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늦춰지면서 가지 못한 곳도 꽤 있어서 아쉬웠지만, 평소 애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횡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횡성문화탐방

민성연 (민사고)

5월 20일, 화창한 봄날, 우리는 횡성문화유적지답사를 다녀왔다. 전날 기백 퀴즈도 끝나 기분이 좋은 친구들도, 월요일 날 있는 단어 시험 때문에 불만 가득한 친구들도 있었다.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안 외운 나였지만 오랜만에 같은 학년 친구들끼리 어딘가를 간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버스를 타니 뭔가 비전트립을 다시 가는 기분도 들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안가서 우리는 각림사 사지에 도착하였다. 각림사는 치악산 동쪽에 있던 절인데 조선시대 태종이 어렸을 때 글을 읽었던 사찰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얼마 안가 우리는 태종대도 들렀다. 태종대가 조금 뜬금없는 장소에 있어 의아하기도 했지만 각림사 사지보다 유적지스러운 곳이라서 만족스러웠다. 태종대도 조선시대 태종과 관련된 유적지로, 태종과 그의 스승인 원천석의 설화가 남아있는 유적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거의 한 시간동안 이동을 해서 풍수원 성당에 도착하였다. 사실 무교인 나에게서 천주교가 매우 생소했는데 주변에 있던 천주교 친구들을 보니 너무 신기했다. 무언가를 그렇게 독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즐겁게 풍수원 성당 근처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문화유적 전시관 구경도 나름대로 즐거웠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역사책에서만 보던 옛날 농기구나 유적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니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다시 한 번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었다. 선생님분들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김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역시 먹는 게 제



일 중요하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황성담 공원에서 모르는 애기들과 같이 피구도 하고 재밌게 놀다 우리는 황성 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더위를 식히며 황성 담 소개 영상을 보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어느새 시계바늘은 2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랜만에 바깥활동을 하니 너무 피곤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답사였지만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름 황성군 주민으로서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던 황성문화유적지들을 알아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해설사 분들과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2017 / 05 / 20 / 토요일

나는 횡성군민이다!

주요한 (민사고)

사실 나는, 내가 횡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종종 있다. 분명 문서상으로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횡성으로 기록되어있고, 택배를 주고 받을 때도 우리 학교 주소를 몇 번씩 얘기하기는 하지만, 사실 나는 내가 횡성 보다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학교 안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다. 그런 면에서, 이번 횡성 문화 탐방은 나를 진짜 ‘횡성군민’으로 만들어준 기회였던 것 같다. 정말 처음으로, 사복을 입고 친구들과 횡성 곳곳을 탐방했다. 많은 일화가 담겨있는 풍수원 성당부터, 최양옥 지사 묘소와 김순이 여사 묘소,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과도 바로 연결되어있는 횡성댐, 중금리 3층 석탑, 노구소 등 다시 생각해보면 이 작은 시골인 횡성에 그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 많은 곳 중, 차에서 자다가 내려 비몽사몽 하던 나의 이목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다. 바로 태종대이다. 태종대는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높은 봉우리에 위치해 있었다. 태종대에서 바라본 산과 강의 찬란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정말 진귀한 풍경이었다. 태종대는 이름처럼 태종 이방원이 스승처럼 섬겼던 운곡 원천석을 찾아 왔다가, 원천석이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개울에 있던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려주고 치악산으로 들어갔을 때, 태종이 원천석을 기다리다가 돌아간 그 거짓 행선지이다. 태종이 운곡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하여 ‘주필대(駐蹕臺)’라고 불러 오다가 이방원이 왕에 등극하여 태종대왕이 된 후부터 ‘태종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여담으로, 태종에게 거짓을 고한 그 개울에 있던 노파는, 후에 자신이 거짓을 고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개울이 지금의 노구소가 되었다고 한다. 태종대에서 설명을 들으며 느낀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이없음이었다. 특히 노구소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대체 왕이라는 지위가 무엇이기, 한 소중한 목숨이 스스로 자결하고, 그저 한 왕이 한 사람을 기다렸던 바위일 뿐인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의 목표 중 하나인 각계각층의 지도자 양성, 이 목표를 태종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

태종대 이외에도, 우리 민족, 특히 횡성에서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장소는 정말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 횡성에서 이런 곳들을 가볼 기회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숙사로 돌아와 횡성군 향토문화 유적답사 자료 책자에 나온 우리가 방문한 곳 이외의 수많은 문화 유적지들을 보니, 횡성군민으로서, 왠지 모를 벅차오름이 느껴진다. 나는 횡성군민이다.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배의환 (횡성고등학교)

고등학교 창체동아리 소속으로 이번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행사에 참여하였다. 시작 전 횡성문화원에서 향토문화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문화원장님께서 진행하셨다. 사전교육의 내용은 우리 고장 횡성의 향토문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우리 횡성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되었다. 사전교육을 통하여 단지 큰 박물관에 있고 유명한 역사적 유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내가 살아가는 고장에도 문화유적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는 한상열 의사 추모비, 노구소,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 태종대, 각림사, 최양옥 지사 공적비-묘 순서로 횡성의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를 진행하였다. 각 답사 지역마다 문화원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더욱 많은 지식을 얻고 재미있는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대충하지 않으시고 열정을 다해 알려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우선 한상열 의사 추모비에 답사를 갔다. 이곳에 가기전까지 나는 횡성에 독립의사가 있었는지는 몰랐다. 아주 자그마한 규모로 시골집 옆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역사에 무관심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또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향토문화유적지는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이다. 아주 큰 비석이 도로 옆에 우두커니 서있는 모습이였다. 지나가면서 본적이 있는데 나는 그저 횡성군에서 만든 기념비 인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번에 직접 답사를

가서 민공호 의병장의 업적을 간단하게 배웠는데 아주 엄청난 업적들이 많이 있었다. 일본에 맞서서 당당히 싸워 승전보를 이끌어낸 모습이 너무나도 용기 있어 보였다. 훗날 건국훈장대한민국장 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국가훈장도 받으셨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쳐왔다는 것이 매우 큰 충격이었다.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적지의 모습은 그 장소의 자연환경과 하나가 된 듯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아픔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무관심이 문화유적지를 사람들 사이에서 없애가고 있었다. 한상열 의사 추모비에 꽃 한송이가 있었는데 그마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나라를 위해 생애를 바치고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분의 추모비에는 말라비틀어진 꽃 한송이와 고요함, 적막함 뿐 이었다. 지금 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왔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그분들 한분 한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들의 무관심이 역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위안부 문제, 강제 노동 징용 등 이러한 사건들 또한 우리의 관심이 없었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지역 향토문화 유적지와 같은 우리 주변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횡성이 이렇게 많은 역사가 담긴 곳인지 이번 답사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번 답사가 더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진다. 미처 가보지 못한 향토문화유적지에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학생들에게 진행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 나가면 좋겠다.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한채웅 (횡성고등학교)

사실 처음 이 탐방 이야기가 나왔을 때엔 그리 반갑지 못했었습니다. 2주 후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보는 첫 시험이었고, 횡성이라면 이 군내에서는 내가 보지 못한 유적지도 별로 없을뿐더러 갈 곳도 너무 뻘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거부감이 들어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가게 된 탐방. 제가 갖고 있던 안좋은 마음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횡성.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온 고향인 횡성. 항상 횡성하면 한우 정도만 생각이 나고, 역사적으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쭉 그래왔고, 탐방을 다녀오기 직전까지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횡성은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의병장님들의 묘는 제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매우 멋진 가치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상열 의병장님, 민궁호 의병장님, 최양옥 지사님 등,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자신을 바치며, 생명까지 내던지며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그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자,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낸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인데, 현재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헬조선' 이라고 부르면서 전혀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분들이 수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지켜낸 나라를 우리 후손들이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는 자중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의 남은 날들은 우리 선조님들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며 사는 우리가, 내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힘썼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 자신에 대해 한스럽게 생각이 되고, 나도 커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하루였습니다. 이분들의 정신을 내가 본받아서 뒤이어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횡성을 자랑스레 여기지 않던 저에게 이미 와봤던 곳도 너무나도 새롭고 마음에 와닿는 탐방이었습니다. 횡성을 자랑스레 여기게 해주고, 횡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자부심을 갖게 해준 이번 탐방에 대하여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기회가 또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서슴없이 다시 신청할 것을 자신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횡성문화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느낀 점

이주용 (횡성고등학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그래서 주말이나 방학 등 시간이 날 때, 다른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거나 문화재를 보러 다녔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정작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횡성의 문화유적지를 보러 간적은 없었다.

학생은 대입을 위해 봉사시간을 채워야 한다. 나도 공공기관에 청소를 하러 몇 번 간적이 있다. 하지만 청소라는 것 자체가 그리 재밌지 않고 보람도 크지는 않다. 그래서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내 역사 동아리에서 몇몇 친구들이 노력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다. 주 1회 학교 후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방과 후에 남아있는 초등학생 멘티들에게 역사 관련 지식을 나누는 활동이다. 활동 초기에는 멘티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소개해주고 그 문화재의 모형을 조립하는 시간과 횡성의 문화재·위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문화재 모형 조립 활동은 멘티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횡성의 문화재·위인을 소개해주는 시간은 약 2개월 동안만 진행하고, 지금은 한국의 역사 위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바뀐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거

복선이나 광화문 등 멘티들이 이름을 좀 들어본 문화재에는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횡성의 문화재 · 위인 시간에는 멘티들의 호응과 집중도가 떨어진다. 아마 많이 들어본 적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왜냐하면 멘티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본 풍수원 성당을 소개해주는 시간에는 멘티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멘토 입장인 우리도 횡성 관내의 문화재 · 위인을 많이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도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른 시간으로 교체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횡성관내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와 부원들은 이 답사를 가기로 했다.

이번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여태껏 나와 친구들이 멘티들에게 소개해준 것은 빙산의 일각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답사에는 태종대나 한상열의사 추모비 등 내가 이미 멘티들에게 소개해줘서 익숙해진 문화재도 있었다. 하지만 이 문화재들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정보로 소개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가져와서 소개해준 것이 전부다. 수원화성 같은 유명한 문화재는 책과 인터넷상의 정보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보려고 친구들과 답사 계획을 짜며 다녀왔다. 하지만 횡성관내 문화재를 보러 가자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이 답사를 소개해주셨을 때는 횡성관내 문화재를 본다는 얘기로 많은 부원들이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솔직히 나와 부원들은 답사 날짜가 시험기간이랑 인접해서 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렇게 신청 마감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답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고민의 결과는 값진 경험으로 돌아왔다. 이번 답사로 멘티들에게 소개해줬던 문화재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화

유적지를 볼 수 있었다. 게다가 횡성 문화원장님의 자세한 설명도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 또한 횡성에도 현재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들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위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관내 문화재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답사였다. 이번 답사로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더 관내 문화재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학생들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선비의 고장 영주시 역사문화 탐방기

김준구

2017년 5월12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황성문화원에서 경북 영주시로 역사 문화 탐방을 가는 날이라 일찍 운동을 마치고 부리나케 문화원으로 향했다.

약간 흐린 날씨에 오후에 비소식이 있어 우산과 우비도 가방에 챙겨 넣고...

오늘 참가인원은 임직원 회원님들 모두 합쳐 130여명이 버스 4대에 분승하였는데 나는 1호차에 배정 받았다.

우리 차에는 낮익은 퇴직 공무원들이 많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정각 8시에 차가 출발하자 사무국장이 오늘 행사목적과 문화탐방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문화원장님의 말씀 중 우리고장에서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황성의 인물 고행산에 대한 말씀이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른바 고행산의 전설이다.

“황성읍 마산리 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전천에는 통통 바위라는 큰 바위가 하나 있다.

옛날 이곳은 물이 빙빙 돌 뿐 아니라 수심이 아주 깊었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도깨비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곳에는 고 씨 성을 가진 젊은이가 매일 이곳을 지나 청용리로 글을 배우러 다녔다고 한다.



워낙 머리가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이 소년은 서당 훈장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였다고 한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어 갈려고 이 바위위에 앉아 있다가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이 소년의 귓가에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쫓! 조용히 하거라. 지금 고판서께서 주무신다. 지체 높으신 분께서 깨시면 안 되잖아!”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뜬 그 소년은 주위를 유심히 살폈으나 바위 주변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만 한적한 숲속에는 바람소리 물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도깨비? 소년은 잠결이었지만 분명히 들려왔던 그 목소리를 기억해 내고는 등골이 오싹거렸다. 이 소년은 누구일까? 바로 황성의 인물로 손꼽히는 고 씨 성을 가진 형산이라는 인물이다. 고흥산은 과거에 급제하여 형조, 호조, 병조판서를 두루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이 동네에 사는 한 소년이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였다. 그리하여 고행산처럼 이 바위에서 잠을 청하자 “예끼 이방 놈아! 썩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도깨비의 벽력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기겁하여 줄행랑을 쳤던 이 소년은 후에 이방을 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 도깨비 바위에 얽힌 전설을 스토리텔링화 하고 고행산이라는 인물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하려고 한다. 이상은 문화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적은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 하나 발굴해서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 생각하며 문화원 사업에 기대를 한다.



내 옆자리에는 횡성읍장을 지낸 이병완 씨가 함께 했는데 퇴직 후 보험사업을 하며 제2의 인생을 뜻있게 보내고 있단다. 보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첫 번째 탐방 장소인 영주시 무섬마을에 도착하였다.



무섬마을은 행정구역상 영주시 무수면 수도리 222번지에 위치하는데 무섬마을을 보면 세 번 놀란다고 한다.



우선 마을을 품은 산과 물줄기에 놀라



고 그 안에 들어선 고객들에 놀란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이 품은 개방, 개혁 정신에 놀란다고 한다.

무섬마을에 도착하자 그곳 문화해설사님이 무섬마을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해주셨다.

무섬마을은 1666년 반남박씨(潘南朴氏) 휘 수(諱 燧)가 이곳에 들어와 터를 닦고 집을 지었다. 이후 예안김씨(禮安金氏) 휘 대(諱 臺)가 들어오면서 두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 됐다.

지금도 50여 채의 전통가옥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을이다.

무섬마을에 갈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외부에 있던 사람이 외나무다리를 건너 들어오면 꼭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무섬마을 갈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외지의 때를 모두 벗어버리고 들어가야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화해설사의 말이다.



무섬마을은 마을을 감아 도는 물길 때문에 외지와 단절됐다. 육지라고 하지만 마을 앞은 물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둘러싸다. 풍수지리상으로 배산임수의 형태다. 산자락 끝에 자리했고 앞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논이나 밭을 만들 공간이 없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강 건너 30리까지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 무섬마을에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외나무다리였다.

1970년대 세워진 콘크리트 다리덕분에 외나무다리가 사라졌다가 지난 2005년 마을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다시 돌아왔다. 해설사는 “옛날에는 저 다리로 가마 타고 시집오고 또 죽으면 상여가 저 다리를 건너갔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겐 사연이 많은 다리지요”라고 말한다.

외나무다리는 여름이면 사라진다.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불면 다리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다리다. 구조도 간단하다. 통나무를 절반으로



쫄개서 의자처럼 다리를 붙였다. 그리고 물에 박아넣은 것이 외나무다리다.

여름이면 사라지는 다리는 농사일과는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비가 많이 오면 논, 밭을 둘러보러 강 건너로 가야 하는데 다리가 없어 난감했다. 마을사람들은 물살이 약하면 헤엄쳐 건너가기도 했고 군용 보트에 의존해 건너기도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이 해설사님의 마을에 대한 소개를 받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경상도는 양반의 고장이라더니 이곳에도 양반 기풍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 했다. 마을 내 고택과 굽이진 강, 외나무다리,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다음 일정을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영주 시내에 있는 다담뜰 한식뷔페에서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음 답사지인 소수서원과 부석사로 향했다.

사실 소수서원과 부석사는 작년에 왔던 곳인데 그때 주마간산 식으로 다녀가

서 이번은 좀 자세히 보려고 다시 한 번 왔다.

한번 갔던 여행지를 다시 찾는 이유는 첫째 그 지역에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이라서, 둘째 여행지를 기록하는 방법 혹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셋째, 예전에 갔던 그곳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에 대한 호기심 등을 떠올리는데 사실 오늘 내가 찾아볼 소수서원과 부석사는 두 번째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오후 1시경 소수서원에 도착하여 역시 그곳 문화 해설사의 해설을 들어본다.

요즘은 문화해설, 숲해설, 관광지해설 등 가는 곳마다 해설사님들이 있어 편리하다. 정부의 문화융성사업의 일환인데 참 잘한 정책인 것 같다.

해설사님의 해설과 참고자료를 찾아 정리해가며 적어본다.

소수서원은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소수서원은 1541년 (중종36) 7월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이 1542년 (중종37) 8월에 이곳 출신의 성리학자인 안향(安珦)을 배향하는 사당을 설립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543년 8월 11일에 완공하여 안향의 영정을 봉안하고 사당 동쪽에 백운동서원을 같은 해에 설립한데서 비롯되었다.

주세붕이 서원이름을 ‘백운동’으로 한 것은 소수서원의 자리가 중국 송나라 때 주희(朱熹 1130-1200)가 재흥시킨 백록동 서원이 있던 여산에 못지않게 구름이며, 산이며, 언덕이며, 강물이며 그리고 하얀 구름이 항상 서원을 세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백록동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주세붕이 편찬한 죽계지(竹溪志) 서문에서 ‘교화는 시급한 것이고, 이는 어진 이를 존경하는 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안향의 심성론과 경사상을 수용하고자 그를 받들어 모시는 사당을 세웠고 겸하여 유생들의 장수(藏修)를 위하여



사당을 세웠다’는 설립 동기가 적혀있다.

백운동 서원이 들어선 곳은 숙수사 옛터로 안향이 어린 시절 노닐며 공부를 하던 곳이다.

현재 서원입구에 있는 당간지주는 이곳이 절터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백운동 서원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고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548년 10월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의 노력 덕분이었다.

퇴계는 1548년 1월에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沈通源)을 통하여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바라는 글을 올리고 국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명종은 대제학 신광한에게 서원이름을 짓게 하여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는 뜻을 담은 소수로 결정가고 1550년(명종5) 2월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현판을 내렸다.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면서 조정에 의하여 서원이 성리학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사액을 내려 국가와 서원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서원이 갖는 중요한 기능인 성현의 봉사와 교화 사업을 조정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소수서원 입구에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있고 그 지점에서 지면이 한단 높아져 이곳부터 서원 경내임을 알 수 있다. 서원 출입문인 사주문(四柱門)을 통하는 길 왼쪽으로는 성생단(星牲壇)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죽계수가 내려다보이도록 지은 경렴정(景濂亭)이 있다.



경림정 동쪽에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죽계 건너편에는 물가로 튀어나온 경자바위(敬字岩)가 있는데 거기에 새겨진 敬자는 주세붕이 백운동을 창건하고 쓴 글씨이다.

퇴계는 풍기군수로 있을 당시 이곳에 송백과 죽을 심어 취한대라고 이름을 짓고 또 敬자위에 ‘백운동’ 석자를 써서 음각하고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소수서원에는 사당인 문성공묘, 강당인 명륜당, 교수의 숙소인 일신재, 직방재, 유생들이 기거한 학구재, 지락재를 비롯하여 서책을 보관하던 장서각, 제수를 차리던 전사청 등이 있고 최근에 세워진 건물로 유물관, 충효 사료관등이 있다.

소수서원은 1871년(고종8)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할 때에도 훼손하지 않고 존속한 서원 47곳 중의 하나로 1963년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로 순흥안씨의 본관이며 순흥안씨 집안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문화재해설사도 순흥안씨라며 은근히 자기 가문 자랑을 빼놓지 않는다.

다음 답사지는 소수서원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선비촌이다.



우리 일행은 좋은 경치를 벗 삼아 천천히 선비촌으로 이동하였다. 다행이 지금까지 잔뜩 흐리기만 했지 비는 오지 않는다.

선비촌은 선비와 상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정통 민속마을이다.

영주시에서 건립한 선비촌은 용인 민속촌처럼 건립되어 마을을 거닐며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사대부가의 고풍스러운 한옥을 볼 수 있고 저차거리에는 먹을거리도 있으며 전통공예품도 볼 수 있다. 지역 노인들이 조선시대 복장으로 마차와 조랑말도 태워준다.

한옥 체험은 물론 전통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구경하고 버스에 올라 약 10여분 가니 부석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일기예보에선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하늘이 잘도 참아 주신다.

부석사는 소백산맥 봉황사(鳳凰寺)자락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 오래된 절집들이 계곡을 끼고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뒷 봉우리와 앞산 사

이로 계류를 감싸 안고 좌청룡 우백호의 전형적인 명당에다 안온하게 자리 잡은 것과 비교하면 부석사의 정취는 경치밖에 볼 것이 없다.

요사에 앉아 밤늦도록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벗 삼아 참선삼매에 들거나 새벽에 번뇌의 육신을 씻어줄 맑은 물소리 하나 안 보인다.

어쩌면 건조하리만치 지형이 딱딱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석사를 찾아오는 이유는 1376년 중수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목조건물중의 하나인 무량수전(無量壽殿)과 소백산맥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석양의 풍광이 있기 때문이리라.

주차장에서 절까지는 약 4백미터 남짓 된다. 일행 중 연로하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작년 가을에 왔을 땐 은행나무 단풍이 몹시도 고왔는데 아직 다 피지 못한 은행나무 거리는 을씨년스럽다고나 할까?

일주문을 지나 곧바로 오르다가 당간지주를 옆에 끼고 오른쪽으로 접어드니 천왕문 석축이 아담하게 눈에 든다. 비로소 부석사의 시작이다.

눈 부라리고 무섭게 보지만 하나도 안 무서운 사천왕 앞에서 이곳까지 올라오는 동안 차오르는 숨을 잠시 고르고 다시 절을 향해 오른다.

천천히 발길을 옮기다 앞을 올려다보니 성벽 같은 석축계단이 가로 막고 있다. 고려시대 쌓은 아름다운 자연 석축이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이 돌계단에 재미난 과학의 법칙이 있다.

아래쪽 석단 오르는 계단의 길이가 윗석단의 길이보다 1미터는 적어 아래에서 언뜻 올려다보면 계단이 폭이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원근법 때문에 멀리 보이는 사물이 소실점을 향해 줄어드는 착시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란다.

마지막 돌계단을 딛고 석축위로 서니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고 전면으로 종루와 요사가 눈에 가득 들어온다. 사람들이 이런 풍경을 보려고 부득불 오는구나 싶어 나도 올라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몸이 허공으로 두둥실 뜰 것만 같다. 바



람이 시원하게 분다.

종루에 올라서자마자 새로운 풍경과 공간이 넉넉하면서도 우아하게 펼쳐진다. 작은 마당을 대각선으로 빗기어 돌계단 동선이 이어지고 당당한 석축위로 안양루 누각이 허공에 걸려있고 그 뒤로 무량수전 지붕이 살며시 드러나 있다.

안양루는 무량수전보다 200년 뒤인 1576년에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범한 팔작누각이다. 무량수전 마당에서 보면 단층이지만 종루에서 올려다보면 석축에 몸을 기대어 다리기둥을 세워지은 2층집이다.

무량수전 앞 신라석등의 빼어난 아름다움이 안양루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안양루를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통일신라 석등과 화사석 너머로 무량수전(無量壽殿) 현관이 보이고 비로소 부석사의 진면목인 무량수전 앞마당에 올라선다.

부석사를 건립한 신라의 의상(義湘 625- 702년)대사를 흠모하는 당나라 여인 선묘(善妙)가 부석사 절터를 점거했던 도적들에게 거대한 바윗돌을 들어 보이는 신통력을 인연으로 삼아 세웠다고 하니 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풍광하나만

은 천하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량수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3칸의 주심포식 배흘림기둥에 지붕이 여덟팔자모양인 팔작집이다. 주심포에 팔작지붕을 경영하려니 추녀의 하중을 견디기가 마땅찮아서 사방에 활주를 대어 추녀를 버티고 있다.

장식적인 요소가 적은 간결한 형태이나 건물규모나 완성도면에 있어서 장엄하고 깊이 있는 법당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무량수전을 구경하고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중생을 위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더니 가지가 돋고 잎이 피었다는 선비화를 찾아 한참을 올라가니 조사당 처마 밑에 철망으로 울타리가 쳐져있는 선비화가 보인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이 나뭇잎과 가지를 삶아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훼손이 많아 철망을 쳐놓았다고 한다.

조사당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맞지 않고 항상 푸르게 자라고 있지만 1300년이 된 나무라기엔 너무나 작아 보인다.

선비화는 일명 골담초라고 하며 뼈에 이로운 약재로 효능이 좋다고 하니 의상대사가 지팡이로 쓴 이유를 알만하다.

노란 꽃이 핀 선비화의 신비로움에 빠지다 주위를 보니 일행은 다 가시고 나 혼자 남았다. 험레벌떡 뛰어내려와 버스에 도착하니 일행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 햇살이 따갑지 않은 흐릿한 날씨에 여러 회원님들과 친교도 쌓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역사문화탐방을 마칠 수 있었다.

3시간여 버스를 타고 횡성에 도착하여 한우불고기로 저녁식사를 한 후 일행분들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하고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 한다.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다녀오다



원재성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행을 간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남양주. 양평일원을 돌아보는 우리횡성문화원이 준비한 2017년 관외 전통문화 현장을 다녀오기로 한 날이다.

어제 진부에서 있었던 전직국가대표 원로들이 포함된 서울시실버축구단과 진부면50대 조기축구선수 그리고 강릉의 하슬라중학교 여자축구팀이 벌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친선 축구시합 후 과한 뒷풀이로 몸은 찌뿌둥하지만 시원한 냉수 마찰로 정신일도 정립하고 문화원으로 향했다.

언제나 스마일이신 문화원장님과 열심인척 하는 신참내기 사무국장님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있는 사무과장님과 여직원이 여행참가자를 지정된 4대의 관광버스에 배치하느라 동분서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관외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150여명의 횡성문화원 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은 직원들의 안내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배정된 버스에 탑승하고 8시30분 정시에 횡성을 출발 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서두르느라 아침밥을 굶었을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떡과 바나나 그리고 심심할 때 먹으라는 사탕과 과자 음료수까지 정성스럽게 비닐팩에 넣어 하나하나 나눠주는 성의에 감동도 함께 듬뿍 먹으며 버스는 한 시간여를 달려 목적지인 남한산성에 도착했다.

남한산성은 험준한 자연지형을 따라 성벽을 구축하여 많은 병력으로도 쉽게 함락되지 않는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우리나라의 대표 산성으로, 기록에 의하면 신 주장성(672)의 옛터에 기초하여 산성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현재까지 보수해오면서 약1,000년 넘게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어 오다가, 2014년6월 카타르 도하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

남한산성 탐방코스 자체도 방대하지만 우리의 인원도 많고 시간도 한정 되어 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4명의 남한산성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4팀으로 나누어 탐방에 나섰다.

나는 흥민자 문화해설사님의 안내를 따라 남한산성 세계유산기념비가 있는 광장에서 전체적인 남한산성의 설명을 듣고 연무관을 거쳐 현절사를 돌아오는 비교적 완만한 탐방로를 택했다. 늦여름의 끈적한 막바지 더위도 그러했지만



아픈 다리가, 많은 역사공부보다는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선택하게 이끌었다.

외세의 침략을 수도 없이 당했던 우리의 역사에 애잔하지 않은 문화유적이 어디 있겠느냐만 남한산성도 아픔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었다.

1000년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했던 통일신라, 고려와는 달리 ‘승유억불정책’을 펼쳤던 이씨조선에서는 스님들이 천민이었던 관계로 도성을 지키기 위해 남한산성을 축조하는데 전국의 승려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해설사로부터 듣고 불자인 나로서는 놀라고 슬펐고, 천해의 요충지임에도 청나라 태종이 1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온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도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에서 항쟁을 꾀하였으나 성곽을 외위 싸고 보급로와 지원병을 차단하자 인조가 직접 성문을 열고 청 태종이 머물던 한강남쪽의 삼전도로 나가 무릎을 꿇고 치욕의 강화를 맺어야 했다니 더욱 슬프다. 그 청태종의 공적을 기리는 삼전도비가 송과구 잠실 석촌 호수 옆 팔각정에 있다는 사실에 더 더욱 슬펐다.

연무관은 군사들의 훈련을 위하여 건립한곳으로 인조3년(1625) 남한산성을 쌓을 때 함께 지어졌다. 연무관은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높은 기단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멀리서도 그 자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건물내부 가운데 있는 대들보에는 전 후면에 용을 그렸고 측면쪽 대들보에는 봉황을 그려 넣은 것이 특이하다.

연무관을 지나 현절사로 내려가는 길에 80~100년생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 잠시 땀도 식힐 겸 쉬어가는는 해설사님의 제안에 모두동의 하고 각자 편안한 자

세에서 소나무 군락지 조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흥민자 해설사의 전언에 의하면 서울근교에서는 거의 유일 노송군락지인데 20세기 초 무분별한 벌목으로 남한산성이 황폐해지자, 남한산성 마을사람들이 자체적



으로 금림조합(벌목을 금하다)을 만들어 소나무를 심고 보호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숙연해졌다. 마침 군락지내에는 주민을 위한 운동기구도 있었는데 40대는 돼 보이는 한분이 철봉에 맨발로 거꾸로 매달려 있더니 우리 일행이 방해가 되었는지 배낭을 챙기고 비탈길을 성큼성큼 뛰어 내려가는데 운동화도 없이 맨발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해 안되는 현실을 직접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세상에는 참 별사람 다 있구나! 거기 까지가 내 느낌과 표현의 전부였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적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했던 홍익환, 윤집, 오달제 등 삼학사의 우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청나라에 강제로 끌려가 곤욕 끝에 참형을 당한 삼학사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숙종 14년(1688) 유수 이세백의 주도로 세워졌으며 후에 김상한 정온의 위패도 함께 모셨다. 죽어서도 임금을 향한 강직한 선비정신의 상징적 건물로 여겨진다.

현절사는 기가 썩 터라 기도빨이 좋아 전국의 무속인들이 많이 모여들어 화재의 위험이 있어 현재는 문을 닫아 내부를 직접 볼수는 없다고 했다.

기도빨이 좋다는 말에 양동근 교항리 노인회장님께서 대문 앞 대뜰에 올라서 신발을 벗고 큰절을 여러 번 올리시며 무언가를 빌고 계시는걸 보고 방해가 될까 우리는 먼저 내려와 정해진 식당으로 향했다.

나중에 여쭙보니 이번에 수능을 보는 손주가 있어 무탈하게 보게 해달라고 빌으셨단다. 우리의 교육열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은 우리 일행은 행궁으로 향했다.

남한산성행궁(국가사적 제480호)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하는 경우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행궁이라 한다. 남한산성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 후방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양의 더성의 궁궐을 대신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선 인조4년(1626)에 건립되었다. 실제로 인조14년(1636)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47일간 항전하였다. 이후에도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등이 여주, 이천 등의 능행길에 머물러 이용하였다.

행궁은 경복궁이나 창경궁과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그 짜임새는 임금의 거처로서 손색이 없이 되어 있었다. 삼문삼조의 법도를 갖춘 한남루와 28칸의 규모를 갖춘 내행전과 외행전 등 임금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았다.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일행을 태운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남양주의 다산유적지로 향해 달렸다.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는 대충 실학자라는 것과 경세유표와 목민심서를 지은 천재라는 것 정도 알고 있었지 남양주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다.

도착해서 첫 이미지는 축제를 준비하느라 어수선 한 분위기였다. 몽골텐트를 치고 셋트형 지붕에 초가를 입히느라 분주할 뿐 150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우리 황성문화원 탐방객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기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에 남양주 시도 정약용과 실학과 이용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퍼득 들었다. 그럼

유배지였고 모든 집필 활동을 했던 강진군에서 가만히 있을까? 어쨌거나 다행히 유적지 입장료도 없고, 해설사도 없고, 오전에 남한산성 탐방의 강행군으로 지치기도 한 회원을 위해서인지 사무국장님께서 1시간30분 동안 자율탐방 하라는 것이었다.


다산생가에 잠시 들렀다가 기념관은 스치고 문화관은 어디인지 확인도 못하고 박물관은 입장료가 4천원이라 기웃대다 포기하고 자연히 생태공원쪽의 갈대밭으로 향했다. 대부분의 회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나 보다. 생태공원은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었다. 팔당호의 풍성한 물이 맑은 하늘로 인해 쪽빛으로 보이고 하늘의 흰 구름 까지 투영 되어 장관 이었다. 때마침 목적을 알 수 없는 동력선 한척이 쪽빛 물에 투영된 흰 구름을 쪼개며 지나가는 모습에, 출입금지인 황성담 주변지역에 사는 나로서는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의 회원들과 팔당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각자의 걸음으로 예정된 시간에 버스에 올랐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을 여기는 분은 꼭 있기 마련 한분으로 인해 149분이 10여분은 족히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서야 출발 할 수 있었다.

땀을 닦아가며 찾아 헤매는 문화원 직원들이 안쓰러워 보였다.

두물머리 연발 답사 일정은 철이 지나기도 했지만 늦어진 시간으로 인해 지나오며 차창 밖으로 보는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6번 국도를 힘차게 달려 황성으로 향했다.

이번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마치며 느낀 점은 우리황성은 대표 먹거리로서 황성한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과연 먹거리와 연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상품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 고민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이고민은 나뿐만이 아니라 현장학습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느꼈을 것이다.



〈안동댐문화권 견학기행문〉

소중한 **물**의 가치를 느끼며..

한 아 름 (황성문화원 주임)

싱그러운 6월26일 초여름 <“물과 문화”가 공존하는 안동댐문화권 견학>이라는 주제로 황성문화원에서 안동을 방문하게 되었다. 100명이 넘게 참여하는 기존의 답사와는 달리 이번 안동 견학은 황성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원 가족 30여 명이 참여하여 인솔자로서 부담이 덜해 여유를 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학여행 가는 학생처럼 들뜬 마음이 되었다. 문화원 앞에서 오늘 함께 답사를 하게 될 문화원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라 안동으로 출발하였다. 이번 안동댐 견학은 한국수자원공사 황성·원주관리단 김균동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의 배려와 지원으로 이루어져 수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시간30분을 달려 안동에 도착하니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 견학하기 전 먼저 월영교 맞은편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주차장에서 내려 식당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모두 안동 간고등어와 헛제사밥 전문점들이다. 그중 한 식당에 들어가 노릇하게 잘 구워져 담백하고 고소했던 간고등어와 큰 접시에 푸짐하게 담겨있는 안동찜닭을 먹었는데 간고등어가 맛있어 다른 반찬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여행에서 빼놓으면 안되는게 먹거리인데 식사를 마시고 나오는 입구에서 안동간고등어를 구입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은 걸보니 이번 점심식사는 성공적인 듯 하다.



식당에서 나와 제일 먼저 견학한 곳은 안동물문화관이다. 식당 바로 건너편에 있고 월영교 입구 바로 옆에 있어 월영교를 건너기 전에 들러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 물문화관은 안동지역 댐들의 건설된 과정과 댐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살펴보고 있으며, 물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멋과 풍류를 느끼고 수물 이주민들의 추억과 애환을 공감할 수 있는 장소였다.

1층 제1전시실은 “댐과 생태실 ‘이라는 주제로 꾸며져 있었다. 소중한 우리의 자원인’ 물’, 그리고 댐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수자원공사와 댐 관리단이 하는 여러 가지의 일과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알기 쉽게 전시 구성되어 있다.

2층으로 올라가 만난 제2전시실은 ”안동의 물문화와 역사실“이라는 주제로 역사 속 성재정과 맹사성의 전설을 시대를 거슬러 이야기하고, 우리 선조들의 홍수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지혜와 기술을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또한

수자원에 대한 것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옛이야기와 풍경으로 그리운 고향의 향수를 느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구경할 수 있었다.

전시실 구경을 하고 전망대로 나오니 월영교를 중심으로 그 건너편까지 한눈에 보여 속이 탁 트인다. 어제 집중호우가 내린 탓에 월영교 밑으로 흐르는 낙동강 물은 흙탕물이었다.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 전경을 보았다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비가 내리기 전 긴 가뭄이 있었는지라 흙탕물이 흘러도 비가 반가운 터였다. 잠시 개여 깨끗한 파란 하늘과 월영교, 그리고 그 너머 푸른 산세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모습을 한참이나 사진에 담고 난 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니 바로 월영교(月映橋) 입구가 보인다. 입구에 있는 안내문을 읽어보니 월영교는 바닥과 난간을 목재로 만든 인도교로서 폭 3.6m, 길이 387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라고 쓰여 있다. 다리이름도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출품한 응모작 322점 중 ‘월영교(月映橋)’를 선정하였으며 유난히 달과 연관이 많은 안동지역의 유래에서 착안하였다고 한다.

월영교는 오전 일찍 내린 비로 축축이 젖어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걸다 보면 다리 한가운데에 월영정(月映亭)이 있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에서 옮겨왔다고 하는 월영정은 팔각형으로 중앙이 솟아있는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정자였다. 월영교에서의 단체사진 장소로는 여기가 딱인 듯 싶어 모두 월영정 앞에 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 열 몇장을 찍어 놓고 보니 좋은 사진이 나온 듯하다.

본격적으로 월영정으로 올라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월영정에 관한 슬픈 사연을 말씀해 주셨다.

오래 전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원이엄마와 원이아빠가 살았는데 어느 날 원이아빠가 병이 들고 원이엄마는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짜며 병이 낫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원이아빠는 미투리를 신어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슬

퍼하던 원이엄마는 미투리와 편지를 담아 원이아빠를 떠나보냈다. 원이엄마가 쓴 이 편지는 1998년 안동시 택지 조성 사업으로 이장을 하던 중 고성 이씨의 한 무덤에서 발굴되었고 그 속에는 변치 않은 원형의 미라와 함께 의복 그리고 삼과 머리카락으로 엮은 미투리 신발과 한글 편지 등이 나오는데 450년 동안 무덤 속에 들어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빛을 보게 된 이 편지는 큰 감동을 주게 되었다고 한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월영정 한쪽에 자리 잡은 액자에 쓰여 있던 『월영정가』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월영정가

김 영 진

달 오르네 달이 뜨네

저 하늘 달 오르니

이 강물 달이 뜨네

귀밑 머리 풀며

검은 머리 파뿌리 되자던

백년 가약 버리시고

먼저 가신 원이 아버지

이 몸과 어린아이

사랑없이 어이 살거나

하늘 달 따라가며

강물 달 출렁이며 우네

배 님 가시는 억 만리 길
부디 고이 가시라고
원이 엄마 삼단머리 잘라
미투리 삼아 드리오니
걸음마다 이 몸 생각하소서

꿈 속의 꿈 서로 그려
하늘 달 강물 달이
얼싸안던 사랑다리 월영교
사랑하는 이들이여
달뜨는 저녁 여기 오시어
사랑 소원 비소서
사랑 영원 이루소서

사랑 달 오르네
사랑 달 뜨네
우리 사랑 손잡고
월영교를 건너네
우리 사랑 둥개둥개
월영교가 노래 하네

월영정가를 읽어보니 원이엄마의 슬픈 사랑을 담은 월영정은 이제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비는 장소가 되었나보다. 월영정(月映亭)이라는 이름도 달빛이 흐르는 정자라는 뜻이니 <달뜨는 저녁 여기 오시어 사랑 소원 비소서>라는 구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월영교는 안동을 대표하는 야경명소라고 한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 다리위로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 아름답게 빛나고,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수쇼가 시작되면 어두운 강물에 비친 둥근 달이 물결에 일렁거리는 풍경이 낭만적이라고 한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월영정에 대해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월영정은 꼭 달뜨는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가야한다고 말하겠노라 생각해본다.

월영교 다리를 건너면 뱃나무 산책길이 펼쳐진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입구까지 길게 데크로드가 깔려 있어 사박사박 걸으며 사랑이 주제인 듯한 작은 조형물들을 구경하며 걷기에 좋다. 낙동강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니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풀숲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도 정겹다.

머리 위로 푸르게 우거진 뱃나무들을 올려다 보고 있자니 이 산책길은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때 벚꽃구경을 하면서 걸어도 좋을 것 같다.

데크로드가 끝나는 지점에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안동댐 수몰지역에 있던 전통가옥을 옮겨놓았다고 한다.

이원모와가, 이춘백초가겹방
집, 까치구멍집, 기와집과 초가
집, 돌담집이 어울려 있으며 사
대부의 전통가옥도 있어 양반
의 고장 안동의 예스러움에 친
근감이 간다. 여유를 가지고서



느긋하게 둘러보자니 이천서씨 열녀비도 한 칸에 전시되어 있어 옛날 생활문화
상을 알 수 있었다.

밑으로 내려오면 멋진 연못이 있고 연못 위쪽으로는 돌을 쌓아 올린 다리와
오랜만에 봐서 정겨운 물레방아가 있었다. 연못 안에는 작은 두 마리 용이 입에
서 물줄기를 뿜아내고 있고 수련이 활짝 피어 그 아름다운 모습이 꼭 한 폭의
한국화 같다.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은 야외전시장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연못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신다.

물레방아 옆쪽으로도 관풍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야외전시장을 구경하고 오신
분들이 잠시 앉아 땀을 식히기에 좋았다. 정자 안에서는 연못이 한눈에 내려다보
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앉으신 분들은 바로 일어나시지 못하시고 미련을 두
고 한참을 앉아 계셨다. 야외전시장을 나오는 길엔 안동이 낳은 시인이라는 이육
사 시비가 세워져 있고 원래 이곳이 입구였는지 친근한 표정의 장승 한쌍이 세워
져 있다. 안동민속박물관으로 걸어 가다보니 별관 전시실에서 <섬유 속에 살아
나다>라는 주제로 한국전통민화 전시를 하고 있었다. 전시기간을 보니 딱 일주
일인데 운이 좋게 답사일과 맞아 떨어져 섬유민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전시실로 들어가자 아름다운 민화작품이 가득하다. 횡성문화원 직원이라 하
니 민화는 서민의 소박한 꿈이 깃든 따듯한 그림이고 어질고 착한 우리 민족의
밝은 심성을 대변한다고 설명해 주신다. 십장생은 장수를 의미하고 모란은 부
귀영화를, 까치 호랑이는 좋은 소식, 연화도는 부귀다남 등 옛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제껏 민화는 종이에 그려진 민화를 많이 접했었는데 섬유 민화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여성회원분들이 선물코



너서 민화가 그려진 손수건을 사고 계신거 보니 내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것은 아닌가보다.

전시장을 나와 코너를 돌면 바로 안동민속박물관이 나온다. 안동민속박물관 본관은 현대식 건물에 초록색 전통지붕 모양을 한 건물이었다. 1992년에 시립 박물관으로 개관했고 현재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공립박물관 중 하나라고 한다.

실내 전시관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사람의 일생을 주기로 시간대 별로 사용했던 도구나 음식들, 옷, 생활에 관련된 농기구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1층은 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인 평생의례, 과거 안동인들의 생활문화, 학술과 제도, 수공업과 민간신앙 등을 연출전시하고 있었고 2층에선 옛날 관혼상제를 주로 전시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으로만 보던 여러 과거생활문화를 재연해 놓아 좋았다. 그중 아이엄마라 그런지 돌잔치를 재연해 놓은 것을 한참이나 보게 되었다. 지금과는 다르게 작은 밥상에 과일 한 쟁반과 떡 한 쟁반만 올려져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돌잡이로는 한문으로 쓰여진 서적들 사이로 작은 활도 보여 신기하기도 했다.

먹어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헛제사밥과 안동소주를 만드는 모습 등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생활상도 잘 꾸며져 있었다. 화려한 유적이거나 유물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유교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라 왠지 행동도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었다.

다만 날씨가 덥고 습해서 그런지 박물관 안에서 보존약품 냄새가 많이 나던 것이 아쉬웠다. 여유롭게 둘러보고 싶었으나 악품냄새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2층을 구경하고 내려와 보니 박물관 책방 앞에 여러 회원분들이 모여 계시고 책방 앞에서 팔고 있는 유교경전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셨다. 그 옆에 있는 기념품 판매점에도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팔고 있어 한참동안이나 구경을 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쨍쨍해 눈이 부셔 얼른 버스로 올라탔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땀을 식히며 안동댐으로 향했다.

안동댐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에 있는 다목적댐으로 낙동강 하류의 홍수조절 및 생활, 농업, 공업용수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낙동강을 막아 만든 낙동강 최초의 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揚水) 겸용 발전소를 갖춘 댐이다. 1977년 준공되었으며 안동댐의 건설로 인해 안동의 와룡면, 도산면, 예안면, 임동면 등에 걸쳐 있는 안동호가 생겨나게 되었다. 안동댐은 높이 83m, 제방길이 612m의 사력댐으로 총저수량 12억4,800만 톤이며, 9만kW 용량의 수력발전소를 설치하여 연간1억 58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안동댐에 도착하자 안동권관리단 직원분의 안내로 1층의 넓은 공간으로 들어섰다. 앞쪽 벽에 안동댐에 대한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토대로 안동댐 유역 및 위치, 안동댐 시설 개요, 안동수력 발전소가 하는 일 등 안동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다.

설명을 마친 후 지하로 한층 씩 내려가며 안동댐 설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동댐 설비는 기밀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 층 씩 가파른 계단으로 조심조심 내려가며 설명을 듣는데 내려갈수록 온도가 내려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든 설 명이 다 끝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짝에는 다들 나중에 올라가겠다고 하셔서 젊은 사람들



이 우선 먼저 타고 올라오고 어르신 분들은 천천히 올라오시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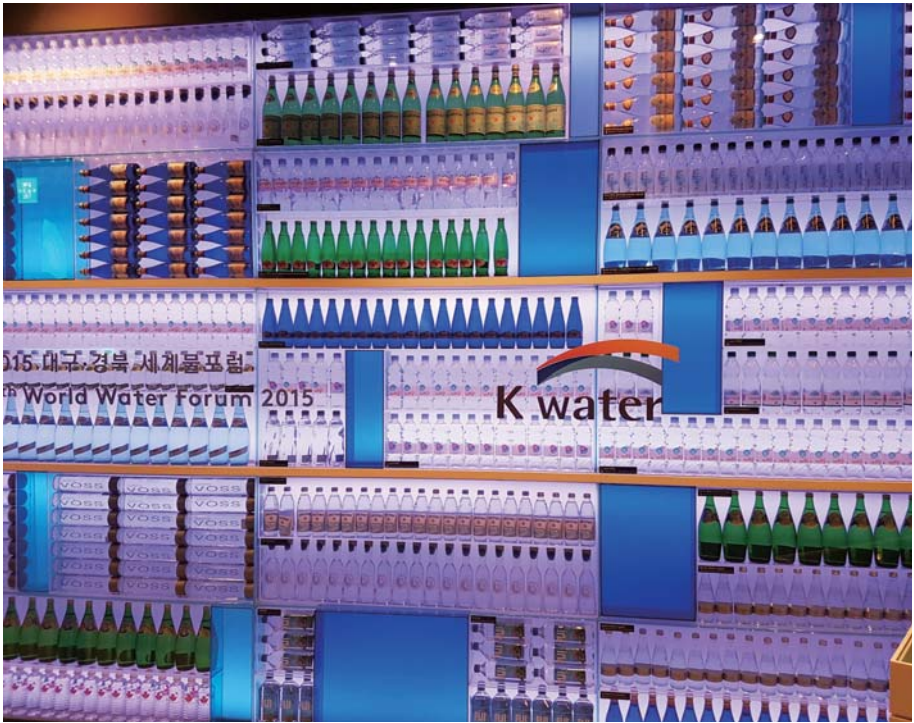
시원했던 안동댐에서의 시간을 아쉬워하며 안동댐 바로 근처에 있는 세계물포럼기념센터로 향했다. 버스를 건물입구 쪽으로 주차하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조각물도 볼 수 있었는데 안동시민들의 정과 추억이 깃든 조각공원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버스에서 내리니 입구 바로 옆에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세계물포럼기념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최된 세계물포럼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문화복합공간이다. 전시, 공연, 국제회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

세계물포럼기념센터 입구로 들어가니 직원분이 안내를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총 지상2층으로 지어졌으며 250석 규모의 강당과 강의실,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공간별로 직원분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다양한 공간이 있는 만큼 매년 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데스크에 놓여져 있던 안내책자를 들춰보니 세계물포럼 기념센터는 물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라 하여 수천전(水天殿)이라 칭하고 기념센터를 수천당, 정원을 수천원, 영가정(永嘉亭)이라는 정자가 자리한 곳을 수천루, 카페가 자리한 전망공간을 수천각이라 이름 붙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공간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안내 직원분은 센터 안의 여러 작품들을 설명해 주셨다. 그중 우리나라 물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 지수에 따르면 122개국 중 8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로 더 들어가면 세계 각국의 물병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아트월도 볼 수 있는데 각국에 특색에 맞는 물병들을 우리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눈에 익은 아는 브랜드의 물병들도 보여 웃기도 하고 특이하게 생긴 다른 나라의 물병들을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물병 디자인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알록달록 꾸며진 아트월을 보니 물병 모양이 참으로 다양하다.

하나의 물방울이 생명을 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물방울의 현상 형태를 상징하는 외부 서클영상과 물방울 속의 본질인 생명을 상징하는 내부 사계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원분들과 작품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계절변화에 따른 영상을 감상하였는데 여름에는 개구리가 튀어나

오기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게 떨어져 보는 이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내부 작품 구경이 끝나고 2층으로 올라와 밖으로 나가니 발목정도의 물높이로 채워져 있는 넓은 공간이 펼쳐지고 그 주위가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었다. 조금 더 가니 건물 벽에 물과 관련된 여러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물 부족 국가인 듯한 사진부터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까지 같은 물을 주제로 한 사진인데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강우일수가 줄어들어 가뭄이 오래가고 강우집중도는 높아서 한번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연강수량의 약 70%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봄가뭄이 심해 어제 내린 비가 참으로 반가웠으니 말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데 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중호우 때 물을 저장하였다가 비가 적게 오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봄철에 하천에 물이 부족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 댐에 저류된 물을 갈수기에 하류로 흘려보냄으로서 하천의 건천화와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동댐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강우량, 수위, 수질 등의 저수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물관리센터에서 집중 관리한다고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입, 유출량 등을 수문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류량의 시기와 규모를 정하는 등 과학적인 저수지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댐은 중요한 물관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댐 건설과 관련된 환경문제나 댐건설로 인한 보상 문제, 댐주변 지역의 발전을 저지 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건설이 부진하다.

그러나 이번에 인동댐과 세계물포럼기념센터를 답사하며 지난날의 댐들은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본래의 목적

뿐만 아니라 수변 문화공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안동댐에서는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며 세계물포럼기념센터 주변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주변 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안동권관리단 홍보책자를 보니 달빛걷기 콘서트, 수천전 콘서트, 뱃길 출사, 물사랑 가족캠프 등 댐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댐의 뛰어난 경관을 활용한 관광효과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건물을 나와 언덕을 오르면 안동 댐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이색적인 모양의 벤치와 그 뒤로 전망 좋은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카페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다 보니 옆으로 안동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얼른 핸드폰을 꺼내 분주하게 사진에 담았다.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카페 직원들은 스무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는 바람에 허둥지둥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말이다.

안동댐 견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전망 좋은 카페에서 아이스커피까지 사 주신 안동댐 이상진 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카페를 나와 횡성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오르며 오늘의 일정은 끝이 났다.

안동의 수려한 자연경관, 월영교의 고즈넉한 풍경, 안동댐 카페테리아에서 땀을 식히며 마신 시원한 커피 한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안동에 대한 이미지는 답사 전의 설레임 만큼이나 좋아져 있었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추억을 만드는 건 여행을 통해 이런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안동댐문화권 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 관리단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답사기행문을 마무리한다.

향토문화답사 기행문

강화문화권(강화도, 인천)

횡성문화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강화문화권(강화도, 인천) 비교답사를 위하여 박순업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출발하였다.



횡성문화원 이사
원 종 춘

깊어가는 가을 고운 단풍이 어느새 낙엽이 되어 바람에 사방으로 흐드러지는데 입동이 지난 출발 아침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맑고 푸른 하늘에 문화유적을 답사하기에는 최적의 날씨였다. 3시간의 여정 속에 김포를 지나 강화대교를 건너니 벌써부터 마음이 숙연해 온다. 강화도는 개성, 서울과 가까워 고려시대 대몽항쟁과 조선시대 병자호란 등의 국난기에 임시수도로 가능했고 서울의 지리적 관문이어서 병인,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체결 등의 민족수난사가 일어났던 곳으로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역사의 고비 때마다 국방상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오전 첫 답사장소 갑곶돈대는 고려가 1232년부터 1270년까지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 몽고와의 전쟁에서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로 대포 8문이 배치된 포대이며 돈대는 작은 규모의 보루를 만들고 대포를 배치하여 지키는 곳이다. 삼국시대 강화를 갑비고차(甲比古次)라 부르면서 갑곶이라 이름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고려 때 몽고군이 이곳을 건너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며 ‘우리 군사들이 갑옷만 벗어서 바다를 메워도 건너갈 수 있을텐데’ 라며 한탄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전설도 있다.



고종 3년(1866) 9월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극동함대가 6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으로 상륙하여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10월에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은 양헌수 장군의 부대에게 패하여 달아났다.

1977년에 옛터에 새로이 옛 모습을 되살려 보수복원이 이루어 졌다. 지금 돈대 안에 전시된 대포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왜적의 선박을 포격하던 것이다.

돈대는 평지에 있는 성에서 보통 가장 높은 평지에 높게 축조했으며 해안에 있는 성에서는 적들이 침입하기 쉬운 요충지에 주로 설치했다. 외부는 성곽으로 축조되어 있으나 보통 내부에는 군사시설이 들어서서 포를 쏘거나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강화평화전 망대로 이동했다.

강화평화전망대는 2006년 말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 되었던 양사면 철산리 민통선 북방지역 임야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타 지역에서는 전망하기 힘든 이북의 독특한 문화생태를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준공되어 2008년 9월 개관하였다.



지하층과 4층은 군부대 전용시설이며 1층에는 강화특산품과 북한의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토산품판매장과 식당, 통일염원소, 휴게실 등이 2층에는 고성능 망원경과 전쟁의 참상과 흔적을 볼 수 있는 전시실이 3층에는 이북의 온 산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북한 땅 전망시설과 흐린 날씨에도 영상을 통해 북한 전경 등을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시설이 되어있다.

2층에 위치한 전시실에는 강화의 국방체험과 북한의 도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통일정책을 볼 수 있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우리는 한민족, 북한으로의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길,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배경과 국내의 전쟁 발발 과정 및 그 이후 생애 잊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상황 등을 영상시설을 통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북한땅 조망실에서는 전망으로 약 2.3km 해안가를 건너 흐르는 예성강, 개성공단,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역, 김포애기봉 전망대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일산신시가지, 중립지역인 나들섬 예정지, 북한주민의 생활모습과 선전용 위장마을, 개성공단 탐, 송악산, 각종 장애물 등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의 고장 강화는 곳곳에 산재한 역사, 문화유적 등을 일일관광 테마코스로 연계하여 타지역 안보관광지와 차별화된 관광코스로 개발, 다시 오고 싶은 관광시설 개발은 물론 관광객 편리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로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음 답사지 강화서해안 도로를 따라서 펼쳐지는 갯벌과 서해풍광을 바라보며 석모도에 위치한 보문사 입구에 도착했다. 기도처로서의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서 선덕여왕 4년(635) 회정대사가 절을 창건 후 14년이 되던 해에 고씨 성을 가진 어부가 바닷가에서 불상과 나한상 22구를 그물로 낚아 올려 절의 우측석굴에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석굴에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이루어져 많은 신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절 뒤편에는 마애석불이 조각되어 있으며 그 앞에 보이는 서해풍광 또한 장관이었다. 보문사 경내에는 300여명의 승려들이 수도했을 당시 사용하였다는 큰 맷돌과 향나무, 1975년에 주조한 범종이 인상적이었다. 보문사는 우리나라의 찬란한 불교문화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어느덧 첫날 답사를 마치고 서해안 앞바다를 바라보니 석양이 지는 일몰의 저녁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답사 이튿날 아침의 시원한 바닷바람은 소나무향과 어울려 피곤함을 가시게 하는 청량제 같았다.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천년고찰, 세계문화유산을 만들고 지켜낸 천년고찰” 전등사는 한국불교 전래초기에 세워진 이래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도량이다. 단군왕검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삼랑성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에 아도화상이 진종사로 창건하고 그 후 고려 충령왕비 정화공주가 이 절에 귀한 옥등을 시주했다고 해서 등불등자를 써서 전등사로 개명한 사찰이다. 이 절의 입구에 보물 제 178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보전이 자리 잡고 있다.

대웅전 안에는 1544년 정수사에서 판각되어 옮겨진 법화경 목판 104매가 보존되고 있다. 이어서 명부전 맞은 편 왼쪽 언덕을 오르니 조선왕실의 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 터가 복원되어 있다. 강화에는 마니산에 사고를 설치하였다가 1660년 전등사 경내로 옮겨 1678년 이래 실록 및 서적을 보관하였고 그 후 정족산 사고가 복원되었다. 경내에 있는 보물 제 393호 범종은 고려 숙종 2년에

주조된 것으로 아주 특이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승군 50여명이 전투에 참가하기도한 호국불교의 사찰로 조선수비대장 양헌수 장군 승전비가 전등사 동문 입구에 세워져 있다.

전등사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천년고찰 우리민족의 정신적 불교문화유산이라고 자부하면서 오후 답사지 광성보, 초지진으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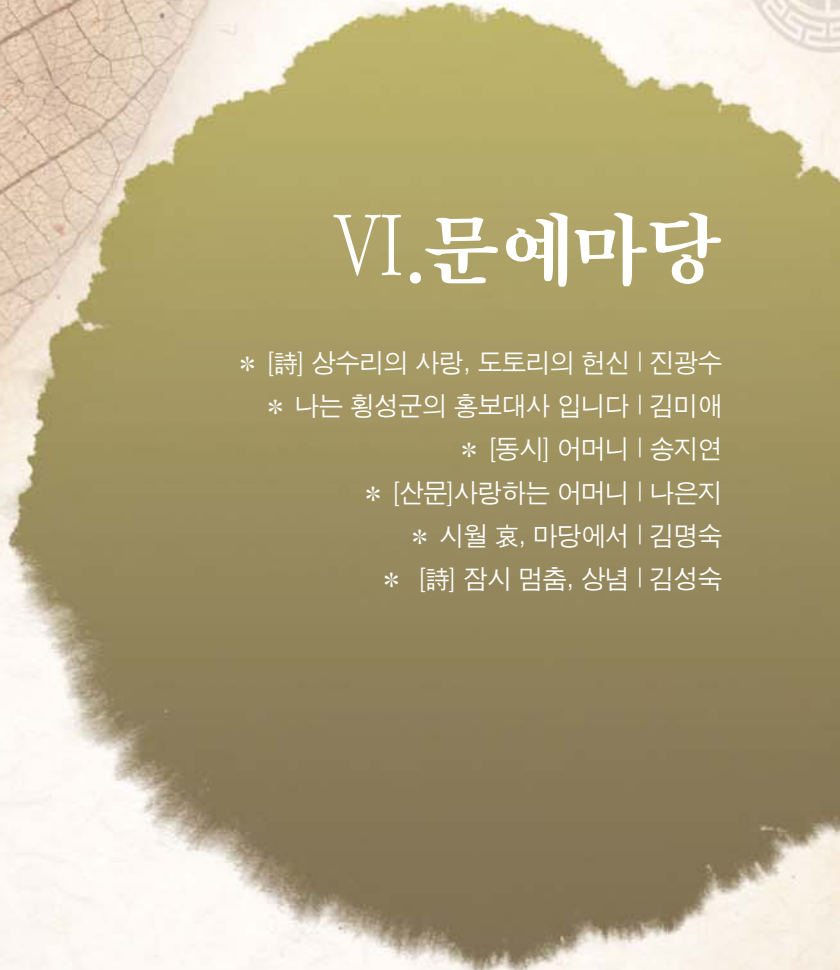

20여만평의 자연공원으로 이루어진 광성보는 고려시대의 성을 광해군 때 외성을 보수하고 효종 9년(1658)에 광성보를 설치했다.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서 1871년 4월 미국의 로저스가 통상을 표방하면서 아세아함대를 이끌고 1,230명의 병력으로 침략하였을 때 상륙부대가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한 후 광성보에 이르러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지휘관인 어재연 장군 이하 전용사가 용감하게 싸워 장렬히 순국한 곳이다.

초지진은 해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막기 위하여 조선 효종 7년(1656)에 구축한 요새다. 고종 3년(1866) 9월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침입한 프랑스(로즈) 극동함대 및 고종 8년(1871) 4월에 통상을 강요하며 내침한 미국(로저스) 아세아 함대, 고종 12년(1875) 8월 침공한 일본군함 운양호와 치열한 격전을 벌인 격전지이다. 일본군함 운양호의 침공은 고종 13년(1876)에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맺어 인천, 원산, 부산항을 개항하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도는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역사의 고비 때 마다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호국의 정신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곳으로 지붕 없는 유적 박물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1박 2일의 강화문화권 향토문화답사기행에 함께 하신 박순업 문화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VI. 문예마당

- * [詩] 상수리의 사랑, 도토리의 헌신 | 진광수
- * 나는 황성군의 홍보대사 입니다 | 김미애
 - * [동시] 어머니 | 송지연
- * [산문] 사랑하는 어머니 | 나은지
 - * 시월 哀, 마당에서 | 김명숙
- * [詩] 잠시 멈춤, 상념 | 김성숙

詩

상수리의 사랑, 도토리 의 헌신

상수리아 네가 도토리 나무인가
도토리아 네가 상수리 열매인가



진광수

상수리 우리형제
엄마 아빠 유전자 탓인지
우람하고 우람하기도 하여라
그래서 늘 사랑 받는가봐

아지랑이 춤추는 봄 오면
우리남매 옆집 친구 함께
연두색 옷 갈아입고
피꼬리 종달새 불러 봄을 노래하고

떠약별 쏟아지는 여름 오면
넓고 넓은 푸른 부채 들고
햇님이 얼굴 태울까 걱정되어
이웃 꼬마친구 머리 가려주고

세찬 비바람 심술부리면
 전초병 되어 비바람 막아주며
 바람 따라 함께 춤도 춘다오

색동옷 갈아입는 가을 오면
 다람쥐 청설모에게
 나뭇가지 흔들어 달라 숲속에 숨어
 후손번식 꿈을 꾸려하는데

욕심쟁이 다람쥐 청설모
 고맙다 인사도 없이
 용역비라 핑계대고
 암암암 배 채우고 월동준비 서두는데

아주머니 할머니들
 다람쥐에게 전화라도 받았나
 청설모에게 문자라도 받은 것인지
 자루메고 산올라
 도토리 수색에 해지는 줄도 모르시네

“나는 행성의 홍보 대사입니다”

섬강에 가면 물 흐르는 것을 자세히 본다.

작년하고 뭐가 다르단 말인가?

세월이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세월이란 물속에 잠긴



김미애

또 하나의 우주를 담고 있는 11월 하순이라.....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노트 속에 글씨체로만 멈춤을 강요당하고 있다,

몇 가지 계획 중에 하나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여행이었다.

내게 여행이란 늘 반복되는 일상을 빠져나와 조건 없이 다니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사색을 하면서 만난 자연을 동경을 하고, 식물과 눈을 맞추는 것처럼 감사의 발견이 여행이 아니던가?

그렇게 2017년도 먼 거리, 근거리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친구분들이 있어 가능했다,

지면을 통해 함께 여행에 동참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0월초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길 여행했다,

함께 간 일행들은 해설사분의 해설에 집중할 때 나는 초여름에도 다녀갔다는 혼자만의 이유로 먼저 길을 나섰다.

비는 봄 나비처럼 가볍게 날리고, 왼쪽에 꽃들은 보석을 매달고 또 하나의 우주를 촬영하고 있었다.

올 때 마다 비가오고, 올 때 마다 다른 계절을 만나, 추상에 시간을 덧입힌 목가

적이고 낭만적이라는 기분으로만 충분한 가을날의 여행이었다.

그런 여행길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쓴 적도 없었으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적은 더더욱 없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여행은, 먹을 갈고 그 먹물이 산야를 적시는 그런 여행이었다.

코스모스, 천인국, 쑥부쟁이가, 비를 받아 드리고 자작나무 등이 윤기를 저장하기 위해 맨발로 비를 환영하고 있었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일을 비는 수목화를 그려 놓고, 오고가는 가을 길목은 젖은 짚신을 신은 것처럼 더딘 걸음이다.

한참을 가다가 덜컥 겁이 났다. 앞에도 사람이 없었고, 뒤돌아 목을 길게 빼고 아랫길을 살펴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일행들은 왼쪽 길을 택하고, 나는 오른쪽 길을 택하여 혼자 걸으니 사자를 만난 듯 위협과 위기를 느끼게 한다, 잠시 멈추고 이내 뒤돌아서 걸어가는데 어느 육십 여인이 혼자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오신다.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의 마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그분은 서울에서 부부 동반으로 세집이 오셨다 하신다,

강원도 참 좋은 곳이라 하시며 내가 황성에 살고 있다 하니, 참 부러워하신다, 하긴 이제는 서울친정 식구들도, 친구들도 내게 서울로 이사 와서 살라고 예전처럼 더는 강요하지 않는다.

황성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내가 이렇게 근 20년간 꿈쩍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 자체가 황성의 자랑이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비는 여우처럼 종소리를 내듯이 딸랑 딸랑 맑고 투명하게 내린다, 그분도 황성을 조금은 아시는 것 같았다.

한우로 유명하지만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이라며 횡성의 자랑이 아닌 해석을 한다. 횡성으로 이사를 오시라고 하니, 안 그래도 횡성으로 이사를 올까 하는데 둔내는 어떠냐고 하신다.

둔내! 둔내 라

둔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계 올림픽의 역사가 생기면 사람들은 사람들이 둔내에 더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둔내에 대해서 공부해 해둘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나는 횡성언이라는 자부심으로 둔내에 대해서 몇 배의 가치창조를 가지고 설명이 아닌 홍보를 했다.

개인의 삶이 윤택한 것은 돈이 많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지구의 온난화는 계속 될 것이고 사람들은 시원한곳 음이온이 생성되고 피톤치드가 생성되어서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곳을 향하여 횡성의 둔내를 많이 찾을 것이다.

정상까지 걸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얘기 하면서 환경에 대해 얘기 할 때는 서로가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만큼 관심의 온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 분은 서로가 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을 찍자고 하셔서 오래된 인연처럼 이웃처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락국수처럼 뽀얗게 분칠하고 서있는 자작나무를 올려다 보면서 하늘 참 높구나! 저 하늘을 관통 하면 또 하나의 우주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련한 생각을 하며 왼쪽 길에서 오시는 일행 분들과의 격한 반가움에 자작나무 잎사귀를 흉내 내어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한다.

그분도 일행과 반가운 상봉을 하고 나를 인사를 시켜 주셨고, 홍보대사처럼 횡성에 대해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 주셨기에 참 고맙다.

주어진 시간을 자작나무 곁에서 하하 호호 우리들의 웃음 소리에 자작나무가 뚱뚱하게 살이 쪼을 것이다.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주니,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 사랑이다.

정상에 왔으니 그만 하산을 해야 할 시간이다.

등산할 때의 기분이 80% 이었다면, 하산할 때의 기분은 100%이다.

사람이 망가지는 건 누구나 오르려는 목표만 있기 때문이다.

come down 내려올 줄 아는 사람만이 자연을 볼 수 있으며 올라가려고만 애쓰면 주변을 볼 수 없기에 아프고 슬픈 인생을 감고 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의 예술가인 것을 모르고 시는 걸일까?

At the top down, 정상에서 머물기만 한다면 자신이 인생의 예술가로 성장을 못할 것이다, 내려올 때 더 신중하게 좌우를 살피고 배려하고 목표를 나눠주는 시선이 아름다운, 그래서 여행은 혼자 떠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복습하는 것이다.

나는 횡성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횡성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유를 보태었다.

떠나보면 알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횡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노자가 말하는 “스스로 그러함” 을 본 받는일, “스스로 그러함” 에 선약을 지키는 일이 우리 횡성군민의 자랑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횡성에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이 글을 다 쓴 후에는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아야겠다.

“횡성군민으로 같이 살아요!”하면서 말이다.

어머니

우천초등학교 4학년
송지연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친절하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먼저 주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칭찬해 주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웃어주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

사랑하는 어머니

횡성초등학교 6학년
· 나은지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는 참 이상하다. 사람을 웃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단어이다.

내 삶의 절반은 엄마로 물들어져 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나의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때때로는 천사 같은 악마 같은 엄마.

엄마와 다툼 때는 밉지만 그것은 잠시 뿐, 엄마는 미워할 수 없는, 싫어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존재이다.

처음 만나자마자 울었지만,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몰라, 앞으로 어머니께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가끔은 실수도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어머니께 나는 오늘도 감사함을 표현한다.

엄마가 명을 다해 흠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여 꽃길만 걸게 해 줄 것을 장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월 哀

김명숙 (수필가, 황성문인협회 회원)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서 말뚱하게 눈을 뜨고 창밖을 응시하다가 문득, 별 하나, 유난히 반짝이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창을 열어 한참을 감상했지.

시침이 12를 넘고, 분침이 12를 넘고, 초침이 12를 넘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라도 어디서 울리는 것처럼 문득 불행해진 마음에 눈물도 한 방울 툭 떨어뜨리고.

시월, 하고 부르고 나면 왠지 어디선가 헛헛한 바람 한 줄기 불어오고 시월, 하고 중얼거리고 나면 괜히 어디선가 떠나는 이의 부스럭 거리는 옷자락 소리가 들려.

시월, 하고 읊조리고 나서 창을 닫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불을 끄고 누웠지. 별보다 더 초롱한 정신이 말뚱구리보다 더 말뚱한 눈망울을 또록또록 굴리며, 누워보았지.

바람이 부네.

어느 산을 넘어 온 바람

선선히 부네.

후후 구름을 몰며

한차례 그것이 지나고 나면

거기

깨끗이 세수한 말간 하늘

파랗게, 파랗게 쏟아지고

어디로 가는지

은빛 날개 반짝이며 비행기 한 대 날아가고
이윽고 해지고

바람 잦고
별 뜨면
또 한번 조용히,

시. 원.

고독이 그대에게서 파생된 것이 아니듯 우울도 어디서부터 날아 온 흠씨가 아니지.
그것은 나의 젓, 내 안에서 짝트고 내 안에서 자라 내 안에서 꽃 피고 내 안에서 열매
되는 오로지 나의 것.

그러니 어느 털끝이라도 그대, 손대지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은 공간에 들어오지도
말고 내가 숨쉬는 하늘 아래서는 숨도 쉬지 마라.

시월은 온전히 하나 되는 달. 하나로서 완벽한 달. 고독에 찢려 죽어도 한이 없을 달.

바람이 창을 흔드네.
네가 내 창을 흔들 듯이.

나는 창을 닫고 걸쇠를 조여.
바람은 저 밖에서 아우성치며 나뭇잎을 떨구네.
네가 절규하며 어둠속으로 뛰어가듯.

여전히 바람은 불겠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나는.

마당에서

김명숙 (수필가, 황성문인협회 회원)

마당에 나와 별을 본다.

종일 하늘은 청명하고 새파란 그 곳에 새하얀 구름이 뭉실뭉실 피어올랐다.
하늘만 봐도 아, 가을! 하고 탄성이 흘러나온다.

별은 살갓을 태울 듯 따갑지만 그늘로 부는 바람은 제법 선선했다.

마당에 나와 별을 본다.

별은 한없이 초롱하고 바람은 선선하여 발끝이 시리다. 입추가 지나자 바람은
가을을 신고 달리기 시작했고 그 바람은 내 가슴에 먼저 와 그것을 부러놓았다.

자연보다 가슴이 가을을 먼저 품어 시나브로 우울하고 암울한 기류가 심장에
고여 온 몸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듯하다.

가을이 되면 나를 관통하는 그 증상, 통증 같기도 하고 환희 같기도 하며 슬픔
같기도 하고 절망 같기도 한 그 감정들은 자칫 나를 염세주의로 몰아 한 잔 술을
마시고 핑계 김에 생을 마감하게 하는 충동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자살 충동이나 말세의 염원은 아직 나를 완벽하게 침식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내가, 세상은 아름답고 삶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때가
더 많고 파란 하늘을 장식하는 새하얀 구름에 헛된 망상을 태워 등실등실 날려
보내는 장난기와 호기심과 소녀 같은 명랑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작가 박범신이 일갈하듯 '가을에 베이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길
러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마당에 나와 별을 본다.

고장이 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릴까 하다 창고에 넣어 둔 전기장판을 꺼내

마당에 깔고 유일한 재산인 노트북을 데리고 와 앉았다. DVD로 영화 한편을 보고 인터넷서핑을 조금 한 다음 즐겨찾기 몇 군데 방문을 하고 뉴스를 좀 본 다음 이렇게 끄적이고 있는 시간의 여유가 달콤하다.

하늘의 별을 안주 삼아, 부는 바람을 친구 삼아 곁에 앉히고 맥주도 한 모금 마시며 세상의 모든 여유를 혼자 독점한 듯 통쾌하고 자유하다.

혼자라는 건 지못 쓸쓸하기도 하지만 혼자라는 건 바람처럼 걸림이 없어 편하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며 하고 싶을 때 하는 삶을 평생 꿈꿨다. 그것은 거창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소소하고 미미하며 보잘 것 없는 것처럼도 여겨지지만 실은 거창하고 대단하며 참으로 귀한 경험이다.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 지쳐서 스스로 나가 떨어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없음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행운을 가졌으니 어쩌면 내 평생에 요즘이 가장 부자가 아닌가 한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본다.

스물아홉 동주의 별도 헤이고, 서른 둘 소월의 초혼도 부른다.

마리아의 손을 잡고 릴케의 장미 정원을 거닐기도 하고, 보들레르의 악의 꽃밭을 서성이기도 한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가는 시인의 뒷모습과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동화 작가의 웃음을 만나고, 서영이를 사랑하는 금아 선생의 다섯 송이 장미향도 음미한다.

마당에 나와 하늘의 별을 본다.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으니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다.



김명숙(수필가)

‘테마수필’ 필진

강원문인협회 회원

횡성문인협회 회원

수필집 ‘비손’ 외

잠시 멈춤

김성숙(시인, 횡성문인협회 사무국장)

낙엽은 우수수 날아 물위에 눕고
물 위론 가을별이 두둥실 반사되고
가벼운 몸으로 날아오르는 소슬바람도
나무 이랑 사이에서 사랑사랑

낙엽 두 장 남긴 겨울 문턱에
시작에서 먹은 마음 걸러 넘을지 말지
달리는 버스 창밖 풍경은 떠난 지 오래
마루 끝 햇살 멈칫대며 가을 창을 넘을지 말지

상념

김성숙(시인, 횡성문인협회 사무국장)

예상 밖은 늘 있다.
정원의 장미도 한 송이 정도는 피지 못하고
과수원의 열매도 하나 짙은 맺지 못한다.
새파란 청춘 중에도 한 명 짙은 꿈이 없다.
고향을 찾는 철새도 한 마리 짙은 떠돌이가 된다.

한 마리의 철새를 위해 우리는 등지를 만들고
한 송이의 장미를 위해 꽃병을 준비한다.
열매 하나 짙은 버려도 되는 사과밭이라면
꿈 밖에서 서성이는 청춘도 버려야한다.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생각을 부르고
때로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



김성숙(시인)

‘문학공간’ 시 등단

강원교육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횡성지부 사무국장



향토문화 지킴이 황성문화원

NATURE AND THE CULTURE LIVES

THE DISTRICT WHICH BREATHES HISTORY AND CULTURAL CENTER

AN EVENT	MORE
제6회 황성대역축제	2017/08/14
제6회 문내고령지 토다르 축제	2017/08/08
제10회 황성군민의 날	2017/06/15
우리소리 풍류시구	2017/05/15

공지사항	황성의역사
• 2017년 제10회 황성풍성학습축제	2017/08/25
• 2017 제10회 황성풍성학습축제	2017/08/09
• 2017 황성문화원 하반기 정기총회	2017/05/16
• 2017 서울대학교 박물관 개관 50주년 기념	2017/02/17
• 2017 황성문화원 하반기 정기총회	2017/02/17

황성의역사
조선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조선의 유서 깊은 문화
를 소개합니다.

자료검색



한국문화원연합회

황성문화원

문화관광 문화학교



VII. 문화원 소식

* 2017년 문화원 사업실적
* 회원명부



2017 문화사업실적

지역사회문화사업

♣ 전시회

● 2017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 (12.12 ~ 12.14)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배운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회를 가졌다.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를 1년 동안 배우고 익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유적지순례

문화원은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

으며, 금년에도 5차례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관내·외 문화유적지답사를 다녀와 우리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 1차: 2017. 4. 14.(금) 안흥중학교 32명
- 2차: 2017. 4. 15.(토) 횡성고등학교 역시동아리 18명
- 3차: 2017. 4. 20.(목) 횡성중학교 90명
- 4차: 2017. 5. 20.(토) 민족사관고등학교 150명



〈안흥중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

- 일 시 : 2017. 5. 12.(금) 08:00 ~
- 답 사 지 : 경북 영주시 문화유적지 일원
- 참가대상 및 참여인원 :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139명



〈부석사〉



〈선비촌〉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제31회 황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4.8. ~ 4.9.)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우천면 정금리 정금민속관에서 열린 제31회 황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는 삶의 유한함과 죽음의 영원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장례의식을 통해 보여주는 행사이다. 우리 조상들은 장례의식을 통해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며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었음을 알려주는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는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민속문화를 보전, 전승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생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고 있다.

애향활동전개사업

♣ 애향지 발간

● 횡성문화 발간

횡성문화원 애향지 통권 제32호로 발간되는 『2017 횡성문화』는 애향활동전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진흥을 위해 발간되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문화의



연구, 향토문화숨결,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학습문화의 고찰, 문화유산을 찾아서, 문예마당, 문화원 소식 등을 수록해 전국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및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횡성을 알리는 애향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토인물선양

● 故(고) 이연승작가 추모 동시비건립 20주년기념 어린이 글짓기 대회 (5.31.)

아동문학가로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故(고)이연승 작가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시심과 동심을 심어주며 새로운 창작 문화 활동을 창달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금년에도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동시비가 위치해 있는 횡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5월 31일 열린 글짓기 대회는 횡성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2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해 동시부문 135편중 53명, 산문부문 53편중 21명을 입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다.



시설관리유지사업

문화원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 능률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향토사료조사사업

♣ 향토사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의병과 독립운동’ 하면 횡성지역과 횡성지역민을 빼고서 말하거나 연구할 수 없다. 횡성을 ‘애국의 고장’ 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100여 명의 의병 지도자와 독립운동 주도자가 이 횡성에서 지역과 조국을 지키고 독립을 위해 선혈을 흘렸다. 이에 횡성지역 의병과 의병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자세히 남겨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향토사료 제 30집 「횡성지역 의병과 봉복사」, 향토사료 제 31집 「횡성의 3·1운동 주도인물 재조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들의 희생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기술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선열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조국과 자기 고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기 바라며 발간된 이번 향토사료집은 향토사 발굴 선양을 위해 전국문화원, 유관기관·단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여 고장과 나라사랑의 향토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향토사 연구

● 제27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 (6.22.)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가 개최된다.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관리소홀로

점차 잊혀져가는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재조명하며 전통문화의 정립과 선양을 통하여 향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에는 황성문화원이 주관하여 황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황성문화원에서는 진연호님이 “조선왕조 실록으로 살펴 본 강무장 횡성”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향토문화비교답사 (11.9 ~ 11.10)**



황성문화원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전·계승·발전 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를 해오고 있다. 금년은 황성문화원 임직원 24명이 강화문화권(인천·강화도 일원)을 방문하여 갑곶돈대, 강화전쟁박물관, 강화평화전망대, 석모도 보문사 등을 방문하여 향토문화유적들을 비교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향토사료발굴자료조사

「횡성의 의병 및 애국지사 강성순의 발자취를 찾아서」 (4.10.)

횡성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횡성관내 향토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발시켜 나가고자 한다. 금년에는 「횡성의 의병 및 애국지사 강성순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향토문화유적지인 봉복사 및 한상열·최인순의 병 유적지, 강성순 애국지사 유적지 등 우천면 일원을 답사하여 횡성지역의 애국지사를 찾아보고 과거의 아픈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어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문화학교운영사업

●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3.13.~12.14.)

횡성문화원은 매년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제18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사회적 역량을 높여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각 대회에 출연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서예교실(한 글)	한글필법	김해동	3.13. ~ 12.14.	17	12
서예교실(한 문)	한문필법	천금용	"	20	14
서예교실(문인화)	문인화필법	천금용	"	17	8
유학교양	논어해설	김인규	"	15	10
어르신풍물교실	장구,북,징,꽁꽂리 사물 및 기능	김혜숙	"	18	14
국악(판소리)	국악기락 및 창법	박양순	"	19	14
한국무용(기본무)	한국무용(기본무)사위 실기	김영아	"	17	10
가야금교실	가야금 기초기법 및 기락	이영	"	16	8
실버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	32	25
색소폰(야간)	색소폰 연주기법	김정수	"	12	7
우쿠렐레	우쿠렐레 연주기법	신은경	8.21. ~ 12.14	20	8
사물놀이(야간)	장구,북,징,꽁꽂리 사물 및 기능	송세영	"	14	6
계	12개 과목		8개월	217	136



서예(한글) 교실



서예(한문) 교실



서여(문인화) 교실



유학교양 교실



어르신풍물 교실



국악(판소리) 교실



한국무용(기본부) 교실



가야금 교실



실버에어로빅 교실



우쿠렐레 교실



사물놀이(아간)



색소폰(아간)



문화학교 개강식



문화학교 수료식

〈 제18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 제10회 황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
 -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특선3명, 입선1명
- 제7회 세종대왕한글전국휘호대회 - 노년부 은빛상, 입선2명
- 제10회 의암 류인석 전국휘호대회 - 특선3명, 차하1명, 입선3명
- 제26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 장원1명, 장려상1명
- 제17회 퇴계 이황선생 추념 전국서예대회 - 특선3명, 입선1명
- 제20회 김삿갓 문화제 전국휘호대회 - 특선1명, 입선2명
- 제3회 오산 독산성 전국휘호대회 - 입선2명
- 제27회 김생전국휘호대회 - 특선2명, 입선2명
- 제27회 강원서예대전 - 특선4명, 입선1명
- 제8회 강원서예문인화대전 - 입선1명

- 제15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 - 입선1명
- 2017 대한민국소치미술대전 - 입선
- 2017 전국미술서예대전 - 입선
- 2017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스페셜 실버부문 장려상
- 2017 강원 어르신문화 대축전 - 봉사상
-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 강원지역 오디션 라이징스타상
- 제20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 노장부 대상
-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스대회 - 실버부문 대상
- 제1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 - 실버합합부문 대상

문화사랑방운영사업

● 전통문화체험학습교실 (7.27.~8.2. / 문화사랑방)

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고장의 어린



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올해에는 부채 만들기 체험, 국악 배우기(판소리·남도민요), 부채춤 배우기, 가야금 배우기,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 떡 만들어먹기 등의 수업이 있었으며 관내 초등학교생 40여명이 1주간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9.13.)



- 일 시 : 2017. 9. 13.(수) 08:30 ~
- 답 사 지 : 경기도 광주(남한산성), 남양주, 양평 일원
- 참가대상 및 참여인원 :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140여명

황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문화유산 등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다녀오고 있다. 금년에는 경기도 광주, 남양주, 양평

일원을 답사하여 남한산성, 다산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통한 문화재현장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기타지원문화사업

- 2017년 제10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
(09.23. / 문화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횡성문화원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서예예술의 저변확대와 신진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자 「제10회 횡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예인의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9월 23일 문화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휘호대회는 일반부 51명(한글 13명, 한문 29명, 문인화 9명)과 초대작가 17명(한글 3명, 한문 13명, 문인화 1명) 포함 총 68명이 신청·참가하였으며 이중 일반부 <대상 1점, 한글부문 6점, 한문부문 13점, 문인화부문 4점>의 입상작품을 선정하여 24명의 입상자들에게 시상금과 시상품을 수여하였다.

● 2017년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5.25.)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을 개최하였다. 횡성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25일 횡성문화관에서 열린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은 총 28팀이 참가하였으며 이중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인기상 3명, 참가자상 5명>의 15팀의 입상자들에게 시상금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 전통국악예술대공연 (12.1/ 횡성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통국악예술단을 초청·공연함으로써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

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우리문화 복지사회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2017 황성군민을 위한 전통국악예술대공연”이 황성문화원의 주관 아래 12월 1일 황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영화 서편제에서 한을 넘어 애닦은 노래를 불렀던 소리꾼 오정혜의 공연을 포함하여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통국악예술대공연은 허튼가락을 시작으로 판소리(황성가, 심청가), 부채춤, 경기민요, 놀부전, 남도민요, 한국무용(탈의고백) 등 여러 장르의 예술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횡성문화 2017’ 를 마무리 하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다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는데 그 중 잘하는 사람의 것은 선택하여 따르고 잘못하는 사람의 것은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고장의 옛 발자취와 지나온 선조들의 행적을 살펴 그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 속의 삶을 재조명하고 배워서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울로 삼았으면 합니다.

횡성문화원이 반세기 동안 독립된 건물 없이 지내오다 2018년도 1월에 단독건물을 마련하고 입주할 하게 되면 횡성지역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 창달에 더욱 기여할 것이고 배우고 익히는 문화학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문화원 건립과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횡성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으니 앞으로 횡성문화는 더욱 알차고 열매 맺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원고를 보내주신 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 집필에 협조를 하신 편집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 12. 22

횡성문화 통권 제32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병근**

*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

횡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 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 30,000원

횡성문화원 ☎ 343-2271

- 편집위원장 : 이병근
- 편집위원 : 박현숙, 이영식, 원종춘, 정재영, 한상균, 현원명

2017 **횡성문화** (통권 제32호)

발행일 _ 2017.12. 29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박순업

기 획 _ 민준식

디자인 · 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횡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